碧溪詩稿

長水文化院

碧溪詩稿

長水文化院

發刊辭

고 閑雲野鶴을 벗삼아 吟風詠月하면서 安貧樂道를 즐겼다。 詩란 美的 感情의 表出이며、인간의 喜怒哀樂愛惡慾 七情을 眞善美로 醇化시키는 길잡이다。 그러므로 至高至純의 境地를 열어 전통을 이어오면서 每月 詩會 때 창작한 우수 작품과 義巖朱論介祭典文化行事의 一環으로 실시한 詩集을 發刊하기에 이르렀다。 詩句의 精選과 번역을 맡아 애써주신 晩翠 梁炳朝 회장님과 會員 諸位께 敬意를 표합니다。 끝으로 시집 발간에 物心兩面으로 성원해 주신 金祥斗 郡守님과 鄭喜澤 議長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一九九七年 十二月 日

長水文化院長 金鎭泳

祝 刊 辭

우리 고장 長水는 예로부터 선비 文化의 發源地요 祖國을 고장일 뿐 아니라 각 읍면마다 書院들이 많이 散在해 있어 賢들이 많이 배출된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九七年 文化遺産의 해를 맞이하여 〈〈論介實記〉〉 책자 발간과 이번에 우리군의 詩文과 그동안 論介祭典時 漢詩 백일장 대회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한 『한시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학인들의 회원 증가와 책자 발간은 거듭되고 있으나 한시에 관한 현대 문명을 접하여 살아가는 現時代에 와서는 극히 어려운 현실이라 봅니다。

앞으로도 한시에 대한 백일장 대회를 해마다 개최하여 더욱 발전된 시문이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책자 발간에 수고하여 주신 碧溪詩會 梁炳朝 회장님을 비롯한 시회 동호인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一九九七年 十二月 日

長水郡守 金 祥 斗

祝 刊 辭

산허리를 휘어 감고 있는 흰구름, 맑고 깨끗한 옥수가 바위에 반짝이며 구르는 계곡, 밥을 지피는 연기가 정자나무 숲 사이로 파랗게 피어오르는 마을…, 이러한 정경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장에 살고 있구나 하는 감회가 벅차게 합니다。

또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쳐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신 논개님과 목숨으로 유산을 지키고자 했던 정경옥님을 비롯해서 숱을 대무처럼 높게 솟아 있는 정절의 홍살문, 천지신명을 감동시키고 인간의 심금을 울렸던 효자비가 곳곳에 널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는 고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장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산 그리고 우리 고장을 빛내온 선조들의 맥이 살아 숨쉬고 있는 장수 문화가 그 시대의 가치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조하는 것임에도 폭 넓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조상의 얼이 담기고 입김이 서리고 손때가 묻은 향토의 숨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단편적 부분에 그쳐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왔으나 충신·효자·열부·친우들의 숭후한 사상의 표현을 기본으로 하는 한시집을 발간하게 되어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충·효·열의 자랑스런 장수, 이 곳에 평생 살아가고 있는 군민과 고향을 떠났지만 눈 앞에 항상 아름답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장수를 그리워하는 출향인 그리고 장수를 알고자 하는 뜻 있는 유지들의 가슴 속에 장수의 맥을 가꾸고 이끌어 나가주는 주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고장의 사물을 더욱 아름답고 숭고하고 위대한 것으로 표현하여 불멸성의 후광으로 길이 남기를 바라면서 벽계시회 한시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一九九七年 十二月

長水郡議會議長 鄭 喜 澤

序

碧溪詩會는 至今으로부터 十八年前 庚申年에 鄕儒들이 創立하여 四、五年이 經過하였다。나 會吟한 詩軸이 不幸히 遺失無傳되고 以後 詩會마저 休會된지 다시 續開하여 八年前 庚午 春三月부터 이에 有名無實한 詩道의 衰退를 慨嘆한 나머지 隨月隨吟한 바 때로는 國內 名勝地를 찾아 詩想을 넓히고 一年一次 白日場을 開催하여 漸次로 衰退해가는 詩風을 昂揚함으로써 全國 儒林이 呼應하게 됨은 藝鄕의 우리 고장을 爲하여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오늘의 作品이 古人의 詩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各言其志의 純粹性은 이고장 文化發展에 影響이 不少하리라 믿는다。

이어서 今春 詩會時에 庚午年부터 丁丑年까지 八年間의 詩集 刊出을 打合한 바 다행히도 費用은 長水文化院에서 負擔하기로 하고 校正과 아울러 難解의 詩句를 後進들이 容易하게 耽讀하도록 爲하여 國文飜譯을 添付하기로 하여 丁丑春正에 龍山 朴在兩 詩友에게 一部 校正을 付託하고 다시 三月末에 春坡 梁炳夏、小泉 金昌泳 兩詩友와 同伴하여 扶安에 碧隱 李寅器 詩友를 尋訪하여 校正 및 國譯의 役을 懇請한 바 三個月이 經過하여 一千五百餘首中에서 精選한 千餘首를 刊出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분의 長夏苦炎 賢勞와 書役을 맡은 鄭炳尹、韓圭容、朴洙燮과 筆耕에 李夏永、諸君賢의 勞苦에 感謝드리며、長水文化院의 特別配慮에 全會員을 代表하여 衷心으로 謝意를 表하여 마지않는다。

끝으로 더욱 꾸준히 精進하여 無窮한 詩會發展이 있기를 祈願하면서 文拙을 忘却하고 序言에 가름하는 바이다。

丁丑冬 十月 會長 南原 梁炳朝 序

碧溪詩會設立趣旨

碧溪는 長水古號也라 壤地 褊小나 自古文物이 盛行하고 節義가 卓異하야 固左湖之莫儔矣라 當此叔世하여 敎化陵夷하고 學問이 衰退하여 甚至於 綱常斁絶하니 是可歎矣라 溪陽士人十數人이 慨然乎此하여 設立碧溪詩會하여 每月 一回齊會于鄕校하여 而和之하니 同聲相應者 凡五十餘員也라 且每年 一回開催白日場 而國內文士 多數參加하여 以致盛況이라 一線陽脉이 賴此而不墜也리니 豈不矜尙哉아 惟吾會員은 益加勉勵하여 以遂敎化之萬一爲要焉이라。

孔夫子誕降二千五百十年 庚申 暮春日

清州人韓東錫 識

目次

追慕義巖殉節四百週年（一九九五） 九月 9
追慕義巖朱論介全國白日場入選作 九月 14
追慕義娘論介丙子（一九九六）九月三日（陰） 九月 24
追慕義岩朱論介 九月 37
追慕丁忠僕 四月 54
殉義吏墮淚碑 六月 63
追慕義士全海山 八月 73
詩會再續 九〇年庚午 三月 89
芳草 四月 92
霖雨 六月 99
新凉 七月 103
仲秋 八月 110
晚秋 九月 118
梁公忠孝旌閭重建詩 九月 122
丹楓 十月 135
觀光 十一月 142
雪景 十二月 149
歲暮有感 九一年（辛未）正月 160
望月 二月 168
初春 三月 177
餞春 四月 183
初夏 五月 185
瑞午 六月 193
流頭 七月 197
初秋 八月 201
秋月 九月 203
訪義岩祠

初雪
冬至
歲暮
新春
賞春
松亭會吟
碧南亭雅會
納涼
秋夕
碧溪秋景
秋菊
小春即事
碧溪雪景
歲暮有感

九二年（壬申）
十二月 268
十一月 264
十月 259
九月 257
八月 252
八月 249
七月 245
六月 239
五月 234
二月 229
正月 222
十二月 217
十一月 212
十月 207

上元
歸鴈
餞春
晚翠堂原韻
碧溪夏景
夏日即事
三伏苦炎
梅香亭雅會
碧溪雪景
立春
梅柳爭春
遊忠州湖葉韻
暮春
新綠

九三年（癸酉）
四月 349
三月 343
二月 340
二月 333
正月 326
九月 322
八月 311
七月 306
六月 302
五月 296
四月 288
三月 282
二月 277
正月 273

九四年（甲戌）

夏日即死　五月　359
夏雲多奇峯　六月　364
梅香亭雅會　七月　370
賞菊　九月　376
參拜莊陵有感　十月　381
賀金丈老益壯　十一月　390
歲暮　十二月　398
新春　九五年（乙亥）正月　406
天下同春（世界化）　二月　413
祝景德祠落成韻（裵氏始祖祠堂）　三月　417
夏至即事　四月　422
東海岸觀光　五月　429
訪龍巖書院　六月　436
初秋　七月　443
謹次松下堂原韻主人李公鏞林原州人　八月　446
碧南亭煮伏　八月　454
晚秋訪先賢遺蹟　十一月　460
挽三虛吳公治湟　九六年（丙子）正月　464
仲春　二月　474
送金小泉昌泳移居全州　三月　478
餞春　三月　486
端陽　五月　491
聽蟬　六月　495
初秋　七月　500
仲秋　八月　505
晚秋　九月　509
初雪　十月　514
歲暮　十二月　520

追慕義巖殉節四百週年 壯元

朱娘忠節慷慨悽辰 주랑의 충절 강회할 때에
怳惚靈前似看眞 황홀한 영전이 참을 꼼과 같구려
玉碎城頭三壯士 성머리 옥이 부서지니 삼장사요
花飛江上一佳人 강위에 꽃이 나르니 하나의 가인이로다
丹心救國都忘體 나라 구한 단심 내몸 모두 잊고
大義從夫不顧親 가장을 따른 큰 의리 어버이 돌아보지 못했도다
名與吾東天地久 이름이 우리동방 천지로 더부러 오래 가리
輝煌白日去尤新 휘황한 백일이 갈수록 더욱 새로우리

東谷 安鍾默

又

四百星霜到此辰 사백성상이 이때에 이르니
堂堂義氣出心眞 당당한 의기 참마음에서 나옴이로다
警水盟山作偉人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흔들림 청사에 오르고
名振槿邦傳世遠 물에 맹서 산에 맹서하여 위인이 되었구려
身投江上與誰親 근역에 떨친 이름 먼세상에 전하는데
落花巖石香猶在 강위에 던진몸 누구와 더부러 친할고
追慕年年俎豆新 꽃 떨어진 바위돌에 향기 오히려 있으니
해마다 추모하는 제사에 저두 새롭도다

晩翠 梁炳朝

次上

次上

又

歲經四百記當辰　해가 사백년을 지나간 당시를 기억하니
鳥寇來侵那失眞　섬도적 침노하니 어찌 참을 잃으리오
義蹟長輝千載史　의로운 자취 길이 천년사에 빛나고
芳名不朽萬年人　방명은 불후의 만년의 사람이로세
隱謀僞妓依巖立　거짓 기생으로 은밀이 꾀하여 바위 의지하여 섰고
樹討殲酋勸酒親　괴수 죽일 꾀 세워 술권하여 친했구려
十九花容同賊死　열아홉 꽃다운 얼굴 도적과 같이 죽어
故敎志士一心新　짐짓 지사들로 하여금 일심을 새롭게 했도다

小泉 金昌泳

次下

又

時維宣祖歲壬辰　때는 오직 선조 임진의 해에
取義捨生心率眞　의리를 취하고 생명을 버리니 마음이 참을 따랐도다
灑血城中諸壯士　성중에 피를 뿌린 모든 장사요
落花江上一佳人　강위에 떨어진 꽃은 하나의 가인이로세
同盟明國能參戰　동맹한 명나라 능히 참전하고
讐積群倭不供親　원수 쌓인 왜놈들 함께 칠 수 없음이라
萬古綱常忠與烈　만고의 강상은 충과 더불어 열이니
投身殺賊令名新　몸을 던져 도적을 죽이니 어진 이름 새롭구려

雪松 李周鎬

次下

又

逝去星霜四百辰　서거한 성상이 사백년인데
丹誠殉節出天眞　순절의 단심은 하늘이 낸은 진실이라
難防倭敵千兵馬　막기 어려운 왜적이 천병 만마인데
雪怨魁酋一女人　도적괴수에 설원한 한분의 여인이로세
近接閑山忠武伴　한산도 가까이 집하니 충무공과 동반이오
遠通汨水屈原親　멀리 멱라수와 통하니 굴원과 친하리
芳魂影幀儒林祭　꽃다운 혼이서린 영정에 유림이 제사드리니
追慕香煙滿谷新　추모의 향연 골자기 가득 서롭구려

松山 梁炳文

又

流年四百到今辰　해가 사백년 흘러 지금 때에 이르니
殉節當時大義眞　순절한 당시의 대의가 진실하도다
氣像宛如天上月　기상은 완연이 하늘위의 달 같고
精神可警世中人　정신은 가히 세인을 깨우친도다
殺身仁性千秋範　살신한 어진성정 천추의 모범이오
憂國丹心萬代親　나라걱정한 단심은 만대에 친함이로다
三節貞忠生此地　삼절의 충정이 이땅에서 나오니
碧溪書色永永新　벽계의 서색이 길이 길이 새롭고야

湖隱 金鍾敏

佳作

又 佳作

壬亂於焉四 百辰 임진의 난리 어언간 사백년이라
捨生就義一 心眞 사생취의는 일심이 참됨이로다
南江百世留 明月 남강 백세에 명월이 멈물고
靑史千秋不 朽人 청사 천추에 불후의 인물일세
佯笑誘仇登 岩石 거짓웃음으로 원수 꾀어 절석에 오르고
僞裝佳妓抱 腰親 의장한 가기 허리 안고 친했구려
楓川綠水長 流去 풍천의 푸른물 길게 흘러가니
曠絶芳名日 益新 광절절후의 방명 날로 더욱 새로워

南原市 寶節面 新汲里
菊圃 李 教成

又 佳作

追慕朱娘四 百辰 주랑의 추모 사백년이라
人人感嘆素 心眞 사람마다 감탄하니 본심이 진실함일세
晋州城上無 旋踵 진주성위에는 발굽치 돌린이 없고
矗石樓前大 膽人 촉석루앞의 대담한 사람이구려
出世殺身忠 報國 세상에 나와 살신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在家竭力孝 陪親 집에 있어 힘을 다하여 효도로 어버이 모시도다
南江七月當 時事 남강 칠월의 당시 일은
靑史千秋不 朽新 청사의 천추 씩지 않고 새로우리

南原市 東忠洞 一〇九
槐隱 金 仁錫

佳作

又

壬辰倭亂幾經辰 임진왜란 몇때나 지났는가
四百餘年感恨眞 사백여년 느낀 한이 진정이로세
矗石投身三壯士 촉석루에서 몸을 던진 삼장사오
南江殺賊一佳人 남강에서 도적 죽인 한분의 가인이로세
忠君大義千秋赫 임금에게 충성한 대의 천추에 빛나고
報國情誠萬古親 나라에 보답한 정성 만고에 친하도다
忠節朱娘誰不仰 충절의 주랑을 누가 우러보지 않으리오
精禋追慕永年新 정한 제사로 추모하여 실이 새로우리

裕堂 韓甲洙

佳作

又

抱賊投江決命辰 적을 안고 투강하여 목숨을 끊을 때에
捨生取義得忠眞 생 버리고 의 취하니 진실한 충성 인었도다
報讐籌策超當世 원수 갚을 주책은 당세에 뛰어나고
救國精神獨女人 나라 구한 정신은 홀로 여인이로다
檀祖江山無異類 단군성조의 강산에 다른 류가 없고
長鄉祠宇祭如親 장수고을 사당에 제사를 친족같이 하누나
年雖四百靈何滅 해는 비록 사백년이지만 어찌 영혼이 없으리오
烈烈芳名不朽新 열열한 방명 썩지않고 새로우리

翠松 金鎭泓

追慕義巖朱論介 壯元

緬憶東方壬亂時　멀리 동방 임진왜란 때를 생각하니
義巖巋叡智有誰知　의암의 슬기와 지혜를 누가 있어 알리오
令名亘世千秋遠　세상에 뻐친 어진 이름 천추에 멀고
志節驚人百世垂　사람을 놀라게 한 지절 백세에 드리우누나
快雪邦讐忠以誓　나라 원수 쾌히 씻을것을 충성으로써 맹서하고
幷殲夫怨烈爲期　아울러 부군 원한 죽여 정열을 기약하도다
年年祭典兼詩會　해마다 제전이요 시회 겸하니
追慕尤深歲月移　추모 더욱 깊은데 세월 옮겨 가누나

大邱市達西區松峴洞 七九八一二〇
道庵 金暻煥

又　次上

紅裙報國黑龍時　붉은 치마 임진란 때 나라에 보답하니
赫赫功勳孰不知　혁혁한 공훈 누가 알지 못하리오
矗石無言千古立　말없는 촉석루 천고에 서있고
義巖不朽萬年垂　불후의 의암 만년에 드리우는구려
靈魂一死渾如夢　한번 죽은 영혼 혼연이 꿈 같고
寃恨初伸正未期　원한을 처음 펴니 정히 기약하지 못하도다
祠宇伊今長邑在　사당집 지금 장수읍에 있으니
狂瀾暴雨豈能移　광난의 폭우인들 어찌 능히 옮기리

慶北聞慶市興德洞 三一四一五
痴石 孔錫奎

又 次上

六極龍蛇倭亂時　육극 비운의 임진란 때에
可憐壯蹟與天知　가련타 장한 사적 하늘과 더불러 아노라
三台殞命城頭碎　세별 장사 운명하니 성머리 부서지고
一朵飛花水上垂　한떨기 나는꽃 물위에 드리웠구려
欲語江樓千世屹　말하고자 하는 다락 천세에 높고
多情廟宇萬年期　다정한 사당집 만년을 기약하도다
東方士女皆揮淚　동방의 사녀 모두 눈물 뿌리니
追慕靈前歲月移　영전에 추모한 세월 옮겨 가누나

全州市完山區孝子洞 一八八一四六
濟山 張 容圭

又 次下

六載風塵大亂時　육년 풍진 큰 난리 때에
貞忠貫日萬邦知　곧은 충성 관일하니 만방이 알도다
丹心雅操千秋在　단심과 맑은 지조 천추에 높은데
青史芳名百世垂　청사에 방명이 백세에 드리우도다
深恨未成偕老願　깊은 한은 해로의 소원 이루지 못함이오
至情應約更生期　지극한 정은 응당 갱생의 시기 언약하였으리
由何蕙質能全節　어찌하여 어진자질이 능히 절개를 온전히 하였는가
規範衷誠盡是移　다 여기에 옮긴 규범과 성심이로다

長水郡 山西面 五山里
澹軒 權 熙文

次下

又

痛恨龍蛇倭亂時　통한의 임진왜란 때에
捨生救國自先知　삶을 버려 나라 구함을 스스로 먼저 알었도다
矗樓義蹟千秋赫　촉석루의 의로운 사적 천추에 빛나고
靑史芳名萬古垂　청사의 방명은 만고에 드리운구려
慘憺干戈沈白日　참담한 간과는 백일이 침침하고
僞裝歌舞殺雠期　위장한 가무는 원수 죽일것을 기대함이로세
敬虔追慕心尤極　경건한 추모심 더욱 지극한데
義廟寥寥歲月移　의암사당 고요하고 세월은 옮기누나

金堤市鳳山面南山里　心虛 金鍾珉

又

鳥夷渡海亂侵時　섬 오랑캐 바다 건너 어지러이 침노할 때
天出斯娘智畧知　하늘이 이 낭자를 내어 지략을 알었도다
抱賊投江高節立　도적을 안고 강에 던진 높은 절개 세웠고
殺身扶國大勳垂　살신하여 나라 붙든 큰공훈 드리우니
薦苓俎豆千秋潔　제전 드리는 전두 천추에 청결하고
守烈丹衷萬代期　의열 지킨 단심 만대를 기약하도다
宇宙擎魂如此壯　우주를 떠받친 충혼 이같이 장하니
令名偉蹟永無移　어진 이름 위대한 업적 길이 옮김 없으리

晩翠 梁炳朝

佳作

又

勝戰絃歌宴會時 승전을 노래한 잔치를 열때
胸藏忠烈孰能知 가슴에 갈무른 충열 누가 능히 알리오
殉身大業乾坤載 몸을 던진 대업 건곤에 실렸고
義妓芳名竹帛垂 의리의 기생이란 방명 죽백에 드리우도다
賴是生民安堵感 이를 힘 입어 생민이 안도를 느끼고
從來社稷免危期 종래의 사직 위기를 면하도다
滄桑變化雖千刼 상전벽해의 변화 비록 일천겁이라도
崇慕丹心永不移 숭모 단심 길이 옮기지 않으리

서울東大門區長安洞 三三五一五

碧溪 金 基 星

佳作

又

早失其爺母養時 早失其爺母養時 일찍 아버지 여의고 어머니가 기를 때
懲於凶叔避身知 懲於凶叔避身知 음흉한 숙부를 징계하여 회신함을 알도다
堂堂大義人皆敬 堂堂大義人皆敬 당당한 대의 사람이 다 공경하니
赫赫芳名世與垂 赫赫芳名世與垂 혁혁한 방명 세상과 더부러 드리우네
殺賊成忠當日誓 殺賊成忠當日誓 살적으로 이룬 충성 당일의 맹서요
豎碑紀績永年期 豎碑紀績永年期 기적을 새긴 비 세워 긴 해를 기약하누나
碧溪多士傾誠地 碧溪多士傾誠地 벽계의 다사 정성 기우린 땅에
崇節精祠豈有移 崇節精祠豈有移 숭절의 정한 사당 어찌 옮김 있으리

南原市阿英面城里

一城 吳 重 根

濟州道西歸浦市下貊洞
春江 姜 詰 炎

憶昔壬辰倭寇時
貞忠赫赫世人知
能扶社稷芽名振
快雪邦讐偉績垂
決死投身江上落
捨生立志亂中期
魂兮莫作千秋恨
卓節殊勳萬歲移

옛날 임진년에 왜적
이 침노할 때 생각하니
곧은 충성 혁혁하여
세인이 알도다
능히 사직을 붙잡으니
방명 떨치고
나라원수 쾌히 씻으니
큰 공적 드리우는구려
죽음을 결심 몸을
던져 강위에 떨어지니
목숨 버려 뜻세움
난리중에 기약하도다
영혼이여
천추의 한 짊지마오
높은 절개와 수훈은
만세로 옮기네

佳作

釜山沙下區槐亭四洞 五五三一八
桂菴 郭 柄 其

倭寇侵來倡獗時
捐身報國世皆知
變裝叅宴奇謀立
誘將投江義烈垂
祭典盛開生育地
詩場更設誕辰期
堂堂氣魄千秋赫
功蹟輝煌歲月移

왜적이 침노하여
창궐할 때
몸을 버려 나라에 보답
함은 세상이 다 아누나
변장하여 연회에 참석
기이한 모책 세워
왜장을 유인 강에 던져
의열을 드리우도다
제전을 생육한 땅에
성대하게 개최하고
시장을 다시 탄신의
시기에 여는구나
당당한 기백
천추에 빛나니
공적이 휘황하여
세월에 옮기는구나

佳作

佳作

又

粵在龍蛇戰亂時 지난 임진년 전란때에 있어
義娘殉節世人知 의로운 낭자의 순절 세상사람이 아누나
碧溪故處賢祠立 벽계의 옛터에 어진 사당 세우니
靑史忠篇大字垂 청사의 충신편에 큰 글자로 드리운구려
憂國殫誠無樂日 나라 걱정에 정성 다하여 즐거운 날 없고
捨生取義了芳期 목숨을 버려 의리를 취하니 꽃다운 시기 마쳤도다
南江流水滔滔裡 남강물 도도이 흐르는 속에
昭昭英魂永不移 밝고 밝은 영혼 길이 옮기지 않으리

完州郡九耳面斗峴里

晩軒 李南衡

又

壯哉抱賊落江時 장하도다 도적 안고 강에 떨어질 때에
殉國孤忠孰不知 순국한 외로운 충성 누가 알지 못하리오
卓節千秋靑史顯 천추에 높은 절개 청사에 나타나고
芳名萬古義巖垂 만고의 방명 의암에 드리웠도다
一生一死人皆有 한번 태어나 한번 죽음 사람마다 있는데
當死當生獨自期 마땅이 죽고 삶을 홀로 스스로 기약하는구려
四百星霜追慕極 사백년 성상 추모심 지극하니
年年香火永無移 해마다 향화 길이 옮김 없도다

農隱

金義植

又

晋陽城落絶望時　진주성 함락되어 절망일 때에
抱賊投江世一知　적을 안고 투강함을 세상이 일찌이 알도다
義氣衝天銀漢上　의기는 충천하여 은하수에 오르고
貞忠貫日白虹垂　정충은 관일하여 흰무지개 드리웠도다
沈澤入海何相似　굴원의 침라와 육수부 임해 어찌 서로 같다 할것이며
豫劍良椎亦不期　예양의 칼과 장량의 철퇴도 또한 기약하지 못했도다
以女復讐名萬古　여자로써 복수함이 만고에 이름나니
英靈祠宇暫無移　영령이 사당을 잠시도 옮기지 않으리

扶安邵下西面晴日里　碧隱 李寅器

又

天降朱娘國亂時　하늘이 국란때에 주탕을 내리니
殺身立節萬邦知　몸을 죽여 절개 세움 만방이 알도다
丹心盡瘁魂靈活　단심은 다 시든 혼령 살아있고
碧血流芳竹帛垂　푸른 피 꽃다움 끼쳐 죽백에 드리우누나
樹七尺碑知世紀　칠척 비 세워 세월을 알게 기록하고
建三間廟慕長期　삼간 사당 세워 길이 추모 기약하네
壯哉蕙質能殲敵　장하도다 혜초의 자질이 능히 적을 섬멸하니
史筆千秋不朽移　사관의 붓 천추에 썩지 않고 옮기도다

春坡 梁炳夏

又

可憎倭寇犯來時 가증한 왜구 범하여 올때
殺賊朱娘孰不知 도적 죽인 주랑을 누가 알지 못하리오
行蹟明明靑史著 명명한 행적 청사에 나타나고
忠魂烈烈碧波垂 열열한 충혼 푸른 물결에 드리우는구려
官民畢至羹墻見 관민이 다 이르니 생장을 보임이오
士類咸參俎豆期 선비들 다 참여한 조두 기약하는구려
矗石高樓寥落處 촉석루 높은 다락 요락한 곳에
無情歲月恨中移 무정한 세월 한 가운데 옮기누나

小泉 金昌泳

又

憶昔龍蛇板蕩時 옛날 임진년 판탕한 때를 생각하니
危巖誘賊孰能知 위험한 바위로 도적을 유인 누가 능히 알리오
爲邦大節堂堂赫 나라 위한 대절 당당이 빛나고
排日丹心歷歷垂 왜놈을 배척한 단심 역역히 드리우는구려
義振南江千載慕 남강에 떨친 의리 천재의 사모요
名傳靑史萬年期 청사에 전한 이름 만년을 기약하도다
森森松栢圍祠宇 빽빽한 솔과 잣나무 사당을 에워싸고
追慕香烟永不移 추모의 향화 길이 옮기지 않으리

淸江 朴龍德

又

殉節朱娘追慕時　順節한 주랑 추모할 때
龍蛇大亂世人知　임진년 대란 세상사람 다 아누나
將兵玉碎江山咽　장병의 옥쇄 강산이 오열하고
義女忠魂竹帛垂　의녀의 충혼 죽백에 드리웠구려
宴席僞裝懷大計　잔치자리 위장은 군계책 품었고
危巖誘敵復讎期　위험한 바위 도적을 유인 복수를 기약하도다
芳年影幀今追拜　방년의 영정 이제 따라 배례하니
萬感千思步不移　일만 느낌 일천 생각에 걸음 옮기지 못하네

翠松 金鎭泓

又

正當祭典感懷時　정히 제전에 감회 일 때를 당하니
十九芳年救國知　열아홉 꽃다운 나이에 나라 구함을 알았도다
慌惚靈前杯一獻　황홀한 영전에 한잔 술 드리고
犧牲神下淚雙垂　희생한 신도 아래 눈물 쌍으로 드리우네
從夫殉節風塵絶　부군 따라 순절하니 풍진이 끊어지고
殺賊丹心日月期　도적 죽인 단심 일월을 기약하는구려
忠且烈兮今幾歲　충렬하고 또 열함이여 이제 몇 해이던가
悠悠往跡史篇移　유유한 지난 자취 사기에 옮기도다

長水郡山西面馬下里
石菴 陸相彬

三虛吳治湟

又

龍蛇板蕩時 임진년 외적의 침노로
殉節朱娘孰不知 순절한 주랑을 누가 알지 못하리오
諸將忠魂千代鑑 여러 장졸의 충혼은 천대의 거울이오
從夫義烈萬年垂 부군 따른 의열 만년에 드리우는구려
生長長水英名播 장수에서 생장하여 꽃다움 이름 전파하고
殺賊晉州授命期 진주에서 도적 죽임 목숨을 주는 시기로다
影幀卓前鄕士拜 영정 탁자 앞에 고을 선비 배례하니
千思百感步難移 일천 생각 일백 느낌 옮기기 어렵구려

朴洙燮

遠波

又

投身殺賊穆陵時 몸을 던져 적을 죽인 선조왕 때에
節義堂堂草木知 당당한 절의는 초목도 아누나
魂遶蒼江波浪起 영혼은 창강 따라 물결이 일고
事登靑史令名垂 사적은 청사에 올라 어진 이름 드리우네
盡忠報國天心動 충성 다 하여 보국하니 천심도 움직이고
守烈從夫地下期 정열 지켜 부군 따르니 지하에 기약함이구려
休說此娘同屈子 이 주랑이 굴원과 같다 말 하지 마오
沈羅雪恨事殊移 멱라수 잠겁과 원한 씻는 일 달리 옮기도다

追慕義娘論介 (壯元) 全國白日場入選作 丙子(一九九六)九月三日

追思矗石晉陽樓　진주 촉석루를 추상하여 보니
往事寥寥水自流　지나간 일 오오한데 물만 스스로 흐르누나
富貴功名曾已忘　부귀공명은 일찍 이미 잊었으며
貞忠義烈兩全收　정충과 의열 둘 다 온전이 건우었도다
天晴戰地餘明月　하늘 개인 싸움터엔 명월만 남았는데
人去江波泛白鷗　사람가고 없는상물결엔 백구만 떳구려
槿域吾民誰不仰　무궁화강산 우리민족 누가 흠앙치 않으리
千秋青史範模悠　천추에 푸른 역사 모범이 길도다

順天市 長泉洞 七〇一四
晩堂 朴涼杜

又 (次上)

死地南江矗石樓　죽은 땅 촉석루 아래 남강인데
生長此處碧溪流　생장한 이곳엔 벽계수 흐르누나
芳名竹帛萬年去　꽃다운 이름 죽백에 만년을 가는데
纖手玉環何日收　섬섬옥수의 옥지환 어느날 거둘는지
夜夜無違明舊月　밤마다 어김없이 옛달이 밝고
朝朝有信立盟鷗　아침마다 믿음있는 맹서 갈떠기 정구려
郡民一體同參席　군민이 일체가 되어 같이 참석하니
詩會兼開仰慕悠　겸하여 시회를 열어 앙모하는 마음 길도다

長水郡 溪南面 堯田里
梅軒 朴洙妍

又
(次上)

落落高高矗石樓　落落히 높고 높은
一江萬折向東流　한줄기 강물 만번 꺾어
義巖名在人何去　의암의 이름은 있는데
忠烈祠荒恨未收　충렬사는 황폐한데
岸竹蕭蕭風滿月　한은 서두지 못했구려
蘆洲漠漠水浮鷗　얼덕 대숲 쓸쓸한데
漁夫爾亦知前事　바람 가득한 달빛이요
慷古傷今我獨悠　갈대물가 막막한데
　　갈매기만 물에 떴도다

益山市 珠峴洞 七三一四四
八峰 朴 永昌

又
(次下)

豈忘矗石被侵樓　어찌 촉석루
巖下長江萬里流　왜적 침노 잊으리오
義迸明傳青史上　의암아래 장강
忠魂不滅碧波收　만리에 흐르누나
楓川渡口鳴鳴鵲　의열의 자취 청사에
晉邑城邊恨咽鷗　밝게 전하니
追慕朱娘無遍遠　충혼은 불멸이라
每年秋九祭靈悠　벽차에 넋두리

長水郡 溪南面 華陽里
晤玄 梁 聖均

又
(次下)

朱娘誘敵下高樓　주랑이 적을 유인하여 촉석루를 내려와
強抱投身碧浪流　힘껏 끌어안고 푸른물결 흐르는데 몸을던졌구려
往昔南江忠魂咽　지난 옛날 남강은 충혼이 오열하고
至今玄海戰雲收　지금의 현해탄은 전운이 걷혔도다
義巖有蹟登臨者　의암의 있는 사적 청사에 오르는데
逝水無言睡鷗白　가는 물은 말이 없고 백구는 졸고 있구나
憂國丹心誰不仰　나라 걱정한 단심을 누가 흠앙치 않으리
寓慷壬亂感悠悠　임란에 생각 부치니 느낌이 유유이 길도다

大邱市東區 檢沙洞 一〇一三〇五
右石 郭秉鈺

又
(次下)

勝日登臨矗石樓　승한 날 촉석루에 등림하니
義娘往蹟久傳流　의랑의 옛자취 오래 전하여 흐르는구나
從夫貞烈應無敵　지아비 따르는 정렬 응당 적이 없는데
爲國丹衷浩不收　나라 위한 단충 넓어 거두지 못하누나
雄氣嚴明驚擧世　웅기가 엄하고 밝아 온 세상이 놀랬고
英靈陟降伴閒鷗　영령이 오르 내리며 한가한 백구 짝하리
堂堂毅節人皆仰　당당하고 굳센 절개 사람이 모두 흠앙하니
每歲香烟感慕悠悠　해마다 향화 연기 감모하는 마음 길도다

長水郡 溪北面 梅溪里
道山 朴喜穆

又
(佳作)

晉陽誰起此高樓 진주의 이 높은 다락을
누가 세웠는가
先烈無歸水自流 선열들은 돌아오지 않고
물만 스스로 흐르는가
驚世忠心千古在 세상을 놀라게 한 충심
천고에 남어 있고
刻體寃恨一時收 골수에 새긴 원한
일시에 거두었오
塵愁不染青山鶴 티끌 근심에 물들지 않는
청산의 학이오
義節生來碧海鷗 의로운 절개로 살아온
벽해의 갈매기일세
至今樵牧頌悠悠 지금의 나무꾼 목동도
송축이 길고 길도다
四百餘年勳與蹟 사백여년의 공훈과
사적

谷城郡 石谷面 蓮洞里
採堂 丁 性杓

又
(佳作)

追慕朱娘上矗樓 주랑을 추모하여
촉석루에 오르니
昭然懿蹟久傳流 소연한 아름다운 사적
오래 전하여 흐르는고야
堂堂節義山川感 당당한 절의
산천도 감동하고
赫赫功名竹帛收 혁혁한 공명
죽백에 거두었오
雄氣藏胸誅猛賊 웅기를 가슴에 품어
사나운 적 죽이고
英靈浮水伴盟鷗 영령이 물에 떠
맹구와 짝하리
長溪父老崇祠立 장계의 부노들
높은 사당 세우니
祭典年年敬仰悠 제전에 경앙하는 마음 길도다

長水郡 長溪面 長溪里
松下 梁 祐昌

南原市 鄕校洞 一九〇一八

雪松 李周鎬

又
(佳作)

壯士憂邦獨上樓　장사 나라 걱정하여 홀로 다락에 오르니
江山不變水空流　강산은 불변한데 물만 속절없이 흐르는구나
佳人義魄于今在　가인의 의로운 기백 지금까지 있는데
蠻蜀風塵尙未收　오랑캐의 풍진은 오히려 거두지 못하누나
四嶽靑靑棲白鶴　네 뫼뿌리 청청하여 백학이 깃드리고
平沙漠漠伴閒鷗　막막한 평사에 한가한 백구 짝하도다
回思往跡如春夢　지난 자취를 회상하니 춘몽 같으니
檻外南江客恨悠　난간 밖의 남강에 나그네 한 길도다

遠波 朴洙燮

又
(佳作)

君知矗石誘倭樓　그대 촉석루에 왜적 유인함을 아는가
四百星霜瞬息流　사백년 세월이 순식간에 흐르는나
忠武當時同志得　충무공은 당시 동지를 얻었고
屈原後日子魂收　굴원의 뒷날 외로운 혼 거두도다
山頭有意出明月　뜻있는 산머리에 명월이 솟아 오르고
江水無心浮白鷗　무심한 강물 백구만 떴구나
雖曰穆陵人物盛　비록 목릉때 인물이 성하였다 이르나
此娘惟獨感悠悠　유독 이낭자의 느낌 유유이 길도다

又
(佳作)

追思壬亂上高樓　임진왜란을 추상하여
不忍怨寃淚自流　원한을 참지 못하여
殺敵精神千計定　적을 죽일 정신
成仁勳業萬般收　인을 이룬 훈업
名登麟閣輝靑史　이름이 기린각에 올라
魂宿沙塲伴白鷗　사장에 묵은 혼령
爲國丹衷無此外　나라위한 단충
年年祭典感悠悠　해마다 제전에

長水郡 長溪面長溪里
湖隱 金鍾敏

又
(佳作)

萬古風聲矗石樓　만고의 풍성
追思往迹淚流　지난 자취를
逆鱗危勢惟餘恨　빈틀 걷잡
切齒怨心尙未收　이를 갈은
夢中令威還生鶴　꿈속의 영위는
江上飛花應伴鷗　강위에 나르는
忠魂千載義悠悠　충혼은

南原市 寶節面 沙村里
百松 姜大淑

又
(佳作)

追慕先尋蠶石樓　추모한는 마음으로 촉석루를 먼지 찾아
堪歎壬亂歲華流　견디어 임진란을 탄식하니 세월이 흘렀구려
護祠綠竹叢依舊　사당 호위한 누죽 숲 의구하고
守壘愁雲散未收　팍수 보루에 근심 구름 흐터저 거두지 못하도다
一代殉難驚世界　일대의 난리에 순절함은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千秋敵葬問江鴟　천추의 도적 무덤 강 갈매기에 묻노매라
義巖壯節誰無仰　의암의 장한 절개 누가 앙모하지 않으리오
讀者於斯感想悠　읽는 이 여기에 감상이 길도다

順天市 楮田洞 八五一一七
梅堂 李庸錫

又
(佳作)

朱娘追慕故登樓　주랑을 추모하여 짐짓 다락에 오르니
往跡昭然淚自流　소열한 지난 자취에 눈물 절로 흐르는고야
節義明傳青史上　절의는 밝게 청사위에 전하고
貞忠不滅碧波收　곧은 충성 불멸하니 벽파에 거두리라
凄凉祠閣飛黃鶴　처량한 사우에 황학은 날고
嗚咽藍江睡白鷗　오열하는 남강에 백구만 조는구나
瑞氣常含長水地　서기 항상 머금은 장수 땅에
每年秋九祭靈悠　매년 추구월 영혼의 제전 길도다

長水郡 溪南面 華陽里
春坡 梁炳夏

又
(佳作)

萬客登臨矗石樓 만객이 촉석루에 오르니
義巖忠烈水同流 의암의 충렬 물과 같이 흐르누나
滿腔怨恨誰能掃 창자에 사무친 원한 누가 능히 씻으며
半境平和孰盡收 분단의 평화는 누가 다 거두리
報國丹心千載月 나라에 보답하는 단심 천재의 달이요
人亡世遠憑何處 사람은 가고 세상 멀어 어느곳에 물어 볼고
回首南江往事悠 남강으로 머리 돌리니 지난 일 아득하도다

益山市 熊浦面 帝城里
秋軒 金炳榮

又
(佳作)

不盡風聲矗石樓 풍성이 다 하지 않은 촉석루!
巖頭抱賊落江流 바위머리에 적을 안고 흐르는 강물에 떨어졌구려
格天貞烈山川動 하늘이 낳은 정렬 산천이 동하고
爲國丹心節義收 나라 위한 단심 절의를 거두었도다
寂寞沙場惟皓月 적막한 전장터엔 오직 흰 달빛이요
茫洋波浪但鳴鷗 아득한 파랑엔 다만 갈매기만 우는구야
捨生取死誰能及 삶을 버리고 죽음을 취함 누가 능히 미치리오
香火千秋仰慕悠 향화 천추에 앙모심 길도다

農隱 金義植

又

湖雲 權 輿玉

偪飾佳人到宴樓　거짓사인으로 꾸미고
邦讐滿座酒盃流　잔치벌린 다락에 오르니
花飛江上山川泣　나라의원수 자리에가득한데
賊葬波心泡沫收　술잔이 흐르도다
萬古精忠看夜月　꽃이 강위에 나니
千秋直節問沙鷗　산천도 울고
年年此日情尤極　도적을 물결속에 장사하니
祭典誠心感慕悠　물거품만 거두누나
　　만고에 정한충성
　　밤달을 보고
　　천추에 곧은절개
　　모래갈매기에 묻노라
　　해마다 이날이면
　　정이더욱 지극하니
　　제전의 성실한 마음
　　감모 길도다

又

韓秉斗

南江之上有名樓　남강위에 유명한
忠節孤魂與世流　다락 있으니
夜夜長溪明月吊　충절과 고혼 세상과
朝朝蠭石積烟收　더불러 흐르는구려
千秋妓籍輝青史　밤마다 장계에는
十里沙場但白鷗　명월이 조문하고
惟此郡民誠一處　아침마다 촉석루에 쌓인
兼開詩會慕悠悠　연기 서치누나
　　천추의 기생호적
　　청사에 빛나고
　　십리 사장에
　　다만 백구로다
　　오직 군민의 정성이
　　일치한 곳에
　　겸하여 시회를 여니
　　사모하는 마음 길도다

小心

又

追想南江矗石樓 남강의 촉석루
朱娘忠義鏡中流 주랑의 충의 거울속에 흐르는고야
我朝汗漫嘆何及 우리조정의 한만은 탄식한들 어찌 미치며
倭賊搶攘念不收 왜적의 창양은 분함을 거두지 못하는고야
寂寞故園啼杜宇 적막한 고원에 두견이 우는데
泓渟晋水泛沙鷗 길고 넓은 진양수 모래 갈매기만 떳구려
捨生取義眞貞節 생을 버려 의리 취하니 참으로 정절이라
赫赫名聲與世悠 혁혁한 명성 세상과 더부러 길도다

小泉 金昌泳

又

晋陽矗石是名樓 진주의 촉석루가 이 유명한 다락이니
樓下長江滾滾流 다락아래 장강 곤곤이 흐르네
一去音容歸那處 한번 간 음용 어느곳으로 돌아갔오
數間祠宇妥靈收 두어간 사우에 영혼 평안히 거두는구려
層層蒼壁棲青鳥 층층 창벽엔 파랑새 깃들고
漠漠烟波下白鷗 아득한 연파에 백구만 내리는구나
殉義芳名垂竹帛 의리에 순절한 방명 죽백에 드리우니
千秋追慕感悠悠 천추에 추모하는 느낌 유유이 길도다

守軒 姜龍鳳

又

回想南江矗石樓 남강의 촉석루
朱娘殉節淚堪流 주랑의 순절 생각하니 눈물 흐르누나
城中衆宴陰謀定 성중 잔치에 참여하여 음모를 정하고
水上殲仇怨恨收 물위에 원수 죽여 원한 거두었구려
忠義堂堂垂竹帛 당당한 충의 죽백에 드리우고
英靈昭昭伴沙鷗 소소한 영령 모래 갈매기 짝하리라
壯哉蕙質遺功赫 장하도다 좋은자질이 끼친공 빛나니
祭典焚香萬歲悠 제전의 분향 만세에 길도다.

翠松 金鎭泓

又

千秋膾炙晉陽樓 천추에 회자한 진주의 촉석루
雪憤南江百世流 분을 푼 남강은 백세에 흐르누나
賊落巖盤名尚在 적이 떨어진 바위 이름은 오히려 있는데
花飛波浪恨無收 꽃이 나는 물결 한을 거두지 못하도다
堂堂節義垂青史 당당한 절의는 청사에 드리웠는데
漾漾煙波泛白鷗 양양한 연파에 백구만 떴구려
祭典焚香行一國 제전의 향화 열기 온 나라가 행하니
孤魂追慕萬年悠 외로운 혼령 추모 만년토록 길도다

草堂 鄭炳尹

又

憶昔南江矗石樓 옛날 남강 촉석루를
賊酋緊抱落江流 적의 괴수 딱 껴안고
貞忠懿蹟千秋赫 곧은 충성 아름다운 자취
節義芬名萬載收 천추에 빛나고
長水舊情迎明月 장수의 옛정 밝은 달 맞이하고
義巖深恨問白鷗 의암의 깊은 한 백구에게 묻노라
可憐蕙質輝青史 가련한 좋은 자질 청사에 빛나니
祭奠年年感慕悠 해마다 제전 삼모심 길도다

松山 梁炳文

又

丁年倭寇犯斯樓 정유년에 왜도적이
回想朱娘憤氣流 이 다락을 범하여
名與泰山千古屹 주랑을 회상하니
忠如炳日萬秋收 분한 기분 흐르네
成仁貞節登青史 이름은 태산과 더불어
殺賊丹心問白鷗 천고에 높고
追慕年年誠敬盡 충성은 빛난 해와 같아
祭儀嚴肅感悠悠 일만 가을 거두도다
인을 이룬 정절 청사에 오르는데
적을 죽인 단심 백구에게 묻노라
추모 해마다 정성 공경을 다 하니
제사 의식 엄숙하여 느낌 유유이 길도다

尹龍燮

又

盛開祝宴晉城樓　촉석루에 축하잔치 성대하게 여니
誰識朱娘血逆流　누가 주랑의 피 거슬러 흐름을 알리오
誘賊巖端千策決　적을 바위끝에 유인함은 일천계책의 결정이오
酬仇江上一生收　원수 갚은 강위에 일생을 거두었도다
貞忠烈意輝青史　정충과 열의는 청사에 빛나고
富貴功名等白鷗　부귀공명은 백구와 같구려
殉節佳人千古赫　순절한 가인 천고에 빛나니
郡民祭典萬年悠　군민의 제전 만년에 길도다

清江 朴龍德

追慕朱論介壯元

全州市孝子一洞 一八八一四六

濟山 張容圭

痛哭當年晉邑陽　통곡하도다 당년의 진주성에
日昏雲黑喊聲長　날 어둡고 구름 짐은데 함성 길었으리
千兵亂賊城中叫　일천 병졸과 어지러운 도적 성중에 지꺼리고
一朶飛花水上香　한송이 나는 꽃 물위에 향기롭구려
萬里清風吹廟域　만리청풍 사당 지역에 불어 오고
千秋皓月照靈堂　천추에 밝은 달 사당에 비치누나
東方士女皆垂淚　동방의 사녀들 다 눈물 흘리니
俎豆虔誠永不忘　정성으로 제사 드려 길이 잊지 않으리

次上

大邱東區新岩五洞 一四三一二一四

恒山 金熙圭

義巖追慕碧溪陽　의암을 추모한 벽계의 양지쳔에
祭典清秋白日長　제사 행한 맑은 가을 백일이 길도다
振烈精神千古壯　정열 떨친 정신 천고에 장하고
揚威勁節萬年香　위엄 떨친 굳은 절개 만년 향기로세
胎生朱洞名家閥　주동의 이름 난 가벌 태생으로
殉死藍江屹廟堂　남강에서 순절하니 사당집 높도다
快殺邦讐忠以誓　나라원수 쾌살을 충성으로 맹서하니
海東士女孰能忘　해동의 사녀 누가 능히 잊으리

次上

古廟蒼然德峀陽 옛사당 덕유산 양지에
悠悠往事頌聲長 아득히 지나간 일 칭송소리 길도다
遺芳史上千秋赫 역사에 끼친 방명 천추에 빛나고
薦茗靈前萬世香 영전에 드린 제물 만세에 향기롭도다
身命自謀心切切 신명을 스스로 도모하니 마음 절절하고
邦讐快殺義堂堂 나라 원수 쾌살하니 의기 당당하구려
南江水色連天碧 남강 물빛 하늘에 연하여 푸르니
報國丹忠永不忘 나라에 보답한 단충 길이 잊지 못하리

翠松 金鎭泓

次下

義靈追慕晩秋陽 의로운 영혼 추모하는 늦은 가을 볕에
降誕斯辰所感長 탄생한 이때 소감이 길도다
氣似雪松孤秀像 기개는 눈속 솔같이 외롭게 빼어난 형상이요
志如霜菊獨生香 뜻은 서리국화 같이 홀로 향기 나는구나
投身勇烈屠倭將 몸을 던진 용열 왜장을 죽였고
殉節忠魂享廟堂 순절한 충혼 사당에 제향 드리도다
爲國丹心誰不仰 나라 위한 일편단심 누가 앙모 않으리오
英名偉績永難忘 꽃다운 이름 위대한 사적 길이 잊지 못하리

濟州道西歸浦市西歸洞 三〇八一八
稻隱 姜通淵

次下

城陷倭奴踏晉陽 진주성 함락되어 왜적이 짓밟으니
魚龍嗚咽水聲長 어룡이 오열하는 물소리 길도다
樓中舞袖須臾計 다락 가운데 춤추는 소매 잠간동안의 계책이오
江上飛花永刼香 강위에 나는 꽃 영구히 향기롭도다
羽化月宮銀漢畔 월궁의 은하수 가에 학의 깃으로 화하고
登仙天帝玉京堂 신선되어 천제 옥경당에 오르도다
巍然懿蹟欽瞻慕 외연한 아름다운 사적 공경하여 첨모하니
薦享精禋永不忘 정결하게 드린 제향 길이 잊지 못하리

全州市三川洞一街 一五〇一三四
南濟 朴平林

次下

義巖祠在碧溪陽 의암의 사당이 벽계 양지에 있으니
殉國名聲與日長 순국한 명성 태양과 더불러 장구하리
朱洞生庄山益美 주동 출생한 고장 산이 더욱 아름답고
南江渡口水猶香 남강 건널목 물도 오히려 향기롭구나
薦神蘋藻豐禋俎 천신하는 찌수 깨끗한 제기에 풍족하고
叅拜官民滿講堂 참배하는 관민이 강당에 가득하도다
二十幼娘能殺賊 이십세 어린 여자 도적을 능히 죽였으니
危忠大節永難忘 위태한 충성 위대한 절개 길이 잊지 못하리

全州市南老松洞 一七四一四
清江 劉載桓

佳作

以女從軍到晋陽 여자로서 종군하여 진주에 이르러
殺身守義感懷長 몸을 죽여 의리 지켜 감회 길도다
爲邦直節還牧愛 나라 위한 곧은 절개 도리어 사랑 거두고
遺世芬名去益香 세상에 끼친 방명 갈수록 향기 더 하누나
鄕士同參追慕祭 고을 선비 추모제에 동참하고
官民共建表忠堂 관민이 같이 충절 표한 사당 건립했구려
三韓正史傳其績 삼한의 정사에 그 사적 전하니
烈烈精神永不忘 열열한 정신 길이 잊지 못하도다

錦峰 吳龍根

佳作

義巖祠屹碧溪陽 의암사 벽계의 양지에 우뚝하니
往事悠悠頌德長 지가간 일 아득하니 덕의 칭송 길구려
朱洞月登山亦潔 주동에 달이 뜨니 산 또한 조촐하고
南江花落水猶香 남강에 꽃 떨어지니 오히려 물 향기롭네
森森老柏圍靈址 삼삼한 늙은 송백 신령터를 둘러섰고
秩秩儒林會影堂 질질한 유림 영당에 모였도다
殺賊衷心眞報國 도적 죽인 충심 전정 나라에 보답하니
年年芬苑永難忘 해마다 제사드리는 분철 길이 잊지 못하리

晩翠 梁炳朝

佳作

精神烈烈似秋陽 열열한 정신 가을볕 같으니
追慕來吟感慨長 추모하여 와서 읊으니 감회 길구려
引敵投江應有恨 도적을 유인하여 강에 던지니 응당 한이 있음이오
殺身報國永垂香 몸을 죽여 보국하니 길이 향기 드리웠도다
州民讚美傳旌閣 고을 백성 찬미하여 정려각 건하고
流水增靑映影堂 유수는 푸름 더하여 영당을 비치누나
世上丈夫還愧事 세상의 장부 도리혀 부끄러운 일이라
絶倫孤節敢何忘 절륜의 고독한 절개 어찌 감히 잊으리오

永川市也史洞 二八三一二二

東園 李 震 基

佳作

追慕英靈秋晩陽 늦은 가을 볕에 영령을 추모하니
年年此日感慨長 해마다 이날 감회 길구려
偉功正是千人仰 위대한 공은 정히 일천사람 우러 보고
勁節惟能萬世香 굳은 절개는 오직 능히 만세에 향기롭도다
擧事精神心烈烈 거사한 정신은 마음이 열열하고
滿胸壯志氣堂堂 가슴에 가득찬 장한 뜻 기개 당당하도다
殉身幽魄今猶慰 순절한 몸 그윽한 넋 이제 오히려 위로하니
靑史名垂永不忘 청사에 드리운 이름 영구이 잊지 못하리

濟州道西歸浦市大浦洞 一七六〇

瀛隱 李 智 煥

佳作

憶昔倭奴腦晋陽　옛날 왜적이 진주성 함락함을 생각하니
朱娘義氣與天長　주랑의 의기 한을과 더부러 길도다
藍江活水千今咽　남강물 살아 지금도 흐느끼니
節婦純情永歲香　절부의 순정 긴 세월 향기롭도다
敵愾貞心忠烈烈　적개의 곧은 마음 충성 열열하고
世驚卓行意堂堂　세상이 놀란 높은 행적 뜻이 당당하도다
揚威賊陣綱常立　적진에 위엄 떨쳐 강상을 세움이라
矗石樓前恨不忘　촉석루 앞의 원한 잊지 못하네

大邱達西區甘三洞 성당주공아파트 210棟 505号
松亭 金善立

佳作

追慕英靈九月陽　영령을 추모하는 구월 볕에
年年行事感慷長　해마다 행한 제사 감회가 길도다
丹心智氣萬人鑑　단심과 지혜의 기질 만인의 서울이요
堅志鬪魂千歲香　굳은 의지와 투혼 천세에 향기롭도다
大義成忠眞烈烈　대의가 충성 이루니 참으로 열열하고
偉功驚世益堂堂　위대한 공 세상이 놀라니 더욱 당당하도다
投身殉節餘靑史　몸을 던져 순절함이 청사에 남으니
竹帛芳名永不忘　죽백에 오른 방명 길이 잊지 못하네

濟州道西歸浦市西烘洞 三一六一二八
椿園 金英輔

佳作

正當丁丑九秋陽　정히 정축년 구월 볕을 당하니
遥憶壬辰歲月長　멀리 임진년 생각하니 세월 길도다
擧世至今同奠酌　온 세상이 지금까지 술잔 같이 드리니
何人到此不焚香　어느 누가 여기에 이르러 분향하지 않으리오
千年不滅危巖石　천년에 위암 바위돌 없어지지 않고
百代遺傳義妓堂　백대에 의기의 사당 유전하리
又想島夷過去事　또 섬오랑캐의 과거사를 생각하니
腐心切齒永難忘　절치부심하여 영구히 잊지 못할도다

江原道東海市北坪洞七統四班
松岡 金炯佑

又

朱娘挺出碧溪陽　주랑을 벽계의 양지에 정출하니
古老相傳逸話長　옛 늙은이 서로 전한 일화 길도다
抱賊投江高節立　적을 안고 투강하여 절개 높이 세우고
從夫盡命大義遺香　부군 따라 목숨을 다하여 크게 향기 끼쳤도다
斗山堤上營神廟　두산 제위에 신묘를 경영하였고
矗石樓邊屹影堂　촉석루 가에 영당이 우뚝하도다
千秋追慕豈能忘　천추에 추모를 어찌 능히 잊으리오

湖隱 金鏞敏

又

郡民追慕九秋陽　군민이 추모한 구추의 가을 볕에
鍾出朱娘歲月長　주랑의 종출 세월 길도다
東土亂中屠賊快　동녘 땅 난리중에 도적 죽임이 쾌하고
南江水上落花香　남강위에 떨어진 꽃 향기롭도다
斗山嵽嵲巖精粹　두산의 상개는 정인의 사당이오
矗石丹靑影幀堂　촉석의 단청은 영정당이구려
日久月深思益切　일구월심 생각 더욱 간절하니
年年祭享永難忘　해마다 드리는 제향 길이 잊기 어려워라

芝汀 陸重基

又

平服從軍赴晉陽　평복으로 종군하여 진주성에 달려갔는데
陷城痛恨與天長　성이 함락된 통한 한늘과 더부러 길도다
爲君捨命千秋烈　임금을 위하여 목숨 버리니 천추에 열열하고
抱賊飛花萬世香　도적을 안고 나는 꽃 만세에 향기롭도다
義蹟輝煌垂竹帛　의로운 사적 휘황하게 죽백에 드리우고
忠魂陟降享祠堂　충혼은 사당 제향에 오르내리네
蒙恩巖畔旌閭屹　은혜 입은 바위가에 정여 우뚝하니
奠酌年年永不忘　헤마다 술잔 드림 길이 잊지 못하누나

農隱 金義植

又

慎菴 韓東錫

天出朱娘德格陽　하늘이 주랑을 덕유산
令名不滅與天長　양지 밝은 곳에 내서
殺身大節遮尤顯　어진 이름이 없어지지
殲賊危忠去益香　아니하고 하늘같이 길도다
事蹟已明梅老筆　자기몸을 죽인 큰 절개
精靈如在義祠堂　개릴수록 더욱 나타나고
龍蛇矗石當時事　왜적을 죽인 외로운
水裡千秋永不忘　충성은 갈수록 더욱 향기롭다

又

湖雲 權興玉

身出朱村死晉陽　몸은 주촌에서 나고
抱倭投水令名長　진양에서 죽으니
千秋義烈曾登史　어진 이름 길도다
一片丹心自播香　왜장 안고 물에 던져
追慕鄉人叅奠祭　천추의 의열은
褒揚當司建祠堂　일직 사기에 오르고
壬辰憮事焉能說　일편단심 스스로
歲歲精禋不敢忘　향기 희우는구려

又

南江物速　추모하는 고을사람
千秋　제사에 침사 하고
義烈曾登史　포양한 당국은
一片丹心　사당을 선립했도다
自播香　임진년 비참한 일을
倭將抱投　어찌 능히 말하리
水令名長　허마다 분향 행사
南江物速　감히 잊지 못하네
千秋　
義烈曾登史　
一片丹心　
自播香　
倭將抱投　
水令名長　

又

雪松 李周鎬

年年祭典適重陽　해마다 제전 중양이 적당한데
斗山日暮客愁長　두산에 날 저무니 객의 근심 길구려
扶植綱常天地久　상상을 부식하니 천지가 오래오
褒揚節義古今香　절의를 포양하니 고금의 향기로다
名垂竹帛千秋蹟　방명을 죽백에 드리우니 천추의 사적이요
祠建桑鄉萬世堂　사당을 고향에 세우니 만세의 사당이로세
爲國捨生誰不仰　나라위하여 생명 버림 누가 앙모 않으리
回思壬亂正難忘　임진왜란을 회상하니 정히 잊기 어렵네

又

春坡 梁炳夏

義娘誘賊晋城陽　의랑이 도적을 진주성 양현에 유인하여
抱賊投江逝水長　적을 안고 투강하니 가는 물 길구려
矗石樓埃嘆壯士　촉석루머에 장사를 탄식하는데
碧溪桑梓滿清香　벽계의 상재 맑은 향기 가득하도다
雲收戰地餘明月　구름 거친 전쟁터엔 명월만 남고
人去長鄉奉祀堂　사람 간 장수고을 사당만 받드네
爲國捨生千古烈　나라 위한 목숨 버림 천고에 열열하니
年年祭奠不相忘　해마다 제사 드림 서로 잊지 않누나

又

亂世能扶一線陽 난세에 능히 일선의 양기 붙잡으니
當年就義與天長 당년의 취의 한결과 더부러 길도다
丹心雅操星辰煥 단심과 맑은 지조 성진같이 빛나고
毅烈羊容宇宙香 굳센 열기 예쁜 용모 우주에 향기롭구려
業蹟揄揚千載史 업적은 천년사기에 들처 냈고
廟祠燦爛數間堂 사당집 찬란한 두어간 집일세
郡民享祀誇鄉產 군민의 향사 고을 출산 자랑하니
卓節芳名永不忘 탁절과 방명을 영구히 잊지 못하리

任實郡嶪樹面大井里

春坡 李起郁

又

女傑之中一太陽 여걸 가운데 한 태양으로
從夫殉國兩兼長 남편 따라 순국하니 둘로 장점을 겸하였도다
誘招賊將身當餌 적장을 유인하여 몸으로 낚시밥을 당하고
籠絡魁酋舌吐香 괴수를 농락함에 혀로 향기를 토했도다
節比松筠威凜凜 절개는 송균에 견주니 외엄이 늠름하고
義高山嶽氣堂堂 의리는 산악에 높으니 기개가 당당하도다
譽聲史冊俱無盡 기리는 소리와 사기책이 한가지로 다함 없으니
忠烈千秋豈可忘 충과 열을 천추에 어찌 가히 잊으리

澹軒 權熙文

又

朱娘鍾出碧溪陽　주랑이 벽계양에 종출하여
憂國忠心日夜長　나라 석정 충심 날과 밤으로 길도다
百世遺芳能殺賊　백세에 끼친 방명 능히 도적을 죽였으니
一身化烈落花香　한몸이 열로 화하여 떨어진 꽃 향기일세
東西南北爭叅祀　동서남북에서 다투어 참사하고
春夏秋冬護廟堂　춘하추동 사당집 보호하니
追慕而今尤感慨　추모의 생각 지금에 더욱 감개하니
壬辰年史正難忘　임진년 사기 정히 잊지 어렵도다

守軒 姜龍鳳

又

天生義烈碧溪陽　하늘이 의열을 벽계의 양에 내니
高節風聲百世長　높은 절개 풍성은 백세에 장구하도다
報國丹心滄海月　보국의 붉은 맘 창해의 달빛이오
殺讐毅魄海東香　원수를 죽인 굳센 혼백 해동의 향기로세
回思往跡爭追慕　왕적을 회상하여 다투어 추모하니
永慰英靈建廟堂　영령을 길이 위로하여 사당 건립하도다
蕭瑟空汀巖獨在　소슬한 빈 물가 바위 홀로 남었으니
登臨感慨不堪忘　등림한 감개를 견디어 잊지 못하오

百松 姜大淑

又

追慕雲屯九月陽 추모하는 사람 구원양에 운집하니
當年回想感懷長 당년을 회상하니 감회 길도다
爲邦捨命千秋赫 나라 위하여 버린 목숨 천추에 빛나고
抱賊飛花一朶香 적을 안고 나는 꽃 한송이 향기로구려
毛谷讐身眠地獄 모곡 원수 몸은 지옥에서 잠자고
朱娘魂魄上天堂 주랑의 혼백은 천당으로 오르도다
可憐忠節年年祭 가련한 충절 해마다 제사하니
如在英靈永不忘 있는듯 한 영령 길이 잊지 못하리

草堂 鄭炳尹

又

永垂精彩碧溪陽 정채를 길이 벽계양에 드리우니
義廟庭前歲月長 의암사당앞에 세월이 길도다
殉國成仁輝史策 순국하여 이룬 인은 사기책에 빛나고
屠倭樹節漲遺香 왜적을 죽여 세운 절개 끼친 향기 넘치네
郡民俎豆歸祠宇 군민의 제향에 사당으로 돌아오고
天帝恩情上玉堂 목황상제의 은정으로 옥당으로 오르리
世世年年追慕切 세세년년 추모심 간절하니
千秋懿蹟正難忘 천추에 아름다운 사적 정히 잊기 어렵도다

顧巖 李成熙

又

三南 梁錫鎬

顯忠一線永扶陽　충성 나타낸 일선이 길이 양기를 붙잡아
殺賊驚人仰慕長　왜적을 죽여 사람을 놀래니 앙모심 길도다
百代丹心稀世烈　백대의 붉은 마음 세상에 드문 열이요
千秋義蹟尚今香　천추에 의로운 사적 상금까지 향기로세
氷魂皎皎凌霜月　얼음 혼백 교교하여 서리 능가하는 달이요
穀魄凄凄享廟堂　굳센 넋 처처한데 사당에 제향 드리네
十九芳齡眞可惜　십구세 꽃다운 나이 진정 가석하여
詩歌頌德不堪忘　시가로 송덕하여 결딘어 잊지 못하누나

又

道山 朴喜穆

義巖祠屹碧溪陽　의암사당 벽시양에 우뚝한데
閱歷滄桑歲月長　상전벽해 치루어 오니 세월 길었오
駿奔卓上藻蘋香　달려온 탁자위에 마름 제수 향기롭도다
出入門前威貌肅　출입한 문앞에 위모 엄숙하고
千秋月照朱村屋　천추의 달 주천 가옥에 비치고
萬里風來矗石堂　만리 바람 촉석루 당에 불어오네
祭奠年年詩會設　제향에 해마다 시회를 개설하니
崇崇節義正難忘　높고 높은 절의를 정히 잊기 어렵구려

又

義巖祠祭九月陽 의암사 구월 양에 제사 행하니
爲國丹誠義氣長 나라위한 단성 의기 길도다
殉節芳名千秋赫 순절한 방명 천추에 빛나고
貞忠懿蹟萬年香 정충과 아름다운 사적 만년의 향기로세
島夷侵土無完壁 섬오랑캐 강토를 침범 완전한 성벽 없었는데
兒女屠倭有廟堂 아녀자로 왜장 죽여 사당집 있도다
矗石樓存波不渴 촉석루 있고 남강 물결 마르지 않으니
壬辰慘事永難忘 임진년 참사 길이 잊기 어려워

松山 梁炳文

又

義巖祠在斗山陽 의암사당이 두산 양지에 있으니
松栢森森樹影長 송백 빽빽하여 나무 그림자 길구려
朱洞楓川流水潔 주동 추천에 흐르는 물 조촐하고
南江矗石落花香 남강 촉석에 떨어진 꽃 향기롭도다
爲邦殉節登靑史 나라 위한 순절 푸른 사기에 올랐고
捨命丹忠享畫堂 목숨 버린 단충 단청 사당에 제향하네
以女從軍成大事 여자로써 종군하여 큰일 성사하니
殺讐報國正難忘 원수 죽여 보국한 일 정히 잊기 어려워

剛泉 柳斗烈

又

回思壬亂九秋陽　임진년 난리 구추양에 회상하니
殉節佳人義氣長　순절한 가인 의기 길도다
爲國捨生千世赫　나라위한 목숨 버림 천세에 빛나고
投江殺賊萬年香　강물에 던져 왜적 죽임 만년의 향기로세
靈魂寂寂登仙界　적적한 영혼 신선세계에 오르고
祭典彬彬建祠堂　빈빈한 제전 제사하는 사당 세우도다
遺蹟生生青史錄　끼친 사적 생생하게 청사에 기록하니
名聲膾炙永無忘　회자하는 명성 길이 잊을 수 없구려

清江 朴龍德

又

破竹三南又晉陽　삼남을 대쪽 쪼개듯 하고 또 진주성이라
島夷猖獗七年長　섬오랑캐 창궐이 칠년의 긴 세월이구려
巖端抱賊雙環結　바위끝에 왜적 안으니 쌍가락지 맺듯 짓고
波上飛花一朶香　물결위에 나는 꽃 한떨기 향기로다
行祀今同忠武廟　제사 행함은 이제 충무공 사당과 같으니
成仁何讓屈原堂　인을 이룸 어찌 굴원의 사당에 양보하리오
年年是月鄉民日　해마다 이달이 군민의 날인데
追慕精神永不忘　추모의 정신 영세 불망이로세

遠波 朴洙燮

又

追想龍蛇蠢石陽　임란때 촉석루 미루어 생각하니
朱娘慟智感慷長　주랑의 뛰어난 지혜 느낀 생각 많구나
義名亘世千秋赫　의로운 이름 세상에 걸쳐 천추에 빛나고
忠節驚人百代香　충절은 사람을 놀라게 하여 백대에 향기로워
水咽南江思烈女　물은 남강 열녀를 생각해서 목메어 울고
月明斗谷照靈堂　달은 두곡의 영당을 비추어 밝도다
可憐蔥質能殲敵　장하다 어린 몸으로 능히 강적을 죽이니
永歲流芳孰可忘　오랜 세월 꽃다운 이름 뉘라서 잊으리오

小泉 金昌泳

追慕丁忠僕

芝汀 陸重基

遡風一上碧溪城　바람 거슬러 벽계성에 한번 올라
回想壬辰惹恨情　임진년 회상하니 한탄의 심정 이끈구나
灑落黌堂依舊態　쇄락한 서당 옛 태도 의지하고
巍然聖廟保原營　외연한 성인 사당 원래 경영 보호했네
千軍不畏誠心篤　일천군사 두렵지 않음은 성심이 돈독하고
萬死深盟立志明　만번 죽길로 깊은 맹서 뜻 세움 밝히었구려
嗟嘆當年忠烈事　당년의 충열 슬퍼 탄식하노니
能令敢子感慷清　능히 도적새끼로 하여금 감회를 맑게 하도다

又

湖隱 金鍾敏

往昔斯翁出此城　지난 옛날 이 늙은이 이성에서 출생하니
後人仰慕是衷情　후인의 앙모심은 이 충정 때문일세
堂堂節義千秋屹　당당한 절의는 천추에 높고
烈烈忠心萬古營　열열한 충심은 만고를 경영하였네
北斗星柄乘夜照　북두별 자루 밤을 타 비추고
八公山月入墟明　팔공산 달 옛터에 비추어 밝도다
精靈陟降臨如在　정령 오르 내림이 있는듯 다달으니
奠幣香煙永世清　전폐 분향이 긴 세상 맑으리

又

匹夫壯心勝千城 — 필부의 장한 뜻 간성보다 낫도다
大義昭然孰奪情 — 대의가 소연하니 누가 그 심정 빼앗을고
扞格倭讐還逐逐 — 왜적 원수 대항하여 도리혀 물리치고
獨操鈐鍵自營營 — 홀로 빗장 열쇠 잡어 스스로 경영하도다
彬彬詩社三絶 — 빈빈한 시사는 삼절의 절개 자랑하는데
屹屹忠碑四明 — 높고 높은 충성의 비 사방에 솟아 밝구려
護聖千秋宮益肅 — 호성한 천추의 교궁 더욱 엄숙하니
丁公心事萬年清 — 정공의 심사 만년토록 맑으리

農隱 金義植

又

天使斯人守此城 — 하늘이 이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을 지키게 하니
杏壇陰下化仁情 — 행단 그늘 아래 어짐에 감화한 정일세
胸藏畫夜尊王事 — 가슴에 주야로 왕사 걸일 것을 갈무었고
心滿春秋護聖營 — 마음에 가득한 춘추대의 호성을 경영했구려
錦水長流琴曲奏 — 금강수 길게 흘러 거문고 곡조 타는데
冠山增彩瑞光明 — 관산이 광채를 더하니 서광이 밝음이여
校宮庭外巍巍石 — 교궁 뜰밖의 외외한 비석
不朽芳名與世清 — 불후의 방명 세상과 더부러 맑도다

晩翠 梁炳朝

又

碧隱 李寅器

感嘆獨自守孤城　독자 외로운 성 지킴을 감탄한 것은
火裏投身護聖情　불속에 몸 던져 성인을 보호한 정이라네
烈烈貞忠存殿宇　열열한 곧은 충정 대성전 상우 보존하고
堂堂大義退倭營　당당한 대의는 왜구의 군영 물리쳤구려
三千里內倫綱活　삼천리안에 삼강 오륜 살아나고
四百年間道學明　사백년간 도학이 밝도다
門外苔碑銘偉蹟　문밖의 이끼낀 비에 위대한 사적 새겼으니
丁公卓節萬邦清　정공의 높은 절개 만방에 밝으리로다

又

春坡 梁炳夏

天降丁公守此城　하늘이 정공을 탄생시켜 이성을 지키게 하였고
追思護聖豈忘情　호성함을 추상하니 어찌 그정을 잊으리오
長嘆禍免倭讐亂　왜놈 원수 난리에 화 면함을 길이 탄식하노니
永得名登國寶營　이름이 국보의 경영에 올음을 영구히 얻었음이여
政府保存文化發　정부가 보존하니 문화가 발달하고
倫綱振動士林明　삼강 오륜 진동하니 사림이 밝구려
斯人忠義常含閣　이사람 충의 항상 비각이 머금으니
春節年年祭禮清　봄철 제사 예의 맑도다

又

島夷猖獗犯斯城 섬 오랑캐 창궐하여 이 성을 침범하니
不避兵戈護聖情 칼과 창을 피하지 않고 호성한 정일세
抗義毋心如白虹貫日 도적에 항거한 단심 백홍이 관일하고
投身炎火賊收營 불속에 몸을 던져 도적이 진영 거둔 구려
千秋氣節能天感 천추에 높은 절개 하늘도 능히 감동하고
一片忠誠永世明 한 조각 충성 긴 세상에 밝음이여
多士伊今追慕極 지금에 다사들의 추모 지극하니
遺風餘韻碧溪清 끼친 풍도 남은 운치 벽계가 맑도다

守軒 姜龍鳳

又

倭焚鄉枝碧溪城 倭적이 향교와 벽계성 불 사르는데
護聖丁翁倍有情 호성한 정공 배로 정이 있음일세
忠以弔侵能保廟 충성으로써 침범 물리쳐 능히 사당 보전하고
敵知悔改亦收營 도적도 회개할줄 알아 진영 철수 하였네
七包大殿荒凉古 칠포집 대성전 황량한 옛모습이오
三尺銘碑去益明 삼척 새긴 비 갈수록 밝구려
擧郡年年追慕祭 온 고을 해마다 추모의 제사 행하니
千秋此域禮尤清 천추에 이지역 예의 더욱 밝도다

小泉 金昌泳

又

丁公心志固如城　정공의 심지 굳음이 성 같으니
感嘆單身護聖情　삼단함은 단신으로 호성한 정일세
烈烈深誠投火亂　열열한 깊은 정성 불난리에 투신하고
堂堂直節傲霜營　당당한 직절은 오랑캐 진영 물리쳤네
于今崇德令人敬　지금까지 높은 덕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遺世芳名使與明　세상에 끼친 방명 해와 더불어 밝구려
以僕能成鄕大業　교복으로 능히 고을 큰사업 이루었으니
年年致祭禮常清　해마다 제사드린 예의 항상 맑도다

錦峰 吳龍根

又

大成殿屹碧溪城　대성전이 벽계성에 우뚝하니
護衛丹誠豈忘情　호위한 붉은 정성 어찌 잊으리오
倭賊來侵千歲恨　왜적이 와 침범함은 천세의 한이오
單身抗拒萬年營　단신으로 항거하니 만년의 경영일세
貞忠烈烈江山碧　열열한 정충은 강산이 푸르고
大義堂堂日月明　당당한 대의는 일월이 밝구려
膾炙名聲誰不仰　회자하는 명성을 누가 앙모하지 않으리
香煙世世祭儀清　대대로 분향한 제사 예의 맑도다

草堂 鄭炳尹

又

聖殿巍然屹碧城 대성전 외연하게 벽계성에 우뚝하니
亂中護聖感嘆情 난중에 호성함에 감탄한 정일세
倭兵侵犯千秋敵 왜병의 침범은 천추의 도적인데
保廟丹衷萬世營 사당 보호한 단충은 만세를 경영하였는데
凜凜威風霜雪冷 늠름한 위풍은 상설이 차거운데
堂堂氣節日星明 당당한 기절은 날과 별이 밝구려
順天稟性儒林鑑 천리를 순종한 품성 유림의 거울이라
自古東方道義清 자고로 동방이 도의가 맑도다

翠松 金鎭泓

又

護聖忠碑屹此城 호성한 충복비 이성에 우뚝하니
山川靈氣總多情 산천의 영기 모두 다정하누나
追思大義傳青史 대의를 추사하니 청사에 전하고
仰慕遺風退賊營 유풍을 앙모하니 적의 진영 물리쳤도다
保廟丹心千古赫 사당 보호한 단심 천고에 빛나고
成仁懿蹟萬秋明 인을 이룬 아름다운 사적 일만가을 밝구려
郡民會合眞誠極 군민이 회합한 진성이 지극하니
每歲春三獻幣清 해마다 춘삼월 헌폐 맑도다

道山 朴喜穆

又

曾有斯人守此城　일직이 이사람 있어 이성을 지켰으니
四方多士仰瞻情　사방의 다사 앙첨하는 정일세
曾垂竹帛貞忠蹟　일직이 죽백 청사에 정충의 사적 드리웠고
自致仁聲大義營　스스로 어진 명성 대의 진영을 이루었다
保廟精神來世鑑　대성전 안보한 정신은 오는 세상 거울이오
斥倭氣慨與天明　왜적 물리친 기개 하늘과 더부러 밝도다
悠悠往事憑誰問　아득한 왕사를 누구에게 물을고
壯也丹心萬古清　장하도다 단심 만고에 맑음이여

梅山 金鎭泳

又

壬辰亂禍陷鄕城　임진의 난화 고을성을 함락하는데
護聖丁公感慨情　호성한 정공 감개한 정일세
直節能祛宮火厄　직절은 능히 고궁의 화액을 제거했고
丹心可退島夷營　단심은 가히 섬오랑캐 진영 물리쳤네
堂堂大義三綱重　당당한 대의는 삼강이 중하고
烈烈貞忠百歲明　열열한 정충 백세에 밝구려
身掩神門成美德　몸으로 신문을 끼리어 미덕을 이루니
碧溪郡誌一名清　벽계군지에 한 이름 말도다

顧巖 李成熙

又

倭寇到處不全城　　왜구 도처에 온전한 성 없는데
獨有長鄕護聖情　　홀로 장수고을 호정한 정이 있음이여
貴族爭先千里趨　　귀족은 앞 다투어 천리에 도망치고
惟公抗拒大謀營　　오직 공이 항거하여 큰 모책 경영하도다
歲寒始見松筠翠　　세한에 비로소 송죽 푸름을 보고
國亂終知節義明　　국란에 마침내 절의 밝음을 아는구려
忠字碑前誰不仰　　충자비 앞에 누가 앙모하지 않으리
芳名萬古一淸淸　　방명이 만고에 한결 밝고 밝도다

遠波 朴洙燮

又 小心 韓秉斗

丁公曾誕碧溪城　정공이 일직이 벽계성에 탄생하여
護聖忠心萬古情　호성한 충심 만고의 정일세
名振四方誰不仰　사방에 떨친 이름 누가 앙모하지 않으리오
可嘆大義正分明　가히 탄식하니 대의 정히 분명하구려

又 清江 朴龍德

丁公曾出碧溪城　정공이 일직 벽계성에 출생하니
護聖精神昭昭明　호성정신 소소하게 밝도다
當世貞忠驚耳目　당세 정충이 이목을 놀라게 하니
千秋懿蹟感心情　천추에 아름다운 사적 심정이 감동되네

殉義吏墮淚碑

碧溪故郡此人生　벽계 고군에 이사람이 나와서
趙倅當年大義成　조군수 당년에 대의를 이루었도다
行次隘途林密密　행차한는 좁은 길에는 숲이 빽빽하고
溺殊深沼水清清　빠져 죽은 깊은 소에는 물이 맑고 맑도다
於是最怨鈍驪步　이에 둔한 나귀의 걸음이 가장 원망스럽고
其日可憎鷩雉聲　그날 놀란 꿩소리가 가증스럽도다
墮淚碑前誰来往客　타루비 앞에 내왕하는 객은
停車必式不忘情　차를 멈추고 반듯이 허리 굽히며 정을 잊지 못하누나

慎菴 韓東錫

又

層岩絶壁血圖生　층암절벽에 피로 그린 그림 생기니
殉節從容大義成　종용한 순절 대의를 이루었도다
伏雉飛翔崖路險　엎드린 꿩 비탈길 험한데 날개쳐 날으니
驚驪落倅澗潭情　놀랜 나귀 원님 간수 못 맑은데 떨어지누나
青山無語含愁色　청산은 말없이 수심의 빛 먹음고
綠水長流帶恨聲　녹수는 길게 흘러 한많은 소리 띠었도다
墮淚碑前誰不仰　타루비 앞에 누가 앙시하지 않으리
千秋感慨萬人情　천추의 감개 만인의 심정일세

湖隱 金鍾敏

又

芝汀 陸重基

馬躍翬飛變禍生　말이 뛰고 꿩이 날아 변화 생기니
嗟呼陪吏義仁成　슬프다 배행한 아전 의리와 인을 이루었도다
萬夫稱頌如山重　일만 장부 칭송은
一線精忠似水清　한 실마리 정충은 물같이 맑구려
在昔已終碑碣事　옛날에 이미 비석 세우는 일 마쳤는데
到今不息讚揚聲　이제까지도 찬양성이 쉬지 않도다
臨看壯板香焚地　장판리 분향당에 다달아 보니
惹起當年墮淚情　당년의 타루정을 끌어 일으키는구려

又

晩翠 梁炳朝

蒼然古閣去生生　창연한 옛 비각 갈수록 생생하니
天許名區好構成　하늘이 좋은 터 허락하여 잘 지어졌네
巖面血痕還益潔　바위의 피 흔적은 도리어 더욱 깨끗하고
靈前禮幣每尤清　영전에 올린 폐백 항시 맑도다
鷹峰氣色含愁色　매봉의 기색은 근심빛 먹음고
松灘流聲似訴聲　송탄물 흐르는 소리 하소연하는 소리일세
卓節義魂何處問　높은 절개와 의로운 혼 어느곳에 물을고
使人追憶不忘情　사람이 추억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네

又

斷崖使我萬懷生 낭떠러지 비탈이
一吏從容大義成 날로 하여금 일만생각 나게하네
雉忽拍翔飛壁險 한 아전 종용하여
馬驚墮倅落潭清 대의를 이루도다
良心百代長垂鑑 씽이 별안간 날개 치며
壯節千秋永振聲 절벽 험한데 날으니
聞說古今人墮淚 말이 놀라 원님 떨구어
豎碑建閣叙幽情 물물 맑은데 떨어졌네
양심은 백대에 길이
거울을 드리웠고
장한 절개 천추에
길이 명성 떨치누나
이야기 들은 고금의
사람 눈물 떨구니
비석우고 비각 지어
그윽한 심정 펴도다

春坡 梁炳夏

又

奇哉石面血圖生 기이하도다 석벽 면에
一吏堂堂大節成 퇴의 그림 생기니
壯沼幽深人馬墮 한 아전 당당히
苔碑屹立性心清 대절을 이루었도다
從容殉義千秋頌 장한 소 그윽하고 깊은데
謹愼輸誠萬古聲 인마가 추락하고
往事悠悠何處問 종용 순의하니
玩笋到此慕憐情 천추에 청송이오
이제껀 비석 높이 서니
성정 마음 맑도다
아득한 지난 일
어느곳에 물을고
근신의 정성 바침은
만고의 명성일세
구경 지팡이 여기 이르러
옛정을 추도하누나

裕堂 韓甲洙

又

憐君一死勝千生　사랑도다 그대의 한번죽음
殉節從容大義成　종용한 순절 대의를 이루었도다
忽地馬驚終世恨　느닷없이 말이 놀라 세상 마치도록 한인데
蒼茫吏蹟至今清　창망한 아전의 행적 지금까지 맑구려
落鞍倅没江無語　안장에 떨어진 원님 빠진 강 말이 없고
畵雉人亡壁隱聲　꿩을 그린 사람 없는 석벽에 소리가 숨었도다
數尺苔碑前墮淚　두어자 이끼낀 비알에 눈물 떨구니
天川歸客不堪情　천천에 돌아간 객 정을 견디지 못하겠네

碧隱 李寅器

又

義死堂堂勝苟生　의로운 죽음 당당하여 구차한 삶보다 나으니
素非明哲那能成　평소 명철하지 않으면 어찌 능히 이루리오
終身盡職心無憾　종신토록 직책 다하니 마음에 유감 없고
爲主呈忠節益清　주인 위하여 충절 바치니 절개 더욱 맑도다
指血圖留當日蹟　손가락 피그림 당일 사적 머므르고
口碑頌證後名聲　구비의 칭송 뒷날 명성의 증거일세
至今壯板村前路　지금 장판 마을앞길에
多少行人不忘情　다소 행인이 정을 잊지 못하누나

澹軒 權熙文

又

斷崖飛雉雁馬驚生　낭떠러지 비탈에 나르는 꿩 놀란 말 성겨
由此哀憐墮淚成　이로 말미아마 애련한 타루를 일루었네
餽葬山中松翠鬱　넋을 묻은 산중에 소나무 푸르고 울창하여
魂浸沼裡水澄清　혼이 잠긴 소속의 물 깨끗하고 맑도다
苔碑明證當年事　이끼 비 밝히게 당년사를 증명하고
鄕老長傳昔日聲　고을 노인 길이 옛날 소리를 전하누나
一吏殉忠修大義　한 아전 충성에 순사하여 대의를 닦으니
年年奠酌不忘情　해마다 술잔 드려 정을 잊지 않는구려

錦峰 吳龍根

又

壯川深沼尙香生　장천리 깊은 소에 오히려 향기가 나니
殉吏堂堂一絶成　순직하여 당당히 하나의 기절 이루었네
百世尤明翬馬愕　백세에 더욱 꿩과 말 놀램 밝았고
千秋可挹義心淸　천추에 가히 의의 마음 맑음을 읍취했구려
斷崖落落依前色　낙낙한 낭떠러지 그런 빛 의지하고
流水淙淙奏舊聲　종종한 흐르는 물 옛소리를 아뢰누나
徃跡悠悠無處問　지난 사적 아득하여 물을 곳이 없으니
盤桓賞客不忘情　머뭇거리는 구경꾼 정을 잊지 못하누나

小泉 金昌洙

又

草堂 鄭炳尹

千秋義蹟此鄉生
嚼指血圖崖面成
人近雉飛逃壁險
馬驚倅墮溺江清
西山暮日含愁色
東刹寒鍾吐恨聲
墮淚古碑壯板洞
焚香多士不忘情

천추의 의로운 자취
이고을에 생겼으니
손가락 깨문 피그림
바위면에 이루었네
사람이 근접하니 꿩이 날아
험한 석벽 도망치고
말 놀라 원님 떨어져
강물 맑은데 빠졌도다
서산의 저문날
근심빛 먹음고
동쪽 절 차거운 종
한탄성 토하누나
타루의 옛비
장판동에
분향하는 다사들
정을 잊지 못하네

又

道山 朴喜穆

臨死誰能不願生
惟公殉節厥仁成
裕山月出千年潔
錦水風來萬里清
雉馬分明今有血
波濤漸瀝每傳聲
堂堂義氣斯人在
百世難忘仰慕情

죽음에 다달아 누가능히
삶을 원치 않으리오만
오직 공이 순절하여
그인을 이루었네
덕유산 달 오르니
천년의 결백이요
금강수 바람 오니
만리의 맑음이라
꿩과 말의 피그림
지금도 분명히 있고
석역한 파도는
매양 소리를 전하는구려
담당한 의기
이사람이 있으니
백세에 앙모한 정
잊기 어렵도다

又

稀聞傳說我鄉生　들물세 들은 전설 우리고을에서 나니
指血圖形石壁成　손가락 피로 그린 형용 석벽에 이루어졌네
雉忽飛騰逃斷壑　꿩이 갑자기 날아 올라 끊어진 구렁 도망치니
馬驚躍墮溺波清　말이 놀라 뛰어 떨어져 물결 맑은데 빠진구나
德山常翠含愁色　덕유산 항상 푸르러 근심빛 머금고
錦水長流帶恨聲　금강수 길이 흘러 한탄의 소리 띠었네
墮淚建碑壯板洞　타루비 세운 장판동에
香煙百世不忘情　향연 백세에 정을 잊지 못하도다

翠松 金鎭泓

又

嚼指畫圖傳說生　손가락 피로 그린 그림 고향 전설 생겨나
層巖絶壁血痕成　층층바위 절벽에 피 흔적 이루었네
陪行忠義千秋節　모시고 다닌 충성 의리 천추의 절개요
殉死丹誠萬世清　따라 죽은 지극정성 일만세상 맑아있구려
雉雉忽飛山谷隱　우는 꿩이 훌쩍 날아 산골자기에 숨었는데
驚駒墜落水波聲　놀란 말이 뛰어 떨어진 물결소리일세
可憐遺蹟儒林鑑　가련하다 남긴 자취 유림의 거울이라
墮淚名碑不忘情　타루라는 비석 이름 잊지 못할 정이로세

朴龍德

又

昔歲遺芳壯板生　옛날에 남긴 방명 장판에서 생겨나니
可憐石面血痕成　가련타 석벽면에 흔적 이루었도다
伏翬飛上鳴崖險　숨었던 꿩 날아 올라 벼랑 험한데 울고
馳馬驚跳墮沼清　달리는 말 놀라 뛰어 소물 맑은데 떨어진누나
落日荒城思義蹟　해 떨어진 황성에 의리의 자취 생각하고
斜風古樹聽悲聲　비낀 바람 옛나무에 슬픈 소리 듣는구려
殺身輔主於斯見　몸을 희생하여 주인 돕는 일 여기에서 보니
眞是人間教化情　참으로 이인간의 교화된 정일세

梅山 金鎭泳

又

當死男兒不苟生　죽음에 당하여 사나이는 구차하게 살지 않으니
從容就義令名成　종용하여 의리에 나아가니 어진이름 일루었네
畫壁血圖千世赫　암벽에 그린 피의 그림 천추에 빛나고
投江殉節萬年清　강에 투신한 순절 만년토록 맑음이로다
立身志士多稱頌　입신한 뜻있는 선비 칭송 많으니
彝性何人不嘆聲　이성있는 어느사람이 탄식소리 내지 않으리오
壯板長川流滾滾　장판동 장천물 곤곤히 흐르는데
碑前墮淚古今情　비앞에 떨어진 눈물 고금의 정이로세

剛泉 柳斗烈

又

年年芳草喚愁生　방초는 헤마다
　근심을 불러 돋아나니
墮淚添波綠水聲　떨어진 눈물 물결 보태어
　녹수를 이루었네
壯板橋邊曉月白　장판교 가에
　새벽 달빛 희고
南陽里外午風清　남양리 밖의
　낮바람 맑도다
鮮明指血千秋跡　선명한 손가락 피
　천추의 자취오
無語苔碑萬古聲　말없는 이끼낀 비
　만고의 소리일세
太守何由褒殉吏　태수는 무슨 연유로
　순절리를 포양하는가
綱常扶植一心情　강상을 부식하는
　하나의 심정일세

遠波 朴洙燮

義士全海山先生

返柩吾鄉碧水東　관이 벽수의 동쪽 우리고을에 돌아오니
生同夫婦死歸同　생을 같이 한 부부 죽어 돌아감도 같이 하누나
感嘆益切抗爭日　감탄은 왜적 항쟁한 날 더욱 간절하고
頌祝倍多雙節風　송축은 쌍절풍에 배나 많도다
誰把殘篇傳世上　누가 쇠잔한 책 잡어 세상에 전할고
但將一酌祭阡中　다만 한잔술 잡어 언덕 가운데 제사하는구려
儒林歲歲誠心極　유림이 해마다 성심 지극하니
義士遺勳永不窮　의사의 끼친 공훈 길이 다 하지 않으리

長水郡守 金 祥 斗

又

海山曾誕海之東　해산이 일찍 해동에 탄생하여
擧義誰無景仰同　의병을 창거하니 누가 경앙 같이 함이 없으리오
爲國丹心虹貫日　나라 위한 단심은 백홍 관일하고
抗倭白刃烈生風　항일한 흰 칼날 열열한 바람 나누나
貞忠凜凜千秋下　정충은 천추에 늠름하고
氣慨堂堂八域中　기개는 팔도중에 당당하도다
夫婦捨生雙節立　부부가 생명 버려 쌍절을 세우니
令名世世頌無窮　어진 이름 대대로 송축이 무궁하리

湖隱 金 鍾 敏

又

松山 梁炳文

雉馬形容石面生　꿩과 말의 형용 석벽면에 생기니
故鄉傳說此中成　우리고장 전설 이가운데 이루었도다
憐君殉節如斯壯　사령한 그대의 순절 이같이 장엄하니
大義堂堂萬古情　당당한 대의 만고의 정일세

又

靑坡 尹祖來

捨生取義此人成　생을 버리고 의리 취함 이사람이 이루었으니
通引名聲萬古淸　통인의 명성 길아 만고에 맑도다
更看蒼巖圖血雉　다시보니 푸른바위 붉은 핏로 꿩 그려
遺痕寂寂不勝情　남은 흔적 적적하여 마음 가눌길 없네

又

雪松 李周鎬

爲主忠心即捨生　성주를 위한 충심 곧 생명을 버려
千秋巖壁血痕成　천추의 암벽에 피그림 흔적 이루었네
雉鳴馬躍長崖落　꿩 울고 말 뛰어 장애 강에 떨어지니
萬古綱常永有聲　만고의 강상 길이 소리 있으리로다

又

鍾生烈士海之東　　헌동의 기운 풍기어 열사를 출생하니
爲國精忠巡遠同　　나라 위한 정충은 장순과 허원 같도다
夫唱義旗當殄戮　　가장은 의병 깃발 부르짖어 희생을 당했고
妻從殉節樹綱風　　아내도 따라 순절하여 삼강풍을 세웠구려
氣高北極星辰上　　기절은 북극 성신 위에 높고
名滿吾邦士女中　　이름은 우리나라 사녀중에 가득하도다
光復江山今幾歲　　강산의 광복이 이제 몇 해이던가
未營祠宇恨無窮　　사당을 세우지 못함 무궁한 한이로세

芝汀 陸重基

又

義士芳名振我東　　의사의 방명이 우리 동방에 진동하니
殉身報國婦人同　　몸이 순절하여 보국하니 부인도 같이 하도다
丹心已盡忠臣道　　단심은 이미 충신의 도리를 다 하였고
白骨猶餘烈士風　　백골도 오히려 열사풍이 남았도다
遺蹟堂堂千歲上　　끼친 사적 천세에 당당하고
名聲藉藉萬邦中　　명성이 만방에 자자하도다
豎碑百世銘其事　　백세에 비를 세워 그 사적 새기니
雙節亭亭永不窮　　정정한 쌍절 길이 다 하지 않으리

農隱 金義植

又

晩翠 梁炳朝

先生鍾出海之東 선생이 해동에 종출하니
卓節靑邱敬慕同 높은 절개 동방에 경모심 동일하네
爲國盡忠扶社稷 나라위하여 사직 붙잡는데 충성 다 하도다
捨生取義振儒風 생을 버려 의를 취하니 유풍을 떨치도다
令名特記豐碑上 어진 이름 특히 풍비위에 새기고
偉蹟永傳竹史中 위대한 사적 길이 죽백 사기중에 전한는구려
謀事在人成在運 모사는 사람에게 있고 성사는 운명에 있으니
仰天慨嘆恨無窮 앙천탄식 한이 무궁하도다

又

碧隱 李寅器

伏兵志在復吾東 칼을 질은 뜻이 우리동방 복권에 있으니
與賊俱天誓不同 적과 더부러 한울함께 함은 맹서코 같이 않으리
爲國捨生臨戰日 나라위하여 생명 받친 임전의 날이오
臥薪嘗膽抗倭風 와신상담 항왜의 바람일세
令名赫赫綱常上 어진 이름 강상위에 혁혁하고
節義堂堂史冊中 절의는 사책가운데 당당하구려
婦亦從夫歸地下 부인 또한 가장 따라 지하로 돌아가지
全門忠烈永無窮 전씨가문 충과열 길이 다함 없도다

又

豈忘義士出吾東　어찌 의사가 우리 동방에 출생함을 잊으리오
倡義雄心古烈同　창의한 영웅심은 옛 열사와 같구나
爲國獻身千歲範　나라 위해 몸을 받치니 천세의 모범이요
抗倭致命萬秋風　왜적 항거에 목숨 다한 만추의 바람일세
令名赫赫三綱上　영명은 삼강 위에 혁혁하고
氣慨堂堂百世中　기개는 백세 가운데 당당하도다
槿域人生誰不仰　근역의 인생이 누가 앙모하지 않으리오
夫妻雙節益無窮　부부의 쌍절이 더욱 무궁하도다

春坡 梁炳夏

又

倭賊侵來我海東　왜적이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오니
人民憂世一心同　백성의 세상 걱정 한마음 같구려
身亡爲國明忠義　나라위해 몸을 희생하니 충의를 밝혔고
婦殉從夫振烈風　가장 따라 순절한 부인 열녀풍을 떨치네
英靈長在隧門中　영령은 길이 분묘중에 있으리로다
雙節永傳靑史上　쌍절은 오래 청사에 전하는데
附倭富貴當時辱　왜에 아부하여 부귀한게 당시의 상황인데
獨有先生抗日窮　홀로 선생이 있어 항일을 다했도다

小泉 金昌泳

又

全男全婦出吾東 전씨 남자 김씨 부인 우리동방에 출생하니
健順雖殊氣味同 강하고 순함은 비록 다르나 기미는 같고나
輕命從郎貞女節 목숨을 가볍게 가장 따르니 정녀의 절개요
捐身報國丈夫風 몸을 바쳐 보국함은 장부의 풍도일세
令名廣褒聯邦外 어진 이름 연방 밖에 널리 포양하고
忠蹟長存百世中 충성 사적 길이 백세에 보존하도다
義士烈妻宜作配 의사와 열처가 마땅히 짝 지어지니
千秋萬歲譽何窮 천추만세에 칭송 어찌 다 하리오

濬軒 權熙文

又

堂堂大義罕西東 당당한 대의 동서양에 드무니
爲國精神古烈同 나라 위한 정신 옛 열사 같음이라
貫日忠心如雪月 헐를 뚫는 충심 눈달 같고
衝天勇氣似霜風 충천한 용기 서리바람 같도다
芳名不朽千秋下 방명은 천추에 썩지 않고
貞節宜傳百世中 정절은 마땅히 백세중에 전하는구려
焚香祭奠永無窮 분향하고 제사 차림 길이 무궁하리
死死亦生聲不絶 죽을때 죽은것이 또한 살미라 성화 끊이지 않으니

守軒 姜龍鳳

又

錦峰 吳龍根

日賊姦謀犯我東　일본 도적 간사한 꾀 우리 동방 침범하니
爲邦大志孰能同　나라 위한 큰뜻 누가 능히 같을고
起兵抗戰成忠節　의병 일으켜 항전하니 충절을 이루고
囚獄終身樹義風　옥에 갇혀 종신함은 의롭운 풍도 세웠도다
遺蹟分明靑史裡　유적은 청사에 분명하고
英靈陟降羨門中　영령이 분묘가운데 오르내리누나
碧溪父老豐碑立　벽계의 부노들 큰비를 세워
將使芳名永不窮　장차 방명으로 하여금 길이 다하지 않게 하네

又

桐軒 尹龍燮

乙巳倭侵奪我東　을사년 왜적 침범으로 우리동방 탈취하니
全公立節有誰同　전공의 절개 세움 누가 같이 하리 있을까
凜霜義氣千秋蹟　서리같이 늠름한 의기 천추의 사적이오
貫日丹誠萬歲風　해를 뚫은 붉은 충성 만세의 바람일세
百事何求忠國外　백사를 어찌 나라에 충성밖에 구하리오
一心恒在破夷中　일심은 항상 왜를 파멸한 가운데 있도다
嗟呼未副平生志　오호라 평생의 뜻 이루지 못함이여
追慕邦家享不窮　추모한 나라집 향사 무궁하도다

又

回想倭侵我東 왜적이 침범하여 우리동방
海山擧義喊聲同 해산의 창의 함성이 같구려
忠君決意千秋月 임금에 충성을 결의하니 천추의 달이요
救國衷情萬古風 나라구한 충정 만고의 바람일세
赫赫功登青史上 혁혁한 공훈 청사에 오르고
堂堂氣出白眉中 당당한 기개 백미가운데 나오는구려
婦迎返柩成雙節 아내는 돌아온 영구 맞아 쌍절을 이루어
從殉夫郎烈不窮 사장을 따라 죽으니 열행이 무궁하도다

草堂 鄭炳尹

又

大義貞忠誕我東 대의와 정충이 우리동방에 탄생하니
海翁追慕萬民同 해산옹의 추모 만민이 같도다
千秋凜凜孤臣節 천추에 늠름한 외로운 신하의 절개요
百世凄凄烈士風 백세에 처처한 열사의 바람일세
抗日芳名青史上 항일한 방명은 청사에 오르고
如山偉蹟勒碑中 산같은 위대한 사적 비갓운데 새기도다
滅倭未遂身先去 왜적 멸함을 이루지 못하고 몸이 먼저 가니
長使吾人淚不窮 길이 우리인생으로 하여금 눈물 다하지 않게 하네

耕山 韓圭容

又

賊侵南北又西東　왜적이 남북을 침범하고 또 서와 동이니
極目倭旗四起同　눈에 가득히 왜적의 깃발 사방에 같이 일어나네
倡義夫妻忠殉節　창의한 부부 충성의 순절이오
盟山草木凜生風　산에 맹서하니 초목이 늠름한 바람 나누나
功留百戰腥塵裡　공은 백번이나 비린내 티끌속에 싸운데 머물고
名活千秋竹帛中　이름은 천추의 죽백 간운데 살았구려
光復未成身早逝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몸이 일찍 가니
國民香火享無窮　국민의 향화 행사 무궁하도다

三南 梁錫鎬

又

大義全公振我東　대의를 전공제서 우리동방에 떨치니
海山仰視萬民同　해산을 앙시함은 만민이 같도다
眞儒氣像蒼松月　진유의 기상은 창송의 달이오
烈婦精神雪竹風　열부정신은 설죽의 바람이로세
爲濟蒼生塗炭裡　창생을 도탄속에서 구제하고
欲扶社稷禍患難中　사직을 환란중에 붙들고자 했도다
滅倭未遂身先逝　왜적의 섬멸 이루지 못하고 몸이 먼저 가니
長使吾人恨不窮　길이 우리인생으로 한이 다하지 않게 하네

顧巖 李成熙

又

翠松 金鎭泓

島夷猖獗犯吾東　섬오랑캐 창궐하여 우리강방 침범하니
倡義全公大志士同　창의한 전공 지사들과 같이하도다
護國衷情長歲月　나라위한 충정은 세월 길었고
忠君篤志猛霜風　임금께 충성한 독지 맹열한 서리바람 일세
遺功赫赫任淳上　끼친공은 임실 순창에 혁혁하였고
氣勢堂堂獄苦中　기세는 옥고중에도 당당하도다
夫婦捨生爭殉節　부부가 생명 버려 다투어 순절하니
可憐雙節悵無窮　가련한 쌍절 슬픔이 무궁하구려

又

道山 朴喜穆

早擅名聲我海東　일찍이 명성을 우리해동에 들처너니
人皆仰慕至今同　사람이 다 앙모함은 지금도 같도다
堂堂義氣生前貌　당당한 의기는 생전의 모습이오
烈烈精神死後風　열열한 정신은 사후의 바람이구려
吾主賴安盟血上　우리군주 힘로 맹서한 위에 힘입어 안정하고
倭酋痛迫致書中　글 바친 가운데 왜적괴수를 통박하였네
夫妻兩節相輝無愧　부부의 두절개 서로 부끄러움 없으니
日月雙光永不窮　일월의 쌍빛 길이 무궁하도다

又

剛泉 柳斗烈

乙巳倭侵亂我東　을사년 왜적 침범 우리동방 어지럽히니
海山擧義應雷同　해산의 의거 호응이 우뢰같도다
忠君心志如明月　충군하는 심지는 명월 같고
抗日咆音似雪風　항일하는 호령소리 눈바람 같구려
藉藉名聲千歲裡　자자한 명성 천세의 속이요
洋洋赫蹟萬邦中　양양한 빛난 사적 만방 가운데로다
墓前侍立雲屯客　묘전에 시립한 구름같은 객은
獻爵香煙世不窮　헌작과 향연 대로 무궁하리

又

維石 梁國喆

追慕先生振我東　우리동방에 떨친 선생을 추모하니
念心悲痛萬民同　분한 마음 비통은 만민이 동일하노라
丹忠肯作千秋恨　단충은 어찌 천추한을 지었는가
壯志猶榮百世風　장한 뜻은 오히려 백세풍에 영화롭도다
偉蹟長輝鄉土上　위대한 사적 길이 향토위에 빛나고
精靈如在影祠中　정령은 영정사당에 있는듯 하구려
遺書自決隨夫死　유서로 자결하여 가장 따라 죽으니
雙節夫妻永不窮　쌍절의 부부 길이 무궁하리

又

倭寇来侵奪我東　倭寇 왜적이 침범하여 我東 우리 동방을 탈취하니
地悲天慟兆民同　地悲天慟 땅도 하늘도 억조창생과 兆民同 같이 비통하구려
堂堂意氣千秋月　堂堂意氣 당당한 의기는 千秋月 천추의 달이요
烈烈精神萬古風　烈烈精神 열열한 정신 萬古風 만고의 바람일세
排日經綸難忘裡　排日經綸 일본 배척의 경륜 難忘裡 잊기 어려운 속이요
報君忠義感心中　報君忠義 군왕에 보답한 충의 感心中 심중에 느끼누나
平生怨恨憑誰訴　平生怨恨 평생 원한을 憑誰訴 누구에 비겨 호소하리
雙節回思淚不窮　雙節回思 쌍절을 회상하니 淚不窮 눈물이 무궁하네

栗堂 崔鍾植

又

節義堂堂振我東　節義堂堂 당당한 절의 振我東 우리 해동에 떨치니
海山節義海山同　海山節義 허산옹의 절의 海山同 바다와 산 같으네
布衣拔劒奉端烟　布衣拔劒 포의로 칼을 빼니 奉端烟 주먹끝에 불빛이오
一筆揮書手下風　一筆揮書 일필로 휘드는 글씨 手下風 손아래 바람 나도다
特立青青寒雪裡　特立青青 특별이 푸르고 푸름 寒雪裡 찬 눈속에 우뚝하도다
獨扶俓俓亂麻中　獨扶俓俓 홀로 곧고 곧은 난마중에 扶俓俓 붙들었구려
雙輔連出西天暮　雙輔連出 쌍상여 연출하는 西天暮 서천하늘 저므니
夫婦雙節嘆無窮　夫婦雙節 부부 쌍절의 感嘆이 無窮 무궁하도다

梅軒 朴洙炘

又

清江 朴龍德

將軍抗戰護吾東　장군이 항전하여 우리동방 보호하니
膽炙仁聲四野同　회자하는 명성 사야가 같도다
侵來倭賊愁夜月　왜적이 침범하니 밤달의 근심이오
海山防禦動春風　해산이 방어하니 춘풍이 동하누나
芳名赫赫千秋上　방명은 천추에 혁혁하고
忠節堂堂萬世中　충절은 만세가운데 당당하도다
可惜婦從歸地下　가석토다 아내가 가장 따라 지하로 감이여
每年香火永無窮　매년 향화 길이 무궁하리

又

梅山 金鎭泳

先生倡義救吾東　선생이 창의하여 우리 동방 구원하니
槿域儒林敬慕同　근역의 유림 경모심 같도다
怒氣衝天揮劍日　노기 충천하니 갈 휘두른 날이오
喊聲動地抗倭風　함성은 땅이 동하니 항왜의 바람이로다
秉懿不墜千秋下　병의는 천추하에 떨어지지 않고
雄志長明百代中　웅지는 백대가운데 길이 밝도다
有孰能遵如此壯　누가 있어 이같은 장상을 능히 따를고
一門雙節頌無窮　일문의 쌍절 칭송이 무궁하도다

全州市德津區助村洞

碧河 權 熙 善

又

當年天不佑吾東 당년에 하늘이 우리동방
倭寇橫行八域同 왜구의 횡행이
貞烈堂堂全志操 당당한 정충
丹忠凜凜奮威風 늠름한 붉은 충성
名聲長亘千秋後 명성은 길이
興敗空歸一夢中 흥패는 속절없이
婦亦從夫俱立節 아내 또한 가장 따라
也應竹帛與無窮 응당 죽백의 사기와

돌보지 않어
팔도를 같이 하였네
지조가 온전하고
위풍 떨치도다
천추후에 떠치고
일몽중에 돌아갔구려
함께 입절하니
더부러 무궁하리

長水郡山西面五山里

權 熙 宛

又

先生鍾氣出吾東 선생이 종기하여
夫婦心情義烈同 부부의 심정
決死盟深凌雪竹 결사의 맹서 깊어
糾彈言肅起霜風 규탄하는 말 엄숙하여
名垂百世公論上 방명은 백세의
節耀千秋歷史中 절개는 천추의
愛國忠誠如此壯 애국충성
可期幸運賴無窮 가히 기약할 행운

우리동방에 출생하니
의와 열이 같도다
눈을 능멸하는 대요
서리바람 이는구려
공론위에 드리우고
역사중에 빛나누나
이같이 장하니
신뢰 무궁하리로다

又

長水郡天川面南陽里

尹昶來

倡義堂堂振我東　당당한 창의 우리동방 구원하니
巍然偉蹟紊山同　외연한 위대한 사적 태산 같도다
傷心遺恨千秋月　상심과 유한은 천추의 달이오
卓節芬名百世風　높은 절개와 방명은 백세의 풍도로다
熱血盡消憂國裡　뜨거운 피 나라근심속에 다 사라지고
忠魂長在大韓中　충혼은 길이 대한민국속에 있도다
未伸素志身先去　평소의 뜻 펴지 못하고 몸이 먼저 가니
光復于今感不窮　광복한 오늘에 감개 무량하구나

又

遠波 朴洙燮

追思倭賊奪吾東　왜적이 우리동방 탈취할 때를 생각하니
往古來今恥辱同　왕고래금에 치욕이 같도다
寒士起兵焦土日　한사 초토의 날에 의병 일으켰는데
青春返柩菊秋風　청춘의 영구 국화 가을바람에 돌아오다니
孤忠欲復衰亡運　고충은 쇠망한 운명 회복하고자 했고
大義能撑板湯中　대의는 능히 탄탄중에 버티었도다
又有賢妻從地下　또 어진 아내 있어 지하로 따르니
壯哉雙節永無窮　장하도다 쌍절 길이 다함 없으리

又

天降斯文大海東　하늘이 이분을 큰바다 동쪽에 내리니
一身運命與邦同　한몸의 운명을 나라와 더불어 같이 했도다
起兵討賊殫忠勇　기병하여 도적하니 충용을 다하고
捨己成仁振烈風　몸을 버려 인을 이루니 열풍을 떨쳤도다
義氣倍登囹圄裡　의기는 감옥속에서 배나 올랐고
衷心何變虎鞭中　충심은 묘진 매라도 어찌 변하리오
未伸雄志人雖歿　큰뜻을 펴지 못하고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赫赫名聲永不窮　혁혁한 명성은 길이 다하지 않으리

愼菴 韓東錫

又

雪松 李周鎬

一門忠烈出吾東　일문의 충과 열이 우리동방에서 나오니
徒手民軍彰義風　맨손의 민군 의로운 바람 들처넜네
修墓立碑鄉士力　묘를 수리하고 비세워 고을선비 힘쓰니
遺芳百世永無窮　방명을 백세에 끼쳐 길이 무궁하리

碧溪詩會再續 晩翠 梁炳朝

碧溪雅社續吟時　벽계 맑은 시사 다시 이어 읊을 때
鐵馬還山日亦遲　버스로 산을 도니 날 또한 더디구나
未盡詩情天已晩　시의 정 미진한데 날은 이미 늦었고
短笻歸路更言期　단공 돌아간 길 다시 기회 언약하네

又 三虛 吳治滉

東風吹盡餞春時　동풍이 불어 다하니 봄을 보내는 때이라
結社詩朋再會遲　시사를 결성한 친구 재회가 더디구려
自古碧溪文藝地　자고로 벽계는 문예의 고장이라
淸遊從此百年期　맑은 놀이 이로부터 백년을 기약하세

又 湖隱 金鍾敏

花落千林葉綠時　일천숲 꽃지니 녹음 시절이라
再逢笻屐日遲遲　다시 만난 공구 날 더디고 더디다
吟風咏月皆吾事　음풍과 영월이 모두 우리 일이라
聊待乘閒續更期　모쪼록 한가함 기다려 다시 읊을 기약하세

又 春坡 梁炳夏

再會詩談感激時　다시 만나 시를 말하니 감격하는 때인지라
數年虛送對襟遲　수년을 허송하니 옷깃 여밈이 더디구려
相逢是席山花發　상봉한 이 자리에 산꽃이 피니
從此無休永續期　이제부터는 쉬지 말고 영원한 계속 기약하세

又 松山 梁炳文

再開詩會感懷時 시회를 재개하니 감회의 때라
故友相尋步不遲 서로 찾은 옛 벗들 걸음 더디지 않네
今日此筵眞是好 오늘 이자리 참으로 좋으니
從今無廢永年期 이제부터 폐하지 말고 긴세월 기약하세

又 德菴 梁因喆

吾社中休歲幾時 우리시사 중단이 해가 얼마이든가
再開詩會日光遲 재개한 시회 날빛이 더디구려
誰云此際無佳興 누가이지음아름다운 흥없다 하는가
永續吟風咏月期 음풍영월 영원히 속개를 기약하세

又 遠波 朴洙燮

詩友傷情惜別時 시우의석별할때 심정 슬어
相逢今日歲何遲 오늘의상봉 해가 어찌더디는지
南州復見文風起 남쪽고을 문풍이 다시 흥기를 보니
不替相傳永世期 폐하지말고 긴세상 상전을 기약하세

又 裕堂 韓甲洙

新綠方成立夏時 신록이 방성하니 입하의 계절이라
紛紛蜂蝶過墻遲 분분한 벌나비 담장 더디 지나는구나
詩朋再會欣然裡 시우들 재회한 흐뭇한 가운데라
今日傾杯問後期 오늘 술잔 기우리며 후기를 묻네그려

晚亭 白日寅

又

紅瘦綠肥立夏時　꽃지고 방초 살찐 입하 시절
黃梅含露歲華遲　누란매화 이슬먹음어 헛빛 더디어라
於今再會如斯好　재회한 오늘 이같이 좋으니
從此詩緣不變期　일로부터 시회 인연 변치말고 기약하세

小泉 金昌泳

又

揀得良辰四月時　간택한 좋은 날 사월이라
如煙芳草日遲遲　연기같은 방초 날 더디고 더디어
一吟一笑其何歲　한번 읊고 한번 웃음 그 몇해이든가
再會欣情不變期　재회의 흐뭇한 정 변치말고 기약하세

魯史 梁麟洙

又

記曾分手歲寒時　세한때 분수한 전날을 기약하니
虛送光陰此會遲　허종한 광음 이 모임 더디구려
今日更逢如是樂　오늘 다시 만남 이같이 즐거우니
吟風咏月永年期　음풍영월 긴세월 기약하세

清江 朴龍德

又

碧溪結社昔何時　벽계시사 결성 옛날 어느때 이던고
再會斯筵步不遲　다시 모인 이자리 걸음더디지 않구려
盡日風流情未盡　해지도록 풍류의 정 미진하니
夕陽歸路問前期　석양 돌아가는 길 앞기약 묻네

芳草

晩翠 梁炳朝

花魂已瘦柳陰東　꽃넋이 이미 시든 버들 그늘 동쪽에
如海如煙一色同　바다같고 연기같은 빛 한결 같구려
弄笛牧童登岸上　피리부는 목동 언덕위로 오르고
望夫閨女出園中　낭군 기다리는 안방여인 동산속에 나오네
節探勝景萋萋綠　단풍으로 성하게 푸른 승경을 찾고
酒使衰顔往往紅　술은 늙은 얼굴을 이따금 붉게 하는구나
鄕老莫言過去事　시골 노인 과거사 말 하지마오
錦衣歸路賦南風　비단옷으로 돌아온 길 남풍을 읊으네

又

三虛 吳治湟

五柳成陰郭外東　다섯그루 버들 녹음 성밖 동쪽에서
古今避暑幾人同　고금의 피서를 몇이나 같이 했던고
白鳥耕波大海中　백조는 큰 바다 가운데 물결을 가는구나
黃鶯織錦垂楊裡　노란 꾀꼬리는 수양버들 그늘속에 비단을 짜고
舞燕頡頏探草綠　춤추는듯 제비 오르내려 녹초를 탐하고
歌蜂斷續索花紅　노래인 듯 끊겼다 이어 붉은 꽃 찾는구나
野亭江榭彈琴樂　들과 강가의 정자에 거문고 뜯고 즐기는데
牛背樵童弄笛風　소등의 초동 피리 부는 바람일세

又

森林鼓鼓古城東　백백한 숲 울창한 옛성 동쪽에
芳草萋萋一色同　방초는 무성하여 일색으로 같구나
粉蝶依依蓮葉上　분나비는 연잎위에 의의하고
蜜蜂款款菜花中　꿀벌은 나물꽃 가운데 충실하구나
佳人抵首芭蕉綠　가인이 머리 숙이니 파초가 푸르고
公子傾盃杞酒紅　공자가 술잔 기울이니 구기자술 붉어라
玉笛聲聲三五夜　옥피리 소리소리 보름달밤에
江流滾滾杏村風　강물 곤곤히 흐르는 행화촌 바람일세

草堂 鄭炳尹

又

千峰萬壑綠陰東　천봉 만학 녹음의 동쪽에
牛馬平原放牧同　마소떼 평야에 같이 방목하네
大麥穗垂方稔裡　보리는 이삭 드리워 바야흐로 풍년을 기약하고
稱秧稼穡願豐中　어린모 풍년을 바라여 심고 가꾸어라
透窓山影常誇碧　창에 비친 산그림자 늘 푸름을 자랑하고
落日霞光返照紅　해지고 노을빛 되빛임이 붉고나
細雨濛濛露潤足　가랑비 부슬부슬 흡족하게 적셨는데
農民更望順天風　농민은 다시 순천풍을 바라는구나

守軒 姜龍鳳

又

魯史 梁麟洙

水麗山明我海東　물 곱고 산 밝은 우리 해동
樹林處處綠陰同　나무숲 곳곳이 녹음 같구려
幽鶯聲發深園裡　그윽한 곳 꾀꼬리 깊은동산속에 소리나고
乳燕翔停細雨中　젖먹이 제비 가랑비속에 날으는 짓 멈추누나
藉卉爲筵疑錦碧　풀을 깔아 자리하니 푸른 비단인가 의심하고
綠陰如海勝花紅　녹음이 바다 같으니 붉은 꽃보다 낫구려
三更亭上金樽月　삼경 정자위에 금동이 달빛
散入家家玉笛風　흐터저 드는 집집마다 옥피리 바람일세

又

愚東 吳秉權

綠陰芳草古城東　녹음방초 우거진 옛성 동쪽에
携杖逍遥故友同　작지 이끌고 옛벗과함께 소요하네
農老巡盃垂柳下　늙은 농부는 수양아래 술잔 돌리고
牧童弄笛彩雲中　목동은 채색구름가운데 피리를 부는구나
松林蘿月三更白　송림 담쟁이 넝쿨사이 달 삼경에 희고
竹院綃燈一點紅　대나무 후원 생초등 한점 붉구나
蝶舞蜂歌何處去　나비춤 벌노래 어느곳으로 갔는지
民望豐作順天風　백성의 소망은 풍년과 순한 하늘바람 이어라

又

涉溪閒步坐城東　시내 건너 한가한 걸음 성 동쪽에 앉으니
百草萋萋一色同　온갖 풀 무성하여 한결같은 빛이로다
漫興多輸詩卓犖　만흥은 시축속에 많이 실었고
幽情靜看畵圖中　그윽한 정은 그림가운데 고요히 보네
雲歸北嶺長堤綠　북령에 구름 돌아가니 긴 언덕은 푸르고
日掛西山暮靄紅　해는 서산에 걸치고 점은 노을 붉구나
莫道人間三月去　인간의 삼월 다 갔다고 일르지마오
煙霞處處又熏風　연하 곳곳에 또 훈풍이로세

晩亭 白日寅

又

萋萋芳草遍西東　무성한 방초 서와 동에 퍼지니
樹木成陰一色同　수목이 그늘 이뤄 빛이 한결 같구나
燕掠蒼波飛舞上　제비는 창파를 타고 춤추며 날아 오르고
鶯梭碧柳織聲中　꾀꼬리는 푸른 버들속에 북질하여 벼짜는 소리일세
千林雨過江流白　큰 숲에 비 지나가니 강 흐름이 희고
高嶺雲歸日出紅　높은 산 말루 구름 돌아가니 해 돋음이 붉구나
麥登四月動南風　보리 익은 사월 남풍이 움익이네

雲崗 韓昌淵

又

湛軒 權 熙 文

携笻閒步出城東　작지 이끈 한가한 걸음
百草萋萋一色同　성의 동쪽 나서니
並茁芳菲抽岸上　온갖 풀 성하고 성하여
各噓幽馥透園中　일색으로 같도다
春歸嫩葉全鋪碧　아울러 자란 꽃다움
夏至殘花或綻紅　언덕위에 버치고
每誦文章先輩作　각기 그윽한 향기 뿜어
臨題暗澹古人詩風　후원중에 사무치네
　　봄 돌아가니 연한 잎
　　푸른빛 온전히 펴고
　　여름 닥쳐 쇠잔한 꽃
　　혹 붉게 터지누나
　　매양 선배들이 지은
　　문장 외우니
　　시제에 임하면
　　옛 시풍이 암담하구나

又

顧巖 李成熙 文

芳草萋萋古郭東　방초 무성한 옛 성곽 동쪽
江湖萬里綠陰同　강호만리 녹음이 같구려
灼花落盡三春後　고운 꽃 다 떨어진 삼춘이 지난 뒤요
嫩葉繁成立夏中　새로 돋은 번성한 잎 입하절 가운데로다
東海蕩波飛沫白　동해의 탕탕한 물결 날리는 물보라 희고
西山暮日拂霞紅　서산의 저문 해 노을 붉게 떨치네
飼牛資料惟斯物　소먹일 자료 오직 이것뿐이라
刈取時時畏雨風　애취할 제 때때로 비바람 두려워

又

栗堂 崔鍾植

新綠連天碧水東 신록 하늘에 연한 벽수의 동쪽에
臥牛飛燕氣相同 누은 소, 나는 제비 기분 서로 같도다
葉肥山野朝霞外 잎이 풍성한 산야 아침 노을 밖이오
香滿軒窓午晷中 향기 가득한 마루창 해무리 가운데 있네
月下露珠如玉白 달빛아래 맺힌 이슬 옥같이 희고
日斜嵐靄勝花紅 해 비낀 안개노을 꽃보다 더붉네
萋萋芳草通成煙海 무성한 방초 연기바다 이루니
溪北溪南長雨風 계북과 계남 비바람에 자랐네

又

三南 梁錫鎬

江北山南又水東 강의 북. 산의 남쪽. 또 물의 동쪽에
萋萋芳草遠還同 무성한 방초는 멀고 가까움이 같구나
携酒佳賓醒復醉 술 갖어온 가빈은 취하고 깨이고 하는구나
踏青來友談論裡 푸른 길 밟아온 벗 담론하는 가운데
雨歇長堤生潤碧 비개인 긴 언덕에는 푸른빛 불어나고
日斜大野帶微紅 해 비낀 큰 들에 붉은 빛 가늘게 띠었네
詠月吟詩弄笛風 달을 읊고 시 읊음이 피리 바람을 희롱하네
四方散策無他事 사방 산책 딴 일이 없으니

又

聊尋芳草到溪東
遠近詩人滿座同
了役耕牛休卧際
探光騷客踏来中
時當健鷺三分白
春盡殘花一點紅
大野萋萋連翠色
劒兼綠水又清風

慎菴 韓龍福

霖雨

龍山 朴在雨

田家農事願登豐　전가의 농사 풍년을 원하니
天道施恩信至公　천도의 은혜 베품이 진실로 지공하네
暫洒西原雲走嶺　서쪽들에 잠간 뿌리고 구름재날루에 달아나고
將晴東麓蝀橫空　장차 개일 동쪽기슭에 무지개 공중에 비껴구나
蚍蜉避濕先離計　왕개미 습기 피하여 먼저 떠날계획하고
稼穡迎陽後有功　심은 농사 볕 맞은 뒤에 공이 있도다
堯有九年況泽水　요임금 구년홍수 잠심 있어
傳聞大禹善治洪　전함을 들으니 우임금 홍수 잘 다스렸음이라

又

農隱 金義植

雨順風調願大風　우순 풍조로 대풍을 소원하니
無私天帝善行公　사사로움 없는 천제 공평하게 잘 행하도다
深淵貯水常充滿　깊은 못에 물 채우니 항상 충만하네
廣野浮雲容布空　넓은 들에 뜬 구름은 백백이 하늘에 퍼지네
戴笠漁夫修釣具　삿갓 쓴 어부 낙씨도구 손질하고
鳴林布穀促農功　숲에서 우는 뻐꾸기 농사공역 재촉하네
田園共防生沙汰　전원에 사태를 다같이 방비하니
堤築無憂萬丈洪　뚝을 쌓아 만장홍수 근심없네

又

梅山 金鎭泳

萬民齊口願年豐　만민이 일제히 풍년 원하니
豐歉懸於雨降公　풍파 흉이 비 공평하게 내림에 달렸도다
潦水漫漫漫大地　장마 물 질펀하게 대지를 적시고
黑雲靄靄蔽蒼空　먹구름 성하게 일어 창공에 가득하네
暴來田野多災害　폭우로 쏟아지면 전야 피해 많고
適下農家有稔功　적당히 내려야 농가 풍년 공덕 있도다
聞道西疇流氾濫　소문에 서쪽 논두렁 물이 범람하니
司徒急速防治洪　당국은 빨리 홍수를 방지하소

又

小泉 金昌泳

水滿池潭可占豐　못과 방죽에 물 가득하니 가히 풍년을 점치고
四隣相慶賀天公　사방에서 서로 천공을 경하하네
雷鞭閃忽驚昏地　우뢰 채찍 번뜩 홀연이 어두운 곳 놀래고
虹架嬋娟綉上空　무지개 걸친 선연이 하늘을 수 놓는구나
霽日携筇晴未信　개인날 도롱이 끼고 맑기를 믿지 못하고
清陰停扇雨爲功　서늘한 그늘, 부채 멈춤 비의 공이로세
長霖止續連旬朔　긴장마 그쳤다 이었다 하루 열흘 이어지니
乘醉消愁氣自洪　취하여 근심 잊으니 기분 절로 크도다

又

甘霈濛濛百穀豐　단비 보슬보슬 백곡이 풍년이라
璿機玄妙自然公　선기옥형 삼삼한 묘리 자연 공평하네
前溪水溢灘聲壯　앞시내에 물 넘치니 여울소리 웅장하고
後院淋漓鳥語空　뒤동산 질퍽하니 새의 말 없구나
蠶婦採桑多有苦　누에치는 아낙네 뽕따기 괴로움 많고
農夫排水努無功　농부 물빼기 노력하나 공이 없네
陰風豪雨長彌月　음풍 호우 달로 벌히네
喧地波濤氣勢洪　지축 울리는 파도 기세 흉대하구나

晩亭白日寅

又

霖雨支離歲不豐　장마비 지루하면 풍년해 못되니
常聽放送日官公　항상 날씨 방송 공평함을 듣네
田沈堤壞希望少　발 잠기고 뚝 무너져 희망은 적고
路絶橋崩所願空　길 끊기고 다리 꺼져 소원이 공허로다
耕畓移秧皆注力　논 갈아 모 내는데 모두 주력하니
歌儴含哺摠勤功　배 불리 먹고 노래함은 다 부지런한 공일세
飼牛童子携筐出　소 먹이는 동자 꼴망태 들고 나가
又愁天上黑雲洪　또 먹구름 한 늘에 널리 퍼짐을 근심하네

遠波朴洙燮

又

農家所望在於豐 농가의 소망은 풍년에 있는데
豪雨雷聲不絶空 호우와 뇌성이 공중에 끊이지 않네
彌月長霖初見日 달에 버친 긴장마 처음 허를 보니
大川漲溢水災洪 대천이 창일하니 수재 넓고 크구려

又

清江 朴龍德

長霖一月不望豐 한달 장마에 풍년을 바랄 수 없고
白日無看老少公 개인날을 볼수없으니 노소가 공평하네
耘女灌童長嘆息 김메는 여인 물대는 아이 탄식이 길고
耕夫饁婦盡勞空 농사짓는 남편들 점심내는 여인 다한 수고 허사로다

新涼

湖隱 金鍾敎

蘇子曾遊赤碧江 소동파 적벽강에
豪人何去鷺飛雙 일찍이 노니렀는데
暫棲松谷雲中鶴 호걸은 어디 가고
閒睡桃園月下尨 백로만 쌍으로 나는가
紅蓼搖風秋氣動 잠시 소나무 골자기에 깃든
白蘆洒雨暑炎降 구름가운데 학이요
蚤聲唧唧燈螢光耿 도원 달빛아래
燈下吟詩亂竹窓 한가히 조는 삽살개

붉은 여뀌 바람에 흔들려
가을 기운이 동하고
흰 갈대 비 뿌리니
더위가 내리누나
귀뚜라미 소리 찍찍
반디불 깜박이는데
등아래 시을으니
흥창이 오란하네

又

農隱 金義植

水天一色淨秋江 물과 하늘이 한가지빛
漁夫投竿問幾雙 가을강이 조촐한데
蘆荻沙洲眠白鷺 어부의 낚시 던짐은
藤蘿松院卧青尨 물노니 몇쌍이던고
井邊梧葉霜前落 갈대우거진 모래가에
園後菊花雪不降 백로가 졸고
萬物榮枯天與朋 등과 담쟁이 얽힌 솔동산에
朝夕書窓所命 청삽살개 누웠는냐

우물가의 오동잎
서리앞에 떨어져도
후원의 국화는
눈에도 굴하지 않네
만물의 성쇠함
하늘이 명한 바라
벗과 더불어 조석으로
글창 심방이구려

又

德菴 梁 因喆

潦盡天晴水碧江　장마다 참고 하늘 갠 물 푸른 강
荷竿漁夫伴雙雙　낚시대 멘 어부 쌍쌍이 짝짓네
牧童引犢尋芳草　목동은 송아지 끌고 방초 찾는데
故友招朋吠老尨　고우 벗 불으니 늙은 삽사리 짖누나
稻熟蓼紅秋氣動　벼 익고 여뀌 붉어 가을기운 움직여
風清蘆白暑炎降　바람 맑고 갈대 희니 서염이 항복이라
生徒登校無窮樂　생도들 등교하니 무궁한 낙이라
各抱希望上學窓　각각 희망 품고 학창에 오르네

又

慎菴 韓龍福

長林已歇步清江　긴 장마 이미 그쳐 맑은 강을 걸으니
秋色玲瓏與又雙　가을빛 영롱하여 흥 또한 쌍이로세
逐暑金風從此至　더위 쫓는 금풍 이로부터 이르고
振威火帝自今降　위엄 떨치는 화제 지금부터 항복이라
寒潭淡潔浮沙鷺　찬 연못 맑고 깨끗하니 모래위의 백로 뜨고
皓月揚明吠蜀尨　흰 달이 휘영청 밝으니 촉나라 삽사리 짖누나
燈火可親書看夜　등불 가까이 하고 글 읽는 밤
蟋聲籍籍聞山窓　귀뚜라미 소리 시끄럽게 산창에 들리는구려

又

風清月白淨秋江　바람맑고 달흰 가을강 깨끗한데
蘆渚歸鴻問幾雙　갈대갓 돌아온 기러기 물으니 몇쌍이든가
雨歇長堤飛紫燕　비개인 긴뚝 붉은 제비 날고
竹重故院吠青尨　대나무 드리운 고원 푸른 삽살개 조누나
熱風漸息凉風起　열풍이 점점 식으니 양풍이 일고
白帝嚴威赤帝降　백제 엄위에 적제가 항복하네
稻熟魚肥楓染節　벼익고 물고기 살찌고 단풍 물든 시절
初親燈火向書窓　처음 등불 친하여 글창으로 향하네

清江 朴龍德

又

茫茫天際碧波江　망망한 하늘가에 강 물결 푸른데
蘆渚明沙雁下雙　갈대갓 밝은 모래에 기러기 쌍으로 내리네
遥望松林棲白鶴　멀리 소나무숲을 바라보니 백학이 깃들고
回看竹院吠青尨　대나무동산을 돌아보니 청삽살개 짖는구려
丹楓萬里凋傷染　단풍만리 시들고 상하여 물들고
黄菊三秋冷不降　황국은 삼추의 냉에 항복 않누나
機上佳人聞促織　베틀위의 가인 재촉하여 베짜는 소리 듣고
書生明燭讀書窓　서생들 독서창에 등불 밝히는고야

龍山 朴在雨

又

抱村流硎合清江　마을 안고 흐르는 산수 청강에 합치니
雁陣隨陽下幾雙　기러기떼 양지따라 몇쌍이나 내렸는지
夜氣青冷鳴蟋蟀　밤 기운 선늘하니 귀뚜라미 울고
風聲蕭瑟吠青尨　바람소리 소슬하니 푸른 삽살이 짖누나
槿花滴露紅光艷　무궁화 이슬 젖으니 붉은빛 곱고
梧葉迎秋暑氣降　오동잎 가을 맞으니 더운기운 물러가네
黄菊丹楓餘約日　황국과 단풍 아직 기약날자 남었으니
周邊煙月照紋窓　주변의 연기와 달 창무늬에 빛이네

晩亭 白日寅

又

雁來叫唳下清江　기러기 오는 울음소리 청강에 내리니
燕去江南幾萬雙　제비 강남으로 몇만쌍이나 떠났는고
藤蘿幽洞睡青尨　등, 담쟁이넝쿨 깊숙한 골 푸른 삽살이 조는구나
竹林雨滴秋聲濕　대숲에 비 떨어지니 가을소리 젖고
松栢風生暑氣降　송백에 바람 이니 더운기운 물러가네
螢火亂飛汀渚近　반디불 물가에 가까이 어지러히 날고
三更蟋蟀亂紗窓　삼경에 귀뚜라미 소리 사창에 어지럽네

守軒 姜龍風

又

長霖已歇淨青江 긴 장마 이미 그쳐 푸른강 깨끗한데
蘆渚噫噫雁幾雙 갈대물가에 짝지어 우는 기러기 몇쌍이든가.
漠漠水田飛白鷺 막막한 물밭 백로 날고
寥寥客館睡青尨 고요한 객관 청삽살개 조네
金風瑟瑟從今至 쓸쓸한 금풍 이로부터 이르고
蒸暑炎炎自此降 불꽃살이 찌는 더위 이로부터 물러가누나
燈火可親書讀節 등화가친의 독서의 계절이라
知時蟋蟀啣紗窓 때를 아는 귀뚜라미 사창에 우는고야

雲波 趙寅熙

又

鴻雁來賓萬里江 기러기 손님 만리강의 손님이라
蘆花蓼岸下雙雙 갈대꽃 여뀌 언덕 쌍쌍이 내리네
蛉飛草原肥斑馬 잠자리 나는 초원에 얼룩말 살찌고
果結桃園睡老尨 과일 익은 복숭아밭엔 늙은 삽살개 조는구나
五穀登豐斜日晩 오곡이 풍년인데 해는 비껴 저물고
清風洒落酷炎降 맑은 바람 마음 상쾌하니 모진 더위 물러가네
月明露白三更夜 달 밝고 이슬 흰 삼경 밤에
只有蛩聲亂竹窓 다만 귀뚜라미 소리 있어 죽창에 어지럽구나

栗堂 崔鍾植

又

秋夜三更月滿江 가을밤 삼경 달빛 강에 가득한데
歸南燕子幾千雙 강남으로 돌아간 제비 몇천쌍이든가
寒侵野屋閒千戶 찬 기운 들집 침노하니 귀뚜라미 한가이 울고
客訪山村亂吠尨 산마을에 객이 심방하니 삽살개 어지럽게 짖누나
蕭瑟金風吹到始 소슬한 가을바람 처음 불어온데
蒸炎赤帝退離降 찌는 불꽃 적제 물러나 떠나는구려
是知造化循環理 이에 순환하는 조화 이치를 알아라
螢火飛來映户窓 반딧불 날아와 문창에 비치네

月洲 吳泳根

又

楓岸船歸月滿江 단풍언덕 배 돌아오고 달 가득한 강
蘆洲雁下十餘雙 갈대우거진 물가 기러기 십여쌍이 내리네
榮藤松樹棲孤鶴 등나무 얽힌 소나무에 외로운 학 깃들고
朶果桃園睡一尨 과일송이 도원에 삽살개 한마리 조누나
玉露頻霑秋氣盛 옥이슬 잦주 적시니 가을기운 성하여
金風始起暑炎降 가을바람 처음 이니 더위 불꽃 물러가네
黃波溢野登豐稔 황금물결 들에 넘쳐 풍년이라
明燭吟詩動竹窓 촛불 밝혀 시 읊으니 죽창에 움직이는구려

三虛 吳治滉

又

向南候鳥越湘江　남으로 향한 철새 소상강 넘어
萬里穿雲唳雁雙　만리 구름 뚫어 기러기 쌍으로 우네
苜野原頭跳黃犢　초야의 언덕 머리에는 노랑 송아지 뛰놀고
杏村屋下臥青尨　살구마을 집 아래 푸른 삽살개 누었도다
立秋當前淸風動　입추가 앞에 닥치니 청풍이 움직이고
白露將來暑降　흰 이슬 내리게 되면 모진 더위 물러가리
五穀登豐禾穗稔　오곡이 등풍이라 벼이삭 익으니
一枝紅果影垂窓　한가지 붉은 과일 그림자 창에 드리우네

草堂 鄭炳尹

又

月明天地水淸江　달 밝은 천지 물 맑은 강
燕去鴻來幾百雙　가는 제비 오는 기러기 몇백쌍인가
送子城南親夜燭　아들 성남으로 보내고 밤등불 가까이 하고
來賓洞口吠庭尨　동구에 손님오니 뜰에 삽살개 짖누나
昨霄初動金風起　어제밤 처음으로 금풍이 일어나니
今日方知火帝降　오늘 바야흐로 화제 퇴장 알리로다
不遠枝宮行大祭　머지 않아 교궁에선 대제 행하니
致誠淨潔聖賢窓　정결히 성현창에 치성하네

遠波 朴洙燮

仲秋

龍山 朴在雨

踈簾掛捲待朋時　성긴 발 섬어 올리고 벗을 기다릴 때
窓浦金風暑退微　창에 가득찬 가을바람 더위 물러나 희미하네
廣野稻黃興擊壤　넓은 들 노란 벼에 격양가 흥겹고
高樓月白作新詩　높은 다락에 달빛 희니 새로운 시 짓도다
雪梅霜菊今來事　눈속 매화 서리 국화는 지금 오는 일이오
楊柳桃花過去知　양류와 복숭아는 과거임을 알리라
不熱不寒方好節　덥지도 춥지도 않은 바야흐로 좋은 시절
擧杯酌醉斗牛移　잔 들어 영정케 취하니 두우성 옮기네

又

農隱 金義植

年中佳節仲秋時　년중 가절 중추 때라
五穀登豐興不微　오곡이 풍년이라 흥이 적지 않구려
畵客每尋楓葉岫　그림 그리는 사람은 단풍잎 산골 찾고
騷人不廢菊花詩　시인은 국화시를 폐하지 않네
寒蛬唧唧吹風恨　찬 귀뚜라미 직직 울어 바람불면 한탄하고
塞雁嗈嗈渡海知　변방의 기러기 울어대니 바다 건넘을 알리로다
羈旅三更鄉夢罷　나그네 삼경밤 고향꿈 깨니
空嘆步月曳笻移　부질없는 탄식 달을 걸으니 끄는 작대기 옮기네

又

正當八月仲秋時　바로 팔월의 중추에 당하니
雲淡天高日影微　구름 맑고 하늘 높아 해 그림자 가늘구나
大野黃波難寫畵　넓은 들의 황금물결 그리기 어렵고
滿山紅葉可題詩　산에 가득한 홍엽 시 씀이 가하구나
淸風吹到心惟活　맑은 바람 불어 닥치니 마음 오직 활발한데
白髮添來老益知　백발이 더하여 오니 늙을수록 알리로다
瞻掃先塋歸省路　선영 우러러 소제하고 귀성하는 길에
幾多車列後先移　얼마나 많은 차행렬 앞뒤로 옮기는구나

梅山 金鎭泳

又

露白蕨蒼景好時　이슬 희고 갈대 푸른 경치 좋은 때라
年中佳節興何微　년중의 가절 흥 어찌 적으리
寧看華楫歐陽賦　차라리 화답에 구양수의 부를 볼지언정
莫詠霜窓宋玉詩　서리창에 송옥의 시 읊지 마소
紅葉江楓蟬已識　붉은 잎 강 단풍은 매미가 먼저 알고
黃花籬菊蝶先知　노란 국화꽃 울타리는 나비가 먼저 아누나
登豐五穀農民興　오곡이 등풍하니 농민의 흥이라
飽賞歸程日又移　만족한 구경 돌아가는 길 해는 저녁으로 옮겼네

淸江 朴龍德

又

年中佳節仲秋時 년중가절은 중추시절이라
爽氣清光總不微 서늘한 기운 맑은 빛 다 적지 않네
海外旗標尋故國 바다 밖의 기표는 고국을 찾고
樓頭景物促新詩 다락머리의 볼거리는 새시를 재촉하는구나
碧空鶴唳誰先聽 푸른하늘에 학 울음 누가 먼저 들었는고
活水魚肥我已知 산물에 물고기 살찜을 내 이미 알았노라
石澗流流千里遠 석간수 흘러 흘러 천리나 먼데
三更皓月正西移 삼경의 흰달 정히 서쪽으로 옮기누나

湖雲 權興玉

又

時則年中最好時 때는 년중 가장 좋은 때라
不寒不熱又風微 차지도 덥지도 않고 또 바람 적구나
工夫晝夜勤磨琢 공부는 주야로 갈고 닦음을 부지런이 하고
興趣風光賦律詩 흥취는 풍광을 읊시에 짓도다
百果殷殷完熟際 백과가 주렁주렁 완숙일 즈음에
諸農等等大豐知 모든 농사 등등하여 대풍임을 알리로다
如流歲月誰能繫 유수같은 세월 누가 능히 붙들어 멜고
萬態千容自古移 천태만상이 자고로 옮기였네

月洲 吳泳根

又

秋雨梧桐墜井時　가을비에 오동잎 우물에 떨어질때라
坐看窓外動風微　앉아서 창밖을 보니 가는 바람 움직이네
塞鴻得意飛長夜　변방 기러기 뜻을 얻어 긴밤에 날아오고
霜鬢傷心詠古詩　흰머리카락 마음 슬퍼 옛시를 읊는구려
黃菊東籬霜落綻　동쪽 울타리 황국은 서리 내리니 피고
丹楓萬壑勝花知　만학의 단풍 꽃보다 나음을 알리라
登豐廣野翻金色　등풍한 광야에는 황금빛 번득이니
未久收藏歲月移　미구에 거두어 들여 세월 옮기리

春坡 梁炳夏

又

序屬三秋八月時　절기의 차례는 삼추에 속하는 팔월이라
寒來暑往自消微　더위 가고 찬기운 오니 절로 소미하네
黃花南國仍傾酒　노랑꽃 남쪽나라 인하여 술잔 기우리고
紅葉西風又賦詩　붉은 잎과 서풍에 또한 시 읊네
稱士英才焉易得　선비라 칭하는 영재를 어찌 쉽게 얻으리
驚人名句正難知　사람 놀라게 하는 글귀 정히 알기 어려워
淸閒趣味於何在　청한한 취미는 어디에 있는지
西嶺金烏不謝移　서쪽 산마루의 금까마귀 읊심을 사양하지 않네

守軒 姜龍鳳

又

玉露金風八月時　옥로 가을바람 팔월 좋은 시절
令吾當老感寒微　나 이제 늙음 당하니 한미함을 느끼네
農夫共醉良辰酒　농부와 같이 좋게 익은 술 취하고
騷客同吟昔日詩　글손과 함께 옛시를 읊는구려
寂寂山村蚕語亂　적적한 산촌에는 귀뚜라미소리 어지럽고
茫茫海島雁歸知　망망한 바다섬 기러기 돌아옴 알리라
悠悠百感連悽切　아득한 백가지 느낌이 회포 연함 간절하여
悵意登樓坐不移　창연한 뜻 루에 올라 앉아 옮기지 않네

晩亭 白日寅

又

井梧飄葉欲零時　우물가 오동잎 나부끼며 떨어지려는 때에
收穫家家事不微　수확한 집집마다 일 적지 않도다
望月閒情因憶友　달을 보는 한가한 정 인하여 친구 생각나고
賞楓餘興更吟詩　단풍구경 남은 흥취에 다시 시 읊는구나
蟋聲風亂斜陽晩　귀뚜라미소리에 바람 어지러워 해짐이 늦고
燕影天空換節知　하늘 높이 제비그림자는 절후 바뀜 알리로다
酒熟黃花香滿口　국화술 익어 향기 입에 가득하니
一年秋色腹中移　일년 가을빛 배속에 옮겼네

維石 梁國喆

又

佳節三秋最好時 가절 삼추가 가장 좋은 때라
魚肥禾熟興非微 물고기 살찌고 벼 익어 흥이 적지 않네
丹楓坐愛唐人賦 단풍을 앉아 사랑하니 당인의 부요
白酒相傳靖節詩 흰술 서로 전하니 도정절의 시로다
啷啷蟋蟀終夜亂 찍찍한 귀뚜라미 소리 밤 새도록 어지럽고
嗈嗈鴻雁下洲知 옹옹한 기러기 울음소리 물가에 내림을 아노메라
金風含笑東籬菊 가을 바람에 웃음 먹음은 동쪽 울타리 국화는
獨帶芳香播遠移 홀로 꽃다운 향기 띠어 멀리 퍼져 옮기누나

雲坡趙寅熙

又

四野登豐斂穡時 사방들 풍년 드니 수확할 때라
天寒水冷日陽微 하늘 차고 물 찬데 햇빛 가늘어
蘆絮風光每入詩 갈대꽃 풍광이 매양 시에 드네
菊花香氣頻傾酒 국화꽃 향기에 술잔 자주 기우리고
田野白蕎胡蝶訪 전야의 흰 모밀 호접이 찾고
泥汀紅蓼那蜂知 진흙가 붉은 여뀌 어찌 벌이 알리오
寸陰不惜平生恨 촌음 아끼지 않음은 평생 한이라
秋夜空嘆月影移 가을밤 공연한 탄식 달 그림자 옮기네

三虛吳治煌

又

草堂 鄭炳尹

江山樹木染霜時　강산의 수목은
五穀登豐樂不微　서리에 물들때라
樵徑牧童吹草笛　오곡이 풍년 드니
江樓騷客咏梅詩　즐거움 적지 않네
天邊暮日催蟬先覺　나무길 목동은
塞外凉風鴈已知　풀피리 불고
雲斂清宵多月色　강루의 시객은
愛遊人影往來移　매화시 읊는고야

하늘가 저문 해
매미 먼저 깨닫고
변방밖의 서늘바람
귀뚜라미 이미 아누나
구름 서친 맑은 밤
달빛 많으니
사랑하며 노니는 사람그림자
오가며 옮긴는구려

又

顧巖 李成熙

年中月色最明時　년중 달빛이
稻熟魚肥興不微　가장 밝은 때라
幾誦赤江前後賦　벼익고 물고기 살찌니
愛吟黃菊古今詩　흥 적지않구려
少年放浪無人識　적벽강 전후부를
晩境衰殘對鏡知　몇번이나 외웠는고
四面平郊豐盛節　노란국화 고금시를
行行墓道日西移　사랑하며 읊는구려

젊은 날의 방랑
아는 사람 없지만
노경의 쇠잔한 모습
거울 대하니 아노메라
사면 평평한 들
풍성한 시절이라
성묘길 가고가니
해 서쪽에 옮기누나

又

蕭瑟金風八月時 소슬한 가을바람 팔월의 시절
興非微 눈앞의 볼거리는 흥이 적지 않네
有誰不灑牛山淚 누가 있어 牛山의 눈물 뿌리지 않으리
今我悲吟宋玉詩 내 이제 송옥의 시 슲이 읊노라
登嵇野禾三夏過 들에는 벼이삭 여무니 세여름 지났고
吐香籬菊獨春知 향기 토하는 울 국화 홀로 봄을 아누나
橋頭馬拂垂楓林下 다리머리 말 떨친 단풍숲 밑에
嘶嘆聲中步步移 울고 운 소리 가운데 걸음 옮기네

仁山 趙昌武

又

萬壑丹楓正盛時 만학의 단풍 바로 성할 때니
不寒不暑亦風微 춥지도 덥지 않으니 또 바람 가늘고야
天孫織錦千屛畫 천손이 비단 짜니 일천 병풍 그림이오
士子開唇萬首詩 선비 입을 여니 만수의 시로세
江燕途遥飛海習 강남제비 갈길 머니 먼 바다 날기 익히고
塞鴻智足拒蘆知 변방의 기러기 지혜 족하여 갈대 막음 아는구나
四時佳節凉秋月 사시 가절 선선한 가을 달
省隧思親日影移 성묘하고 어버이 생각에 허 그림자 옮겼네

遠坡 朴洙燮

晚秋

晚秋楓菊景相交　늦가을 단풍 국화 경치 서로 어울리고
賞客登山備酒肴　완상객 산에 오르니 술과 안주 갖추었네
紅蓼岸窺鴛下渚　붉은 여뀌 언덕 엿보아 갈매기 물가에 내리고
白蕎花訪蝶飛郊　흰 모밀꽃 찾아 나비 들에 나는고야
日斜茅屋青霞發　날 비낀 띠집에는 푸른 그을 일어나고
風動紗窓綠竹敲　바람 이는 사창에 녹죽이 두드리누나
九月寒蛩終夜唧　구월의 찬 귀뚜라미 밤새도록 찍찍거리고
老松蒼盉鶴來巢　노송 창을하니 학이 와 둥지 하네

農隱 金義植

又

菊楓兩景好相交　국화 단풍 두경치 좋게 서로 어울렸네
觀賞人人帶酒肴　관상하는 사람마다 술과 안주 갖었네
千里馬嘶荒草路　천리마 황초길에 울음 울고
一群雁下荻花郊　한떼의 기러기 갈대꽃 들에 내리누나
士耽古史親燈讀　선비는 고사를 탐하여 등불 밝혀 읽고
婦製冬衣亂杵敲　여인은 겨울옷 지어 방망이 어지러이 두드리네
江南燕去故鄉晚　강남 제비는 고향 등지로 갔구려
慎菴 韓龍福　금수강산 동방 가을 이미 늦으니

又

江楓野草景相交 상단풍과 들풀 경치 서로 섞여
玩賞登臨載酒肴 구경하여 산에 오른 이 주호 실었네
香吐菊花開後院 향기 토한 국화 후원에 피고
風飄梧葉散前郊 바람에 나부끼는 오동잎 앞뜰에 흐터지누나
雁窺蘆渚穿雲下 기러기 갈대꽃 엿보아 구름 뚤어 내리고
僧訪菴關帶月敲 중은 절대문 찾아 달을 띠고 두드리네
霜落江山秋已晚 서리 내린 강산에 가을 이미 늦으니
燕歸南國故鄉巢 제비는 남쪽나라 고향 둥지로 돌아갔구나

晚翠 梁炳朝

又

山楓野菊雜相交 산단풍 들국화 서로 섞여 엉클리니
處處遊人備酒肴 곳곳에 유상객 술과 안주 가추었네
陶令籬邊堪醉咏 도연명은 울가에 결디어 취하고 읊으며
賈仙月下惱推敲 가도는 달아래 퇴고로 시달렸구나
萬林欲落凋千谷 일만숲 떨어지고자 일천골 시들고
五穀收藏寂四郊 오곡을 걷두어 갈무니 사방들 고요하네
院竹凉風秋正晚 후원의 대 서늘바람 가을 정히 늦어
庭松聳翠鶴來巢 뜰 소나무 푸르게 솟아 학이 와 둥지하네

雲坡 趙寅熙

又

寒來暑往夏秋交　차서움 오니 더위 가고 열름과 가을이 교대라
庭果園蔬盡是肴　뜰과일과 후원 나물 다이 안주로다
飽餌鮻鱸肥沼澤　먹이배 부른 미꾸리와 농어 소택에 살쩌 있고
凌霜楓菊滿山郊　서리 능멸한 단풍 국화 산과 들에 가득하구나
隨陽鴻雁穿雲唳　볕 따라 기러기 구름 뚫어 울고
製服梱砧帶月敲　옷지어 달빛 띠고 다드미질 하네
蕭瑟金風蟲亂唧　소슬한 가을바람에 귀뚜라미 어지러이 우니
旅窓孤客欲歸巢　여창의 외로운 나그네 집에 돌아가고파 하리

魯史 梁麟洙

又 翠松 金鎭泓

霜菊蘆花爛漫郊 서리국화 갈대꽃 난만한 들에
逍遥賞客往來交 소요하며 구경하는 나그네 왕래하여 사귀네
寒天皓月蕭蕭夜 차거운 하늘, 흰달 소소한 밤
江燕南歸訪舊巢 강남제비는 남쪽으로 돌아가 옛둥지 찾었으리

又 湖隱 金鍾敏

玉露金風滿四郊 구슬같은 이슬, 가을바람 사방들에 가득한데
萬山楓染客停敲 만산의 물든 단풍 객이 작지 멈추네
時當晚節黃花老 때는 늦은 절후 당하여 황화 늙었고
鳥帶斜陽各入巢 새는 사양빛 띠고 각기 둥지에 드는구나

又 小泉 金昌泳

丹楓黃菊雨相交 단풍과 황국 들이 서로 어울리니
處處遊人載酒着 곳곳에 노니는 사람 술과 안주 지녔네
燕去鴻來秋正晚 제비가고 기러기 오는 가을정히 늦은데
偷閒此日步江郊 한가함 빌린 이날 강들을 거니는구나

又 清江 朴龍德

紅黃染樹葉相交 울긋불긋 물든나무 잎이 서로 사귀니
不辨楓枝十里郊 십리 교외에 단풍가지 구별하지 않네
山寺鍾聲幽谷響 산사의 종소리 골자기에 그윽한데
老松古槲鶴棲巢 노송의 고갱이에 학이 둥지 한누나

梁公忠孝旌閭重建詩

湖隱 金鍾敏

萬苦之餘獨貴榮　만가지 고생끝에 홀로 귀하고
芳年拔擢綉衣卿　꽃다운 나이에 수의사또 영화로우니
天階升降從臣禮　궁전뜰 오르내려 신하의 예 따르고
萱榻晨昏盡子誠　어머니 잠자리 아침저녁 아들 성의 다 하였오
詩禮傳家誰不賀　시례를 전가하니 누가 하례 않으며
孝忠繼世孰衰旌　충과 효 대 이으니 어찌 정문 포양 않으리
貴門連續賢人出　귀문에 어진인물 연하여 나오니
遠祝門閭再建成　멀리서 정여문 중건함을 축하합니다

又

農隱 金義植

早世登科一世榮　이른해에 등과하니 일세의 영광이라
順風官路至公卿　벼슬길 순풍으로 공경에 이르도다
養親竭力安心志　어버이 봉양 힘 다하여 심지를 편안케 하고
輔國無欺盡至誠　나라를 도움에 속임없이 지성을 다 하였소
忠貫日星垂竹帛　해와 달을 관통한 충성 죽백에 드리우고
孝聞朝廷命褒旌　조정에서 효도 듣고 정문 포양 명했도다
裔孫重建如斯壯　자손들 중건이 이같이 웅장하니
遠近儒林賀落成　원근 유림들이 낙성을 축하하네

又

挺出名門得第榮　명문에 빼어나 급제의 영광 얻어
迺登堂上擢公卿　이어 당상관에 올라 공경에 발탁되도다
事親恒切劬勞感　어버이 섬김에 항상 구로의 느낌 간절하고
爲國能輸盡命誠　나라 위하여 능히 목숨 다한 정성 비쳤네
百世貞忠垂竹帛　백세에 곧은 충성 죽백에 드리우고
千秋至孝表閭旌　천추의 지극한 효성 마을 정려 표했구려
龍蛇倭寇兵焚後　임진년 왜구의 병란으로 불탄 뒤에
惟有賢孫再建成　오직 어진 자손 있어 재건을 이루었네

愼菴 韓龍福

又

冠年折桂得光榮　약관에 급제하여 광영 얻으니
翰苑慶風吹上卿　한림원의 경사바람 상경에 불었도다
心切劬勞追孝道　마음이 구로에 간절하여 효도 따라하고
身荷大任盡忠誠　몸에 대임을 지니 충성을 다 했구려
輿論藉藉登儒薦　여론이 자자하니 유림의 천에 오르고
天鑑昭昭下命旌　하늘의 서울 소소하여 정려의 명을 내렸도다
兵禍壬丁何忍說　임진·정유년의 병화 어찌 참아 말하리
重修今日奐焉成　중건한 오늘 빛나게 이루었구나

東谷 安鍾默

晩翠 梁炳朝

又

挺出斯賢一世榮 이현인 남달리 빼어나니 일세의 영화라
弱冠登第至公卿 약관에 급제하여 공경에 이르도다
孝深萱榻無違志 어머님께 효도 깊어 뜻 어김 없고
忠極天階盡致誠 군왕에 극진한 충성 정성 다 바쳤구려
遺蹟尚存眞吉地 끼친 자취 상존하니 진실로 길지오
精靈如在是思旌 정령이 계신듯 하니 이은전의 정여로세
更漆丹雘尤光彩 단청 다시 더하여 더욱 광채나니
揀擇良辰告利成 좋은 날 간택하여 이성을 고하누나

晩翠 梁炳朝

又

十載做工三日榮 십년 공부하면 사흘의 영화라
早登宦路陟公卿 일찍 벼슬길 올라 공경에 올랐도다
忠義千秋王蠋狀 만고에 빛나는 행실은 맹종의 효도오
文廟當時多薦狀 천추에 빛나는 충의는 왕촉의 정성이로세
龍城古宅揭褒旌 당시에 향고에서 추천장 많았으니
壬兵亂後賡重建 임진 병난 뒤 다시 중건하니
陟降英靈妥享成 고르내리신 영령 편안한 누림 이루었구려

月洲 吳泳根

又

吾祖登科一世榮　우리 선조 등과 일세의 영광이라
冠齡昇進上公卿　이십나이에 승진하여 공경에 오르도다
千秋不忘施仁德　인덕을 베품을 천추에 잊지 못하고
萬代追崇致愛誠　사랑과 정성을 다함 만대에 추숭함이로세
輔國安民明政策　나라 돕고 백성안보 정책에 밝음이요
盡忠行孝命衰旌　충성 다하고 효도하니 정여로양 명함이라
翬飛閣閣中天屹　꿩이 날은 정여각 중천에 높았으니
蒼壁排雲玉削成　창벽에 구름 헤쳐 옥을 깎아 세웠도다

春坡 梁 炳 夏

又

十年燈下馬頭榮　십년 등불아래 공부 말머리 영화라
學德超然爵上卿　학덕 초연하여 벼슬이 상경이로다
補國衷情千世赫　나라 돕는 충정 천세에 빛나고
事親孝行四時誠　어버이 섬긴 효행 사시의 정성이로세
東馳山勢環屛列　동으로 달린 산세 병풍같이 둘러 나열하고
南帶川光照鏡旌　남으로 띤 천광 정문을 거울같이 비친구나
乃見機微鄉里返　이에 기미를 보고 고향마을 돌아오니
經綸德業自然成　경륜과 덕업 자연 이루었구려

後山 姜 大 璿

又

天賦梁翁百歲榮　하늘이 양옹에게 백세영화 주셨으니
曰忠曰孝曰公卿　이른바 충과 효와 공경이라
安民輔國傾精力　백성안보 나라도움 정력을 기우리고
敎子供親盡愛誠　자식 교육, 어버이 공양 사랑과 정성 다하도다
事業生前鳴大鼓　사업 생전에 큰북 울리고
芳名逝後命思旌　아름다운 이름 가신뒤 은혜의 정표 명함이라
雲仍繼述勤尤篤　자손들이 이은 사업 부지런하고 더욱도독하여
重建如今告落成　중신한 오늘 낙성을 고하누나

晩亭 白日寅

又

盛年昭代早登榮　성한 나이 밝은 시대에 일직 영화에 올라
歷事三朝到正卿　세조정을 겪하여 섬겨 정경에 이르도다
退職心惟尊大義　퇴직후에도 마음은 오직 대의를 높임에 있고
養親志在盡心誠　어버이 봉양의 뜻 마음과 정성 다함에 있음이라
清名一世文衡宅　맑은 이름 일세의 문형 집안이오
卓行千秋忠孝旌　높은 행실 천추의 충효 점려로다
天理人彝終不泯　천리와 사람의 도리 마침내 없어지지 않았으니
更尋遺蹟使重成　다시 유적찾아 하여금 중건케 하였네

湛軒 權 熙 文

又

天出斯賢一世榮 하늘이 이현인을 내어 일세의 영화오
孝心出衆辭公卿 호심이 출중하니 벼슬은 공경이로다
保民功績宜登史 백성 보호한 공적 마땅이 역사에 오르고
輔國精神盡致誠 나라도운 정신 어찌 정성 바치지 않으리오
左右江山增彩色 좌우강산 채색 더하고보니
丹青閭閣倍光旌 단청한 여각 배나 빛난 정로일세
根深枝茂當然理 뿌리깊으면 가지 무성함은 당연한 이치라
頌祝雲仍再建成 자손들 재건의 낙성 송축하도다

小泉 金昌泳

又

龍城故宅世繁榮 응성옛집이 대대로 번성하니
宦路高登二品卿 벼슬길 높이 올라 이품의 공경이로다
關下丹忠明大義 대궐아래 붉은 충성 대의를 밝히고
厨中甘旨致精誠 부엌가운데 단맛은 정성을 바쳤네
光風霽月無雙地 광풍제월 무쌍한 곳이오
智水仁山第一旌 지수 인산 제일의 정여일세
變幻滄桑今莫道 변환의 상전벽해 이제 이르지 마오
喬然成 고고 장엄한 중건 나는듯이 이루었네

守軒 姜龍凰

又

知機安分不求榮 기미 알고 안분하여 영화 구하지 않으니
玉潔清操勇退卿 옥같이 깨끗하고 맑은지조 공경에서 용퇴하였네
志在養親歸反哺 뜻이 양친에 있어 돌아와 반포하고
心存報國守丹誠 마음을 보국에 두어 붉은 정성 지켰도다
善治常思從民願 선한 정치는 항상 백성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孝行宜堂表命旌 효행은 마땅이 정여명하여 포상함이 당연함이라
時異意同經世久 때는 달고 뜻은 같은데 세월이 오래이니
盡慚此役晩今成 어찌 이제 늦게 이룸이 부끄럽지 않으리오

魯史 梁麟洙

又

少年登第馬頭榮 소년 급제하여 말머리 영화라
濟弱扶傾爵上卿 약함 선지고 기울을 붙들어 상경의 벼슬 이구려
北望君王明大義 북으로 군왕 바라보아 대의를 밝히고
南來父母奉眞誠 남으로 와 부모를 진성으로 받드렀도다
衣冠繼世稱朝野 의관이 대를 이으니 조야가 칭송하고
忠孝傳家褒命旌 충효를 집에 전하니 정여 명하여 포양하였네
五百載前悠久事 오백년전 유구한 사적
雲仍合力復元成 자손들 힘을 합쳐 복원을 이루었오

三虛 吳治滉

又

曾聞登第得光榮 일찍이 등제하여 광영을
驚嘆冠齡爵上卿 얻었다 들었으니 이십나이 상경벼슬
輔國忠情無變動 경탄하였소 나라돕는 충성
事親篤志不違誠 변동 없고 어버이 섬기는 독지
偉勳今世遺人範 정성을 어기지 않도다 위대한 공훈 금세에
至孝當年賜命旌 사람 모범으로 남기고 지극한 효도 당년에
瞻仰奔趨重建地 정여의 명 내리셨네 첨망과 앙시의
萬人慶賀翼然成 달려가는 중건한 땅에 만인이
익연하게 이룸을 경하하네

三南 梁錫鎬

又

弱冠双第一生榮 약관에 급제하여 일생의 영광이라
聞道英才到上卿 문도의 영재라야 상경에 이름이라
治政清廉崇道德 치정이 청렴하니 도덕을 숭상하고
奉親孝行盡心誠 봉친의 효행은 마음과 정성 다 함이로다
名聲萬里傳人世 명성은 만리의 사람세상 전하고
芳蹟千秋拂命旌 꽃다운 사적 천추에 정려명하여 떨치누나
甚羨貴門園合力 귀문의 단합하는 힘 매우 부러움이오
門閭重建玉碑成 문려를 중건하고 옥돌비 세움이여

草堂 鄭炳尹

又

二十當年折桂榮　이십 당년에 계화 꺾은 영화는
漸登二品爵公卿　점점 이품에 올라 벼슬이 공경이라
見機歸里辭官路　기미보고 향리로 돌아와 벼슬길 사양하고
安分修身致至誠　안분과 수신으로 지성을 이루도다
江北遥遥望思北闕　강북을 멀리 바라보니 북궐을 사모하고
漢南早闡是南旌　한수 남에 일찍 들어나니 이 남쪽 정려로세
重修翠閣如斯壯　중수한 나는듯한 정각 이같이 웅장하니
皓月無休照順成　흰 달빛 그침없이 순성함을 비쳤도다

姜翊聲

丹楓

一年莫莢不多餘　일년 첵력 많이 남지 않었는데
萬壑景光難盡書　만학의 경광 다 쓰기 어렵구나
如火如燃粧寺院　불같이 타는듯이 사원을 장식하고
非香非蕚繞村廬　향기도 아니고 꽃도 아닌데 촌집을 둘렀네
金風颯颯秋陽晩　가을바람 삽삽하여 가을 볕 늦으니
霜葉蕭蕭日影疎　서리잎 소소하여 해그림자 성그도다
自古登高觀賞苦　옛부터 등고하여 관상이 괴로우니
從今移植草堂墟　이제 초당 빈터에 옮겨 심으리

愚東 吳秉權

又

是歲於焉數月餘　이해가 어느듯 두어달 남었는데
晩秋勝景盡難書　늦은 가을 승한 경치 글로 다 쓰기 어려워
停車觀客延迷路　차 멈춘 관객은 미로에 느러저 있고
落葉飄風下古廬　낙엽이 바람에 날려 옛 움막에 내리누나
紅樹寒山霜氣冽　붉은 나무, 차거운 산 서리기운 매서운데
赤裳幽谷雨聲踈　적상산 깊은 골자기 비소리 성그도다
若令人力能移得　만일 사람의 힘으로 능히 옮길 수 있다면
願此楓林植置墟　원컨데 이 풍림을 빈터에 심어 두리

愼菴 韓龍福

又

九秋霜葉惜情餘 구추의 서리잎이 애석한 정 남어
玩賞風光欲畫書 즐겨보는 풍광 그림 그리고 싶구나
古郭新粧皆錦繡 옛성곽 새로 단장하니 모두 수놓은 비단이요
勝區增彩似仙廬 승한 곳 채색 더하니 신선의 움막 같구려
驢鞍解下墻頭隱 나귀 안장 풀어 내려 담장머리 숨기고
樹影推移戶外疎 나무그림자 밀루어 옮겨 문밖이 성그도다
忽憶車中唐士句 문득 차중에 당나라 선비 글귀 생각나니
登高石徑坐空墟 높은 석경 올라 빈터에 앉음이라

晩亭 白日寅

又

收禾役歇稍閒餘 벼 수확 마치니 차차 한가로워지고
霜落風高按曆書 서리내리고 바람 높아 책력 살피네
時或停車休澗畔 때로 혹 차를 멈추고 시냇가에 쉬며
又頻尋酒訪村廬 또 자주 술 찾아 시골 움막 찾은구려
玩逢節屐情尤密 구경길 작지와 나막신만나니 정 더욱 친밀하고
景致紅黃趣下疎 경치 붉고 노란것이 취미 성글지 않네
是葉非花惟色染 이 잎이 꽃이 아니라 오직 물든 빛이라
正宜移植隔隣墟 정히 이웃 빈터에 옮겨 심음이 마땅하구나

湛軒 權 熙 文

又

霜風瑟瑟一旬餘　서리바람 쓸쓸함이 한 열흘 남짓한데
紅染峰巒似畫書　붉게 물든 봉우리 그림 같구나
行樂遊兒歌起岳　청락에 노는 아이 노래 소리 뫼뿌리에 일고
題詩騷客醉歸廬　글 짓는 시객은 취하여 움막에 들아오네
燒燃山谷楓林寂　타는듯한 단풍숲 산골자기에 빽빽하고
萎敗庭園菊朶疎　시들어 패한 정원에 국화송이 성그도다
莫作蕭蕭落木墟　늦은 가을에 삼춘경치 본듯하니
晚秋如見三春景　소소한 낙목의 터전 되지마오

維石 梁國喆

又

深秋九月一旬餘　깊은 가을 구월 한 열흘 남었는데
爲愛丹楓送友書　단풍사랑의 뜻 친구에 편지 띄우네
瀝血山河千萬樹　피뿌린듯한 산하에 천만그루의 나무요
染裳洞壑雨三廬　물든 치마 동학에 두서너 집이로세
停車玩賞心無斁　차 멈추고 완상하니 마음 싫지 않고
携酒傾盃興不疎　술이끌어 잔 기우리니 흥 성그지 않네
霜葉黃花相映好　서리잎 노란꽃 서로 비추어 좋은데
又兼返照入江墟　또한 아울러 비쳐 강변에 비쳐 드네

遠波 朴洙燮

龍山 朴在雨

又

滿山紅紫畫屛書　산에 가득한 홍자색 병풍에 그린 그림이라
光彩燦爛興有餘　찬란한 광채 흥 남음이 있도다
九月晩秋觀賞客　구월 늦은 가을 관상객들
可憐楓葉若干疎　가련한 단풍잎 약간 드므네

晩翠 梁炳朝

又

楓葉如花興有餘　단풍잎 꽃같아 흥 남음이 있으니
千林萬樹似圖書　일천숲 일만나무 도서같구나
出門疑是春三月　문을 나서니 봄삼월인듯 의심나고
滿載香醪入暮廬　향그러운 막걸리 가득 싣고 저문 움막에 드누나

觀光

農隱 金義植

風光恰似武陵圖　풍광이 흡사 무릉도원 그림같으니
秋晩江洲雁下蘆　늦은 가을 기러기 강가 갈대밭에 내리네
漁老垂竿雲捲塞　늙은 어부 낚시 드리우니 구름 변방에 서치고
胡僧訪寺日斜途　나이 많은 중 해 저무니 절 찾아 가는고야
海洋貿易開要港　해양의 무역 요긴한 항구 열었고
洞壑鮮明作別區　동학은 선명하여 특별한 구역 지었구려
錦繡江山流浪客　금수강산을 유랑한 객이
娛遊載酒泛舟湖　즐거운 놀이 술 싣고 배 강호에 띄우누나

又

德菴 梁 因喆

槿域風光似畵圖　근역의 풍광은 마치 그림과 같으니
當先秋景在蘆葭　가을경치는 마땅이 먼저 갈대에 있네
役夫就枕三更月　역군은 삼경달에 벼게를 비고
韻士乘車萬里途　시읊는 선비 차에 타 만리길 오르는구려
綠髮拂衫尋別界　푸른머리 적삼 떨쳐 별세계 찾고
皤鬚携杖訪名區　흰 수염 작지 끌어 명구를 찾는구나
三三五五優遊客　삼삼 오오 우유한 손이
又復乘閒泛海湖　또다시 한가함 타 바다 호수에 뜨는구려

又

時維冬至玩行圖　때는 오직 동지에 관광길을 도모하니
雁鳥隨陽下岸蘆　기러기는 양지따라 갈대 언덕 내리네
南海西江開港口　남해와 서강은 항구를 열었고
千峰萬壑闢車途　천봉 만학은 차길 개척했구려
松蒼水綠皆清境　솔 푸르고 물 푸르니 다 맑은 경지오
岩老苔青作別區　늙은 바위, 푸른 이끼 특별한 구역 지었구려
世慮忘來當此處　세상 염려 잊고 와 이곳에 당하니
關東八景此一湖　관동팔경에 이 하나의 호수로다

清江 朴龍德

又

觀光伴友上車途　관광에 벗과 더불어 차길에 오르니
到處江山絶勝區　강산 도처가 절승의 구역이로다
九萬長天來皓月　구만리 장천에 흰 달이 떠 있고
三千里地接清湖　삼천리 망이 맑은 호수 잇대었네
王陵日暮鳩投閣　왕릉에 해 저므니 비둘기 집에 들고
僧寺鍾聲雁下蘆　승사의 종소리에 기러기 갈대밭에 내리누나
好是青丘皆錦繡　좋고 좋은 이 동방이 모두 다 수놓은 비단이라
奇岩怪石似仙圖　기암괴석이 신선도 같구려

春坡 梁炳夏

又

景物娟娟活畫圖 볼거리 곱고 고와 산 그림이라
霜風雁陣下汀蓋 서리바람에 기러기떼 물가 갈대에 내리누나
鼕林飛鳥投山屋 울창한 숲 나는 새 산심에 투숙하고
暮日歸僧訪寺途 저문날 돌아가는 스님 절길 찾아가네
玉石群峰藏勝域 옥석의 모든 봉우리 명승지 감추고
金波流水抱靈區 황금물결 흐르는 물 신령한 구역 안고도네
觀光笻屐相尋客 지팡이와 나막신 관광에 서로 찾은 객이
題軸吟觴淡似湖 시를 써 읊고 마시니 담담한 호수 같도다

守軒 姜龍鳳

又

勝地風光一幅圖 승지의 경치 한폭의 그림이라
明沙綠水白花蘆 명사와 녹수 흰갈대 꽃일세
洋洋浩浩無邊海 넘실넘실 넓고 넓은 갓없는 바다오
轉轉廻廻不盡途 구비구비 돌고 도는 끝없는 길이구려
馬濟興亡兵火地 마한 백제 흥망과 병화의 지역이오
群長貿易港灣區 군산 장항 오가는 항만의 구역이로다
吾儕作伴幾宵宿 우리들 작반하여 몇밤을 잤던가
昨日嶺南今日湖 어제는 영남이오 오늘은 호남일세

維石 梁國喆

又

山河景致總書圖　산하의 경치 모두 도서라
洲渚風光勝白蘆　물가 풍광 흰갈대 빼어나도다
雪積孤村難別境　눈쌓인 외로운 마을 경계분별 어렵고
雲開大谷露樵途　구름 서린 큰골자기에 나무하는 길 노출하네
峰巒秀麗環成局　수려한 봉우리 둘러서 좋은 형국 이루고
岩石高低自作區　높고 낮은 암석 스스로 승구 지었도다
萬像榮枯從此賞　만상의 영고를 이로부터 관상하고
更將樽酒泛江湖　다시 술동이 가지고 강호에 뜨는구려

雲坡 趙寅熙

又

年老耽遊是善圖　늙어서 놀이 탐함이 이 잘한 도모라
人情世態若風蘆　인정과 세태는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음이라
大都亂立高層屋　큰도시에는 고층빌딩 난립하고
僻地相通快速途　벽지에도 쾌속도로 상통하누나
湧出溫泉藏秘藥　솟아난 온천수는 신비한 약 갈렸고
自生珍品擅名區　자생한 진품은 명승지구를 들쳐냈네
殊方文物便多感　다른 지방 문물 문득 느낌 많으니
一泊走行忠嶺湖　한밤 자고 충남 영남 호남을 달려 다녔구나

魯史 梁麟洙

又

秋天景致總書圖　가을하늘 경치는 모두 도서라
滿眼沙洲兩岸蘆　눈에 가득 모래물가 두언덕의 갈대로다
欲看扶桑紅日出　부상에 붉은 해 허돌음 보고와서
攀登絶頂白雲途　백운길 따라 절정에 더우잡아 오르도다
洪城物色繁華地　홍성의 물색은 번화한 지방이오
德寺山容太古區　수덕사의 산자태는 태고의 구역이로다
詩友觀光幽興叙　시우와 관광하니 그윽한 흥취요
襟懷友誼淡如湖　가슴에 품은 우의 담담함이 호수같구려

顧巖 李成熙

又

一望景物總雄圖　모든 경치를 한눈으로 보니
栗烈朔風飄白蘆　살을 에는듯한 북풍에 흰갈대 나부기네
錦繡江山羅列地　금수강산 나열한 지방이오
煙霞洞窓往來途　연기와 노을 동학은 왕래한 길이라
相尋古蹟緣由址　옛사적 연유의 터를 서로 찾고
見學農工發展區　농공산업발전한 구역 견학하도다
自古人多觀光作　자고로 관광하는 사람 많으니
優遊豪客滿江湖　놀기 좋아하는 호객 강호에 가득하구려

三南 梁錫鎬

又

滄海船歸一幅圖　창해의 돌아온 배 한폭의 그림이라
冬天雁叫下洲蘆　겨울하늘 기러기 울며 물가 갈대에 내리누나
漸花滿發粧山樹　성애꽃 만발하여 산나무 단장하고
瑞雪紛飛積谷途　상서로운 눈 어지러이 날아 골자기 길에 쌓이네
畫促馳車名勝地　낮에는 명승지에 차 달림 재촉하고
夜休巡酌月明區　밤에는 휴식하면서 달 밝은 곳에서 순배로다
少時不羨流浪客　소시에는 유랑객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老去心情訪四湖　늙어 가는 심정은 사방호수 심방하네

草堂 鄭炳尹

又

治行先察觀光圖　행장 꾸릴제 먼저 광광도를 살피고
往復忠淸海岸蘆　충청도 해안 갈대를 왕복함이라
俄看新都興旺地　아까 새도시의 흥왕의 지대를 보고
更登故國盛衰途　다시 고국의 성쇠의 길에 오르도다
依稀城郭留陳跡　어렴풋한 성곽 묵은 자취 머물고
華麗江山盡勝區　화려한 강산 모두 명승구역일세
警世鐘聲歸路促　세상 깨우치는 종소리 돌아가는 길 재촉하고
復乘漁艇泛淸湖　다시 고기배 타고 맑은 호수에 뜨네

逮波 朴洙燮

慎菴 韓龍福

又

竹杖芒鞋出雨湖 죽장 망혜로 양호에 출발하는데
數三知己共行途 두서넛 지기지우 같은길 동행하였네
踏觀水水山山好 답사하여 보니 물과물 산과 산 다 좋은데
眞是東方第一區 진실로 이동방 제일의 명구일세

翠松 金鎭泓

又

千峰雪景正如圖 천봉의 설경 정히 그림 같은데
諸益冒寒向玩途 여러익우 추위 무릅쓰고 관광길 향하네
幸有今行多見識 다행이 이설음에 보고 앎이 많음을 얻었으니
臨山渡水總名區 산에 이르고 물 선너니 모두 명구일세

韓大鉉

又

鄕儒作伴觀光途 향유 작반하여 관광길에 올라
望裡江山盡畵圖 망리 강산을 바라보니 그속이 다 그림이로다
回顧前朝遺恨地 회고의 한을 남긴 땅
千年古蹟變荒區 천년 옛자취 황폐한 구역으로 변하였네

小心 韓秉斗

又

諸益咸諾此行圖 여러친구 이걸음 모두 도모를 승락하였는데
雪滿山村雁泛湖 산촌엔 눈 기득하고 기러기 호수에 떳네
一咏一觴猶不足 한번 읊고 한번 비심이 오히려 부족하여
每當絶景故停途 매양 절경을 당하면 짐짓 길 멈추는구려

雪景

湖隱 金鍾敏

雪下平朝至日西　눈이 아침부터 날 저물때까지 내리니
淺深山野一如齊　얕고 깊은 산과 들 한결같이 가즈런하네
耐寒東閣梅香吐　추위견딘 동각에는 매화 향기 토하고
待暖南涯柳意低　따뜻함을 기다린 남쪽 물가 버들 뜻 나즉하도다
江上結氷波不動　강위에 얼음 어니 물결 움직이지 않고
檐端映月屋尤迷　처마끝에 달 비치니 가옥이 더욱 희미하네
數三諸友聯襟席　두서넛 친구들 연좌한 자리에
更約明春踏石溪　다시 내년 봄에 석계 답사를 약속하도다

又

慎菴 韓龍福

雪滿東南又北西　눈이 동남과 또 북과 서에 가득하니
茫茫白色接天齊　망망한 백색 하늘에 가즈런히 접하였네
高檐懸筍垂軒下　높은 처마에 달린 고드름 말구 아래 드리우고
修竹凝氷倒院低　긴대나무엔 얼음 얼어 후원에 기울어 나즉하고나
萬壑千峰銀積積　만학천봉에 은이 쌓이고 쌓였는데
四方百里路迷迷　사방 백리길 희미하고 희미하구나
寥寥寒夜人煙寂　고요하고 차거운 밤 사립 연기 적적한데
蟾月玲瓏獨照溪　명롱한 달빛 홀로 시내 비치는데

晚翠 梁炳朝

又

紛紛白雪遍東西　분분한 백설 동과 서에 떠지니
萬里山河一色齊　만리산하가 일색으로 가지런하도다
回顧千林花重疊　돌아보니 꽃이 중첩한 천림이오
難行四野路高低　가기 어려운 사방이 길이 높고 낮구려
尋巢飛鳥歸霜簷宿　둥지 찾는 나는 새 서리 처마에 자고
訪寺歸僧石徑迷　절을 찾아 돌아가는 중 돌길이 희미하구나
序屬三冬添冷氣　시서가 삼동에 속하니 냉기를 더하니
燈前客子望鄉溪　등불 앞 나그네 고향 시내 바라보리

月洲 吳泳根

又

自南自北又東西　남에서 북에서 또 동서로부터 오는
玩賞人波日與齊　완상인파 날로 더불러 가즈런하네
秋九風光楓菊最　구추의 풍광은 단풍국화 최고요
冬三景色凍漸低　삼동의 경색은 얼음성에 나즉하고나
詩兄酒弟方多興　시의 형 술 아우 방으로 흥이 많은데
臼路氷程正滑迷　제이고 인길 정히 미끄럽고 희미하구려
終夜無休飛下白　밤새도록 그침없이 흰게 날아 내리니
紛紛厚積沒清溪　펄펄 두텁게 쌓여 맑은 시내 빠져나보다

雲波 趙寅熙

又

大野東南又北西 큰 들판의 동남 또 북과 서에
雪光一色眼前齊 흰눈의 광채 일색으로 눈앞에 가지런하네
詩輸好景吟尤樂 시에 좋은경치 보내니 읊음이 더욱 즐겁고
酒爛書筵興不低 글자리에서 술대우니 흥 내리지 않는구려
落地聲如敲玉篩 땅에 떨어지는 소리 채에 갈루내림 같고
乘風飄似舞蝶飛 바람에 나부낌이 나비 날음같이 희미하구나
三冬裸木成氷結 삼동에 옷벗은 나무 얼어 구슬 맺으니
乘橇兒童走凍溪 썰매 탄 아이들 얼시내를 달리네

晩亭 白日寅

又

日暮寒天落木西 해저문 차거운 하늘 나무 떨어진 서쪽
雪光月色雨相齊 눈빛과 달빛 둘이 서로 가지런하네
播空玉屑飛蛾亂 공중에 뿌린 옥가루 나는 나비같이 어지럽고
積樹銀花倒岸低 은꽃이 나무에 쌓여 언덕에 기울어 나직하구나
渾白山河歸寂寞 혼연히 흰 산하는 적막함에 돌아가고
沒青松竹總昏迷 푸름이 가신 송죽은 다 혼미하도다
愛看勝景無停步 승경을 사랑하여 보노라니 걸음 멈추지 않네
漫散露衣又亂溪 산만하여 옷이 젖고 또 시내에 어지럽구려

又

維石 梁國誥

零零飛下自城西　성서편부터 펄펄 날라 내려
一夜山川一色齊　하루밤에 산천이 한빛으로 가지런하네
朝冷林梢漸朶發　아침이 찬 숲가지엔 눈꽃송이 퍼어나고
日斜簷末溜氷低　헤비낀 처마끝에 낙수 얼어 나직하도다
千峰幻作銀花飾　천봉은 은꽃으로 바뀌어 장식하였고
廣野渾成白玉迷　넓은 들은 백옥으로 혼성하여 희미하구나
得景詩心提秃筆　경치 얻은 시심 망가진 붓 이끄니
雪晴雲散凍流溪　눈개이고 구름거치니 흐르는 시내 얼었구려

又

滄軒 權熙文

天晴月白瞰東西　하늘개고 달 희어 동서에 비치니
銀界三千一色齊　은빛세계 삼천리 한빛으로 가지런하네
散若落花均遠近　흩어짐이 떨어지는 꽃잎 같이 원근이 고르고
飛如舞蝶弄高低　날으는것이 춤추는 나비같아 높고 낮게 희롱하네
紛紛降下山疑沒　분분이 쏟아 내리니 산이 묻힐까 의심이요
片片飄來野欲迷　편편이 나부껴 오니 들이 아득하고자 하네
掃地冷風行旅苦　땅을 쓰는 냉풍은 나그네 길 괴롭고
俯腰噴手渡氷溪　허리 굽히고 손을 불며 시냇물 건너는고야

又

魯史 梁麟洙

蕭颯寒風自北西 소삽한 찬바람 북서로부터 오니
六花滿發眼前齊 눈꽃이 만발하니 눈앞이 가지런하도다
江山一白乾坤合 강산이 한결 희니 건곤이 합치고
雪月雙淸晝夜迷 눈과 달 둘이 맑으니 주야가 희미하구나
氷上遊童馳脚疾 얼음위 노는 아이 달리는 다리 빠르고
田間歸客步躬低 밭사이 돌아가는 객 걷는 몸 나직하구려
塾居窮巷無人跡 칩거한 궁한 마을 인적은 없고
遙眺崩崩雁下溪 멀리보니 편편이 나는 기러기 시내에 내리나보다

又

翠松 金鎭泓

北風吹雪散東西 북풍이 눈을 불어 동서에 흩어지니
積地銀花遠近齊 땅에 쌓인 은꽃 원근이 가지런하네
宇宙同光眞淨潔 우주 광채 같음이 진정 정결하고
江山一色布高低 강산이 일색으로 고저에 펼쳤도다
叢林冷寂禽飛絶 떨기숲 차고 적막하니 새 날미 끊어지고
廣野平鋪狗走迷 넓은 들 평평한데 개 달림 희미하네
閉塞寒窓惟史讀 폐색한 차거운 창에 오직 역사를 읽으니
白衣岩下凍流溪 백의암 아래 흐르는 시내 얼었도다

又

白雪紛紛北又西　백설이 북과 또 서에 분분하니
野山同色萬頃齊　들과 산 한빛으로 만경이 가지런하네
朔風凝發漸花滿　삭풍에 어려 퓐 눈꽃이 가득하고
玉屑深堆柘葉低　옥가루 깊이 쌓이니 잣나무잎이 나직하구나
私塾相親三友益　사숙에 서로 친한 세 익우요
寒江獨釣一翁迷　추운강에 홀로 낚시 드리운 한 늙은이 희미하고나
空亭日暮無人跡　빈 정자 날 저문데 인적 없고
不聞流聲凍石溪　물소리 들리지 않으니 돌시내 얼었구려

仁山 趙昌武

三虛 吳治湟

又

夜間暴雪隔東西　동과 서를 격하여 밤사이 폭설이 내리니
萬壑千峰一色齊　만학 천봉이 일색으로 가지런하니
從見江山飄玉屑　강위에 옥가루 나부낌을 따라 바라보니
雲遮天地路稀迷　구름 가린 천지 길 희미하구려

又

儉巖 全炳植

君自東方我自西　그대는 동방에서 나는 서로부터 오니
酒肴詩軸滿房齊　술이며 안주, 시축이 방에 가득 가지런하네
醉興放歌歸帶月　취흥에 방가하며 달을 띠고 돌아오니
六花亂舞路程迷　눈꽃이 난무하여 로정이 희미하구려

歲暮有感

於喬歲暮意無佳　어언 세모의 뜻 아름다움 없으니
白髮樽前嘆莫涯　백발 술동이 앞에 한탄 가이 없구나
明月三更孤枕恨　밝은 달 삼경 외로운 벼개의 한이오
關山千里故鄉懷　행관의 산 천리 고향생각이로세
後園綠竹凌霜雪　후원의 녹죽은 서리와 눈을 능멸하고
東閣寒梅飾玉階　동각의 찬 매화 옥뜰을 장식하네
好會瓊筵詩興樂　좋은 모임 구슬자리 시흥의 즐거움인데
難堪惜別各歸街　난감한 석별 각각 거리로 돌아가는고야

愚東 吳秉權

又

夢過七旬何有佳　꿈같이 지나간 칠십년 무엇이 아름다우리
日三杯酒是生涯　날마다 석잔술 이것이 생애일세
誰稱步月思親切　누가 달을 거닐며 어버이 생각 간절하다 일렀는가
深感先君愛我懷　선군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 회포 느끼네
東閣雪消梅笑院　동각에 눈 그으니 매화 후원에 웃고
西湖氷解柳舒階　서호에 얼음 풀리니 버들 뜰에 퍼지네
美哉送舊迎新際　아름답도다 송구영신의 즈음에
歸省人波滿巷街　귀성인파 마을 거리 가득하구려

德菴 梁困喆

又

新年漸至日清佳 새해가 점점 다가오니 날씨 맑고 아름다워
柳眼徐開漢水涯 버들눈 서서히 한수가에 열리누나
戍卒倍思家族愛 수자리 군졸 가족사랑 배로 생각하고
旅人尤切故鄉懷 나그네는 고향생각 더욱 간절하네
冬皇已失寒威勢 겨울황제 이미 찬 위세 잃었고
春帝將登暖品階 봄황제 장차 따스한 품계 오르리로다
幾多歸客臨迫日 귀성객 얼마나 많은지 세서리에 가득하구려
滿三街 선조에게 차례 드릴 날 임박하니

愼菴 韓龍福

又

歲暮江山漸入佳 해 저문 강산이 점점 아름다움에 드니
嬋娟春色到天涯 아름다운 봄빛이 하늘가에 이르도다
雪梅花發詩人興 눈속 매화 피니 시인의 흥이오
旅雁聲高客子懷 날으는 기러기 소리 높으니 나그네의 회포일세
奠忽光陰同逝水 문득 빠른 광음 가는 물 같고
艱難世事踏層階 어려운 세상사는 층계 밟음이로다
嗟吾儒道年年減 슬으다 우리유도 해마다 감하여지니
異教紛紜滿市街 이교가 분분하여 시가에 가득하구려

東谷 安鍾默

晩翠 梁炳朝

又

歲暮寒天亦有佳　세모의 찬 하늘이 또한 아름다움 있으니
家盈倉廩足生涯　집안의 창고 가득 차 생애 족함이라
聲聲爆竹消災害　소리 소리 터지는 폭죽 재해를 소멸하고
醉醉屠蘇解酲懷　취하고 취한 도소주 답답한 회포 풀어주네
柳眼將舒垂岸壁　버들눈 장차 펴려고 안벽에 드리우고
梅香方吐動窓階　바야흐로 매화향기 토하니 창뜰에 동하누나
江湖萬里多離散　강호만리에 이산가족 많으니
歸去歸來亂四街　도라가고 도라와 네거리가 소란하구려

湖雲 權興玉

又

松貞竹節晩蓍佳　송죽의 곧은 절개 늦게 푸르름 알음다워
冉冉歲華暮水涯　염염이 가는 햇빛 물가에 저무렀네
遠海出漁回棹促　먼바다에 출어한 배 돗대 돌리기 재촉하고
前方立哨苦鄉懷　전방의 입초 병사 고향생각에 괴로우리
營巢山鵲聚園樹　둥지 짓는 산까치는 뜰나무에 모여들고
喚侶寒鵝遊户階　짝을 부르는 찬거위 문뜰에 노니누나
祖上焚香臨迫日　조상께 분향 드릴날이 임박했는데
幾多旅客往來街　얼마나 많은 나그네 거리에 오고갔는고

又

斗柄指東春意佳　북두자루 동을 가르키니 봄뜻이 아름다워
光陰虛送恨生涯　세월을 허송하니 한탄의 생애로세
終宵傾酌忘煩惱　밤새도록 술잔 기우려 번뇌를 잊고
會友題詩瀉鬱懷　벗을 모아 시를 쓰니 울회를 쏟음이라
常愛儼容松翠壁　항상 씩씩한 모습의 석벽의 푸른솔 사랑스럽고
且看直節竹垂階　또한 곧은 절개 대나무 섬뜰에 드리움 보네
日輪不息催前路　해바퀴 쉬지 않고 앞길 재촉하니
歸省人波滿市街　귀성의 인파 시가에 가득하구려

守軒 姜龍凰

又

又暮今年意失佳　또 금년이 지므니 뜻이 아름다움 잃어
回想往蹟轉無涯　지나간 자취 회상하니 굴으고 굴러 갓이 없구려
久居辟地無聞見　벽지에 오래 살아 문견이 없는데
偶遇斯文叙積懷　우연히 선비 만나 쌓인 회포 펴도다
冬暖如逢新世日　겨울날씨 따뜻하니 새 세상 만난것 같고
雪消爻馥舊蘭階　눈 녹으니 옛 난초 뜰에 향기 맑어라
每當歲末還爻感　매양 세밑을 당하면 도로 느낌 많으니
但願吾邦統一街　다만 우리나라 통일한 거리 원하노라

晩亭 白日寅

又

歲暮風光一望街　해 지는 풍광 한결 바라보니 알듯답고
臘梅雪朶共天涯　섯달매화 눈송이 하늘가 같이 하는구려
離鄕枕上頻歸夢　고향 떠난 잠자리엔 돌아갈 꿈 자주 꾸고
送舊樽前倍感懷　묵은 해 보내는 술동이 앞 감회가 배로 나느냐
擧目人生千手段　눈을 들어 보니 인생은 일천수단이오
關心事物萬層階　사물의 관심은 알만층계로세
無常日月如流水　덧없는 세월이 유수 같으니
勝地盟尋不老街　승한 땅 늙지 않는 거리 맹세코 찾아보세

小泉 金昌泳

又

松栢遲遲晩翠佳　더디고 더딘 송백 늦도록 푸름 아름다워
歲華冉冉暮天涯　헛빛 가고 가 하늘가에 저무는구나
一窓玉漏深閨怨　한창문 옥 눈물 깊은 규방의 원한이오
萬里他鄕苦客懷　만리타향 외로운 객회 괴로우리
點點江雲歸雁陣　점점 강구름 기러기떼 돌아오고
紛紛臘雪早梅階　분분한 섯달 눈 이른 매화 뜰이로세
千家砧杵逐新候　천가의 다듬방망이 새로운 철 맞이하고
到老書生寓巷街　늙음에 이른 서생 시골거리에 부쳤구려

雲坡 趙寅熙

又

零晴返照夕天佳　눈은개이고 햇빛 되비치 저녁노을 아름다운데
含晩青松秀澗涯　늦도록 푸름 먹음은 솔 산수가에 빼어났구려
數朶寒梅蘇意動　두어송이 찬매화 소생 뜻 움직이고
一聲孤雁惹心懷　한소리 외기러기 심회를 이끌어내는고야
朔風漸瀝頻驚夢　삭풍 요란한 소리에 잦주 꿈을 깨고
曉月慇懃傚上階　서벽달 은근하여 뜰에 오름이게으르네
客館殘燈當亞歲　객관의 쇠잔한 등불 다음해를 당하니
鄉愁尤切旅人街　향수 나그네거리에 더욱 간절하네

魯史 梁麟洙

又

寒天歲暮六花佳　세모의 찬하늘 눈꽃 아름다워
耕讀士農吾活涯　농사 짓고 책 읽는 선비 나의 생애로세
雪閣梅香挑酒興　설각엔 매화향기 주흥 돋우고
硯池筆院寫詩懷　벼루못 필원에 시회로 쓰누나
鐵車驛下歸鄉客　기차역에는 귀향객 내리고
氷筍簷消洗石階　곧름처마에 녹아 돌계단을 씻는구려
統一不成年又盡　통일 일루지 못하고 해또 다하니
何時南北太平街　언제 남과 북이 태평거리 일는지

三南 梁錫鎬

三虛 吳治滉

又

臘月風光意不佳 섣달 풍광 뜻 아름답지 못하니
每當歲暮恨無涯 매양 세모 당하면 한이 갓이 없노매라
壁間新曆明來日 벽에 걸린 새 달력 내일이 밝은데
柱上春詩感舊懷 기둥위 입춘시 옛 회포 느껴지네
對鏡衰顔憎白鬢 거울 대하니 쇠한 얼굴 흰 귀밑머리 미웁고
還鄕兒輩滿幽階 고향에 돌아온 아이들 실숙한 뜰 가득하구나
迎辛送午人添壽 신미년 맞고 경오 보내니 사람나이 더 한는데
歸省衣冠溢巷街 귀성한 의관 마을거리 넘친는구려

松山 梁炳文

又

落照霞紅景佳 낙조에 노을 붉고 눈경치 아름다워
寒鴉鳴盡白雲涯 찬가마귀 백운가에 울음 다 하네
望夫登塔妻愁態 낭군 바라보려 탑에 오른 안해의 근심하는 자태오
待子依閭父愛懷 아들 기다려 동문에 기댄 아비사랑의 회포로다
一歲光陰過隙駟 일년 광음 망아지 틈새 지남이오
萬全節介竹垂階 만번 온전한 절개 대나무뜰에 드리웠도다
諸孫苦願鄕家返 여러자손 고향집 돌아감을 괴롭게 소원하니
歲暮連休大小街 세모의 년휴 대소의 거리일세

又

歲暮寒天雪景佳
山河一色境無涯
年中筭齒因虛笑
夜半看書感舊懷
人老光陰明暗際
物新節候往來階
儒林雖誦東方史
西教紛紛十字街

세모의 찬 하늘
설경이 아름다우니
산하가 일색으로
갓이 없는 지경일세
년중 나이를 세곤
허탈한 웃음이요
야반에 글을 보니
옛날 회포 느끼는구려
사람은 광음
밝고 어둔 즈음에 늙고
물신은 절후 오가는
단계에 새롭고나
유림은 비록
동방역사 숭송하나
서양종교 분분한
십자가인것을

梅山 金鎭泳

又

將交新舊日晴佳
曾昔虛過恨莫涯
窓外光陰眞可惜
鏡中白髮感悲懷
鍾聲催暮落田舍
氷角向陽露戶階
父北子南離散客
登高處處望鄉街

장차 신구해가 바뀌는데
날씨 개임 아름다워
일직 옛날 헛되이 보냄
한이 갓이 없구려
창밖의 광음
참으로 가석하고
거울속의 흰머리
슬픔은 회포 느끼누나
종소리 저물 재촉하니
전사에 떨어지고
어름볕 볕을 향하니
문계단 적신는고야
아비는 북 자식은 북
이산객이
높이 오른 곳곳마다
고향거리 바라리

顧巖 李成熙

又

回想紅顏正艷佳　홍안을 회상하니 정히 곱고 아름다웠는데
堪憐白髮送生涯　백발로 보내는 세월 가련함을 견디어야 하네
一場一夢青春去　일장 일몽으로 청춘은 가고
其日其時老叟悽　그날 그때 늙은 이의 회포로세
晩得窮廬雙坐榻　늦게 얻은 궁한 초막 쌍으로 앉을 걸상이라
誰知居所二層階　누가 거처하는 곳이 이층 뜰인줄 알리오
同情何客今吹笛　뜻이 같은 어느 나그네 이제 피리 부는가
爲我聲聲聲臘月街　나를 위하여 섯달거리 소리 소리 나는구나

草堂 鄭炳尹

又

歲暮山中有甚佳　歲暮山中에 무슨 아름다움 있을까
晝耕夜讀是生涯　주경야독이 이 생애로다
貪財忘義小人志　재물을 탐하고 의리 저버림은 소인의 뜻이오
崇德好仁君子懷　덕을 높이고 인을 좋아함은 군자의 회포라
耽讀學生環坐席　탐독하는 학생은 자리에 둘러 앉었는데
講明訓長步吟階　강명하는 훈장은 뜰에 거닐며 읊는구려
而今天地風塵起　지금의 천지 풍진이 일어나니
莫踏漢城煩雜街　서울의 번잡한 거리 밟지 마소

仁山 趙昌武

又

莫言所事總爲佳 하는 일 모두 아름답다 말하지 마오
或有難山或斷涯 혹 험난한 산과 낭떠러지 길 있는니
素志欲通千卷史 본 뜻은 천권의 사기 통하고자 했는데
丹心其奈白頭懷 단심은 백두가 된 회포 어찌하리
戰雲處處稀寧日 전쟁구름 곳곳마다 편안한 날 드물고
勳業遙遙得進階 공훈 업적은 진급하기 멀도다
寒冷窓前風雪亂 한냉한 창앞에 풍설이 어지러우니
待春照日作清街 봄날 비쳐 맑은거리 되기를 기다리세

遠波 朴洙燮

又

湖隱 金鍾敏

篘松高節四時佳　푸른 소나무의 높은 절개는 사시에 아름답고
往復寒船碧海涯　찬거운 배는 푸른 바다가에 오가누나
無聽無知心老愧　듣지도 아는바도 없지만 늙음이 부끄러운 마음이오
近來除夕燭明街　요사이 섯달 그믐날은 촛불 밝은 거리로세

又

清江 朴龍德

子女相逢節日佳　자녀를 상봉한 명절날이 아름다워
還鄉千里碧溪涯　고향천리 벽계가에 돌아오니
紛紛白雪堆茅屋　분분한 백설 모옥에 쌓이는데
晴見紅霞動市街　개인날 붉은 노을 시가에 움직이는구려

望月

農隱 金義植

遺傳古俗繼承開　유전한 옛 풍속 계승하여 여니
欲筮豐凶上月臺　달 오른 대에 풍년 흉년 점치고파
布地銀輪終夜轉　땅에 펼친 은바퀴 밤 새도록 굴르고
滿天瑞色照堂來　하늘에 가득한 상서빛 당에 비쳐오네
每逢故友因題軋　매양 친구 만나 시를 쓰고
咏罷新詩更擧盃　새로운 시 읊은 뒤 다시 술잔 드는고야
玉兎千秋無變像　옥토끼는 천추에 얼굴 변함 없고
四時元又正然回　사시의 보름밤은 정연히 돌아오는구나

又

德菴 梁田喆

月始吐光天眼開　달이 처음 빛을 토하니 하늘눈 열리고
待其浮上上高坮　높은 데에 올라 떠오름 기다리네
象星拱裡姮娥現　여러별 공수한 가운데 항아님 나타나고
丹桂花中玉兎來　붉은 계수꽃 가운데 옥토끼 오누나
以北傳聞禾稼稔　이북에 벼농사 풍년소문 전하고
添黃肯擧耳明盃　노란머리털 더하니 귀밝이 술 즐겨드네
煇煌燦爛揚輝大　휘황찬란한 빛 들짐이 크니
滿座無非觀賞回　만좌한 빗 누가 관상하고 돌아오지 않으리

又

正當元夕曉曨開　정히 보름밤 만나 영롱한 빛 여니
望月先登白玉坮　보름달 백옥대에 먼저 오르매라
老嫗設香祈福去　늙은 할미는 향 피워 복을 빌러 가고
兒童乘興踏橋来　어린 아이 흥겨워 다리 밟고 오누나
仰看天上姮娥態　하늘위 항아님 자태 우러러 보고
俯酌人間兎影盃　인간의 달빛 술잔 나즉이 따르네
萬國明明千丈下　만천하 밝고 밝은 일천길 아래
出門飽賞咏而回　문에 나가 만식한 구경 읊고 돌아오도다

晚翠 梁炳朝

又

元宵月色正圓開　대보름 달빛이 정히 둥글게 열리니
明滿乾坤客滿臺　밝음이 건곤에 가득 객은 대에 가득하네
形像年年無變動　형상은 해마다 변동이 없고
瑞光粲粲繼將來　서광은 선명하게 계속 갖어 오누나
恩其感謝爲燈燭　감사하는 은혜는 등촉 되어 줌이요
情是慇懃照酒杯　은근한 정은 술잔을 비침이로세
山北川南街路上　산 북쪽 냇물 남쪽 가로위에
與君翫步故遲回　그대와 더불어 구경 발설음 짐짓 더디게 돌아 오는구나

月洲 吳泳根

又

山重水復洞門開 산 서듭 물겹친데 고을문 열리니
四境豐謠月滿堂 사방의 풍년가에 보름달 대에 가득하구나
桂影隨人同步去 달 그림자 사람걸음 따라가고
街童逐友踏橋來 길거리 어린아이 벗따라 다리 밟아 오누나
飛烏書墜穿金匣 나는 가마귀 글 떨구어 금갑을 쏘고
玩老占豐酌玉盃 구경하는 늙은이 풍년 점쳐 옥술잔 따르네
天地氤氳迎泰運 천지의 합한 기운 태평운 맞으니
三春佳節上元回 삼춘의 가절 보름날 돌아옴이로세

春坡 梁炳夏

又

元宵玉宇一輪開 보름날 밤 맑은 하늘 한바퀴 여니
皓皓光流玩月臺 희고 흰 광채 완월대에 흐르네
洞壑虛明歌舞起 골 구렁 환하게 밝으니 노래춤 일고
汀洲皎潔雁鴻來 물갓이 희고 깨끗하니 기러기 떼 오누나
懷人千里難成夢 천리의 님 생각 꿈 이루기 어렵고
把酒三更不息杯 삼경밤 술 마심 잔을 놓지 않는고야
良夜璚筵曾幾日 좋은 밤 구슬자리 일찍이 몇날이었던가
不勝清興却徘回 맑은 흥취 이기지 못하여 문득 배회하노라

晩亭 白日寅

又

正値元宵月界開　정히 보름밤이라 달세계 열리니
豐凶占驗上高坮　풍년 흉년 점치러 높은 대 오르네
團團明鏡千秋掛　두렷한 밝은 거울 천추에 걸렸고
皎皎銀輪萬里來　희고 흰 은바퀴 만리에 오누나
出岫無心驚鳥夢　무심코 산골에 솟은 새 꿈 놀래고
入窓有意蘸吾盃　창에 들미 뜻이 있어 내 술잔에 잠기는고야
俗傳聊酒醒還醉　전하는 풍속 귀밝이 술 깨곤 또 취하니
談笑閒中却忘回　한가히 담소하는 가운데 문득 돌아옴 잊어

小泉 金昌泳

又

適値元宵夜景開　마침 보름밤 만나 밤경치 여니
朦朧月色滿樓臺　영롱한 달빛 누대에 가득하도다
舊年災厄皆消去　묵은해의 재액은 다 사라져버리고
新歲亨通自祝來　새해의 형통 자축하여 오누나
前砌古梅方折蘖　앞뜰락 옛매화는 바야흐로 꽃망울 듣는데
盛筵題軸更傾盃　성한 자리 시축쓰고 다시 술잔 따르네
傳風繩戟今猶在　줄 당기고 창 놀림 전하는 풍속 지금도 있어
作便東西勇奮回　동과 서 편을 짜 용기 떨치고 오는고야

雲坡 趙寅熙

魯史 梁麟洙

又

煙消雲斂夜清開 연기 사라지고 구름 거친밤 맑게 열리니
皓皓氷輪倦上臺 희고 흰 어름바퀴 대에 오름 늦구나
從軌盈虛千古轉 궤도따라 차고빔 천고에 유전하고
至公遍照萬邦來 지공하게 만방을 두루비추어 오네
騷人感興常題軸 시인은 흥 느껴 항상 시를 쓰고
蕩子多情數擧盃 호탕한 사람 다정하여 술잔 자주 드누나
村叟占豐看色像 시골 늙은이 달빛보아 풍년 점치니
百年幾作蟻旋回 백년에 몇번이나 개미처럼 돌고 도나요

梅山 金鎭泳

又

元宵風景眼前開 대보름날 밤 풍경 눈앞에 열리니
老少爭登望月坮 노소가 다투어 망월대에 오르네
十五夜當銀色滿 十五야 당하니 은빛 가득하고
三更窓受彩光來 삼경 깊은 밤 창문엔 채광 받어 오누나
少娘厨下供粘飯 젊은 여인네 부엌에서 찰밥 작만하여 내고
村叟堂中酌聒盃 시골 늙은이 방안에서 귀밝이 술 드는고야
題軸諸朋連次續 시를 하는 벗들 이어서 시축에 쓰니
韻通今日幾辰回 운을 통한 오늘이 몇때나 돌아왔든고

又

顧巖 李成熙

圓月登天瑞色開　둥근달은 하늘에 올라 서색을 여니
清光昭昭石橋垓　맑은빛은 돌다리 대에 밝고 밝어라
嫦娥大地飛翔去　상아는 대지에 날아 올라가고
玉兎蒼空照影來　옥토끼는 창공에 그림자 비추어 오네
舞蹈佳人歌一曲　춤추는 사인은 노래 한곡조요
農談白髮酌三盃　농사 이야기하는 백발은 술 석잔이로세
火幕打錚承古俗　막을 불 놓고 꽹과리 쳐 옛 풍속 따라
燒鳶退厄待祥回　연 불태워 액 물리치고 상서 오기 기다리네

又

三虛 吳治滉

皓月懸空瑞色開　밝은 달 공중에 떠 상서빛 여니
姮娥玉兎住瑤臺　항아와 옥토끼 구슬대에 사누나
兒童防厄飛鳶燒　아이들은 액막이로 연 날려 태우고
婦女祈神拱手來　부녀자는 신령에 빌어 공수하고 오네
數齡踏橋求壽福　나이 세며 다리 밟아 수복을 구하고
除魔農樂勸添盃　마귀 쫓는 농악속에 술잔 권하는구려
古來風俗千秋續　고래의 풍속 천년을 이어 음이라
擲柶清遊又舞回　윷 던짐은 맑은 놀이 또 춤추며 도네

又

雲捲淸宵曙眼忽開 구름 서친 맑은밤 눈이 번쩍 열리니
光明宇宙一登坮 광명한 천지 대에 한번 오르도다
金蟾久影銀輪轉 금두꺼비 오랜 그림자 은바퀴 굴고
玉兎長傳桂樹來 옥토끼 세수나무 길이 절하여 오네
野老占豐頻擧首 들 늙은이 풍년 점쳐 자주 머리 들고
詩朋耽景又巡盃 시붕들 경개 탐하여 술잔 또 돌리누나
歌高鉦響村村樂 노래 높고 징 울려 마을마다 농악이라
古俗年年不替回 옛 풍속 해마다 갈리지 않고 돌아오는구려

遠波 朴洙燮

又

望月揚輝天地開 보름달이 빛을 들쳐 친지가 열리니
銀蟾桂魄滿樓臺 은두꺼비 계수넋 누대에 가득하도다
屠蘇餘酌宜明耳 도소의 남은 술잔 귀밝임 마땅한데
軟菜登盤口味來 연한 나물 소반에 오르니 구미 당기는구려

湖雲 權興玉

又

月上東天宇宙開 달이 동천에 올라 우주가 열리니
玲瓏瑞色滿瑤坮 영롱한 서색 구슬대에 가득하네
豐凶驗得園蘇席 풍흉년 증험차여 얻은 단란한 자리에
又待時和勸酒盃 또 시국평화 기다려 술잔 권하는구려

湖隱 金鍾敏

又

東山皓月瑞光開 동산의 흰달 상서로운 빛 여니
望夜爭先上兀臺 보름밤 앞 다투어 높은 대에 오르네
琯落懸燈天地白 푸른하늘에 등 달아 천지가 희니
蛾眉携手舞歌回 꽃다운 아미 손 이끌어 춤과 노래로 돌아오는구나

儉菴 金炳植

又

月出東山眼豁開 동산에 달이 오르니 눈이 시원하게 열려
清光如水映樓臺 맑은 빛이 물 같아 누대에 비치는구려
團團氣像尤深愛 두렷하고 두렷한 기상 더욱 깊이 사랑하네
歲歲元宵不變回 해마다 보름밤 변치 않고 돌아오네

翠松 金鎭泓

初春

農隱 金義植

森羅萬像喜逢春 삼라만상이 봄을
和氣隨陽得最先 즐겁게 맞아
柳眼初開金色潤 버들 눈 처음 트니
梅唇半笑玉花新 금빛이 윤택하고
巖頭雨過苔如畵 화한 기운 벚을 따라
岸上風吹草似煙 가장 먼저 얻는구려
蕨菜登盤眞一味 매화 입술 반쯤 여니
淸香旨酒洗心塵 옥꽃이 새로워
바위 머리 비 지나가니
이끼 무늬 그림 같고
언덕위에 바람 부니
풀빛 연기 같고야
고사리 나물 소반에 오르니
참으로 일미라
맑은 향기 맛있는 술
마음의 티끌 씻네그려

又

德菴 梁困喆

四野和風萬樹春 사방들 화한 바람
向陽花木發芽先 일만나무 봄이라
麥苗田畔施肥綠 양지 밭은 꽃나무
柳絮池塘解凍新 움 먼저 트누나
滄海月明如玉鏡 발 두덕 보리싹
香爐日照動嵐煙 검음 주어 푸르고
碧溪水石渾然潔 연못의 버들 강아지
谷谷山山自脫塵 혜동이 새롭도다
상해에 달 밝으니
옥거울 같고
양노에 해 비치니
놓을 연기 동하네
벽계의 수석
혼연히 조촐하여
골골 산산 절로
티끌 벗는구려

又

清江 朴龍德

青帝鋪陽四海春 청제가 양을 펴니 사해가 봄이라
森羅萬像各爭先 삼라만상들 각각 앞을 다투는고야
風驅殘雪園梅坼 바람이 잔설을 몰아내니 동산엔 매화 피고
溪解寒氷岸卉生 시냇물은 찬 얼음 녹이니 누은 버들 새로워라
採女頻登生菜岸 나물 캐는 아낙네 나물 뜯는 언덕 자주 오르고
牧童早出綠楊煙 목동은 푸른 버들 연기에 일직 출발하네
化翁攝理於斯在 조물주의 섭리 여기에 있으니
半綻庭花不染塵 반쯤 핀 뜰꽃 티끌에 물들지 않는구려

又

湖隱 權興玉

東君車駕渡江春 동군의 수레가 강을 건넌 봄이라
草木群生欲得先 초목 군생들이 먼저 얻고자 하누나
戶外寒梅開蕾早 문밖의 찬 매화 꽃망울 일직 피고
墻頭垂柳潤綠新 담장머리 수양버들 부푼 실 새로워라
南山松掛千秋月 남산의 소나무엔 천추의 달 걸렸고
西海波興萬里煙 서해의 물결 만리연기 이는고야
返照武陵飛石壁 낙조가 되빛이니 무릉 석벽이 번득이고
桃源別界少風塵 도원의 별유천지 풍진이 적구려

又

渾然和氣一園春 혼연한 화한기운 한덩어리 봄이
梅柳相爭共取先 매화와 버들 서로 달투어 같이 먼저 취하네
尖坼芽從陽地發 뾰죽이 튼 싹 양지따라 피어나고
艷青葉茁雨天新 곱게 푸른 잎 우천에 자라나 새롭고야
挑燈抄史頻研墨 등불 돋우어 사기 초하니 자주 먹갈고
吹火煎茶細起煙 불 불어 차 다리니 가는 연기 이네
幾度滄桑時變化 몇번이나 상전벽해 변화시절 지났는가
願無禍亂靜風塵 원컨대 화란없이 풍진이 고요했으면

春坡 梁炳夏

又

大地迎春孰厭春 대지에 봄을 맞으니 누가 봄을 싫어하리
森羅萬像各爭先 삼라만상이 각각 앞을 다투네
蜂歌蝶舞無非景 벌의 노래 나비춤 경치 아님이 없고
子菊孫蘭總是新 아들 국화 손자 난초 이 모두 새로워라
梅院回暄紅吐錦 매화동산에 날빛 돌아와 붉은 비단 토하고
柳塘經雨翠隨煙 버들연못에 비지나가니 푸른 연기 따르네
東風吹送均施澤 동풍이 불어 보낸 혜택 고루 베푸니
化被群生蕩穢塵 조화 입은 군생들 더러운 티끌 씻는구려

晩亭 白日寅

又

守軒 姜龍鳳

萬物回蘇辛未春 만물이 회생하는 신미년 봄
髣林翠色栢松先 울창한 숲 푸른빛 잣과 소나무 먼저로세
寒梅坼蕾微香動 찬매화 꽃망울 트니 가는 향기 동하고
絲柳生芽早景新 실버들 움트니 이른 경치 새롭다
東嶺暗雲疑驟雨 동쪽말루 어둔 구름 소나기 의심나고
西天暮日帶紅煙 서천에 저문 날 붉은 연기 떠었네
群芳未久開花灼 여러 꽃다움이 미구에 꽃이 활작 피리니
錦繡江山不染塵 금수강산 티끌에 물들지 않으리

又

小泉 金昌泳

氤氳一氣漸成春 왕성한 한 기운이 점차 봄을 일구니
南北韶光各後先 남과 북 봄빛 각각 앞서거니 뒤서는구나
塾穴陽生千虫動 움추린 구멍에 볕 드니 일천 벌레 꿈틀거리고
柳枝日暖萬絲新 버들가지에 햇빛 따뜻하니 일만 실이 새롭고야
松濤強弱如吹曲 소나무의 물결 강약은 곡조 부는 것 같고
嵐氣空濛似和煙 산안개가 자욱하니 화한 연기 같도다
習習東風花意促 슬슬 부는 동풍이 꽃뜻을 재촉하니
應知花海淨無塵 꽃바다 티끌없이 깨끗함 응당 알리라

又

江山解凍好迎春
萬物蘇生自動先
穉麥雨晴添嫩色
老梅雪盡吐香新
長堤楊柳濃清靄
短壑雲林織翠煙
從此群芳成錦繡
觀光處處遠風塵

강산이 해동하니 봄 맞기 좋구나
만물이 소생하여 절로 먼저 동하누나
연한 보리싹 비개이니 고운빛 더하고
늙은 매화 눈 다녹으니 새로운 향기 토하네
긴언덕 양류 맑은 노을 무르끗고
짧은 골 구름숲 푸른 연기 짜는고야
이로부터 여러 꽃다움 금수를 이루어
곳곳이 관광이라 풍진이 멀어지도다

雲坡 趙寅熙

又

天分四季首爲春
園鵲爭鳴報喜先
溪畔楊花風絮亂
盤中菜味口香新
東原草綠經朝雨
古洞村深鎖午煙
晴日和氣殘雪盡
江山如沐快消塵

하늘이 사계절을 나누니 봄이 으뜸이라
후원의 까치 다투어 울어 기쁨 먼저 알리네
시냇가 버들꽃 바람 강아지 어지럽고
소반 가운데 나물맛 입향기 새로워라
동원의 풀 푸르니 아침비 지나갔고
옛고을 마을 깊으니 낮연기 잠겼어라
개인날 화한 기운 잔설이 다 녹으니
강산이 목욕한듯 괘히 티끌 씻는구려

魯史

梁麟洙

又

出門山野布陽春 문에 나니 산과 들
窓外飛禽得意先 창밖의 나는 새
野麥雨過靑色潤 들보리 비 지나가니
院梅雪盡白花新 뜰매화 눈 다 녹으니
池塘十頃淸如鏡 연못 물결 열두 딱
楊柳千絲翠織煙 양류는 일천실 풀어
到處景光何許美 도처의 경관이 어찌
賞遊醉裡遠風塵 구경술이 취한 속에

顧巖 李成熙

又

東君已報渡江春 동군에 이미 강을 건넌
草木蘇生有序先 초목의 소생이
戶外搖搖絲柳艷 문밖의 흔들거리는
墻頭笑笑早梅新 담장머리 피고 핀
棹歌海上三更月 돗대노래 바다위
草笛山中一點煙 풀피리 산중
桃李和風含細雨 복숭아 오얏 화한 바람
松篁聲谷淨無塵 솔과대 울창한 골가기

松山 梁炳文

三虛吳治湟

又

七十年過又一春 칠십년 지나 또 한봄이라
百花千樹茁爭先 일백꽃 일천나무 앞다투어 자라네
和氣動野梅香發 화풍이 들에 동하니 매화 향기 발하고
細雨露崖草色新 가는비 벼랑을 적시니 풀빛 새롭고야
喧噪池蛙催柳葉 시끄럽게 우는 못개구리 버들잎 재촉하고
聳飛雲雀弄林嵐 날아 솟은 종달새 산안개 열기 희롱하네
清明好節詩人會 청명 좋은 시절 시인 모임에
蒲座諸賢不染塵 만좌한 제현들 티끌에 물들지 않도다

梅山 金鎭泳

又

萬物回甦大地春 만물이 소생하는 대지의 봄이라
千山翠色竹松先 일천산 푸른빛 대와 솔이 먼지로세
寒梅纔綻微香動 찬매화 갓피었는데 가는 향기 동하고
老栢尚青獨秀新 늙은 잣나무 상기 푸르러 홀로 빼어나 새롭네
遠峀迷茫含細雨 아득히 먼 뫼뿌리 가는 비 머금고
孤村沉暗鎖殘烟 어둠에 잠긴 외로운 마을 쇠잔한 놀을 잠겼도다
日暖風和時正好 일란풍화 때는 바로 좋으니
吾儕吟觴滌世塵 우리들 읊고 마심 세상 티끌 씻네그려

又

古洞花明萬化春 옛 마을에 꽃 밝으니 만화의 봄이라
三三五五觀光先 삼삼 오오 앞서 관광하네
柳垂池上枝枝弱 연못에 늘어진 버들 가지 가지 연약하고
蘭秀庭前葉葉新 뜰앞 빼어난 난초 잎이 새로워라
草樹蘇生添雨露 물과 나무 소생한데 비 이슬 더하고
江山迷渺帶霞煙 강산이 아득히 아물아물 노을 연기 떠었네
隔年相見論懷久 헤를 거러 서로 보니 회포 오래토록 논하여
吾輩吟觴却世塵 우리들 마시고 읊음 세상 티끌 물리치누나

仁山 趙昌武

又

東君就位早回春 동군이 자리에 나아가 봄이 일찍 돌아오니
細草生芽最得先 가는 풀 움 돋아 가장 먼저 얻었네
隔砌寒梅腮始拆 섬돌을 사이하고 찬 매화는 볼이 먼지 트고
臨溪垂柳眼方新 시내에 다달은 수양버들 눈이 바야흐로 새로워
嵐痕翠滴千峯雨 산안개 흔적 천봉우리에 비 푸르게 적시고
花氣紅蒸一洞煙 꽃기운 붉게 쪄니 한 고을 연기로세
世路難行何所事 세상길 행하기 어렵우니 무슨일 할고
朗吟泥醉忘風塵 맑게 읊고 몹시 취하여 풍진을 잊으리

清江 朴龍德

又 道山 朴喜穆

東君布德四方春 동군이 덕을 펴니 사방이 봄이라
萬物蘇生活氣先 만물이 소생하여 활기 먼저 하네
岸柳欲舒梅早發 언덕의 버들 펴고자 하고 매화 일찍 피니
雨過前夜麥苗新 어제밤 비 지나가니 보리싹 새롭고야

又 草堂 鄭炳尹

蘇生萬物向陽春 소생하는 만물들 양춘을 향하니
墻下紅梅已得先 담장아래 붉은 매화 이미 먼저 얻었네
細柳垂垂藍翠色 가는 버들 드리워져 쪽같이 푸른 빛이고
夭桃灼灼淡紅新 어여쁜 복상아 작작하니 알은 홍색 새로워

又 翠松 金鎭泓

森羅萬像喜逢春 삼라만상이 즐겁게 봄을 만나니
水媛南川解凍先 물 따뜻한 남쪽 개천 먼저 해동하네
浩蕩東風時節好 호탕한 동풍 좋은 시절이라
欲新環境掃汚塵 환경을 새롭게 하고자 더러운 쓰레기 씻었구려

又 遠波 朴洙燮

不看曆書知感春 책력을 안보아도 봄 느낌 알고
向陽花木氣生新 양지바른 꽃나무 기운 새롭게 나네
消來萬壑三冬雪 일만구렁 삼동눈 녹아나니
拂盡千家一歲塵 일천집 일년 티끌 털어 다 하도다

餞春

農隱 金義植

蝴蝶春風作好群　범나비 봄바람에 좋은 무리 지었는데
無情歲月落花聞　무정한 세월 꽃 떨어짐 들리네
忘形湖海迎朝霧　호수마다 형용 잃고 아침안개 맞으며
寓躅山林望夕雲　산림에 자취를 부쳐 저녁구름 바라보네
絲柳萬千難繫轡　실버들 천만이건만 붙들어 매기 어렵고
韶光九十奈相分　九十일 봄빛 서로작별 어쩌 하리
紅顔易去英雄老　홍안은 쉽게 가고 영웅 늙으니
題軸吟觴送茲芬　시축에 글쓰고 마시고 읊어 봄향기 보내는고야

又

道山 朴喜穆

採花蜂蝶幾成群　꽃탐하는 벌과 나비 몇번이나 무리 지었든가
歌舞從今不見聞　노래와 춤 이제부터 보고 듣지 못하네
詩老間間隨岸柳　시 늙은이 간간이 언덕버들 따르고
採兒往往踏山雲　나물 캐는 아이 있다금 산 구름 밟는고야
紅稀萬樹高低別　붉음 드문 일만나무 높낮이가 다르고
綠暗千山上下分　푸름이 어둔 천산 위아래로 나뉜누나
命駕東君何處去　수레 명한 동군은 어느곳으로 갔는지
江南芳草帶芬芬　강남 방초 꽃다운 향기 띠었구려

又

月洲 吳泳根

俄見花城舞蝶群　아까 꽃성에 춤추는 나비떼를 보았는데
忽喬此日餞春聞　문득 오늘 봄을 보내는 소리 들리네
離亭秉燭三更夜　떠나는 정자 삼경 밤 촛불 잡고
去路停盃萬里雲　가는 길 만리 구름 술잔 멈추게 하네
心欲挽鍾遲促駕　마음은 종을 만류하여 떠난 재촉 더디게 하고프고
情當厚贖慰相分　정은 마땅이 후한 노자로 설움 갈림을 위로하리
諸君莫恨韶光盡　제군은 봄빛이 다 하였다 한탄 마오
芳草濃陰正茁芬　방초와 짙은 그늘 정히 향기롭도다

又

守軒 姜龍鳳

紛紛蝴蝶過墻群　분분한 나비떼 담장 지나가니
點點飛花落盡聞　점점이 나는 꽃 다 떨어졌다 들리네
近聽林間啼百鳥　가까이 숲사이엔 온갖새 울음 듣고
遙看苗末出孤雲　멀리 산마루끝 외로운 구름 일어남 보누나
離歌處處詩千軸　이별가 곳곳마다 시 일천축이오
別意深深酒幾分　이별 뜻 깊고 깊어 술잔 얼마 나눈었는지
臨別丁寧留後約　이별에 다달아 뒷언약 머므렀으니
明春藥發萬芳芬　명년 봄 꽃 피면 일만 꽃다운 향기이리라

又

晚亭 白日寅

惜春豪士共千群 봄이 아까운 호걸선비 모두 일천 군중이라
九十韶光夢若聞 구십일 봄경치 꿈같이 들리네
怊悵離亭花落雨 원망하며 떠나는 정자 꽃이 비에 떨어지고
渺茫去路嶺沉雲 아득히 가는 길 재마루 구름 잡겼구려
情如牛女銀河別 정은 견우직녀 은하수 이별 같고
心似佳人玉手分 마음은 사인의 옥같은 손 나눔 같도다
莫恨繁華今已盡 번화함이 이제 이미 다하였다 한하지 마오
綠陰芳草亦菲芬 녹음방초 성하고 또한 향그럽네

又

小泉 金昌泳

春惜人波處處群 봄경치 아까운 인파 곳곳마다 떼로 모이니
樽前何暇世情聞 술통이 앞 어느틈에 세간의 정을 들으리
落花滿地成紅錦 땅에 가득한 낙화 붉은 비단 이루고
芳草連天起翠雲 하늘에 연한 방초 푸른 구름이 이누나
半夜啼鵑餘怨恨 반야에 우는 두견은 원한이 남었고
片時狂蝶斷緣分 한때의 미친 나비 연분이 끊어졌네
莫歎此日韶光去 이날에 봄날 간다 한탄하지 마오
山野芃芃綠葉芬 산과 들 무성한 푸른잎이 향기로워

又

餞春白首自成群　봄을 보내는 흰머리 자연 무리 이루니
此日若過春夏分　이날이 지나면 봄과 여름 나뉘네
戒爾少年勤且勉　너희 소년 경계하노니 부지런하고 또 면려하여
期成學業達青雲　학업을 이루어 벼슬길 달성하소

又

春坡 梁炳夏

三三五五餞春群　삼삼오오 봄을 보내는 무리들
莫踏殘花莫掃雲　쇠잔한 꽃 밟지 말고 구름 쓸지 마오
夏至明朝何所樂　여름 닥치는 내일 아침 즐거운 바 무엇인가
千山綠樹鳥聲聞　천산 푸른 나무에 새소리 들음일세

德菴 梁因喆

初夏

初夏江山綠滿原 초하의 강산에 녹음이 가득한 들이라
清閒不必訪桃源 맑고 한가로움이 도원을 찾지 않아도 되겠구려
三春蝶舞方歸夢 삼춘의 나비춤 바야흐로 꿈으로 돌아가고
四月鶯歌始出園 사월에 꾀꼬리 노래 비로소 후원에 나누나
豪氣自生傾酒席 호탕한 기운 술 기우린 자리에 스스로 나오고
幽情更發賦詩門 그윽한 정은 다시 시를 부하는 문에서 나오네
八公淑景如仙境 팔공산 맑은 경치 선경 같으니
巖老松盤太古村 바위 늙고 솔 서린 태고의 마을이로세

農隱 金義植

又

新綠成陰列柳原 신록은 버들 늘어선 언덕에 그늘 이루니
清閒何讓武陵源 맑고 한가함이 어찌 무릉도원에 양보하리
未歸杜宇啼山月 돌아가지 못한 두견이 산달에 울고
方笑薔薇綉故園 바야흐로 피어난 장미는 고운 수 놓은 고야
耘老帶鋤歸野路 김맨 늙은이 호미 띠고 들길로 돌아오고
守尨無事睡柴門 집 지키는 삽살개 일없어 싸리문에 조는구나
田歌狼籍秧苗茁 전원의 노래 낭자하고 모싹이 무성하니
應是來頭富裕村 응당 이것이 앞으로 망을이 부유하리로다

道山 朴喜穆

又

喜雨時來初夏原　반가운 비 때 맞게 초여름 들판에 내리니
移秧處處足泉源　모 내는 곳곳마다 물 근원 풍족하네
浮雲片片紅霓日　뜬구름 붉은 무지개 날 쳔쳔하고
黃鳥聲聲綠樹園　노란 꾀꼬리 녹수동산에 소리소리 우누나
深賀離皇迎就位　남방황제 위에 나아감을 맞아 싶이 하례하고
幾數震帝送離門　얼마나 동방황제 떠나는 문에 전송하여 탄식했던가
農爲大本當先務　농사는 대본이니 마땅히 급선무인데
少壯何由不在村　무슨 연유로 젊은이는 마을에 있지 않는가

月洲 吳泳根

又

紅殘四月綠肥原　붉은꽃 쇠잔하고 푸른 풀 살 찌는 사월의 들
雨洽江山足水源　강산에 비 흡족이 내리니 수원이 풍족하네
蝴蝶夢驚芳草岸　호접의 꿈은 방초 언덕에 깨이고
杜鵑聲咽樹林園　두견의 울음은 나무숲 동산에 목이 메이누나
黃鶯出谷梭煙柳　노란 꾀꼬리는 골자기를 나와 버들을 북절하고
玄鳥棲簷語亂門　제비는 처마밑에 깃들어 문에 어지러이 지저귀네
物外仙鄉方在此　사물 밖 신선고을이 바로 여기 있으니
欝蒼松栢掩幽村　울창한 송백은 길숙한 마을을 가리었도다

晩亭 白日寅

又

綠肥紅瘦夏初原 풀은 살찌고 꽃 시든 첫 여름 들판에
無數痴蜂索蜜源 수없이 어리석은 꿀벌 밀원을 찾는구려
閒聽鶯歌垂柳岸 한가한 수양버들 언덕 꾀꼬리 노래 듣고
時看鶴舞老松園 때로 후원 노송에 학의 춤 보도다
牧童驅犢朝歸野 목동은 소를 몰고 아침에 들로 나가고
饁婦携筐午出門 아낙네 점심광주리 이고 낮때에 싸리문 나선는구려
四月南風黃大麥 사월 남풍에 대맥이 누렇고
農家無嶺富饒村 농사에 고개없어 부요한 마을일세

小泉 金昌洙

又

紅瘦綠肥四月原 붉은것은 시들고 푸름은 살 찐는 사월의 들판
森羅萬像總由源 삼라만상이 모두 근원으로부터 옴이라
蒼空優作飛鳶處 창공은 넉넉히 솔개 나는 곳이오
廣野能爲牧鹿園 넓은 들은 능히 사슴 먹이는 동산이구려
海陸羽翔捿谷樹 바다와 육지에 나는 새 산골 나무에 깃드리고
溪山雲霧擁柴門 계산의 구름과 안개 사립문을 감싸는고야
日長夜短今時節 해 길고 밤 짧은 이 시절
鶯囀層陰碧柳村 꾀꼬리 층층한 그늘 푸른버들 마을에 우노메라

翠松 金鎭泓

又

梅山 金鎭泳

風和日暖綠肥原
處處移秧水滿源
携醪午饁柴門出
興溢歌高動一村

又

顧巖 李成熙

芳草萋萋一色原
携笻閒步綠陰園
白鷺群飛江上岸
黃鶯雙噪柳邊村

端午

奄當端節一心安　문득 단오절 당하니 한마음 편안하여
閒臥茅廬古史看　한가로이 초당에 누워 옛사기 보노라
茶薦倍加追遠感　차례 드리시 추원하는 감회 배로 더하고
友逢尤有切懽歡　벗을 만나 더욱 천연하는 기쁨이 있구려
鞦韆兒女爭垂柳　그네타는 아녀자 수양버들과 다투고
詩酒騷人倚曲欄　시와 술의 글하는 선비 굽은 난간 비겼네
歲月如流來又去　세월은 흐름 같아 오고 또 가고하니
可憐白髮此中殘　가련한 백발 이가운데 쇠잔하구나

慎菴 韓龍福

又

節屆端陽物態安　절후가 단오에 이르니 물태가 안정되니
化翁妙理此中看　조화옹의 묘한 이치 이가운데 보리로다
綠楊斷續鶯聲亂　푸른 버들에 끊겼다 이은 꾀꼬리 소리 어지럽고
芳草高低燕舞歡　방초에 늘고 나직한 제비 춤 즐겁구려
蕉雨頻沾千頃野　파초비 자주 천경의 들을 적시고
竹風吹送五層欄　대바람 오층 난간에 불어 보내네
清遊今日無邊興　맑은 놀이 오늘의 갓없는 흥은
長使吾生夢不殘　길이 우리인생으로 하여금 꿈 되잔치 않게 하는구려

東谷 安鍾默

又

湛軒 權 熙 文

稍歇耕耘暫就安　점점 갈고맨 일 마치니 잠시 편안해 지고
風光那可汎然看　풍광을 어찌 가히 범연히 보리오
身投汨水忠臣恨　몸을 멱라수에 던지니 충신의 한이오
名振齊邦丞相歡　이름을 제나라에 떨치니 승상의 기쁨이로세
艾葉翠娟妻釀甕　쑥잎이 푸르고 고으니 아낸는 동이에 빚어 넣고
榴花紅吐客登欄　석류꽃 붉게 피니 객이 난간에 오르누나
憫吾此日無端送　나의 이날을 무단이 보낸것을 민망히 여겨
爲設佳筵興不殘　위하여 좋은 잔치 베푸니 흥 쇠잔하지 않구나

又

小泉 金 昌 洙

麥秋秧畢暫心安　보리 거두고 이앙 마치니 마음 잠시 편안하여
閒卧高堂古典看　한가히 높은 당에 누어 옛책을 보누나
投汨楚原今日恨　멱라수에 몸을 던진 초나라 굴원 오늘의 한이요
高門齊孟此時歡　문을 높인 제나라 맹상군 이때 즐거움이로다
浴頭閨女臨蒲岸　머리 감는 규중여인 창포 언덕에 이르고
採艾村翁上壁欄　약쑥 캔는 촌늙은이 벽난간 오르네
相競鞦韆無限樂　그네 타기 서로 다투니 한없이 즐거워
不知柳幕夕陽殘　버들장막 석양 쇠잔함을 알지 못하는구려

又

顧巖 李成熙

佳節端陽四海安 가절 단오에 사해가 편안하니
流傳古俗又今看 유전한 옛풍속 이제 또 보누나
滌愁處處酬詩興 근심 씻는 곳곳에 빈풍시의 흥이오
延壽家家菖酒歡 수를 연장한 집집이 창포술 즐김이라
綠竹生孫圍石砌 녹죽의 자손 생장하여 돌뜰을 애우고
榴花結子近松欄 석류꽃 열매 맺어 솔 난간에 가깝도다
追思競渡濯江水 멱라수에 굴원의 혼 달두어 건짐 밀루어 생각하니
忠義芳名豈有殘 충의의 꽃다운 이름 어찌 쇠잔함 있으리오

又

翠松 金鎭泓

萬樹陰濃五月安 일만 나무 그늘 무르녹는 오월 편안하니
端粧娘子優美看 단장한 낭자 우아함 보도다
傍觀脚戲人皆笑 다리씨름 방관하니 인파 모두 웃고
仰望鞦韆孰不歡 그네 뛰을 바라보니 누가 즐겁지 않으리
洗髮菖蒲尋沼澤 창포에 머리 감고자 쏘와 못 찾고
詠觴詩客上亭欄 읊고 마시는 시객 정자 난간에 오르는고야
天中佳節淸遊席 하늘 중간 가절의 맑은 놀이 자리에
娛樂聲中落照殘 오락소리 가운데 낙조 쇠잔하는구려

又

農隱 金義植

節屆端陽自逸安　시절이 단오절에 이르니 스스로 편안한데
菖蒲洗髮臭香看　창포로 머리 삼으니 향 범써 보는구려
煎膏艾葉醫方好　쑥잎 다려 고범은 의방에 좋고
沐浴蘭湯俗習歡　난초탕의 목욕은 신속 풍습 즐심일세
自適逍風探勝境　자적한 소풍 승경을 탐하고
爲望淸景上高欄　맑은 경치 보기 위하여 높은 난간 오르누나
世人最愛天中節　세인이 천중절을 가장 아껴
觴咏無時送日殘　때 없이 마시고 읊어 쇠잔한 날 보내네

又

道山 朴喜穆

瑞氣端陽共泰安　서기와 단오절이 같이 태평하니
天中佳節此中看　천중가절의 아름다움 이가운데 보누나
男爭脚戲威風壯　남자는 씨름으로 겨루니 위풍이 장하고
女競鞦韆態度歡　여자는 그네타기 다투니 태도 즐거워
蒲葉方芬粧沼岸　창포잎 바야흐로 연못가에 향기롭고
榴花欲笑傍軒欄　석류꽃 피고자 마루 난간 곁에 있도다
盤櫻樽酒能酬景　소반의 앵두 동이술이 경치 수작 능하니
濯髮閒驚興不殘　머리 감고 꾀꼬리소리 들으니 흥 쇠잔하지 않구려

又

天中佳節平安頌 천중의 가절에 평안을 송축하니
極目晴光到處看 눈에 진극히 개인 광채 도처에서 보누나
騷客吟詩錦軸溢 글하는 나그네 읊는 시 비단 축에 넘치고
田夫擊壤麥蒲醪歡 농부의 격양가 창포술 즐기네
彩繩掛樹疑虹蜵 채색한 새끼줄 나무에 걸치니 무지개로 의심하고
裳幅翻風弄柳欄 치마폭 바람에 나부껴 버들 난간 희롱하네
祠廟薦櫻從古禮 사당에 앵두 천신은 고례를 따름이오
慕先遺俗永無殘 선조 추모하는 유속 길이 쇠잔 없기를

湖雲 權興玉

又

良辰坊曲頌平安 좋은 때 방방곡곡 평안을 송축하니
園會吟筵到處看 단란한 모임 읊는 자리 도처에 보이도다
詩客蒲醪佳節興 시객은 창포술에 가절의 흥취오
田夫擊壤麥秋歡 농부는 격양가로 보리 가을 즐기는구려
男爭脚戲戰砂岸 남정네는 씨름으로 겨루어 모래 언덕에서 싸우고
女競鞦韆翻柳欄 여인은 그네뛰기 다투어 버들 난간에 나부끼네
祠廟薦櫻從古禮 사당에 앵두 천신은 고례를 따름이니
千年禮俗奈何殘 천년 예속이 어찌 쇠잔하리오

雲坡 趙寅熙

又

節屆端陽意自安　시절이 단양에 이르니 뜻이 스스로 편안하고
榴紅蒲綠愛心看　석류 붉고 창포 푸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네
誰教天序今朝好　누가 하늘 차례 일러 오늘 아침 좋게 하여
慣作人間此日歡　인간의 이날 즐김 관습이 되누나
黃鳥嚶嚶梭柳幕　꾀꼬리 이날 즐겁게 울고 버들막 북질하고
香蘭郁郁秀庭欄　향난은 우는 꾀꼬리 난간에 빼어났구려
塵襟洗滌猶無盡　떠묻은 옷깃 씻칙 오히려 다 하지 못하여
酒竭金樽復側残　술 다한 쇠동이 다시 남은 것 기우리네

守軒 姜龍鳳

又

端陽節引我心安　단양절에 내마음 끌어 편안하고
水色山光次第看　물빛 산빛 차례에 보는구려
筒米爭投舟楫渡　죽통쌀 다투어 던져 배돛대로 건너고
彩纏競蹴美人歡　채색그네 다투어 차니 미인의 즐거움일세
衡風燕舞紗窓外　바람 저을질하는 제비춤 사창 밖이오
弄日鶯歌細柳欄　날 희롱하는 꾀꼬리 소리 세류 난간이로다
醉興豪情無限際　취한 흥취 호탕한 정 한없는 즈음에
雙雙律唱莫聲殘　쌍쌍이 시 읊는 소리 끝아지지 마오

元山 陸鍾禛

又

釀得蒲醪醉氣安　창포술 빚어 마시니 취기 편안하고
端陽佳節好相看　단양가절을 서로 좋게 보는구려
榴花結子能成美　석류꽃 열매 맺으니 능히 아름다움 이루고
竹笋生孫亦足歡　죽순이 손자 낳으니 또한 족히 즐겁도다
劈柳鞦韆飛碧落　버들 헤친 그네 뛰듯 푸른 하늘 날고
薦櫻祠廟上層欄　사당에 앵두 천신하려 층층 난간을 오르누나
追思此日良辰感　이 좋은 날 좋은 때 느낌 추상하니
悖類兒獰痛不残　패류의 흉포 동탄 쇠잔치 않구려

晩亭白日寅

又

天中佳節此時安　천중가절 이때가 편안하니
正好閒遊景物看　정히 주유하여 경물 구경 좋도다
楊柳繁陰鶯語滑　양류 그늘 번성하니 꾀꼬리 소리 매끄럽고
菖蒲泛酒友情歡　창포 술에 뜨니 우정이 즐겁구려
竹筒貯米投江水　죽통에 쌀 담아 강물에 던지고
燕嘴含蟲入閣欄　제비 부리에 벌레 먹음고 집 난간에 드누나
寒食清明端午日　한식 청명 단오날에
吾生享樂願無殘　우리 인생의 향락 원컨데 쇠잔치 마오

三南 梁錫鎬

又

携孫散策意平安　손자 이끌고 산책한 뜻 편안하니
端午風流處處看　단오날의 풍류 곳곳에 보도다
鬪草朝陽女遊歡　아침볕에 풀 싸움 남자 얻음 좋고
蹴鞦碧柳男得好　푸른 버들 그네 뛰은 여인의 즐거운 놀이로다
彈琴調曲雲中閣　구름 가운데 누각에서 거문고 곡조 뜻고
競唱詩歌竹翠欄　대나무 푸른 난간에 시가를 경창하누나
未到百年先鬢白　백년에 이르기 전에 귀밑이 희니
菖蒲洗髮豫防殘　창포로 머리 감어 쇠잔을 예방하누나

草堂 鄭炳尹

流頭

湖隱 金鍾敏

清溪曲曲繞青山　맑은 시내 구비구비 청산을 둘렀는데
月到天門夜不關　달이 하늘문에 이르니 밤이 닫지 않도다
祈雨奠蓂登石上　빌을 빈는 젯수 돌위에 올라 진설하고
禱神投飯踏疇間　농신에게 비는 밥 둘렁사이 밟으며 던진누나
荷鋤野老身疲苦　호미 멘 들노인 몸 피곤하고
題軸詩人意自閒　풍축에 쓴 시인 뜻 스스로 한가로워
汗滴午畦三夏熱　땀흘리는 한낮 논두렁 삼하의 더위에
埋耘役畢帶昏還　묻고 매는 일 마치고 어둠 띠고 돌아오네

又

道山 朴喜穆

幽寓農村傍小山　깊숙히 우거한 농촌이 작은 산 옆이라
傳來古俗總情關　전해 오는 옛풍속 모두 관련된 정일세
時看燕舞莘簷外　때로 떠집 처마밖의 제비 춤 보고
日聽鶯聲岸柳間　언덕 버들사이 날로 꾀꼬리 소리 듣네
油餅祭神千禍滅　기름떡으로 제사 올려 일천재앙 소멸하고
醪醪解瘁一時閒　막걸리에 고달픔 해소하니 일시에 한가 하도다
斜風灑髮天將暮　비낀 바람 머리 씻고 하늘 장차 저무니
探此芳莽帶月還　이 꽃다운 향기 탐하여 달을띠고 돌아 오누나

又

流頭日色滿江山　유두의 날빛 강산에 가득한데
到處開筵綠竹闌　도처에 녹죽관의 노는 자리 열렸네
烈烈蒸炎深洞外　찐듯한 더위 깊은 동네밖에 열열하고
油油禾黍大郊間　벼와 기장 큰 들사이 유유히 성하도다
豊謠狼藉田疇上　풍년의 노래 발두렁 위에 낭자하고
農役竣功野老閒　농사일 준공하니 들노인 한가하구려
醉且飽兮餘興足　취하고 또 배부르데 여흥이 족하고
幽風佳曲月中還　빈풍의 아름다운 곡조 달 가운데 돌아오네

雲坡 趙寅熙

又

時序流頭滿野山　시서의 유두절 들과 산에 가득하니
半開半掩碧松闌　반쯤 열고 반쯤 닫은 솔문이네
看禾廣濶田疇上　넓은 밭두렁에 벼를 보고
濯髮清涼磵谷間　선듯한 시냇물에 머리 씻는구려
收穫時期將不遠　수확시기 장차 머지 않으니
紛忙農役庶幾閒　분망한 농사일 거의 한가하구나
豊謠誰聽柳橋外　풍년가를 버들다리밖에 누가 듣는가
相酌相酬却忘還　서로 따르고 마심에 문득 돌아감을 잊었네

湖雲 權興玉

又

晩亭 白日寅

農家業務積如山 농가의 일 산같이 쌓였는데
節値流頭豈不關 유두절 만나니 어찌 관념치 않으리오
風俗祭神千歲上 농신에 제사하는 풍속 천세위오
人生稼穡百年間 인생의 갈고 심는 일 백년간이로다
桑麻滿地心豐富 뽕과 삼 땅에 가득하니 마음 넉넉하고
佳節逢場事暫閒 가절을 만난 자리 일이 잠시 한가하도다
有酒隣翁頻勸我 술 있는 이웃 늙은이 자주 나를 권하니
不辭大醉賴扶還 사양 않고 대취하여 부축받고 돌아오누나

又

小泉 金昌泳

流頭宴會作人山 유두의 연회에 인산을 지었으니
對酌渾忘世慮關 대작함에 혼연히 세상 염려 잊었구려
景色依依晴野裡 경색은 맑게 개인 들속에 의의하고
時期熱熱盛炎間 때는 뜨거운 성염간이로세
歸雲天外蒼峯出 한줄 밖으로 돌아간 구름 푸른 봉우리 나오고
啼鳥聲中白日閒 우는 새소리 가운데 대낮이 한가하도다
野老歌高豐稔樂 들노인 풍년 즐기는 노래 높으니
故將松餠禱神還 짐짓 송편 갖이고 농신에게 빌고 돌아오누나

又 梅山 金鎭泳

總是農村背碧山　농촌은 모두 푸른 산을 등지고
油炎垂垂稼穡間　유점은 가색간에 느러저 있도다
田夫沐浴東流水　농부는 동류수에 목욕하고
秸祀農神伴作還　농신에 고사하고 짝을 지어 돌아오누나

又 春坡 梁炳夏

炎天六月臥深山　염천 유월에 깊은 산속에 누어
世上功名我不關　세상의 공명 나와 상관 않도다
洗髮流頭開眼望　유두에 머리 감고 눈을 열어 바라보니
田園景色轉清閒　전원의 경치 굴러 맑고 한가하고나

又 翠松 金鎭泓

始得農家一日閒　처음으로 농가가 하루 한가함 얻으니
生涯不出讀耕間　생애는 읽고 가는 사이 벗어나지 못하누나
東流瀑沛全身浴　동류 폭포수에 온몸 목욕하니
靑中灑落又登山　가슴속 쇄락한데 또 산에 오르네

初秋

時惟七月淡蒼天 떠는 오직 하늘 맑고
萬頃銀波四野連 만경의 은물결 사야에 연했도다
千里馬嘶荒草外 천리마는 거친 초원 밖에 울고
一群鷺下碧江邊 한떼의 백로 푸른 강가에 내리누나
書聲古屋親燈火 글 읽는 소리 옛집에 등불 친하고
炊粲遐村鎖暮煙 밥 짓는 먼 산촌 저문 연기에 잠겼구려
此歲於焉過半去 이해도 어느듯 절반이 지나가니
可憐白髮又添年 가련한 백발은 또 한 해를 더하는구려

慎菴 韓龍福

又

蕭瑟金風欲暮天 소슬한 가을바람으로 저물고저 하는 하늘
落霞孤鶩一光連 떨어진 노을에 따오기 한빛으로 연하네
寒蟬亂噪層陰裡 찬 매미는 층층 그늘 속에 어지러이 울고
白鷺窺魚隔岸邊 백로는 언덕가를 격하고 물고기를 엿보누나
雲散樓坮先看月 구름 거친 누대에 달 먼저 보고
雨晴堤柳半含煙 비 개인 언덕 버들은 연기 반쯤 먹음었도다
詩情未了流觴醉 시정을 마치지 못했는데 흐르는 잔에 취하고
此日斯筵日如年 이날 이자리 하루가 한해 같구려

晩翠 梁炳朝

又

迢迢玉宇正秋天 초초한 옥우 정히 가을 하늘이라
五穀登豐四野連 오곡이 등풍하여 사야에 연하였네
塞雁信傳千里外 변방 기러기 천리밖에 서신 전하고
沙鷗盟約一江邊 모래 갈매기 한강가에 언약 맹서 하는구려
澄清水色如銀鏡 깨끗하고 맑은 물빛 은거울 같고
澹泊山容掃瘴煙 담박한 산 자태 장연을 쓸었도다
南屐北冠同興趣 남방 나막신 북방 관 흥취 같으니
碧溪結契已多年 벽계의 시계 결성 이미 해가 많았네

雲坡 趙寅熙

又

西風嫋嫋正秋天 서풍에 요나하게 아리따운 가을 하늘
禾黍油油一野連 벼 기장 유유하게 무성함 한결들에 연하였네
歸雁頻鳴明月下 돌아온 기러기 명월 아래 자주 울고
遊魚自躍碧波邊 노는 물고기 스스로 푸른 물결가 뛰누나
長松露滴朝過雨 장송에 이슬 떨어지니 아침에 비 지났고
細柳堤斜暮鎖煙 세류 언덕에 비치니 저은 연기 잠겼도다
無情歲月如流去 무정세월 흘름살이 가버리니
虛送還羞白髮年 허송한 세월 오히려 백발의 해가 부끄럽구려

顧巖 李成熙

又

許多人士愛秋天 허다한 인사 가을하늘 사랑하니
臨水登山步步連 물에 다다르고 산에 올라 걸음 걸음 연하도다
寒暑適宜車磨琢裡 차고 더움 살고 닦는 속에 적당하고
盃盤狼藉詠歌邊 술잔 소반 음식 낭자하구나
已經赤帝蒸炎熱 이미 적제의 찌는 불꽃 더위 지났고
更值金風聚瑞煙 다시 가을바람 만나 상서연기 모이는 구려
萬態千容從此易 만태천상이 이로부터 변역하니
應知過半度今年 응당 알서니 과반이나 금년이 지났도다

月洲 吳泳根

又

萬里晴空碧一天 만리 개인 한늘 푸른빛 한 하늘에
良辰佳景兩相連 좋은 때 아름다운 경치 둘 서로 이어지비
噬噬雁陣歸雲外 옹옹한 기러기떼 구름밖에 돌아오고
唧唧蟲聲亂草邊 직직 운는 벌레소리 풀가에 어지럽도다
黃菊初開微吐馥 황국이 처음 피니 가는 향기 토하고
金風蕭颯細浮煙 가을바람 소삽한데 가는 연기 뜨누나
蜻蜓弄日斜陽暮 잠자리 날 희롱 사양 저므니
未久霜飛又送年 미구에 서리 내려 또 한헐을 보내리

魯史 梁麟洙

又

春耕 李琳鉉

涼風斜日雨晴天　선들바람 비낀 해 비개인 하늘
斷續蟬聲遠近連　끊어졌다 어어지는 매미 소리 원근에 연하도다
烏鵲成橋牛女會　오작이 다리 놓아 견우직녀 만나는데
書生曠腹問幾年　서생이 배 별 쪼임 묻노니 몇해이던가

又

松山 梁炳文

到處橘香碧海天　도처에 귤향기 푸른바다 한들에
清風錦席月光連　맑은 바람 비단자리 월광이 연하도다
衆賢成集蘭亭上　어진이들 난정위에 모여
樽酒賦詩落照邊　동이술 낙조가에 시를 짓누나

秋月

梧桐月色夜如朝　오동의 달빛 밤이 아침 같으니
慷緖悠悠步石橋　생각의 실마리 아득하여 돌다리 거니누나
倘使昏衢疑日照　문득 어두운 거리에 해빛임 의심케 하고
誰將明鏡掛天遙　누가 명경을 잡아 먼 하늘에 걸었는가
玲瓏玉彩三千界　영롱한 구슬 채색 삼천리 세계요
瀅澈晶光十五宵　맑은 수정빛 십오야 밤이로세
出沒盈虧無限復　출몰과 차고 이그러짐 한없이 다시하니
化翁妙理少無搖　조화옹의 묘리 조금도 흔들림 없도다

小泉 金昌泳

又

素秋銀漢正迢遥　흰 가을 은하수 정히 멀고 멀어
北斗星稀月似鏡　북두의 별 드물고 달은 다리에 가득하네
三五時今明似鏡　삼오 보름에 거울같이 밝으니
塞邊客子步清宵　변방의 나그네 맑은 밤에 걷는구려

又

晩翠梁炳朝

仲秋明月皎如朝　중추 밝은 달의 밝음이 아침 같은데
山影倒江江倒橋　산그림자 강에 기우러지고 다리는 강에 기우어졌네
夢覺旅窓遊遠客　여창에 꿈깬 멀리 노니는 나그네
思家憶弟步清宵　집안생각 아우생각에 맑은 밤 걷는구려

又

草堂鄭炳尹

皓月三更不似宵　밝은 달 삼경이 밤 같이 않으니
携笻閒步感平朝　지팡이 이끌어 한보하니 평조처럼 느끼누나
歸思忽起鄉村望　돌아갈 생각 문득 일어 고향마을 바라보니
蜀鳥聲中萬想遥　촉나라 새소리 가운데 일만 회상이 멀구려

又

春坡梁炳夏

揚明秋月皎於朝　희엉청 밝은 가을달이 아침처럼 밝으니
獨上江樓望眼遥　상루에 홀로 올라 멀리 바라보누나
千里他鄉不歸客　천리타향에 돌아오지 않은 나그네
半吟半醉度幾宵　반은 읊고 반은 취하여 몇밤을 지냈구나

又

翠松金鎭泓

皓月三更不似宵　밝은 달 삼경이 밤 같이 않으니
携笻閒步感平朝　지팡이 이끌어 한보하니 평조처럼 느끼누나
歸思忽起鄉村望　돌아갈 생각 문득 일어 고향마을 바라보니
蜀鳥聲中萬想遥　촉나라 새소리 가운데 일만 회상이 멀구려

訪義巖祠

年訪忠祠古郡陽　祠마다 옛고을 양지쪽
祭叅行列滿場長　제사 참여의 행렬
朱村故里山猶美　주촌 옛마을 산도
矗石南江水有香　촉석루 남강물이
無語苔碑經禍亂　말없는 이끼낀 비석
受難竹史益凄凉　대에 새긴 수난의 역사
龍蛇七月當時事　임진년 칠월
波裡千秋義不忘　물결속의 천추의기

小泉 金昌洙

又

蕙質能扶一線陽　좋은 자질이 능히 한줄기
悠悠往迹頌聲長　아득히 지난 자취
名高靑史千秋赫　이름은 청사에 빛나고
義振南江百世香　남강에 의기 떨치니
薦茲烈英尤感恨　영혼에게 분철 드리니
盡忠片石更凄凉　충성 다한 일편석
報國衷情永不忘　나라에 보답한 충정

晩翠 梁炳朝

又

湖雲 權興玉

義祠精建碧溪陽　義烈祠의로운 사당을 벽계의
往跡回思感恨長　양지에 정교하게 세웠으니
青史章頭忠魄顯　지난 자취 회상하면
南江巖上落花香　느낀 한이 길구려
烈風百世尤輝赫　청사의 장머리에
卓節千秋倍凜凉　충성의 넋 나타나고
扶植綱常撑宇宙　남강의 바위위
吾邦民族豈能忘　떨어진 꽃 향기롭도다
　　강상을 부식하고
　　우주를 버티었으니
　　우리나라 민족이
　　어찌 능히 잊을손가

又

農隱 金義植

義巖祠屹碧溪陽　義巖祠의암사 벽계양에
殉節遺芳萬歲長　순절한 꽃다움 만세에
一片丹心魁賊殺　일편단심은
千秋不朽妓名香　천추에 썩지 않는
誘倭美笑春風煖　왜장을 유인한 미소는
投水忠魂雪月凉　물에 던진 충혼
爲國殺身光萬世　나라 위한 살신이
可憐享祀永難忘　가련한 행사 길이
　　만세에 빛나니
　　잊기 어렵도다

又

一祠屹立碧溪陽 한 사당이 벽계양에 높이 섰으니
爲國忠魂不滅長 나라위한 충혼 꺼지지 않고 길구려
百世遺芳欽感慕 백세에 끼친 방명 공경하여 흠모하니
幾多志士裸焚香 얼마나 많은 지사들이 분향 상신 하였던고
花飛石上今寥寂 꽃이 나르는 돌위에 이제 적막하고
敲墜江邊已悵涼 적이 떨어진 강가엔 이미 창량하도다
義烈丹心登竹帛 의열의 단심이 죽백의 사기에 오르니
春秋享祀敢何忘 춘추에 드리는 향사 삼히 어찌 잊으리오

守軒 姜龍鳳

又 顧巖 李成熙

天生高節朱村陽　하늘이 높은 절개를 주양촌에 내시니
赫赫忠貞與世長　혁혁한 충정은 세상과 더불어 길어지리
煇煌事蹟有餘香　휘황한 사적 향기처럼 오래 가리

又 草堂 鄭炳尹

百世清風無盡地　백세 청풍이 한정이 없고
一祠屹立碧溪陽　한 사당이 벽계의 양지에 홀연이 섰으니
名振南江義氣長　이름이 남강에 떨치니 의기 길도다
報國丹忠傳後世　나라에 보답한 붉은 충성 후세에 전하니
千秋芬苾亦何忘　천추에 드린 분칠 또한 어찌 잊으리오

初雪

晚翠 梁炳朝

風吹瑞雪滿山高 바람이 서설을 불어 산높이 가득하니
望裡難分鶴九皐 바라보는 속에 학의 깊은 못 분간키 어렵구려
樹樹粧花園有景 나무마다 꽃을 장식하니 동산에 경치 있고
家家散玉夜無騷 집집에 옥을 뿌리니 밤 시끄러움 없도다
吟詩數句心如凍 시 두어 구절 읊으니 마음이 어는것 같고
擧酒三盃興更豪 술 석잔을 드니 흥이 다시 호탕허지네
燈下讀書時正好 등잔 아래 독서 때 정히 좋으니
纖塵不動月明濤 간 티끌 부동한 달 밝은 물결이로세

又

湛軒 權熙文

不覺山窓夜冷高 산창에 밤의 벙기 높음 깨닫지 못했는데
起看玉屑沒平皐 일어나 보니 옥가루에 평평한 언덕 빠졌구려
飄還化雨形聲細 날부짐 돌로 비가 되어 형성이 가늘고
飛忽乘風氣勢豪 날음이 문득 바람을 타 기세가 호웅하네
翻作畫工千幅繪 화공은 번득여 천폭 그림을 그리고
優成詞客百篇騷 사객 넉넉히 백편의 글 이루는고야
可憐漁老投竿事 가련타 고기잡이 노인 낚시대 던진 일
莫向寒江厚凍濤 차거운 강 두텁게 얼 물결 향하지 마오

又

顧巖 李成熙

昨宵初雪尺餘高　어제밤에 첫눈이 한자 남짓 높으니
窓外難分上下皐　창밖의 위 아래 언덕 분간키 어렵구려
野社欣欣豐話潤　들 두레 즐거워 풍년 담화 활발하고
旗亭處處咏歌騷　깃발 정자 곳곳에 노래 읊어 소란토다
竹修欝欝形容健　긴 머나무 숲 울창한 형용 건장하고
松老蒼蒼氣像豪　늙은 솔 창창한 기상 호응하고나
大地渾成銀世界　대지가 혼연히 은세계 이루니
千江鏡面靜無濤　천강의 거울 면이 고요하여 물결 없네

又

湖隱 金鍾敏

小春時節漸寒高　소춘시절이 점점 한기 높아지니
玉屑紛紛積四皐　옥가루 분분하여 사방 언덕 쌓이누나
竹葉分明鷄過跡　대잎은 분명히 닭이 지나간 자취오
木花却怕鳥來騷　나무꽃은 오히려 새 날아와 소란할까 두렵구려
兎行轉倒心情苦　토끼 걸음 매화꽃 굴러 심정 괴롭고
狗走梅成氣勢豪　개 달려 매화꽃 이루니 기세 호걸스럽도다
雪滿千山枝亦凍　눈 가득한 천산에 가지 또한 얼었으니
只憐不聽萬松濤　다만 만송의 물결 듣지 못함이 안타깝도다

又

北方冷氣下南高　북방의 냉기 남으로 내려 놀으니
白雪紛紛積四皐　백설이 분분하여 사방 언덕 쌓이는고야
夜月登空銀色拂　밤달 공중에 오르니 은빛 떨치고
朔風吹樹瑟聲騷　삭풍이 나무에 부니 비파소리 오란하도다
蛇蛙避凍爭捷穴　뱀과 개구리 차거움 피하여 다투어 굴로 들어가고
松栢凌寒共作豪　송백은 찬것을 능멸하니 살이 호걸 짓는구려
萬徑險難人踵少　만길 험난하여 사람 발길 적은데
時聞江口怒波濤　때로 강어구에 성난 파도소리 들두나

又

夜夜冷威高　밤마다 찬 위세 높더니
崇朝覆四皐　아침 마칠사이 사방 언덕 덮은구나
溪山添景色　시내와 산은 경색을 더 하고
今古入詩騷　고금의 글귀 문단에 드는구려
落地輕無馨　땅에 떨어짐 가벼워 소리없고
飄空銳且豪　공중에 나부낌 예민하고 또 호걸스럽도다
相異颱風雨　태풍우와는 서로 다르니
不崩不溢濤　산 무너지지 않고 물결 넘치지도 않는구려

湖雲 權輿玉

慎菴 韓龍福

又

春坡 梁炳夏

無窮造化雪飛高　무궁한 조화 눈 높이 나르니
綠色平郊變白皐　녹색의 평교가 흰 언덕으로 변하누나
宇宙渾然銀世作　우주는 혼연히 은세계 짓고
樹枝戰慄谷風騷　나무가지 벌벌 떠니 골자기 바람 소란하구나
寒鴉落照城林亂　낙조의 찬 갈마귀 성숲에 어지럽고
塞雁孚雲氣傑豪　구름 뜸는 기러기 기운 호걸스럽도다
日暮天涯窓户冷　하늘가에 해 점으니 창문이 차고
山川寂寂聽松濤　산천은 적적한데 솔 물결 들리네

又

錦峰 吳龍根

天催釀雪北風高　하늘이 눈 마련하려 재촉하니 북풍이 높고
玉屑紛紛四面皐　옥가루가 사면 언덕에 분분하구려
半夜呈祥三次白　반야에 상서 바치니 세차례 희였고
萬家迎瑞一歡騷　일만집 상서 맞아 한결 기뻐 소란하네
梨花滿樹春光活　배꽃이 나무에 가득하니 봄빛이 살아났고
銀色粧山氣勢豪　은빛으로 산을 단장하니 기세 호걸하도다
物有相生相克理　사물은 상생과 상극의 이치가 있으니
遇陽化水即成濤　볕을 만나 물로 화하여 곧 물결 이루네

又

農隱 金義植

六花散落滿城高　눈이 흩어져 떨어지니 성에 가득 높고
山寺早朝僧掃皐　산사에선 이른아침 중이 언덕을 쓰네
倍白千家初上月　처음 상달이 천가위에 배로 희고
詩魂偶動獨吟騷　우인히 시혼이 동하여 홀로 시를 읊누나

又

翠松 金鎭泓

瑞雪紛紛暫積高　서설이 분분하여 잠간 사이 높이 쌓이니
銀光素服作奇皐　은빛 소복이 언덕에 기이한 모양 짓누나
寒波漸漸来嚴襲　찬물결 점점 엄하게 엄습하니
落日歸巢衆鳥騷　해떨어지니 둥지에 돌아온 뭇새 시끄럽구나

冬至

農隱 金義植

冬天慄烈雪氷多　겨울하늘 율열하여 눈 어름 많으니
不遠陽回鮮凍波　머지않아 양이 돌아와 얼 물결을 녹이리
鳴律黃鍾玄妙理　황종의 율이 우니 현묘한 이치오
添年白髮自然過　백발에 나이 더하니 자연이 지나감이로다
梅花待臘香生砌　매화는 설날 기다려 향기 뜰에 동하고
栢葉經寒翠溢坡　백엽은 추위를 겪어도 푸름이 언덕에 넘치네
朝早厨房炊豆粥　아침 일직 부엌에서 팥죽 끓여
享神致奠敬如何　신을 향사 하는 치전에 공경함이 어떠한고

又

慎菴 韓龍福

冬至陽生瑞氣多　동지에 양이 생하니 서기가 많고
六花滿地作銀波　눈이 땅에 가득하여 은물결 지었네
江山不變如天在　강산은 불변하여 하늘 같이 있고
歲月無情似水過　세월은 무정하여 물 같이 흘러가네
梅意衝寒將發苑　매화 뜻 한기를 찔러 장차 후원에 피고
柳心待臘欲舒坡　버들 마음 설 기다려 언덕에 펴고자 하네
俗云豆粥能驅厄　속설에 팥죽은 재액을 쫓는다 하는데
此日甘飡味若何　이날 저녁밥 단맛이 어떠할는지

又

晩翠 梁炳朝

冬至陽生日影多　동지에 양이 생하니 해 그림자 많고
河山銀界動流波　하산의 은세계에 흐르는 물결 동하네
騷人有意梅園訪　글하는 사람 뜻 있어 매화동산 찾고
玩客無心柳岸過　구경하는 나그네 무심히 버들 언덕 지나누나
落落長松凌沍節　낙낙장송은 춥고 언 시절을 능멸하고
紛紛吹雪自成坡　분분하게 부는 눈 스스로 언덕 이루도다
題軋巡盃是外何　비색은 가고 태평이 오는 것은 다 하늘의 순서라
否往泰來皆天序　시축을 쓰고 잔 돌리는 이밖의 무엇을 하리오

又

湖雲 權輿玉

時移節換事偏多　때 옮기고 철 바뀌어 일이 편벽이 많으니
爲愛身心遯世波　심신을 아끼지 위하여 세탈을 회피하노라
春氣自今三朔到　봄기운 이제부터 석달이면 이르고
年光從此九分過　연광은 이로 좇아 구분이나 지났구려
殘陽最短傍山里　쇠잔한 볕은 산곁 마을이 가장 짧고
積雪初深近峽坡　쌓인 눈은 처음 가까운 기슭 언덕에 깊도다
煮粥薦祠兼逐疫　팥죽 끓여 사당에 드리고 겸하여 병을 쫓으니
古來遺俗不傳何　고래로 끼친 풍속 전하지 않고 어찌하리

又

正當冬至寒多 정히 동지를 당하니 눈과 추위가 많아
凍結江河不見波 강하가 얼어 붙어 물결 보이지 않는구려
夜夢難成朝日晩 밤꿈 이루기 어려운데 아침 해 늦고
新陽始動太陰過 새로운 양이 시동하니 태음이 지났도다
院中雅曲松爲籟 후원 가운데 맑은 곡조 솔이 소리하고
窓外孤聲雁下坡 창밖의 외로운 소리 기러기 언덕에 내리네
豆粥煮來添一齒 팥죽 끓여오니 나이 한 살 더하고
星星白髮乃如何 성성한 백발 이 어찌하리

小泉 金昌泳

又

人事天時變幻多 인사와 천시 변환이 많으니
從知歲月逝如波 따라서 세월이 물결 같이 감을 알괘라
寒牕始覺陽初動 차거운 창에 빌소 양이 처음 동함을 깨달고
日線稍長將釵柳 햇살이 차츰 길어지니 장차 버들이 피지고
雪堆難解漸成坡 눈 무더기 녹기 어려워 점점 언덕 이루네
菊醪豆粥頻相送 국화주 팥죽 자주 서로 보내니
自古良風美俗何 옛부터 전하는 양풍 미속 어찌하리

湛軒 權 熙 文

又

書樓客滿咏歌多　글다락에 손이 가득하니 읊은 시가 많은데
流水光陰去若波　유수같은 광음 가길을 물결같이 하누나
歲律終頭人老去　해의 책력 마친 머리 사람은 늙어가고
詩情論處酒巡過　시정 의논한 곳에 술 순배 지나가는구려
殘陽雪積高低谷　쇠잔한 볕 눌고 낮은 골자기 눈 쌓이고
凍葉風驅上下坡　얹 잎세 바람이 위 아래 얹덕에 몰도다
煮粥年年傳古俗　해마다 죽 끓임 옛 풍속 전함이니
鄉愁北阻是奈何　고향근심 북 막히니 이 어찌할꼬

顧巖 李成熙

又

陽生此日喜心多　양이 생하는 이날 기쁨 마음 많은데
磎澗成氷不起波　시냇물은 얼어 물결 일지 않누나
古昔山河無恙在　옛 산하는 병없이 있는데
只今歲月負人過　지금 세월은 사람 저비리고 지나는구려
孤村雪積難分路　외로운 마을에 눈 쌓이니 길 분간키 어렵고
幽谷雲開突出坡　유곡에 구름 열리니 얹덕 돌출하네
衰顔白髮奈其意早　쇠잔한 얼굴 백발을 그 어찌하리
欲綻盆梅春意早　피고픈 분매화는 봄뜻이 이르고

趙昌武

又

冬至今宵快心多　동지 오늘밤 상쾌한 마음 많은데
錦江千里月光波　금강 천리에 달빛 물결이로다
陰陽交處新年到　음양이 교차하는 곳에 새해에 이르고
時序遷時舊臘過　때의 차례 옮겨서 구랍이 지나는구려

又

三虛吳治湟

冬至今宵積雪多　동지 오늘 밤 적설 많으니
雪中又襲大寒波　눈 가운데 또 대한파 엄습하네
衰顔白髮無成事　쇠잔한 얼굴 백발이 성공한 일 없으니
可笑生涯甚愧何　가소로운 생애 심히 부끄러움 어찌하리

歲暮

臘天雪景正佳佳　설 하늘에 눈경치 정히 아름다워
銀滿乾坤玉滿家　은은 건곤에 가득하고 옥은 집에 가득차구려
院裡生心白梅花　후원곡엔 마음나는 푸른대일이오
階前得意靑竹葉　뜰앞에는 뜻 얻은 흰매화로다
山含淑氣環窓外　산은 맑은 기운 먹음고 창밖에 둘렀고
水出淸聲石下涯　물은 맑은 소리 내며 돌가에 내리네
歲色如紗今幾夜　헛빛이 사비단갈이 얇으니 이제 몇밤인가
寒空片月漸西斜　차거운 하늘 조각달 점점 서쪽으로 비끼누나

湖隱 金鍾敏

又

斗柄漸回春意佳　북두자루 점점 돌아 봄뜻이 아름다워
梅香先透向陽家　매화 향기 양지 향한 집에 먼저 사무치네
雪滿峰頭萬樹花　산길은 골구렁은 일천 겹친 안개오
山深洞壑千重霧　눈 가득한 산봉우리 일만나무 꽃이로세
詩酒琴書忘世事　시주와 금서는 세상사 잊어버리고
漁樵耕讀足生涯　어초와 경독으로 생애가 족하구나
無情歲月何其速　무정한 세월은 어찌 그리 빠른지
未久新年眼下斜　밋구에 새해가 눈앞에 비끼네

農隱 金義植

晩翠 梁炳朝

又

當臘伊今意不佳　설을 당한 지금 뜻이
謾携鳩杖訪隣家　아름답지 못하니 부질없이 구장을 끌고
風吹竹葉聲聲瑟　바람이 대잎에 부니 이웃집 심방하네
雪着松端朶朶花　눈이 소나무끝에 부디치니
世味已酸魂夢外　세상맛은 이미 혼몽밖에 시고
書懷虛老亂塵涯　글 회포는 헛되이 어지러운 티끌에 늙도다
年當八十無非恨　나이 팔십에 당하니 한이 아님이 없으니
溪谷千年路轉斜　계곡 천년에 길이 굴러 비꼈구려

湖雲 權輿玉

又

歲云暮矣景清佳　해는 저므렀는데 경치 맑고 아름다워
送舊迎新瑞滿家　송구영신에 상서로움 집에 가득하구나
砌竹時傳窓外響　돌뜨락의 대나무 때로 창밖에 비파 진하고
盆梅日吐案頭花　분재 매화 날로 책상 머리에 꽃을 희우누나
曾經兵火地中斷　일찍 병화 치른 땅 가운데 끊어지고
遙望弟兄天一涯　멀리 한끝에 아우 형 바라보네
人生最恨髮霜斜　인생은 귀밑에 서리 비낀것이 가장 한이로세
物色年年無異態　물색은 해마다 태도 달르지 않는데

又

歲薄如何日漸佳 허가 얇은데 어찌하여 날은 점점 아름다운가
滿天瑞氣動田家 하늘에 가득한 서기 전가에 동하네
欲舒岸柳含春色 펴고자 하는 언덕 버들 봄빛을 먹음고
方綻庭梅帶雪花 방금 터질 뜰매화는 눈꽃을 떠었구려
去去光陰誰有挽 가고 가는 광음 누가 있어 붙잡으며
茫茫世事亦無涯 망망한 세상사 또한 끝이 없구로
忘年會友聊同趣 망년회에 모인 벗들 애오라지 취미 같으니
酩酊無知日已斜 몹시 취하니 헤 이미 기운줄 몰라라

雲巖 李成熙

又

迫頭歲色轉清佳 박두한 세색이 굴러 맑고 아름다우니
斗柄回寅瑞滿家 북두자루 동으로 도니 상서롭움 집에 가득차구나
門柳垂枝金眼綻 문앞 버드나무 늘어진 가지 황금눈 트고
盆梅開蕚玉唇花 분재 매화 옥순화 꽃 바침 여는구려
文明發達通南國 문명은 남국을 통하여 발달하는데
殭土難堪障北涯 강토 북녘끝이 막힘 난감이로다
倏忽光陰如水去 잠간 흘러간는 광음 물과 같이 가고
無成學業鬢毛斜 학업을 이룬것 없이 귀밑머리만 비끼네

雲坡 趙寅熙

又

耽看歸省世情佳　귀성을 살펴보니 세정이 아름다워
歲暮人波訪故家　세모에 인파 고향집 찾는구려
待臘池邊柳坼眼　설을 기다리는 연못가 버들은 트고
衝寒窓下梅胎花　한기를 충돌한 창 아래 매화꽃 잉태하누나
迎新送舊徒增壽　새해 맞고 옛해를 보내니 한갓 나이만 더 하고
講古論今感莫涯　옛을 강하고 지금을 논하니 느낌 가이 없도다
南北協商和議決　남북협상 화의를 결정하니
願牧魔線板門斜　원컨데 판문점에 비낀 삼팔마선 서두소서

小泉 金昌泳

又

歲暮風情漸入佳　세모 풍정이 점점 아름다움에 드니
背兒手物訪鄉家　아이 업고 손에 선물 들고 고향집 찾는구려
雁飛海外聲聲陣　기러기 나는 바다 밖에 소리 소리 떼 짓고
雪滿山中樹樹花　산중에 눈이 가득하니 나무 나무 꽃이로세
禮沒六洲今世界　육주에 예절 빠진 오늘의 세계오
恨多七十我生涯　칠십에 한 많은 나의 생애로다
去年不返今年去　간 해는 돌아오지 않고 금년은 가는데
又見西天落照斜　또 서천에 낙조 비낌 보는구려

三虛 吳治滉

又

梅山 金鎭泳

降雪無際銀世界　내리는 눈 한정없어 은세계 되었는데
四隣渾是玉人家　사방이 모두가 옥인의 집일세
喜悲此歲今將暮　좋은 일 나쁜일로 금년이 저무는데
北域何時種槿花　북녘에는 언제 무궁화 심을고

又

春坡 梁炳夏

以詩以酒足生涯　시 쓰고 술 마심이 생애의 전부라
歲暮風光日漸佳　세모의 풍광 날로 점점 아름답구려
岸柳庭梅春意促　언덕버들 뜰 매화 봄뜻 재촉하는데
余何虛老卧田家　나는 어찌 헛되이 늙어 농사에 누었는가

又

驛內津頭色色佳　역내와 나루터엔 색색으로 아름답고
彩衣兒童摠看花　색동옷 입은 아이 꽃을 보는구나
壬申吉運明朝闢　임신년 길운이 내일 아침이면 열리고
辛未災難暮日斜　신미년 재난은 날이 비껴 저므네

草堂 鄭炳尹

又

逐新送舊設筵佳　새해를 맞고 묵은 해를 보내는 자리 베품이 아름다워
半夜鐘聲報萬家　반야의 종소리 일만집에 알리네
欲笑庭梅成朶裡　피고자 하는 뜰매화 송이 맺은 속에
春光不遠眼前斜　봄빛이 머지않어 눈앞에 비끼리

道山 朴喜穆

新春

晚翠 梁炳朝

緩步登臨小墅陽 느린 걸음으로 작은 들
森羅萬像總韶光 삼라만상이 모두 봄빛이로세
欲舒岸柳方開眼 펴고자 하는 언덕 버들 바야흐로 눈을 뜨고
含笑庭梅遠播香 웃음 먹음은 뜰매화 향기 멀리 퍼지누나
隔月斯箋詩債積 한 달을 걸러 이자리 시의 빚이 쌓이고
良辰佳節酒盃懷 좋은 때 아름다운 시절 술 생각 길도다
城東草木新芽發 성의 동쪽의 초목 새싹 돋으니
採女携筐着布裳 나물 캐는 아낙네 광주리 끌고 베치마 입었구려

又

守軒 姜龍鳳

新春和氣好生陽 새봄의 화한 기운 좋게 양기 생하니
萬里山河帶瑞光 만리 산하에 서광이 띠었네
雨細庭園皆有色 가는 비 내리는 정원에 모두 빛이 있고
風溫梅竹動微香 바람 따뜻하니 매화 대나무 가는 향기 동하누나
漁歌朝日浮江碧 어부의 노래 아침해에 강벽에 뜨고
樵笛斜陽下路長 초동의 피리 사양 긴 길에 내리네
翠黛美粧携筐女 푸르게 눈썹 칠하고 아름답게 단장한 광주리 인 아낙네
野蔬採取振紅裳 들나물 캐는데 붉은 치마 떨치네

又

雲波 趙寅熙

指東斗柄漸回陽 동쪽을 가르키는 북두 점점 양이 돌아오니
草木新芽爭艷光 초목의 새싹 고운 빛을 다투네
竹守貞心霜裡碧 정절 지킨 대나무 서리속에 푸르고
梅含清雅雪中香 청아함을 먹음은 매화 눈가운데 향기롭구나
雁鴻歸北天空濶 북으로 돌아가는 기러기 하늘에 활발하고
燕子離南海路長 강남으로 떠나는 제비 바다길 길도다
萬物蘇生皆自樂 소생하는 만물 모두 즐거워하니
賞春兒女振衣裳 봄을 구경하는 아녀자 의상을 떨치누나

又

顧巖 李成熙

節序循環日載陽 계절의 차례 순환하여 해는 양을 실었고
森羅萬像艷春光 삼라만상이 봄빛이 곱구나
淡烟岸柳初開眼 맑은 연기 언덕의 버들 첫눈이 트고
殘雪庭梅已吐香 쇠잔한 눈, 뜰매화 이미 향기 토하네
江鯉隨波游影活 강 잉어 물결따라 노니는 그림자 활발하고
林禽得意囀聲長 숲속의 날짐승 뜻얻으니 우는소리 길도다
鵠然大地新芽茁 애연한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니
解凍和風振女裳 해동하는 화한 바람 여자치마 떨치네

又

趙昌武

時維正月孟春陽　때는 오직 정월 맹춘의 양이라
物物方蘇爭艷光　물물이 바야흐로 소생하여 고운빛을 다투누나
萬里江山回暖氣　만리강산에 따뜻한 기운 돌아오고
一園梅竹動清香　한동산에 매화와 대 맑은 향기 동하누나
即看南嶽祥雲起　곧 남쪽 뫼뿌리에 상서로운 구름 일고
更得東天旭日長　다시 동천에 빛나는 해 길어짐을 얻었도다
有事西疇農政始　서쪽 밭두렁에 일 있어 농사일 시작되고
養蔬兒女捲衣裳　채소 가꾸는 아녀자 치마 걷어 올리누나

又

柳斗烈

新春日氣正陽陽　새봄의 일기 정이 양양하니
梅逐氤氳吐芳光　매화는 화한 기운따라 꽃다운 빛 토하누나
落韻成詩詩與屹　운이 떨어져 시를 이루니 시흥이 높고
盡心揮筆筆生香　마음을 다하여 글씨 쓰니 붓이 향기 나는구려
千峰雪盡山容起　천봉에 눈 다하니 산얼굴이 일고
萬壑氷消水面長　만학이 눈 녹으니 수면이 길도다
有事西疇人出野　서쪽 밭두렁에 일이 있어 사람이 들로 나가니
力農處處捲衣裳　힘들여 농사일 곳곳에 의상 걷어치누나

又

農隱 金義植

萬物蘇生大地陽 대지의 양기로
千山翠色滿春光 천산의 푸른빛
門前柳絮微生氣 문전의 버들강아지
窓外庭梅暗吐香 창밖의 뜰매화 가만히
愛節心情隨日樂 계절 사랑하는 마음
賞花興趣曳笻長 꽃 구경하는 흥취
農夫自力謀增産 농부 자력으로
欲作堆肥捲布裳 퇴비 작만하고자

又

春坡 梁炳夏

陽盛陰衰幾建陽 양이 성하고 음이 쇠하니
閉藏群物一時光 폐장된 군물이
滿天和氣催佳色 하늘 가득한 화기
大地溫風促美香 대지의 따스한 바람
細雨送寒梅蕚發 가는비 추위 보내니
解氷消雪水聲長 어름 풀리고 눈 녹으니
新春德裕山登望 새봄에 덕유산에
赤壁奇巖自作裳 적벽의 기이한 바위

又

天道循環始建陽 천도 순환하여 비로소 양을 세우니
東風浩蕩起韶光 동풍이 호탕하여 봄빛을 이르키누나
向南草樹誇先茁 남쪽 향한 풀과 나무 먼저 성함을 자랑하고
陰北蓓蕾尚未香 그늘진 북쪽 꽃망울은 아직 향기롭지 못하도다
寒病無差宜室暖 찬병이 차도 없으니 따스한 방이 마땅하고
新詩欲作愛宵長 새로운 시를 짓고자 긴 밤을 사랑하누나
郊原不遠方和暢 들 언덕 머지않아 바야흐로 화창하리니
將脫重裘換薄裳 장차 두터운 갓옷 벗고 얇은 옷으로 바꾸리

三虛 吳治湟

又

經冬大地帶新陽 겨울 지난 대지에는 새양을 띠었고
驚蟄群生欲吐光 경칩이 되니 군생들이 빛을 토하고자 하네
蓓蕾百花含艷色 꽃망울 든 온갖 꽃 고운빛 먹음고
坼芽細草養清香 움이 튼 세초는 맑은 향기 길르는구나
和風漸起寒宵遠 화풍이 점점 일어나니 찬 밤이 멀어지고
冷氣時消暖日長 냉기 때로 사라지니 따뜻한 날 길도다
溪邊漂女洗褰裳 시내가의 빨래하는 여인 바지 치마 세탁하는구려
從此冬衣宜換着 이로부터 겨울옷 바꾸어 입는세 마땅하니

草堂 鄭炳尹

又

遠坡 朴洙燮

山深正月始生陽　산 깊은 정월 비로소 양이 생하니
幾望新春好景光　얼마나 새봄 좋은 경광을 바랬던고
頹堞尚餘嚴臘雪　무너진 성첩엔 아직 매서운 선달눈 남었고
滿筐採送軟芽香　광주리에 가득 캐어 보낸 나물 연한 움 향기롭구나
真工愷愷希顔聖　참공부 힘쓰고 힘써 안자성인 바라고
浪跡紛紛愧子長　방랑한 자취 분분하여 사마자장
惟幸家兒傳喜報　오직 다행이 사아는 기쁜 소식 전하는데
和風一振換衣裳　화풍이 한번 떨치니 의상을 바꾸는구려

又

小泉 金昌洙

氤氳一氣漸施長 천지 화합하는 따뜻한 기운 점점 길게 베푸니
萬像熙熙自有光 일만 형상이 빛나고 빛나 스스로 빛이 있도다
莫道春寒無別味 봄기운이 차 별미없다 말하지 마소
盤登新菜口生香 소반에 오른 새나물 입에 향기 나는구려

又

翠松 金鎭泓

解氷大地艷春陽 얼음 풀린 대지에 봄볕이 고우니
雨後煙霞薄日光 비온 뒤 연기노을 날빛이 흐리구나
江北江南和氣滿 강북 강남에 화기 가득하여
院梅岸柳各生香 후원 매화 언덕 버들 각각 향기 나네

又

土牛送臘到三陽 아지랑이 섣달 보내고 삼춘의 볕이 이르니
便覺東窓日影長 문득 동창에 날 그림자 길다람을 깨닫네
寒盡風和今好節 차거움 다 하고 바람 화한 이 좋은 시절에
爭春梅柳自生香 봄을 다툰 매화 버들 절로 향기 나는구려

道山 朴喜穆

賞春

龍山 朴在雨

三春佳節是清明 삼춘 아름다운 시절 이 청명에
物物回蘇活力生 물물이 회생하여 활력이 생기도다
解慍風中芳草色 분노를 푸는 바람 속에 방초의 빛이오
向榮樹裡巧鶯聲 번영을 향한 나무 속에 교묘한 꾀꼬리 소리일세
酒能就醉忘愁慮 술은 능히 취하게 하여 근심걱정 잊게 하고
花引採心總愛情 꽃은 탐하는 마음 이끄니 모두 사랑이구려
佳景賞來隨處好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 따라 구경하러 오고
種耕南畝適期成 남쪽 밭 이랑에 적기에 씨 뿌리누나

又

錦峰 吳龍根

可愛春光處處明 가히 사랑스러운 봄빛 곳곳에 밝으니
招朋玩賞樂心生 벗을 불러 구경하니 즐거운 심사 일어나네
葳蕤芳草提人目 무성한 방초 사람 이목 끌고
紅紫香花惹客情 붉은 향화 나그네 심정 이끄는고야
少憩林亭聽鳥語 숲속 정자에 잠깐 쉬어 새의 말을 듣고
更過柳幕出鶯聲 다시 버들장막 지나니 꾀꼬리소리 나누나
二三作伴携笻處 두서넛 짝을 지어 지팡이 이끈 곳에
觴詠舒懷勝會成 마시고 읊고 회포 푸는 좋은 모임 이루었도다

又

守軒 姜龍鳳

賞春氣候際清明 봄구경 시후는 청명즈음이라
萬紫千紅倍色生 만자 천홍이 빛이 배로 더나네
日暖花庭蝴蝶舞 날 따뜻한 꽃들에 벌 나비 춤추고
山空月夜杜鵑聲 빈산 달밤에 두견이 소리로세
同窓深趣詩篇樂 동창들 깊은 취미는 시편의 낙이오
細雨和風桂棹聲 가는 비 화한 바람 계주 돗대 소리라
景物重重難可盡 경치 물색이 겹겹 쌓여 다보기 어려우니
一談一笑一遊成 한번 담화 한번 웃음 한번 놀이 일루었네

又

雲坡 趙寅熙

妍妍物色鏡中明 곱고고운 물색 서울 가운데 밝으니
滿地煙霞眼界生 땅에 가득한 연기 놀을 안계에 나누나
軸上新詩閑士趣 풍축위의 새로운 시 한가한 선비의 취미오
樽前白髮故人情 술동이 앞의 백발은 고인의 정일세
雨過漸聞千林綠 비 지나가니 일천숲 점점 울창하고
風靜尤高一澗聲 바람 고요하니 한시내물 소리 더욱 높구려
樹樹殘紅春欲暮 나무마다 쇠잔한 꽃 봄이 지물고자 하니
江山到處此遊成 강산 도처에 이놀이 이루었네

又

和風薄霽過清明
화한 바람 얇은 그을 청명을 지나니

東帝當時柳絮生
동제 당시에 버들강아지 났도다

嵐翠入窓忘雪色
푸른산안개 창에드니 눈빛을 잊고

日光暖户感春情
달빛이 문에 따뜻하니 봄정을 느끼누나

黃鶯穿葉聽音巧
노란꾀꼬리 잎을 뚫어 고묘한 소리 듣고

雲雀弄雲始聞聲
종달새 구름 희롱하니 비로소 소리 듣는구나

莫惜人間三月去
인간의 삼월간다 애석히 하지마오

將看夏日綠陰成
장차 여름날 녹음 이룸을 보리로다

顧巖 三虛 吳治熙

又

九十春光日昶明
구십 춘광 날씨 창영하니

森羅萬像樂其生
삼라만상이 그 생을 즐기는구려

紅桃白李艷顔色
붉은복숭아꽃 흰 오얏꽃 염색이 고운데

走獸飛禽孳尾情
달는 짐승 나는 새 자미의 정일세

賞客遊人詩酒興
상객과 노니는 사람 시와 술의 흥이오

牧童採女俗謠聲
목동과 나물 캐는 아낙네 민속 노래 소리로다

鶯歌蝶舞好時節
꾀꼬리 노래 나비의 춤 좋은 시절이라

入眼山川圖畫成
눈에 든 산천은 그림을 이루도다

顧巖 李成熙

又

百花三月正清明
雨歌長堤翠柳生
塞北歸鴻知擇節
江南來燕不忘情
驅牛隨岸兒吹笛
採蕨登皐女唱聲
莫恨東風春日暮
將看芳草綠陰成

백화 삼월이 정히 청명이라
비 그친 긴 언덕 푸른버들 생기나네
새북으로 돌아간 기러기 철을 가릴줄 알고
강남에서 온 제비 옛정을 잊지 않는구려
언덕 따라 소모는 아이 피리 불고
동산에 올라 고사리 뜯는 여인 노래 소리일세
동풍에 봄날이 저문다 한탄하지 마오
장차 방초 녹음 일줌을 볼지로다

草堂 鄭炳尹

又

小泉 金昌永

嬋妍春色一連生　선연한 봄빛 일연으로 생하니
賞景遊人陣列成　경치 구경하는 노닌는 사람 진열을 이루네
啼鳥聲中斜日晩　우는 새소리 가운데 비낀 날 늦으니
新詩樽酒罷愁情　새로운 시 동이술 근심 하는 마음 파하누나

松亭會吟

晴餘物色倍生青　개인 뒤 물색이 배나 푸름이 나는데
吾會當前咏軸聽　우리 모임 앞에 당하니 시축 읊음 들리네
盃酒飮來顔赤赤　술잔 마셔 오니 얼굴 붉은데
歲華閱去髮星星　헛빛 칠우어가니 머리털이 성성하구나
鶯兒初囀尋垂柳　꾀꼬리 수양버들 찾아 처음 울고
詩社方開傍小汀　시사는 바야흐로 작은 물가 곁에 열도다
尤愛煙霞泉石好　연기노을 천석 좋음 더욱 사랑하노니
奇奇妙妙又形形　기기묘묘하고 또 형형이로세

晩翠 梁炳朝

又

名亭深在萬松靑　이름난 정자 일만 솔 푸른 속에 깊이 있으니
松籟溪聲爽耳聽　솔소리 시냇물소리 귀에 시원하게 들리네
百慮爲消盃酌酌　온갖 시름 없애고자 술 따르고 따르며
半生自愧髮星星　반평생에 백발성성함이 스스로 부끄럽도다
鶯歌垂柳千絲岸　꾀꼬리 수양버들 일천실 얽힌 언덕에 노래하고
鷺下明沙十里汀　백로 십리 물가의 밝은 모래에 내리네
飽看景光歸路晩　경치 실컷 구경하니 돌아오는 길 늦고
與君醒醉共忘形　그대와 더불어 깨고 취하니 같이 형용을 잊었서라

栗堂 崔鍾植

又

亭開文會傍松青　정자에 문회를 여니 솔푸른 셜이라
臨水觀魚又鳥聽　물에 다달아 고기보고 또 새소리 듣네
呼韻題詩情密密　운자 불러 시 지으니 정 은밀하고
遇朋問候髮星星　벗을 만나 안부 물으니 백발이 성성하누나
同傾樽酒吟風月　동이술 갈이 기우려 풍월을 읊고
共洗身塵坐石汀　몸때 갈이 씻어 돌물가에 앉었도다
車笛長鳴歸路晚　차고동 길게 울어 돌아갈길 늦으니
更期後日祝安形　다시 후일 기약하며 형체보전 기도하네

錦峰 吳龍根

又

檑夏南風岸柳青　유하에 남풍 부니 언덕 버들 푸르고
織絲鶯送巧音聽　실을 짜는 꾀꼬리 교묘한 소리 듣누나
不遐應接三庚節　머지않아 삼복절 응당 접하고
未久且看七夕星　미구에 칠석별 또 보리로다
弄笛牧童尋草野　피리를 부는 목동 초야를 찾고
携竿漁老訪溪汀　낚시대 지닌 늙은 어부 시냇가 찾는구려
萬壑千峰色形如許　눈앞의 좋은 경치 이제 이같으니
眼前勝景今古如許　만학천봉이 색색의 형용이로세

湖隱 金鍾敎

又

老松亭畔老松青 노송정가에 늙은 솔 푸르니
棲鶴鳴聲不絶聽 깃들인 학 우는소리 끊이지 않고 듣도다
欲識夜時瞻銀漢 밤때를 알고자 은하수 바라보고
願生國士仰奎星 국사 탄생 원하여 규성을 우러러 보누나
微風作伴歐耕水 미풍에 작반하여 갈매기 물결타고
細雨窺魚鷺下汀 가는비에 고기 엿보아 해오라기 물가 내리네
詩友相逢兼有酒 시우를 상봉하고 겸하여 술 있으니
醉顔紅作少年形 취한 얼굴 붉어져 소년 형용 짓누나

農隱 金義植

又

薰風五月一光青 훈풍 오월 한빛으로 푸르니
鳴鶴聲聲坐上聽 우는 학 소리소리 좌상에 듣도다
虎踞龍盤占吉地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린 길지를 택하니
山佳水麗會晨星 산좋고 물 고와 신성인물 모이는구려
千絲垂柳鶯來織 일천실 느러진 버들 꾀꼬리 와서 짜고
十里晴沙鷺下汀 십리개인 모래 백로 물가에 내리누나
惟我長州名勝地 오직 우리 장수고을 명승지라
居然泉石古今形 거연한 천석 고금의 형용이로세

雲坡 趙寅熙

又

松老千年不變青 솔은 천년을 늙어도 푸른빛 불변하니
棲枝仙鶴客窓聽 가지에 깃들인 선학 객창에 듣는구려
蹉跎歲月紅顔變 차타한 세월속에 홍안은 변하고
虛送春秋白髮星 세월을 허송하니 백발이 성성하구나
雲逐三南探勝地 구름 좇아 삼남의 승지를 탐방하고
風隨八道索名汀 바람따라 팔도의 이름난 물가 찾는구려
時當享樂吟觴席 때는 을료고 마시며 향락하는 자리 당하여
同韻相酬各異形 같은 운자 서로 수작이 형용 각각 다르네

草堂 鄭炳尹

又 翌松 金鎭泓

諸賢來踏路邊青　여러 어진 선비 길가 청초 밟고 와
相互題詩琴又聽　서로 시 짓고 또한 거문고 소리 듣는구려
楊柳千絲鶯喚友　버들 일천실 꾀꼬리 벗을 부르고
江湖萬里鷺飛汀　강호만리에 백로 물가에 나는구나

又 道山 朴喜穆

五月南風四面青　오월 남풍에 사면이 푸른데
層陰深處鳥啼聽　층층 그늘 깊은곳에 새 울음 소리 듣네
長長夏日消遣策　긴긴 여름날 시분 푸는 계책은
携酒携笻訪小汀　술 들고 단장 끌어 작은 물가 찾음일세

碧南亭雅會

初庚伏夏碧南登　초경일 복여름에 벽남정에 올라
把酒吟詩自樂興　술잔 들고 시 읊으니 스스로 즐거움 이누나
綠竹蒼松山屹立　푸른 대 푸른 솔에 산 높이 솟아 있고
琪花瑤草澗流澄　기화 요초에 골자기 물 흐름이 맑도다
名區遺蹟令人感　명구의 유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케 하네
勝地清光使客矜　승지의 청광은 객으로 하여금 자랑케 하네
諸益交心如淡水　모두에게 더한 사귄마음 맑은 물 같고
風流終日晩車乘　풍류의 날을 마치니 늦게 차를 타도다

湖隱 金鍾敏

又

彬彬多士責然登　빈빈한 선비들 비연하게 올으니
須覺南亭契事興　문득 벽남정 계사가 일어나누나
崔兀仁山當户翠　높이 솟은 인산은 문호에 당하여 푸르고
泓渟智水抱軒澄　그고 깊은 지수는 난간을 안고 맑구려
先人杖屨千秋跡　선인의 장구는 천추의 자취오
後裔逍遥百歲矜　후예들의 소요는 백세의 자랑이로세
今次會遊情未了　이번의 놀이 모임 정을 다 하지 못하니
更期他日各車乘　다시 다른날을 기약하고 각기 차를 타도다

愼菴 韓龍福

又

雅會南亭喜共登
四圍佳景一時興
山連方丈華山屹
水向瀛州錦水澄
喚友鶯兒聲不惜
蹴波燕子舞還矜
始知此日仙遊足
那羨人間八駿乘

벽남정 맑은 모임 기쁘게 같이 오르니
사방주위 아름다운 경치 일시에 일어나네
산은 방장으로 연하여 화산 높고
물은 영주로 향하여 금강물 맑도다
벗을 불은는 꾀꼬리 소리 아끼지 않고
물결 차는 제비 춤을 도로 자랑하누나
비로소 이날 신선놀이 족함을 아노니
어찌 인간이 좋준마 탐을 부러워하리

東谷 安鍾默

又

爲叅詩會碧南登
秀麗風光使我興
北流錦水一源澄
筵上香醪相勸酌
醉中談笑豈無矜
乍逢乍別如萍勢
各向歸程去馬乘

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벽남정에 오르니
수려한 풍광이 나를 흥기 시킨누려
동에 있는 화산은 일천년 숫아 있고
북으로 흐르는 금강수 한 근원 맑도다
자리위의 향기로운 막걸리 서로 권작하고
취중에 담소하니 어찌 자랑 없으리
잠간 만나고 잠간 이별이 부평 형세 같아
각기 돌아갈길 향하여 가는 말 타누나

錦峰 吳龍根

又

遲遲閒屐碧南登 더디고 더딘 한가한 작지
懷緒悠悠往事興 벽남정 오르니
勝地相酬塵世遠 유유한 회포 실마리
詩歌共和俗筵澄 지난 사적 일어나니
光風霽月千秋景 승지에 서로 수작하니
麗水佳山萬古今 진세가 멀고
西日無心而已矣 시사를 같이 화답하니
更期後會各車乘 속세의 자리 맑도다

小泉 金昌泳

又

棟得初庚共約登 초경을 간택하여
詩朋來遠感懷興 함께 올음 언약하니
白華聳立窓前揖 시붕이 멀리에서 오니
碧水縈廻檻外澄 감회가 이누나
今日清遊明歲績 백화산 우뚝 솟아
先人懿業後孫矜 창앞에 읍하고
松風滿屋樓如泛 벽계수 얽히어 돌아가니
莫向邊山大艇乘 난간밖에 맑구려
변산을 향하여
큰배 타지 마오

魯史 梁麟洙

晩德菴 梁因喆

又

年年雅會此亭登 해마다 맑은 모임에 이 정자 오르니
詩酒聯襟逸趣興 시주에 옷깃 연하여 편안한 취미 이누나
栗里清風連日冷 율리의 맑은 바람 연일 차거웁고
長安泞水待秋澄 장안의 맑은 물은 가을 기다려 맑도다
白華來脈飛龍勢 백화산 내려온 맥 비룡의 형세인데
烽燧高峰徃跡矜 봉수대 높은 봉우리 지난 자취 자랑이로다
鷓詠斯遊分路近 마시고 읊는 이 놀이 헤어지는 길 가까우니
二三緩步小車乘 둘 셋씩 느린걸음으로 작은 수레 타누나

晩翠 梁炳朝

又

自遠來朋步步登 멀리로부터 오는 벗 걸음 걸음 올라
寒溫問畢舊懷興 차고 더운 문안 마치니 옛 회포 이누나
千秋泉石清而白 천추의 천석은 맑고도 흰데
萬古煙霞麗且澄 만고의 연하는 곱고 또 맑도다
柳幕好音鶯自滑 버들 장막의 좋은 소리 꾀꼬리 스스로 수원하고
簷頭巧語燕何矜 처마머리의 공묘한 말 제비 어찌 자랑하는가
此期適卜初庚日 이 기회를 마침 초복날 택하니
煮伏渾忘征馬乘 복다림에 혼연히 가는 말 타는것을 잊었도다

又

碧溪勝地碧亭登 벽계의 승지 벽남정에 올라
詩酒相酬感賦興 시주로 서로 수작하니 부야 흥이야 느낀도다
松竹年深傍磵翠 송죽은 해가 깊으니 산수결에 푸르고
樓臺影倒入湖澄 누대의 그림자 서꾸러져 호수 맑은데 드는구려
青山斷續聯珠體 청산은 끊겼다 이어짐이 연주의 몸체오
綠水流鳴瑟調 녹수 흘러 우는 소리 비파 곡조 부민두나
別後更逢逢又別 이별뒤 다시 만나고 만나면 또 헤여짐이라
多情士友各車乘 다정한 사우들 각기 차를 타는구려

春坡 梁炳夏

又

相招竹簡責然登 죽간 썩어 서로 불러 비연한 올음
此日南亭舊契興 이날 벽남정에 옛 세모임 이는구려
德裕雲容窓口白 덕유산의 구름 자태 들창에 희고
公山景色檻頭澄 팔공산의 경색은 난간머리 맑도다
清光接得浮明月 맑은 빛 접하여 얻으니 밝은 달은 뜨고
爽氣迎來入夏矜 서늘한 기운 맞아오니 여름 긍식에 드누나
斗酒逍遥騷客事 말술로 소요함은 글손의 일이라
更期暑退各車乘 다시 서퇴를 기약하고 각기 차에 오르네

雲坡 趙寅熙

又

翠松金鎭泓

耽尋勝地碧樓登　승지를 탐심하여 벽남루에 오르고

雅會儒生各馬乘　유생들 아름다운 모임 각기 말에 오르누나

咏月吟風如此席　달과 바람을 읊는 이같은 자리에

相勸樽酌醉歌興　동이술 서로 권하니 취한 노래 흥겹도다

又

道山 朴喜穆

杖策行行步步登　지팡이 짚고 가고 가 걸음 걸음 오르니

檻前活水抱亭澄　난간 앞의 활수 정자 안고 돌아감이 맑도다

地饒勝景詩難記　지방에 풍요한 승경 시에 기록하기 어려워

一咏一觴乘暮乘　한번 읊고 한번 마심 점점 멍에 탄구나

納涼

農隱 金義植

新涼逐暑露寒流　신량이 더위 쫓으니 찬 이슬 흐르고
燈火相親止外遊　등불과 서로 친하니 밖에서 놀일 그치네
園裡葵花傾向日　울안의 해바라기 해를 향하여 깅글고
井邊梧葉落先秋　우물가 오동잎은 먼저 떨어진 가을이로세
鴻將隨候離鄉塞　기러기는 장차 철따라 고향 새북 떠나고
燕亦知時別舊樓　제비 역시 때를 알아 옛 다락 떠나리
捲張合扇從此去　긴 여름 모진 더위 이로 좇아 떠나니
擲床頭　평천 합죽선 접어 상머리에 던지도다

又

晩翠 梁炳朝

朝夕新凉處處流　조석으로 신량이 곳곳에 흐르니
欲舒久鬱卜清遊　오랜 울회 풀고저 맑은 놀이 택하노라
金風吹動驅殘暑　가을바람 불어오니 쇠잔한 더위 쫓고
江水澄波接素秋　강물 맑은 물결 흰 가을 접하네
漂婦戴筐尋澗岸　빨래하는 여인 광주리 이고 물자기 언덕 찾고
詩朋携酒上書樓　시친구 술 갖이고 글 다락에 오르는가
斜陽堤柳寒蟬亂　사양의 언덕버들에 찬 매미 어지러우니
不息年輪嘆白頭　쉬지 않는 년륜 백두를 탄식하도다

湛軒 權 熙 文

又

千思難挽世波流 천번 생각해도 세파의
莫若從吾所好遊 흐름 만류 어려우니
酷暑炎蒸嫌不雨 나의 좋아하는 바를 따라
微凉風動喜逢秋 노닌 것만 같음이 없도다
安眠獨臥傍林屋 혹서 찌는 불꽃 비
滌熱偕登近水樓 안옴이 미웁고
假使此身兼兩翰 가는 양풍 움직여
一於江上一峰頭 기쁘게 가을 맞이하네
숲옆 집에 홀로 누어
편안히 잠 자고
물가까운 다락에 올라
같이 열을 씻도다
가사 이몸이
두 날개가 있다면
한번은 강위 한번은
산봉우리에 날고파

又

錦峰 吳龍根

庚炎始退氣清流 삼복 더위 비로소 물러나
更感蘇仙赤壁遊 맑은 기운 흐르니
梧葉金井催換節 다시 소동파의
雁歸南國報新秋 적벽강 놀이 느끼네
銀河皎潔虫鳴夜 오동잎 금정에 떨어져
玉宇高明月滿樓 철 바뀜을 재촉하고
露白風凉消夏熱 기러기 남쪽으로 돌아와
油油禾黍欲垂頭 새가을 아뢰는구려
은하수 고결하니
밤에 벌레 울고
밤하늘 높고 밝으니
달빛 다락에 가득하구나
이슬 희고 바람 서늘하여
여름 더위 식히니
길이지게 무성한 벼와 기장
고개 숙이고자 하는고야

又

魯史 梁麟洙

兩三節屐訪清遊 두서닛 늙은신비 맑은흐름 찾아
坐咏飛觴盡日遊 앉어읊고 술잔날음니 해다가도록 노니네
積樹多陰忘酷暑 쌓인 나무그늘 많아 모진 더위 잊고
幼蛉弄日覺初秋 어린잠자리 날을 희롱하니 첫가을임을 깨닫도다
林風拂枕寒生榻 숲바람 벼개에 떨치니 찬기운 걸상에 일고
詩興挑人酒上樓 시흥이 사람을 돋우니 술이 다락에 오르누나
從古讀書治熱術 예로부터 독서가 열다스리는 술책이라
不如潛念對床頭 생각에 잠겨 책상머리 대함만 같음이 없네

又

顧巖 李成熙

納凉七月暑炎流 납량 칠월 더위 불꽃 흘으니
共上名區作一遊 명구에 같이 올라 한번 놀이 짓누나
午去清陰渾不熱 오시 지나면 맑은 그늘 혼연히 덥지 않고
朝来爽氣却疑秋 아침에 시원한 기운 문득 가을인가 의심하네
驚寒雁陣離湘岸 차거움에 놀란 기러기떼 소상 언덕 떠나고
悟節虫聲入户樓 철을 깨치는 벌레소리 문 다락에 든구려
黯淡雲形連嶺峀 어두컴컴한 구름 모양 고개마루 뫼뿌리에 연하니
金光浮動野高頭 금빛이 들 높은 머리 부동하네

春坡梁炳夏

又

玉宇新凉入户流　옥같은 우주에 신량이 문호에 들어 흐르니
書生燈火漸親遊　서생들 점점 등잔불 친하여 노니누나
蟋蟀吟聲近砌頭　귀뚜라미 읊는 소리 섬돌머리 가까이 나네
金風一夜梧飄井　가을바람 하루밤에 우물에 오동잎 나부끼네

又

翠松金鎭泓

每尋綠樹碧溪流　매양 푸른 숲속 벽계수 흐름 찾아
洗硯臺登與友遊　벼루 씻어 대에 올라 벗과 더불어 노니누나
炎帝紅爐餘幾日　지겨운 불볕 더위 몇일이나 남었는고
暫時入浴似凉秋　잠시 목욕하니 선듯한 가을 같구나

秋夕

湖隱 金鍊敏

離鄉老少故鄉尋　고향 떠난 그소 고향 찾으니
歸省人波會似林　귀성인파 숲을같이 모이누나
廟室焚香追慕感　사당에 향 피우니 추모의 느낌이웃
先阡省拜孝誠深　선산에 절하고 살피니 효성이 깊도다
樹綠千山多景色　나무 푸른 천산에 경색이 많고
稻黃四野帶豐心　벼 누런 사방들에 풍년 마음 띠었네
仲秋佳節今如許　중추가절이 이제 이와 같으니
處處歌琴樂歲音　곳곳에 노래와 거문고 즐거운 해의 소리네

又

春坡 梁炳夏

嘉俳時節故鄉尋　한가위 좋은 시절 고향을 찾으니
秋氣蕭蕭繞苑林　가을 기운 쓸쓸이 후원숲 둘렀구려
月上三更宵色滿　삼경에 달 오르니 밤빛이 가득하고
穀登四野瑞光深　곡식이 사야에 등등하니 상서로운 빛 깊도다
家家茶祀依前例　집집마다 차사는 전례를 의지함이오
處處松楸守舊心　곳곳에 송추는 옛마음 지킴이라
拜省先阡歸路晚　선산에 절하고 살펴 돌아오는 길 늦으니
江山高潔暮蟬音　강산은 고결한데 저문는 매미 소리나네

又

秋天雲捲碧千尋 가을한들 구름 서쳐 일천길 푸른데
紅熟山山棗栗林 산마다 붉게 익은 대추 밤 숲이로세
羇人終夜思鄉深 나그넨 밤새도록 고향생각 깊으리
少婦早朝茶禮備 젊은 며느리 이른 아침 다례 준비하고
餠醪浪藉相同樂 떡과 술 푸짐하니 서로 같이 즐기고
子女精誠盡一心 자녀들 정성은 다한 마음이구려
閒步斜陽樓下立 사양에 찬가한 거름 다락아래 섰노라니
蟬呼蛩答不分音 매미는 부르고 귀뚜라미 답하여 소리 분간 못하누나

小泉 金昌泳

又

望月光明好節尋 광명한 보름달 좋은 시절 찾으니
椒樽松餠樂園林 후추술 송편이 동산 숲에 즐겁도다
薦新家廟焚香柩 가묘에 천신하고 분향 수직하고
省掃先阡獻酌深 선영을 성소하고 절 깊이 드리는구려
黃菊丹楓將飾景 황국 단풍이 장차 경치를 꾸민는데
咏歌舞蹈摠歡心 영가 무도는 모두 즐거운 마음이로다
東賓西客相來往 동쪽 손님 서쪽 나그네 서로 왕래하니
喜鵲飛來報福音 기쁜 까치 날아와 복음 알리네

農隱 金義植

又

奄當秋夕故鄉尋 문득 추석 당하여 고향을 찾으니
渡水踰山到士林 물 건너고 산을 넘어 선비들이 당도하네
共醉香醪情益厚 같이 향기로운 술에 취하니 정 더욱 두텁고
又嘗松餠味惟深 또 송편 맛보니 맛이 오직 깊도다
滿天皓月挑人興 하늘에 가득한 흰달 사람 흥취 돋우고
吹榻清風慰客心 탑상에 부는 청풍 객의 마음 위로하네
聞道西疇登大稔 말 들으니 서주에 크게 등록하다 하니
田家處處動歡音 농가 곳곳에 즐기는 소리 동하누나

慎菴 韓龍福

又

幾多旅客故鄉尋 얼마나 많은 나그네 고향을 찾는가
烏鵲先飛報近林 오작이 먼저 날아 가까운 숲에 알리네
省楸邱墓感懷深 분묘의 송추 살피니 감회 깊도다
金風蕭瑟催禾稔 가을바람 소슬하여 벼의 풍년 재촉하고
皓月揚明滿夜地 흰달이 밝음 들쳐 한밤중에 가득하네
更把管絃聽五音 다시 관현 잡고 오음을 듣누나

清江 朴龍德

碧溪秋景

湖隱 金鍾敏

楓紅蘆白正秋陽　단풍 붉고 갈대 희니 정히 가을 볕이라
玉宇澄湖一望長　옥하늘 맑은 호수 일망에 길도다
丁儻精神依舊肅　정충복의 정신은 의구하여 씩씩하고
朱娘遺跡至今香　주낭의 유적은 지금까지 향기롭구려
眼前別界霜過野　눈앞에 별난 세계는 서리 지난 들이오
簾外清區潦盡塘　주렴밖의 맑은 곳은 장마 다한 연못일세
終日逍遥猶未了　종일토록 소요해도 오히려 못 다하니
碧溪勝景亦何忘　벽계의 승경을 또한 어찌 잊으리

又

農隱 金義植

萬里山河雁趁陽　만리 산하에 기러기 양을 따르고
九秋風景與時長　구추의 풍경이 때와 더불러 길도다
染霜紅葉方生色　서리에 물든 홍엽 바야흐로 빛이 나고
浥露黃花暗吐香　이슬에 젖은 노란꽃 가만히 향기 토하네
報候窓堂鳴蟋蟀　철을 알리는 귀뚜라미 창문과 당에 울고
翔空野鶩下池塘　하늘을 나는 따오기 연못에 내리네
吾儕雅會多興趣　우리들 맑은 모임 흥취가 많으니
情話園蘘世事忘　단란한 정담으로 세상사 잊는구려

晚翠 梁炳朝

又

露白風清德曲陽 이슬 희고 바람 맑은 덕산 양지에
秋聲漸瀝入懷長 가을소리 쓸쓸하여 가슴 깊게 드누나
江楓葉赤粧新景 강가의 붉은 단풍 새 경치 단장하고
籬菊花黃送晩香 울타리의 노란 국화 늦은 향기 보내누나
水色連天橫荻岸 한들에 연한 물빛 · 갈대언덕에 비끼고
雁群隨月渡河塘 기러기떼 달 따라 강과 연못 건넌고야
龍蛇戰亂今如夢 임진년의 전란 이제 꿈같으니
義妓忠魂永不忘 의기의 충혼을 길이 잊지 못하리

又

時惟九月碧溪陽 때는 오직 구월 벽계의 양지에
萬像蕭條慈恨長 일만형상이 쓸쓸하여 한끝이 넘이 길도다
停馬看楓詩有景 말을 멈추고 단풍을 보니 시있고 경치 있어
傾觴對菊酒浮香 술잔 기우려 국화 대하니 술에 향기 뜨누나
籬東綠水籬西野 울타리 동쪽은 녹수요 서쪽은 들이요
屋後青山屋下塘 집뒤는 청산이오 집 아래는 연못이라
今歲營農登豐作 올해 농사 풍작 이루니
天思至重敢何忘 천은이 지중함을 어찌감히 잊으리오

月洲 吳泳根

又

行到名區古郡陽 걸음이 명구 옛고을
可愛山明水麗長 양지에 다달으니
岸蘆影裡交楓影 산밭교 물고와
庭桂香中混菊香 가히 사랑스럽구려
蟋蟀織宵吟架壁 뜰계수 향기 가운데
雁鴻隨月下池塘 국화 향기 섞이네
碧溪景物無非感 언덕의 갈대그림자속에
來此騷人每機忘 단풍그림자 교차하고

小泉 金昌泳

又

玉宇崢嶸雁越陽 높고 높은 옥빛하늘
山家從此夜初長 기러기는 양을 따르고
霜威凜凜楓粧色 산간는 이로부터
風響蕭蕭菊送香 밤이 처음 길도다
高潔銀河回北斗 서리의 위엄 늠름하니
清明玉兎瞬方塘 단풍빛 장식하고
順調寒煖兼登歲 바람소리 소소하니
天惠無窮那可忘 국화향기 보내누나

湛軒 權 熙 文

又

於焉時序到重陽 어언간 때의 차례가 중양절에 이르니
蕭瑟金風漸夜長 소슬한 가을바람에 점점 밤이 길도다
山上染楓生彩色 산상에 물든 단풍 채색이 나고
園中秀菊發清香 동산 가운데 빼어난 국화 맑은 향기 뿜누나
霜寒野屋蟲鳴壁 서리 찬 들집엔 벽에 벌레 울고
月白江樓水淡塘 달 밝은 강다락 물 맑은 연못이라
季節流光佳景作 계절의 흐르는 빛 가경을 짓으니
與朋偕賞敢何忘 벗과 더불어 같이 구경함을 어찌 잊으리

錦峰 吳龍根

又

蕭蕭景色曝秋陽 소소한 경색에 가을볕 쪼이니
魚躍鳶飛共興長 고기 뛰고 솔개 날아 같이 흥 길도다
絶壁斷崖楓葉綉 절벽의 낭떠러진 엔 단풍잎 수 놓고
山家籬落菊花香 산가의 울타리엔 국화 향기롭구나
斜光柿棗紅前砌 밤 대추 빈 뜰에 붉고
倒影蘆葭暎後塘 너머진 갈대 그림자 뒤 연못에 비치누나
此地風煙如此好 이 땅의 바람 연기 이 같이 좋으니
詩人墨客永無忘 시인 묵객 길이 잊지 못하리

翠松 金鎭泓

又

道山 朴喜穆

時惟九月碧溪陽 때는 오직 구월의 벽계 양지인데
玉宇初晴夜漸長 옥하늘 처음 개이고 밤은 점점 길어지누나
歲又西疇登大稔 해가 또한 서주를 큰 풍년 올리니
無非天惠不能忘 한울의 혜택 아님이 없어 능히 잊지 못하리로다

又

栗堂 崔鍾植

風清露白碧溪陽 바람 맑고 이슬 흰 벽계의 양지에
稻熟魚肥興味長 벼 익고 물고기 살져 흥미 심장하구려
紅染楓林添一畫 붉게 물든 단풍숲 한 그림 더하니
滿庭霜菊吐微香 뜰 가득한 서리국화 가는 향기 토하네

秋菊

龍山 朴在雨

傲霜晩發砌西南 오만한 서리에 섬돌 서남에 늦게 피니
自古陶家最菊談 자고로 국화의 담화 도씨집이 으뜸일세
五色中間偏貴得 오색의 중간에 편벽하게 귀함을 얻었고
千花以後獨香含 일천꽃 이후에 홀로 향기 먹음었도다
適期今遇九重節 때마침 이제 중구절 만났고
清氣猶存三逕庵 맑은 기운 오히려 삼경 암자에 남았도다
二月春光何可羨 이월의 봄빛을 어찌 사히 부러워 하랴
顚狂蜂蝶一如探 엎어질듯 미친 봉접 한결같이 탐하는구려

又

湛軒 權熙文

愛看花馥種窓南 꽃과 향기 보고자 창의 남에 심었는데
評品論時摠美談 품격들 평하고 시절을 논하니 모두 미담일세
貞節不嫌霜早落 곧은 절개는 서리 일찍 내림을 혐의하지 않고
妍姿尤愛露新含 고운 자태 이슬 새로 머금음이 더욱 사랑스러워라
號稱隱逸栽彭澤 호를 은일이라 칭하니 도팽택이 심고
性本清寒寄艸庵 성품은 본시 청한하니 풀집 암자에 붙였도다
騷客哲人多趣味 시객과 철인의 취미 많으니
梅蘭松竹與同採 매란송죽과 더부러 살이 탐구하네

又

柳斗烈

黃華九月發西南　노란꽃 구월에 서와 남에 피니
姿態妍妍玉露含　자태 곱고 고우니 옥이슬 머금었도다
香滿淸樽誰不醉　맑은 동이에 향기 가득하니 누가 취하지 않을까
斜風落日幾人採　비낀 바람 떨어진 날 몇사람이나 탐할는지

又

湖隱 金鍾敍

霜露前夜或東南
黃花灼灼妙妍含
籬邊笑立淸姿艶
昔日陶翁幾愛採

小春即事

小春享樂與君咸 소춘의 향락을 그대와 더부러 함께 하니
紘出滄波倚小帆 배줄 창파에 나니 작은 돗대 의지하네
最愛黃花凌酷雪 누란국화 혹설을 능멸함이 가장 사랑스럽고
可憐紅樹立危巖 붉은 단풍 위태로운 바위에 섰음이 가련토다
夜長書室燈如月 긴긴 밤 서실에 등불 달 같고
葉落孀家淚濕衫 떨어진 잎 과부집 적삼에 눈물 적시네
是歲於焉將欲暮 이해도 어느듯 장차 저물고자 하니
老年心楚也非凡 늙은 허 마음 서글픔 범상치 않네

慎菴 韓龍福

又

深交學海與君咸 깊게 사귄 그대와 함께 바다 배웠으니
從此筆花多出帆 이제부터 붓꽃이 많이 출범하리
紅白菊餘幽邃岸 붉고 흰 국화 깊숙한 언덕에 남어 있고
扶踈楓露怪奇巖 붉을고 성긴 단풍 괴상하고 기이한 바위 드러나네
防風計策重封牖 바람 막은 계책은 창문을 거듭 봉함이오
寞恨吾生流歲月 몸과 마음에 차거움을 막음은 적삼 투덥게 입음이다
四時代序豈無凡 우리 인생 세월이 흐른다 한탄마오
月洲 사시의 차례 바뀜이 어찌 범상이 아니리오

吳泳根

又

湛軒 權 熙 文

蕭洒山河萬象咸　산하의 일만형상이 모두 소쇄하니
堪憐世事若風帆　가련한 세상일 바람돛대 같이 견딘구려
木疎村露高低屋　나무 성근 마을의 높고 낮은 집 드러나고
葉脫峯呈疊磊巖　잎 떨어진 봉우리 겹겹 쌓인 바위 드러내네
公道應無逃白髮　공도라 응당 백발 도망할 수 없고
庸才愧未着青衫　용렬한 재주라 청삼을 입지 못함 부끄럽도다
群芳盡歇年光暮　모든 꽃 다 그쳐 연광이 저무는데
獨也松筠超出凡　홀로 푸른 솔과 대 빙상에서 뛰어났구려

又

魯史 梁 麟 洙

秋天淑氣一齊咸　가을하늘 일제히 다 맑은 기운이라
萬里無雲出遠帆　구름없는 만리에 돛단배 멀리 떠나네
郊外牧禾忙手足　들밖에는 벼 거두는 손발 바쁘고
墓前祭子整袍衫　무덤앞에 제사드리는 아들 도포 정제하는구려
菊香暗吐幽園砌　국화향기는 뜰 섬숙히 가만히 토하고
楓景尤佳絶壁巖　단풍경치 절벽 바위에 더욱 아름다워
稻熟果紅當此節　벼 익고 과일 붉은 이시절 당하여
歸天莫論貴賤樂平凡　귀천을 막론하고 평범하게 즐기세

又

小春詩社有朋咸 소춘의 시사를
自遠来時馬與帆 멀리로부터 올때
百卉翻銀氷澤水 백묘에 은이 번득이니
千層削玉雪山巖 천층 옥을 깎은 눈
論交會榻相酬酒 사귀고 논하는 모임자리
惜別離程更把衫 석별의 떠나는 길 다시
多士瓊章成錦繡 선비들의 구슬같은 글
可知才藝逈超凡 가히 재예 멀리 범상에서
뛰어남을 알리로다

顧巖 李成熙

又

遠客來時好誼咸 먼데서 손이 오면
東湖客少繫孤帆 동호에 객이 적으니
松風十里如聽瑟 십리 송풍은
石壁千年似畫巖 천년의 석벽은
歲祭石床登酒果 세일제의 상석위엔
霜林寒露濕蘿衫 서리 숲 찬이슬
小春籬菊慇懃笑 소춘의 울국화
多士吟觴興不凡 선비들의 읊고 마신 흥이
범상이 아니로세

柳斗烈

又

五穀牧藏擧世咸　오곡을 거두어 갈므는
勞多輸送往來帆　일 온세상 다 그러니
雲況大野知催雪　수고 많은 수송
木落千山自露巖　오고 가는 돗대로세
諸老偕遊成暖突　큰들에 구름 잠기니
群兒換着防寒衫　눈 재촉하고
海東古俗長傳例　일천산이 나무떨어지니
霜降祭先誠不凡　절로 바위 드러나누나
　여러노인 갈이 놀아
　온돌을 만들고
　모든 아이 방한복으로
　바꾸어 입는구려
　해동의 옛풍속 길이
　전한 예인데
　상강절에 선영제사
　정성 보통 아니로세

錦峰 吳龍根

又

庭花野草已衰咸　뜰꽃 들풀이 이미 다 쇠하니
天理循環是不凡　천리의 순환이 이에 보통이 아니로다
日氣漸寒初雪下　날씨 점점 추어지니 첫눈이 내리고
千山萬樹變銀衫　천산의 만수는 은적삼으로 변했네

湖隱 金鍾敏

又

秋山五色艷皆咸　추산의 오색은 모두 다 아름답고
藪葉冬林恰似帆　숲의 나무잎은 흡사 돛과 같고
雁陣南飛初雪下　기러기떼 남으로 나니 첫눈이 내리고
無關季節秘藏巖　계절에 관계없이 바위는 신비를 간직했네

翠松 金鎭泓

碧溪雪景

壯元 晩翠 梁炳朝

臘前瑞雪滿蒼空　설전에 서설이
冬將嚴威起烈風　창공에 가득하니
飄着踈林疑玉屑　동장군의 위엄이 매서운
淡粧古木勝春紅　바람 이르킨누나
千山凍結禽飛絶　나부껴 성긴 숲에 부디치니
萬壑連侵路不通　옥가루로 의심하고
東閣寒梅香欲吐　고목을 맑게 단장하니
探來光景興無窮　봄꽃보다 낫구려
　　천산이 얼어 붙은니
　　새 나는 일 없고
　　만학이 연하여 잠기니
　　길이 불통이로다
　　동각의 찬 매화 향기
　　토하고자 하니
　　광경을 탐하여 오니
　　흥취 무궁하도다

又　次上

小泉 金昌泳

彤雲漠漠碧溪空　붉은 구름이 벽계의
瑞雪霏霏又朔風　하늘에 막막하니
千秋不染世塵紅　서설이 펄펄 날리고
紛紛着樹成梅潔　또 북풍 부누나
片片飛花與蝶通　일각에 천지의 못습이
日就煖房詩畵樂　희게 바뀌고
閒中未覺歲將窮　천추에 세상의 붉은 티끌
　　물들지 않으리
　　분분이 나무에 부디쳐
　　조촐한 매화 이루고
　　편편이 나는 꽃은 나비와
　　더부러 통하누나
　　날로 따뜻한 방에 나아가
　　시와 그림 그리는 낙은
　　한가한 가운데 해가 장차
　　다함을 깨닫지 못하네

次上

又

玉屑紛紛滿碧空　옥가루 펄펄 푸른 하늘에 가득하니
天晴雲散起寒風　하늘 개이고 구름 흩터지고 찬바람 인는구려
沒靑萬壑千山白　푸른빛 없어진 만학 천산이 희고
返照寒江四塞紅　낙조빛 찬강에 되비치니 사방변새 붉도다
漁翁釣雪忘形坐　어옹은 눈을 낚는라 형용 잊고 앉었으며
學士烹茶意自通　학사는 차를 다리는데 뜻 스스로 통하리
太和元氣藏胸腹　태화의 원기 가슴과 배에 갈무니
春意分明興不窮　봄뜻이 분명하여 흥 무궁하도다

春坡 李起都

又

冬節彤雲蔽閣空　겨울철 붉은 구름 넓은 하늘 가리니
隨時豫報酷寒風　수시로 혹한풍 예보하누나
積來聲若蠶餐紅　쌓여 온 소리는 누에가 푸른 뽕 먹음 같고
飄降形如蝶掠紅　날부끼며 내리는 모양 나비가 붉은 꽃 노략함 같구나
萬樹白花禽已絶　일만나무 흰꽃은 날짐승 이미 끊어지고
千山氷玉路難通　일천산 얼음 구슬 길 통하기 어렵구나
碧溪勝景於斯好　벽계의 승경이 여기에 좋으니
今日詩壇興不窮　오늘의 시단 흥 다함이 없도다

三虛 吳治湟

又 次下

松隱 趙 昌洙

占豐瑞雪下長空 풍년 점친는 서설이
老我何先畏朔風 장공에 내리는데
頃刻粧成千樹白 늙은 내 어찌 먼저 북풍을
銀皤或勝一花紅 무서워 하는지
非時天地春光動 경각에 일천나무
不夜江山月色通 희게 단장하여지고
知己相逢挑逸興 은같이 흰것이 혹 한꽃의
吟詩酌酒樂無窮 붉음보다 승하다 할는지
지기와 서로 만나
일흥을 돋우니
밤 아닌 강산에
달빛이 통하누나
때 아닌 천지에
봄빛이 동하고
시읊고 술따르는 낙
무궁하도다

三南 梁錫鎬

又 佳作

瑞雪紛紛滿下空 분분한 서설이
四山粧景襲寒風 공중가득이 내리니
野光皓潔鋪銀白 사산이 경치 장식한데
夕彩嬋娟暎日紅 찬바람 업습하니
多積千林禽飛絶 들빛이 희고 조촐하니
連侵萬逕客難通 은을 깔듯 희고
秋收役畢農閒節 저녁 채색 곱고 고우니
詩酒相酬興不窮 햇빛 비쳐 붉도다
추수일 마친
농한절에
많이 쌓인 일천숲에
날짐승 날미 끊어지고
연하여 잠긴 만경에
객걸음 통하기 어렵구려
시와 술로 서로 수작하는
흥 무궁이로세

又

佳作

紛紛白雪滿蒼空　분분한 백설 창공에 가득하니
四域寥寥恐起風　사방이 고요한데 바람 일까 두려워
篩下聲同蠶食綠　체에 내리듯한 소리 누에 뽕 먹음 같고
飄颺形似蝶窺紅　나부껴 날리는 형상이 나비 꽃 엿봄 같구나
千山平野鳥飛絶　천산 평야에 나는 새 끊어지고
百里商街車不通　백리 상가에 차 불통일세
一色銀光眞壯觀　일색으로 은빛이니 참으로 장관이라
梨花如發景無窮　배꽃이 핀듯 경치 무궁하여라

德菴 梁 因喆

歲暮有感

德菴 梁 因喆

難逢知己好相逢　만나기 어려운 지기 좋게 서로 만나
刮目論情又撫節　괄목하여 정을 논하고 또 지팡이 어루만지네
松下問師童揖路　솔아래 스승 물으니 동자 길에서 읍하고
山程尋寺佛留峰　산길 절 찾으니 부처 봉우리에 머물도다
寒燈獨坐因看史　찬 등불 홀로 앉아 사기를 읽고
深夜無眠曉聞鍾　깊은 밤 잠이 없어 새벽종 듣누나
月光初上今初樂　달빛 처음 올라 이제 처음 즐거우니
更約明年瑞日從　다시 명년 좋은 날 좇을 것을 약속하누나

又

小泉 金昌洙

年年歲暮幾多逢　해마다 세모를 얼마나 많이 만났던가
自愛煙霞每曳笻　스스로 연하를 사랑하여 매양 지팡이 이끄네
蹉跎世事嶮如峰　부침한 세상사 봉우리처럼 험하구려
半生憎惡鬢千雪　반평생 많은 수염 희어짐 증오하고
萬念消除酒一鍾　일만생각 한잔술로 해소하도다
東閣臘梅香欲動　동각의 설매화 향기 동하고자하니
新春待望好相從　대망의 신춘에 좋게 상종하누나

又

湛軒 權 熙 文

老來惟望太平逢　늙어 가면서 오직 태평
自愧人間一朽筇　만남이 소망인데
虛夢徒成沙上閣　스스로 인간이 하나의
妄求竟作畫中峰　썩은 지팡을 부끄러워하노라
已傾送舊忘年酒　첫된 꿈 한갓 모래위에
可待迎新報曉鍾　집을 짓고
笑殺疎慵風味少　망령되이 구함이 필경
有誰與我肯相從　그림속의 봉우리 되는고야
　　이미 송구의 망년주
　　가히 영신의 새벽
　　종 기다리네
　　성기고 게을러 풍미
　　적음 심히 웃노니
　　누가 있어 나와 더부러
　　서로 즐길고

又

草堂 鄭 炳 昱

於焉經歲七旬逢　어언간 세월 지나
出入時時拽短笻　칠십을 만났던가
素志伶俜如倒水　때때로 출입할 제
世情勞苦似登峰　짚은 지팡이 이끄네
少時興樂琴三尺　본디 뜻이 비뚜러져
老境生涯酒一鍾　물에 거꾸러짐 같고
財足年登民庶富　세정은 수고로워
安閒守分順天從　봉우리에 오르는것 같구려
　　젊은 시절 흥락은
　　거문고 삼척이오
　　노경의 생애는
　　술 한잔이로세
　　재물 족하고 풍년 들어
　　백성이 부유하니
　　평안히 분수지켜
　　하늘에 순하게 따르세

又

栗堂 崔鍾植

窮陰將盡復陽逢　궁한 음장차 다하고 다시 양을 만나니
不遠新春伴賞節　머지않어 신춘에 구경 지팡이 짝하세
竹葉常青依舊院　대잎은 항상 푸르러 옛동산 의구하고
雪花滿發作奇峰　눈꽃이 만발하여 기봉을 짓는구려
早晨快飮屠蘇酒　이른 아침 도소주 괘히 마시고
半夜閒聽警世鍾　반야에 세상 깨치는 종소리 한가이 듣는고야
白髮當年多有感　백발당년에 느낌이 많이 있으니
何時統一好相從　어느때 통일되어 좋게 서로 지내리

又

晩翠 梁炳朝

歲暮寒窓問幾逢　한창에 묻노니 세모를 몇번이나 만났던가
不勝感悵慢携笻　창연한 느낌 이기지 못해 부질없이 지팡이 이끄네
雪晴萬壑花枯樹　눈 개인 만학엔 고목에 꽃이 피고
星散虛空月上峰　별 흩어진 허공에 달이 봉우리 오르누나
槿域無端離散族　근역은 무단히 이산가족 되니
鴻溝何日統平鍾　홍구는 어느날에 통일 평화 종소리 날고
天心不改消長理　천심은 소장의 이치 고치지 않나니
南北同胞願順從　남북의 동포 순종을 원하노라

又

歲色如流臘月逢　세월이 유수같아 섯달을 만나니
獨居不忍漫携笻　홀로 있음을 참지 못하여 부질없이 지팡이 이끄네
暮先誠意深如海　선영을 사모하는 심의 바다같이 깊고
送舊心懷積似峰　송구영신의 심회 봉우리같이 쌓이도다
可惜佳人紅顔變　가인의 홍안이 변함 가석한데
空歎老叟白毛鍾　공연히 늙은이 흰털 만모임 탄식하누나
雖分南北乾坤一　비록 남북이 나뉘었으나 건곤은 하나라
以德和親自順從　덕으로 화친하면 저절로 순종하리

春坡 李起鄕

又

歲月輪廻臘月逢　세월의 바퀴 돌아 섯달 만나니
望鄕歸路客忙筇　고향 바라보고 돌아온 길 손 지팡이 바쁘도다
鏡中忽覺增霜鬢　거울속에 문득 흰 귀밑머리 더함 깨닫고
窓外怊然見雪峰　하염없이 창밖의 눈덮인 산봉우리 보는구려
崇禮東邦存古俗　예를 숭상하는 동방 옛풍속 보존하는데
可憎西敎到晨鍾　가증스런 서양교회 새벽종 이르누나
千思萬感人間事　천가지 생각에 만가지 느낌이 인간사라
送舊迎新攝理從　송구영신의 섭리를 따르는구려

三虛 吳治滉

又 雪松 李周鎬

草堂獨坐暮年逢 초당에 홀로 앉아 젊은 해 만났는데
夜半忽聞山寺鍾 야반에 문득 산사의 종소리 듣는구려
身老心閒無外事 몸 늙고 마음 한가한 이외에 일 없으니
暮朋詩友日相從 반둑 친구 시벗 날마다 상종하누나

又 湖雲 權興玉

猴退鷄鳴未久逢 원숭이 헤 가고 닭의 해 미구에 만나는데
臘燈耿耿晨鍾 설 등불 깜박여 새벽종에 이르네
願言永作昇平世 소원 말 하노니 길이 승평한 세상이 되어
使此蒼生所好從 이 창생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바 따르게 하구려

又 龍山 朴在雨

今歲三餘臘夜逢 금년 세 여가 섣달밤 만나니
萍流四子故鄉從 객지에 떠나 산 네 자식 고향 찾아 돌아오네
物心兩面誠儀具 물심양면으로 정성 어린 예의 갖추니
享祀明年酒滿鍾 내년 제사에는 잔에 술이 가득하리

上元

德菴 梁因喆

元夜清光泛碧江　상원 밤 맑은 빛 푸른 강에 뜨니
煇煌月色滿東窓　휘황한 달빛 동창에 가득하구나
地非吳地喘無犢　땅은 오나라가 아니라 헐떡이는 송아지 없고
山下蜀山眠吠尨　산은 촉산보다 낮아 삽살개 조는구나
擲杻會塲靑壯滿　윷 놀이 장소에는 청장년이 가득하고
占豐論席白頭雙　풍년 점치는 자리엔 백두가 쌍쌍일세
上弦時似蛾眉態　초승에는 아미의 자태 같더니
三五望圓照萬邦　보름달 두렷하여 만방을 비치는구려

又

慎菴 韓龍福

一輪明月上山紅　한 바퀴 둥근 달이 산에 올라 밝고
可愛蟾光照綺窓　두껴비빛 사창에 비침이 사애롭도다
鳶紙高飛疑野鷁　연 글이 날리니 들황새로 의심하고
農鉦亂打吠村尨　농악징 어지럽게 치니 삽살개 짖누나
役牛無事臥眠獨　부리는 소 일없어 홀로 누어 자고
吉鵲作巢勤勉雙　길한 까치 집 짓는데 쌍으로 부지런하도다
聞道今年豐稔到　말 들으니 올해는 풍년이 이른다 하니
於斯應測泰平邦　이에 응당 나라태평 헤아리로다

又

碧天如水月浮江 푸른 하늘 물 같은데 달은 강에 뜨고
流照輪光入户窓 흘러 비친 륜광은 문창에 드누나
媼早備餐供孝鳥 노찬는 찰밥 일직 갖추어 효조를 먹이고
童喧賣暑吠青尨 아이들 더위 파는 소리 시끄러워 삽살개 짖누나
酒爲明耳巡盃數 술은 귀 밝이라 하여 잔 자주 돌리고
燈似紅花撲蝶雙 등불은 붉은 꽃 같아 나비가 쌍으로 부디치네
遠峀依稀冰漸解 먼 산골자기 의희하게 얼음 점점 풀리고
春風和氣動吾邦 춘풍화기가 우리나라에 동하누나

小泉 金昌泳

又

雪盡山陽水漲江 산의 양지 눈 녹으니 강물이 불고
不嫌換氣闢南窓 환기하려고 창문 열어도 협의치 않는구나
凍川始解聽歸雁 언 시내물 처음 풀리니 돌아가는 기러기 듣고
暖日初昇見睡尨 따뜻한 날 처음이니 삽살개 조는 걸 보누나
萬里氷輪明處處 만리의 어름바퀴 곳곳에 밝고
千家燈市照雙雙 천가의 등불 쌍으로 시가를 비치네
祈豐禳厄多行事 풍년 빌고 액 물리친 행사가 많고
民俗由來遍我邦 민속이 유래하여 우리나라에 번졌구려

湛軒 權 熙 文

又

歲後餘寒大江凍 세후의 늦추위가 큰강을 얼구는데
元宵明月映山窓 대보름 밝은 달이 산창에 비치누나
紙鳶飛上同歸雁 종이 연이 날아 올라 같이 기러기 돌아가고
鼠火燒來吠守尨 쥐불이 타오니 집 지키는 삽살개 짖는구나
掛壁春聯防煞厄 벽에 걸린 입춘 연구는 살액을 막고
滿庭農樂興無雙 뜰에 가득한 농악은 무쌍이로다
三韓遺習今猶在 삼한의 유습은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美風良俗稱我邦 미풍양속이란 우리나라를 칭함이라

三虛 吳治湟

湖雲 權輿玉

又

風吹殘雪灑山窓 바람이 잔설을 불어 산창에 뿌리는데
月滿天庭水滿江 달은 한들에 가득하고 물은 강에 가득하도다
更見村村庭燎出 다시 마을마다 마당 횃불 나옴을 보고
光明天地聚吾邦 광명천지가 우리나라에 모여드누나

又

龍山 朴在雨

何人歌唱透山窓 누구의 노래소리가 산창에 사무치는가
月色燈光又入窓 월색과 등불빛이 또 창에 드누나
好是上元三五夜 좋은 이날 이 보름 밤이
淸佳猶勝廣陵窓 맑고 아름다움이 광릉의 창보다 오히려 낫구려

又

道山 朴喜穆

蟾影疎星映碧江 두꺼비 그림자 성긴 별 벽강에 비치고
隨風殘雪打詩窓 회잔한 눈 바람따라 시창을 때리누나
月光厚薄知年兆 달빛의 후박으로
四野登豐富我邦 헤의 징조를 아니 사방들에 풍년 드니 우리나라 부유하리로다

歸雁

慎菴 韓龍福

年事於焉二月時 년사는 어언간 이월의 때라
風和日煖雁歸期 바람 고르고 날 따뜻하니 기러기 돌아갈 때로다
一絲不亂離南去 일사불란하게 남으로 떠나가고
萬里無差向移北 만리를 어김없이 북을 향하여 옮기누나
飛必含蘆持慧足 날면 반드시 갈대 먹음은 지혜가 족하고
停能下塞處身知 멈추면 능히 변새에 내리니 처신을 앎이로다
瀟湘兩岸寥寥夜 소상강 두 언덕 고요한 밤에
相喚相隨月影遲 서로 부르고 서로 따르는데 달그림자 더디네

又

湛軒 權 熙 文

慣於節候適其時 절후에 익달하여 그 때를 맞추고
秋九春三不失期 추구월과 춘삼월에 실기하지 않는구나
氷洋呼群從北去 어름이 녹으면 무리 불러 북을 좇아 가고
雪飄作伴向南移 눈이 나부끼면 짝을 지어 남을 향하여 옮기누나
啼能唱和聲相合 울면 능히 부르고 화답하여 소리 서로 합하고
飛必排行序亦知 날면 반드시 줄을 서니 차서 또한 알도다
戴月摩雲航路遠 달을 이고 구름 만져 뱃길 머니
何嫌歲歲往來遲 해마다 왕래 더딤 무엇이 혐의리오

又

候雁北歸當此時　철새 기러기 이때를 당하여 북으로 돌아가니
隨陽來去不違期　양을 따라 오고 감이 시기를 어기지 않누나
優遊塞外江湖處　변새 밖의 강호에 처하여 우유하고
能辨天涯歲月移　하늘 가 세월의 옮김 능히 분별하는고야
飛必合簷羅網誡　날면 반드시 갈대 묶고 그물을 쳐 경계하고
休常設陣護身知　쉬면 항상 진을 쳐 호신할 줄 아누나
生平自寄浮萍勢　평생을 스스로 부평신세에 부치니
萬里蒼空路遠遲　창공 만리길 멀고 더디리

錦峰 吳龍根

又

群雁嗈嗈發動時　떼 기러기 울며 울며 발동할 때이니
又今送汝約秋期　또 이제 너를 보내고 가을을 약속하노라
雲邊萬里翩翩去　구름가 만리 펄펄 날아가고
月下三更汲汲移　달 아래 삼경은 빨리 옮기누나
相住江南皆熟面　강남에 서로 머물어 모두 익히 아는 사이인데
從遊塞北却疎知　새북에 종유하면 문득 성김을 알리라
一年二次來還去　일년에 두차례 왔다가 도로 가니
便利圖謀路不遲　편리를 도모한 길 더디지 않으리

愚東 吳秉權

又

松隱 趙昌洙

循環天度載陽時　순환하는 천도 곧 따뜻할 때
卄五絃中不負期　이십오현 중에 기약 저버리지 않네
遺響三更婆婦咝　소리 치친 삼경 홀어미 울고
排雲萬里尺書移　구름 헤친 만리 편지 옮기누나
歎吾南北交流絶　우리는 남북 교류가 끊어짐 한탄하는데
羨爾春秋往復知　너의 춘추로 왕복할 줄 앎이 부러워라
八字之飛前路遠　팔자로 줄을 지어 앞선은 먼데
晝宵竝列恐遲遲　밤낮으로 열을 지어 더딜까 두려워라

又

晩翠 梁炳朝

水碧沙明正好時　물 푸르고 모래 밝아 정히 좋은 때에
任來任去自由期　임의로 오고 가니 자유로 기약하네
含蘆無慮天空遠　갈대 먹음으니 하늘 멀길 걱정없고
傳信何嫌歲月移　소식을 전하니 어찌 세월 옮김을 혐의하리오
畏冷北方初雪亂　냉기 두려우니 북쪽에 첫눈 내리고
隨陽南域早春知　양을 따르니 남쪽의 이른 봄 아누나
晴餘每到清波上　개인 뒤 매양 맑은 물결 위에 이르니
點下平沙故不遲　점점이 평사에 내림 짐짓 더디지 않네

又

小泉 金昌泳

旋回斗柄指東時　선회하는 북두자루 동을 가르킬 때
可識還歸每此期　매양 이시기에 돌아감을 가히 알리로다
十月霜天南國到　시월 상천에 남국에 이르고
一春和日北方移　한봄 북을로 옮기누나
叫聲湘岸三更際　소상 언덕에 지져귄는 소리 삼경인데
排列雲霄一字知　구름 하늘에 배열하니 일자형 알리라
燕子不來鴻已遠　제비는 오지 않고 기러기 이미 멀리 가니
春城寂寂又陽遲　적적한 봄성에 석양이 더디구려

又

月洲 吳泳根

應是翩翩逐候時　응당 펄펄 날라 기후 따를 시기니
莫忘換節更逢期　절기 바뀜을 잊지 않고 다시 만남을 기약하누나
今方解凍江南發　이제 바야흐로 얼음 풀리니 강남을 출발하나
後可尋溫塞北移　뒷날 가히 따스함 찾아 새북으로 옮기리라
故國書傳蘇武信　고국에 글을 전하니 소무의 소식이오
深閨怨恨戍夫知　깊은 규중의 원한을 수자리의 부군이 알도다
弟兄同翅尋何處　형제 같이 날아 어느곳을 찾는고
萬里長程竟不遲　만리장정이 마침내 더디지 않도다

又

德菴 吳亨默

天涯歸雁節先知　하늘가 돌아간 기러기 시절 먼저 아니
奄到消氷歲月移　문득 어름 풀림에 이르니 세월의 옮김이여
塞北江南千里遠　새북과 강남이 천리의 먼길인데
秋來春去不違期　강을에 오고 봄에 떠나는 시기 어기지 않네

又

雪松 李周鎬

群飛一字各知時　떼로 나는 일자형열 각각 때를 알아
春北冬南不失期　봄에는 북으로 겨울은 남으로 실기하지 않네
湘岸蘆田隨候處　소상 언덕 갈대밭 철따라 처하니
年年來速去遲遲　해마다 오긴 빠른데 떠나긴 더디구나

餞春

湖隱 金鍾敏

青君欲退興衰微　청군이 물러나고자 흥이 쇠미하니
葉密花殘憾暮暉　잎은 조밀하고 꽃은 시드니 모두 저문 날빛이로세
燕蹴殘原頭拾貪餌下　제비는 언덕머리 차면서 먹이 탐하여 내리고
鶯啼柳幕擲梭飛　꾀꼬리 버들막에 울어 북채 던지고 나는구나
詩人沽酒尋溪谷　시인은 술 받아 계곡을 찾고
農老荷鋤出竹扉　농사 늙은이 호미 메고 대사리문 나서네
無主空山深夜月　무주공산 깊은 밤 달에
杜鵑哀訴不如歸　두견새 슬프게 불여귀 호소하는구려

又

農隱 金義植

九十春光興不微　구십 춘광에 흥이 가늘지 않았는데
今當惜別奈殘輝　이제 석별을 당하니 쇠잔한 날빛 어쩌하리
鶯兒出谷清音轉　꾀꼬리 골자기를 나와 맑은 소리 굴리고
燕子回鄉促羽飛　제비새끼 고향에 돌아와 깃 재촉하여 나누나
杜宇聲中多怨客　두견이 소리 가운데 원망하는 객 많고
東風吹盡自關扉　동풍이 불기를 다하니 사립문 절로 닫히네
相逢從此明年事　상봉은 이로부터 명년의 일이라
忍看窓前爾遠歸　창앞에서 멀리 돌아간 너를 참아 보는구려

又

綠肥紅瘦日光微　녹은 살찌고 홍은 여위여 날빛은 가는데
無術留連九十暉　구십춘광 유연할 술책이 없고나
片片鶯兒聲轉滑　편편한 꾀꼬리 소리 굴러 미끄럽고
飄飄柳絮亂空飛　표표한 버들가지 한들에 어지러히 나누나
五更杜宇啼花樹　오경밤 두견새 꽃나무에 울고
三月東風謝我扉　삼월 동풍이 나의 사립문 사례하는고야
携手相尋林下客　손잡고 서로 찾는 숲아래 객이
終宵秉燭詠而歸　밤새도록 촛불 잡어 읊고 돌아오네

墨東 吳秉權

又

三陽之氣漸衰微　삼양의 기운 점점 희미하니
氣序流將四月暉　기후의 차서 흘러 장차 사월의 날빛이로세
谷鳥聲聲尋友囀　골자기의 꾀꼬리 소리소리 벗 찾아 울고
楊花片片任風飛　버들꽃 편편이 바람에 마껴 나부끼네
蜂歌寂寂香何處　벌노래 적적하니 향기 어드메뇨
燕語喃喃暮入扉　제비 지껄인 소리 저문 사립문에 드네
九十韶光今欲盡　구십소광이 이제 다 하고자 하니
杜鵑啼裡遠相離　두견새 소리속에 멀리 떠나 돌아가네

春坡 梁炳夏

又

餞送東君恨不微 동군을 전송하니 한이 많고
千絲難繫惜斜暉 일천실로 잡어매기 어려우니 비낀 날빛 아깝구려
落花寂寂紅稀拂 낙화 적적하니 붉은빛 드물게 떨치고.
飄絮紛紛白滿飛 나부끼는 버들꽃 분분히 흰빛 가득 날으네
東燭林間開酒席 촛불 잡은 숲사이 술자리 열리고
望雲抬下掩松扉 구름 바라는 대 아래 솔사립문 닫누나
自然時序誰能挽 자연한 시절 차서를 누가 능히 만류하리
惟祝平安去復歸 오직 평안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비노라

守軒 姜龍鳳

又

三春已暮翠霏微 삼춘이 이미 저므니 푸른 노을 미미한데
強把壺觴對夕暉 구태여 술잔 잡고 석양 날빛 대하네
蝴蝶尋香墻下過 나비는 향기 찾아 담장 아래 지나가고
蜻蜓迎夏水邊飛 잠자리는 여름 맞아 물가에 나는구려
落花點點紅斑地 점점이 떨어진 꽃 붉음 땅에 아롱지고
芳草萋萋綠上扉 무성한 방초 푸름 사립문에 오르누나
循環天理無何柰 순환하는 천리 어찌 할수 없으니
更待明年此節歸 다시 명년 이 시절 돌아오기 기다리세

小泉 金昌泳

又

惜別東君恨不微
동군을 석별하니 한이 가늘지 않고

薰風日氣漸暉暉
훈풍의 날씨 점점 빛나네

尋香倦蝶還過墻去
향기 찾는 게을른 나비 담장 넘어 지나가고

喚友嬌鸎索柳飛
벗 불은 예쁜 꾀꼬리 버들 찾아 나르는구려

杜宇多怨啼夜月
두견새 원한 많아 밤달에 울고

靑旄沈醉睡松扉
푸른 삽살개 침울하여 사립문에 존구나

循環天理無終無奈
순환하는 하늘의 이치 마침내 어쩔 수 없으니

爲語平安萬里歸
만리길 평안히 돌아가라 말하도다

月洲 吳泳根

又

靑黃赤白色無微
청, 황, 적, 백의 색채 희미하지 않았는데

可惜人間九十暉
인간의 구십춘광 가석하구려

鶯囀池塘垂柳拂
꾀꼬리는 연못 수양버들 떨치는데 울고

蝶愁墻角落花飛
나비는 담장머리 꽃 떨어져 나는 것 근심하네

天邊何處斜離路
하늘 가 어느곳에 떠난 길 비꼈는지

東望無涯有退扉
가이 없는 동쪽 바라보니 물러날 사립문 있구려

二八靑春如昨日
이팔청춘이 어제 같았는데

星星白髮夢中歸
성성한 백발이 꿈속에 돌아 왔도다

龍山 朴在雨

又

德菴 金東業

日暖風和興不微
於焉三月餞春暉
籬落殘花點點飛
池塘細草萋萋出
退位東君行那處
得權赤帝入南扉
循環天度春秋代
更得明年又復歸

일난풍화하니 흥 가늘지 않네
어언간 삼월이라 봄빛을 전송하네
울타리의 쇠잔한 꽃 점점이 날르는고야
연못가의 가는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자리를 물러난 동군은 어느곳으로 가는지
천세 얻은 적제가 남쪽 사립문으로 드는구나
순환하는 천도 춘추로 가름하니
다시 명년에 또 돌아오기 기다리세나

又

松隱 趙昌洙

宣化東君德不微
於焉遠別暮春暉
杜鵑聲中容難睡
蝴蝶夢中花亂飛
百計無留離此地
千呼不答出何扉
浮生莫嘆韶光去
更期來歲自然歸

조화 베푼 동군의 덕 갈지 않았는데
어언간 봄지문 날빛 멀리 이별하는구려
두견새 우는속에 잠 들기 어려운 나그네오
나비는 꿈가운데 어지러이 나르는 꽃일세
백번 외쳐여도 이땅 떠남 머물게 할수 없으니
천번은 불러도 대답않고 어느 사립문 나서나요
무생은 봄빛 간다 한탄하지 말고
오는 해 자연히 돌아옴을 다시 기다리세나

又

坐到晨鐘不掩扉　앉어서 새벽종 이르는데 사리문 닫지 않고
打窓風雨落花飛　창문 두드리는 비바람 꽃 떨어져 날리누나
園林好鳥新砌耳　후원 숲 좋은 새소리 새롭게 귀를 찌르니
九十韶光何處歸　구십춘광이 어느곳으로 돌아갔오

雪松 李周鎬

又

東皇謝位出春扉　동황이 자리 사양하고 봄 사리문 나서는데
細雨乍晴日益暉　간는비 잠깐 개이니 해 더욱 빛나네
駒隙光陰誰可挽　빨리 가는 세월 누가 가히 만류하리
和風盡處落花飛　화한 바람 다한곳 꽃 떨어져 날리누나

春坡 李起都

晚翠堂原韻

草廬數棟起華陽 초려 두어동 화산 양지에 이르키니
爲愛溪松翠晚長 시내소나무 늦게 푸르고 잠을사랑하기 위함일세
案有殘篇千古史 책상에는 낡은 책 천고사기 있고
門通大路兩湖場 문은 큰길 양호로 통하는 곳이니라
竹風鳴枕醒煩夢 대숲 바람 벼개에 우니 번거로운 꿈 깨고
籬菊吹香醉詠觴 울타리 국화 향기 풍기니 읊고 술들어 취하네
十頃桑麻於分足 열이랑에 뽕과 삼 분수에 족하니
不思干祿坐朝堂 녹을 구하여 조당에 앉을 생각 아니하노라

晚翠 梁炳朝

次韻

梁公家在法華陽 양공의 집이 법화산 양지에 있으니
暎帶清川萬里長 맑은 시내 띠같이 비쳐 만리의 길이로세
耽讀經傳修道處 경전을 탐독하니 수도하는 곳이오
耕勤禾黍務農場 벼와 기장 부지런히 경작하니 농장에 힘쓰도다
不勝雅興吟風月 맑은 흥취 이기지 못하여 풍월을 읊고
欲忘塵愁引酒觴 티끌 근심 잊고자 술잔을 당기는구나
爲祝主翁餘外事 주옹의 여생 밖의 일을 축수하오니
無窮福祿滿斯堂 무궁한 복록 이당에 가득하오서

愼菴 韓龍福

又

每尋晚翠到華陽 매양 만취 찾아 화산 양지에 이르니
伴鶴松窓白日長 학을 짝한 솔 창에 흰날이 길도다
情似暖於春化日 정은 화산한 봄날 따뜻함 같고
節能固彼雪威場 절개는 능히 저 눈의 위세 있는곳에 설고하구려
迎風友榻琴生韻 벗과 자리하여 바람 맞으니 거문고 운치나고
對月詩筵影印觴 시연에 달을 대하니 그림자 잔에 찍히누나
偏愛主翁因作號 편벽하게 사랑한 주옹 인하여 호를 삼으니
四時清響滿斯堂 사시 맑은 소리 이당에 가득하구라

東谷 安鍾默

又

水抱山回勝地陽 물이 안고 산을 도는 승지 양지편에
世傳生活歲華長 세상 전한 생활 햇빛 길었도다
省楸無闕登山路 성묘하는 등산길 결함이 없고
奉祭親行看市場 봉제사는 친히 가서 시장을 보누구려
興來能作驚人句 흥이 나면 능히 사람 놀랠 글귀 짓고
福飮何辭萬壽觴 음복할 제 어찌 만수의 잔 사양하리
有時鳩首分情話 때에 있어 머리 맞대고 정담 나누니
念念于茲睠翠堂 생각 생각이 이만취당일세

德菴 族侄 因喆

又

卜居碧水法山陽 벽계수 법화산 양지
山暮水綠白日長 택하여 사니
細雨竹窓論聖道 산 푸르고 물 푸르니
清風松院奏琴場 흰날이 길도다
布衣到處逢詩友 세우 죽창에
明月來時又酒觴 성인의 도 논하고
愛族崇先傳世業 청풍 송원은 거문고
葛巾野服老斯堂 열주하는 곳일세
베옷으로 도처에서
시우를 만나고
명월이 올때에
또 술잔 일세
애족 숭선은
대로 전한 사업이니
갈건 야복으로
이당에 늙은 구려

春坡 四從弟 炳夏

又

曾年擇處法華陽 이른 해에 법화산
世業農桑漸勢長 양지를 택하여 처하니
入孝出恭修禮道 세업인 농상이
吟風弄月樂詩場 점점 세가 늘어가네
獨居靜肅看賢史 들면 효도요 나가면 공손
客至慇懃勸設酒觴 함은 예도를 닦음이요
身健翁如松不老 음풍 농월로
四時晚節翠斯堂 시 즐기는 곳일세
홀로 있을때 정숙히
현인의 사적을 보고
객이 오면 은근히
술잔 챙기는 구려
몸 건강한 주옹
늙지 않는 솔 같아
사시 늦은 절개 이당에
푸름이로다

小泉 金昌泳

又

處士幽居碧水陽 처사가 유서한곳이
慈悲如佛善心長 벽계수의 양지라
生來不欲豪衣食 자비가 부처같아
老去何嫌白髮場 착한 마음이 넉넉하도다
四壁圖書藏萬卷 살아가며 호화로운
一筵詩酒擧三觴 의식을 하고자 아니하고
安貧樂道修身士 사벽에 도서는
稼穡餘時臥草堂 만권의 책 살무었고
 늙어가며 어찌 백발을
 혐의하리오
 한자리 시주는
 석잔 술 드는구려
 안빈낙도하는
 수신의 선비라
 농사일 남은 시간
 초당에 누었도다

草堂 鄭炳尹

又

數間茅屋碧山陽 두어간 모옥이
養德林泉日月長 벽산의 양지라
修竹園頭通水路 임천에 덕을 기르니
老松庭畔設詩場 일월이 길도다
隣翁對坐圍碁局 대나무 우거진 후원엔
知己相逢勸酒觴 수로가 통하고
吾子生平耕且讀 노송 뜰가에
無關榮辱逸閒堂 시장을 마련하네
 이웃 노인 마주앉아
 바둑판 벌이고
 지기와 서로 만나면
 술잔 권하는구려
 우리 자녀 평생
 갈고 또 읽어
 영욕에 관계없이
 편하고 한가한 당일세

雪松 李冑鎬

又

祖曾擇地法華陽　증조와 조부 법화산
累世傳居勢漸長　양지에 댁지하여
花鳥清風消世惱　누대를 전하여사니
春秋暇日設詩場　형세 점점 성장하네
每逢村老談田事　화조와 청풍에
時往鄉宮敬奠觴　세업을 헤소하고
雅號適當稱晩翠　춘추로 틈이 나면
一梁門閥繼宗堂　시장을 설치하누나

錦峰 吳龍根

又

花辰此日到華陽　꽃핀 이날에
可愛雲深水又長　화산의 양지에 이르니
絶勝景如仙別界　운심 수장하니
快歡心似友逢場　가히 사랑스럽도다
香山會上多題軸　절승의 경치는 신선의
彭澤樽邊幾擧觴　별세계 같고
世事浮沈君莫說　괘환의 마음이 벗을
聖經賢傳讀斯堂　만난 장소 같구나

農隱 金義植

又

萬疊山中五甫陽 만첩 산중의 오보의 양지에
生來八十歲華長 생래 팔십을 살아오니 세월 길었도다
遲松欝欝盤前砌 울창한 늙은 솔 앞뜰에 서리었고
修竹靑靑繞後場 청청한 긴대 뒷마당 둘렀네
詩遇淸風成一軸 시가 청풍을 만나니 한축의 시 이루고
酒逢明月醉三觴 술이 명월 만나니 석잔술에 취하누나
塵世浮沈不染堂 노당 익장을 이로조차 얻으니
老當益壯從此得 진세의 부침에 물들지 않은 당이로다

翠松 金鎭泓

又

碧溪勝地法華陽 벽계의 승지 법화산 양지에
松欝簷頭歲月長 처마머리 울창한 솔 세월 길었도다
朝出原頭鋤藥圃 아침에 언덕머리 나가 약포를 메고
暮歸燈下讀書場 저물제 등불아래 독서장에 돌아오누나
春蘭秋菊多詩軸 봄 난초 가을 국화로 시축이 많고
碁友琴朋每酒觴 바둑 친구 거문고벗 매양 술잔이로세
誰道人間難得壽 누가 인간이 수 얻기 어렵다 일렀든가
老年氣候益堂堂 노년의 기후 더욱 당당하구나

遠坡 朴洙燮

又

卜宅佳山麗水陽 가산 여수의 양지에 집자리 잡았으니
如川方至福途長 넷물처럼 이르는 복의 길 길도다
臨事無時推後日 일에 다달아 뒤로 미루는 일 없고
賦詩落韻寫當場 시를 짓음에 낙운되니 당장 쓴구려
細柳淸風來故友 세류 청풍에 옛친구 오고
碧梧明月酌香觴 벽오동 밝은 달에 향기로운 술 따르네
蒼黃世事何關說 창황한 세사를 어찌 간섭하여 말하리
惟日看書晩翠堂 오직 날마다 책 보는 만취당이로다

彦陽 金炳國

又

路轉峰回碧水陽 길 돌고 봉우리 도는 벽수의 양지에
往來趣味自吟長 왕래한 취미 스스로 길게 읊는구려
心心恒慕唐虞俗 마음은 항상 당우의 풍속 사모하고
念念優遊魯鄒場 생각은 노·추나라 마당에 우유하누나
義外錢財如草芥 의리밖의 돈과 재물 초개같이 여기고
情中故舊共卮觴 정가운데 옛친구 술잔 같이 하도다
董生餘跡惟翁踐 동소남 남긴 자취 오직 옹이 실천하니
澹泊高標在此堂 담박한 높은 표적 이당에 있음이로다

愚東 吳秉權

靑坡 金治坤

又

梁老誕生長水陽　양노인 장수의 양지에서 태어나
齊家修道歷年長　제가하고 수도함이 해지난지 오래구려
福祿充盈能行勢　선멀를 계승함고 후세 넉넉하여 능히 행세하니
晩翠堂中滿眼光　복록이 만취당에 충만하도다

又

三從弟 炳謨

咏歌舞蹈碧溪陽　벽계의 양지에 노래하고 춤을 추니
智水仁山此且長　지수와 인산이 높고 또 길도다
舍己從人非易事　나를 버리고 남을 따름이 쉬운일 아니니
美風良俗出斯堂　미풍양속이 이당에서 나오는구려

碧溪夏景

壯元

南原市 寶節面 眞基

窈窕名區似太初　오조 아늑한 명구 태초 같으니
絶奇夏景正難書　절기한 여름경치 정히 쓰기 어렵구나
繁陰綠樹禽聲亂　푸른나무의 번성한 그늘 새소리 어지럽고
盛暑田村社語踈　성한 더위에 농촌에는 두레 말소리 드물다
釣叟垂竿窺佇立　낚시 늙은이 낚시대 드리워 엿보아 멈추어 섰고
山翁閱易樂閒居　산 늙은이 주역 열람하며 한서함을 즐기네
嘉禾四野占豐兆　사방들 아름다운 벼 풍년 징조 점치고
滿眼風光興有餘　눈에 가득한 풍광 흥 남음이 있구려

又

次上

京畿道 水原市 松山 梁炳文

好是長川夏節初　좋은 이 장천 여름철의 처음이라
眼前美景筆難書　눈앞의 아름다운 경치 붓으로 쓰기 어렵네
垂楊影裡清風起　수양버들 그림자 속에 맑은 바람 일고
杜宇聲中宿雨踈　두견새 소리 가운데 묵은 비 성기도다
沃野連天農業地　한들에 다은 기름진 들 농업의 땅이요
白雲掩户隱人居　백운이 문호를 가린 속에 은인이 사는구려
湖南勝地於斯在　호남의 승지 여기에 있으니
觸賞時時興有餘　때때로 구경하는 흥 남어 있느매라

又

時際熏風四月初　때는 훈풍이 부니 사월의 초라
營農暇日又看書　영농의 틈난 날에 또 책을 보누나
山河寂寞雲流遠　산하가 적막하니 구름 멀리 흐르고
草木陰濃影不踈　초목의 그늘 짙으니 그림자 성기지 않네
鷗鷺閒盟千里會　갈메기와 백로의 한가한 맹서 천리의 모임이오
鶺鴒孤勢一枝居　뱁새의 외로운 형세 한가지 산다구려
無情歲月催人去　무정한 세월은 사람 삼을 재촉하니
耕讀殘篇半架餘　갈고 읽는 남은 책 시렁에 반쯤 남았네

南原市 竹巷洞 三五의五

茶隱 金昌植

次上

又

碧溪佳景夏晴初　벽계의 아름다운 경치 여름 개인 처음이니
滿眼風光軸上書　눈에 가득한 풍광을 시축위에 쓰노라
燕子飛時山雨歇　제비 날아 갈때 산엔 비가 그치고
鶯兒歌處柳陰疎　꾀꼬리 노래하는 곳에 버들 그늘 성기네
蓮池波動知魚躍　연못에 물결 움직이니 고기 뛰놂을 알고
松壑雲捲見鶴居　소나무 골자기 구름 거치니 학이 살고 있음을 보누나
日暮長堤回首立　허 저문 긴 언덕에 머리 돌려 섰으니
隔林樵歌數聲餘　숲을 격하고 나무꾼 노래 두어소리 남은구려

次下

晩翠 梁炳朝

又

小泉 金昌泳

碧溪夏色正佳初 벽계의 여름빛 정히 아름답기 시작인데
綠水青山活畫書 녹수와 청산은 살아있는 그림과 글이로세
墻外風吹梧葉動 담장밖에 바람부니 오동잎 움직이고
庭前雨灑竹林疎 뜰앞에 비 뿌리니 대숲 무성하네
江波萬頃耕鷗泛 만경의 강물결에는 갈매기 뜨고
岸柳千絲織鳥居 일천실 언덕버들에는 짜는 새 사는구려
牧拾煙霞多少景 연하의 다소 경치 수습하니
詩情酒興樂有餘 시정과 술의 흥 즐거움 오히려 남는고야

又

三虛 吳治滉

四野濃陰入夏初 사야의 녹음이 첫 여름에 드니
碧溪勝景筆難書 벽계의 승경을 붓으로 쓰기 어렵도다
錦江綠水銀魚躍 금강 푸른물엔 은이가 뛰고
德裕青山玉骨疎 덕유의 푸른산 옥골 성기네
垂柳千絲鶯促織 수양버들 일천실 꾀꼬리 재촉하여 짜고
蒼松百尺鶴棲居 푸른 솔 일백척 학이 깃들어 사누나
長安深谷清凉裡 장안산 깊은 골 선들한 속에
題軸吟觴興有餘 시쓰고 읊고 마신 흥 남음이 있구려

佳作

又 佳作

碧溪勝景夏天初　　빅계승경이 여름날 처음이니
樹樹陰濃野不踈　　나무마다 녹음 짙어 들 성기지 않네
山岳無言依舊屹　　산악은 말없이 옛 그대로 늘은데
燕鶯聲裡又陽餘　　제비와 꾀꼬리소리 속에 석양이 남었도다

尹祖來

又 佳作

春耕 李琳鉉

芳草濃陰雨歇初　　방초의 짙은 그늘 비개인 처음일데
森羅萬像似圖書　　삼라만상이 도서 같구려
斜風落日徘徊立　　비낀 바람 떨어진 해 배회하여 섰으니
玩賞歸笻興自餘　　구경하고 돌아온 단장 흥으로 남는고야

又

眼前夏景雨晴初 눈앞의 여름경치 비 처음 개니
玩賞歸來更讀書 구경하고 돌아와 다시 책을 읽는구려
萬樹淸陰成綠漲 만수의 맑은 그늘 성한 녹음 일루고
一春紅朶失期踈 한봄의 붉은 꽃 한떨기 시기를 잃어 성기도다
逍遙自適隨時樂 소요로 자적함을 수시로 즐기고
窈窕常安擇地居 요조함은 항상 택지하여 사는것이 편안하도다
聊看碧溪芳草岸 애로라지 벽계의 방초 언덕을 보니
風流盡日酒何餘 풍류로 날을 다 하니 술 어찌 남으리

湖隱 金鍾敏

又

綠陰滿榻客來初 녹음이 탑자리에 가득하니 손님 오는것이 기쁨이오
對酌情談等讀書 대작하며 정담나눔이 책읽는 것과 같도다
魚躍淸江朝鷺下 고기 뛰는 맑은 강 아침 백로 내리고
山深遠寺暮鐘踈 산길은 먼 절에 저무는 종소리 성기구나
水邊楊柳田夫息 물가의 버드나무 아래 농부는 쉬고
松谷雲林隱士居 송곡 운림에 숨은 선비 사누나
詩友雅遊終日樂 시우와 즐거운 놀이 종일 즐기니
一樽美酒少無餘 한동이 맛 있는 술 조금도 남음이 없네

雪松 李周鎬

又

碧溪夏景雨晴初 벽계의 여름경치 비개인 처음에
遠近來朋會以書 원근에서 오는 벗 글로서 모이네
燕舞鶯歌輕且滑 제비 춤 꾀꼬리 노래는 가볍고 또 매끄럽고
綠陰芳草正無踈 녹음방초는 정히 성김이 없도다
移秧刈麥農夫野 모내고 보리베니 농부의 들이오
釣水樵山處士居 물에 낚시하고 산에 나무하니 처사의 삶이로다
詩酒論情終日樂 시주와 논정으로 종일 즐기니
詠而歸路月明餘 읊고 돌아온 길 밝은 달빛 남었구려

顧巖 李成熙

又

於焉夏節暑臨初 어언간 여름철이라 더위 다다름이 청승인데
詩老清遊閱古書 시늙은이 청유하며 고서를 열람하네
鼇鼇蓍松丹鶴舞 우뚝한 푸른 솔에 단학이 춤을 추고
淡淡綠沼白蓮踈 담담한 푸른 못에 백련이 성기도다
長安谷邃仙人降 장안산 골자기엔 신선이 내리고
德裕村深隱士居 덕유산 마을 깊으니 숨은 선비 사누나
絶勝雲林來遠客 절승의 운림에 원방객 찾아오니
吟觴處處興何餘 읊고 마시는 곳곳에 흥 어찌 남으리

草堂 鄭炳尹

夏日即事

慎菴 韓龍福

碧溪形勝近仙區 벽계의 형승이 신선구역에 가까워
水水山山摠是圖 물과 물 산과 산이 모두가 그림일세
玄鳥有情尋故宅 제비는 정이 있어 옛집을 찾고
黃鶯知止擇丘隅 꾀꼬리는 그칠줄 알아 언덕 모퉁이를 택하누나
老松白鶴嫌稀到 노송은 백학이 드물게 이름을 혐의하고
大暑淸風恨未呼 큰 더위에 청풍을 부르지 못함 한이구려
芳草綠陰時好際 방초 녹음 좋은 시절 즐거워
況兼詩酒興何無 황차 시주흥을 겸하니 흥이 어찌 없으리

又

晩翠 梁炳朝

山明水麗是名區 산 밝고 물 고운 이 명구에
萬像看來紙上圖 일단형상 보아오니 종이위의 그림일세
每苦汗衫尋樹下 매양 적삼 땀 적시는 것 괴로워 나무아래 찾고
難堪炎熱步溪隅 불같은 더위 견디기 어려워 시냇가를 거닐누나
窺魚白鷺羞汀立 고기 엿보는 백로 갈대 물가에 서있고
求友黃鸝柳幕呼 벗 구하는 꾀꼬리 버들막에서 부르는구나
吾會有文兼有酒 우리모임 글 있고 겸하여 술 있으니
風流盡日興何無 날을 마친 풍류 흥이 어찌 없으리

又

無窮山水麗明區　무궁한 산수 곱고 밝은 구역인데
雨後晴光似畫圖　비온뒤 개인빛이 그림 같도다
芳草萋萋平野岸　방초 들판 언덕에 우거지고
綠陰漲漲碧江隅　녹음은 벽강 모퉁이에 창일하구나
長堤翠柳黃鶯囀　긴 언덕 푸른 버들 꾀꼬리 울고
幽谷蒼松白鶴呼　깊은 골자기 푸른 솔에 백학이 부르는구려
昨日青春今已老　어제의 청춘이 이제 이미 늙었어라
三盃酒外一無思　석잔술 외에는 한생각도 없구려

春坡 梁炳夏

又

赤日銷金似火區　불같은 해가 쇠를 녹일듯 붉은 구역 같으니
人皆苦熱納凉圖　사람은 모두 더위에 시달려 납양을 도모하네
浮霞漠漠庚初際　뜬 노을 막막하니 초복 무렵이오
芳草萋萋翠四隅　방초는 무성하여 사방 모퉁이 푸르구나
燕掠飛蟲輕羽翅　제비는 나는벌레 노략하여 날개짓이 가볍고
蟬從綠樹巧音呼　매미는 녹수따라 교묘한 소리로 부르는구려
曉天欲雨濃雲集　새벽하늘에 비 오고자 구름 모여 드니
上帝誰稱造化無　상제를 누가 조화없다 칭하리

小泉 金昌泳

又

願得移來住別區 벌구에 옮겨와 살기를 원하오니
一望恰似輞川圖 한번 망경하니 망천도와 흡사하구려
峰能層出延空外 봉우리는 능히 층층이 솟아 공중밖에 뻐지르고
川不還回咽石隅 넋물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 돌모퉁이에 오열하네
思入幽深還苦惱 생각이 유심한데 드니 오히려 괴로웁고
行逢絶妙却歡呼 걸음이 절묘함을 만나면 문득 환호하누나
多端世事何須說 단서 많은 세상사 어찌 모름지기 말할것인가
詩酒人間豈可無 시와 술은 인간에게 어찌 가히 없으리오

湛軒 權 熙 文

又

嶺湖南裡一名區 영호남 속 하나의 명구
滿眼淸光摠畫圖 눈에 가득한 맑은 빛 모두 그림일세
谷谷水回平野岸 곡곡의 물은 들판의 언덕을 돌아오고
峰峰山列大東隅 봉봉의 산은 대동의 모퉁이에 늘어섰도다
瓦樽盈酒詩朋到 옹기동이에 술 가득하니 시벗이 다달으고
園宸登亭學子呼 후원의 오이 정자 오르니 학자를 부르네
萬壑松風芳草綠 만학의 송풍에 방초 푸르니
三公富貴換心無 삼공의 부귀와 바꿀 마음 없구려

遠坡 朴 洙 燮

一九九三年 六月 夏日即事

又

雪松 李周鎬

燕舞鶯歌水北隅　제비 춤추고 꾀꼬리 노래하는 북쪽 모퉁이에
故人頻索主人呼　고인이 주인을 찾아 자주 불으네
綠陰閒榻論時事　녹음의 한가한 탑자리 시국일 의논하고
且問斜陽酒有無　사양에 또 술 있고 없음을 묻는구려

三伏苦炎

庚炎熾烈正無低　복더위 치열하여 정히 낮음 없어
景物閒看視力迷　경개 물색 한가히 보니 시력 희미하네
白鷺尋陰蘆下睡　백로는 그늘 찾아 갈대아래 졸고
黃鸝喚友柳間啼　꾀꼬리는 벗을 불러 버들사이 우누나
納凉計策靑山谷　납양 계책은 푸른 산골자기요
避暑良謀碧水溪　피서의 양책은 푸른 시내물이로세
月會社朋團合席　달로 모인 시사 벗 단참한 자리에
觀光夏軸詠詩題　관광한 여름 풍축 읊은 시 쓰도다

湖隱 金鍾敏

又

洪爐如鑠氣尤低　큰 화로 같은 더위 녹일듯 하니 기운 더욱 낮고
汗出沾衣眼亦迷　땀을 흘려 옷 적시고 눈 또한 희미하네
白鷺無心沙渚睡　백로는 무심코 모래 물가에 졸고
黃鸝喚友樹陰啼　꾀꼬리는 벗 불러 나무 그늘에 우누나
烹鷄沽酒迎詩客　닭 삶고 술 받어 시객을 맞이하고
避暑尋凉向石溪　더위 피하여 서늘함 찾아 돌계곡으로 향하네
欲識先賢遺蹟史　선현들의 유지사기 알고자 하니
昭明往事儉生題　소명한 지난일을 후생이 삼이로세

柳斗烈

雪松 李周鎬

又

天晴雲散燕飛低　한낮 제비 구름 흐트리니 제비 나즉이 날고
賞客遊山夕日迷　관광객 산놀이에 석양빛 희미하구나
江上白鷗任意泳　강위의 백구 제멋대로 헤임치고
樹中黃鳥盡情啼　나무 속의 꾀꼬리 정을다하여 우누나
消愁適合傾淸酒　근심 헤소에 맑은 술 기우림이 적합하고
避暑尤宜濯碧溪　피서엔는 더욱 푸른 시내에 씻는 것이 마땅하도다
濁世風塵都不問　탁세의 풍진을 도시 불문하고
親朋共樂咏詩題　친한 벗과 같이 즐거며 시 읊고 쓰세

守軒 姜龍鳳

又

三伏蒸炎暮不低　삼복의 찌는 불김 짐부러도 내리지 않고
日光雲影眼昏迷　햇빛 구름그림자 눈이 혼미하도다
蓮池閣閣靑蛙亂　연못에 개굴개굴 청개구리 어지럽고
柳幕喃喃黃鳥啼　벌들막엔 꾀꼴꾀꼴 황조가 우누나
饁婦尋畦登石徑　들집심 아낙네는 밭을 찾아 돌길에 오르고
農夫想浴下淸溪　농부는 목욕 생각하여 맑은 시냇물로 내려오네
以文友會情多感　글로서 모인 벗 정 느낄 많으니
携酒隨陰詠且題　술 들고 그늘 따라 읊고 또 쓴구려

又

炎帝威嚴勢不低 불꽃황제 위엄세 낮지 않고
汗顔觀物眼昏迷 땀난 얼굴로 물색을 보니 눈이 혼미하네
鳥嫌苦熱林間噪 새는 고열을 혐의하여 숲사이에 재잘거리고
蟬受清風樹上啼 매미는 청풍받아 나무위에 우는구나
區有凉生知邃谷 구역에 서늘함 생기니 골자기 깊음을 알고
榻無暑氣繞長溪 평상은 더운기 없으니 긴 시내가 둘렸도다
曾年事業如春夢 해를 거듭한 사업 봄꿈 같으니
頻作詩壇酌又題 자주 시단을 열어 술 따르고 또 글쓰네

小泉 金昌洙

又

三伏蒸炎樹葉低 삼복 찌는 불꽃 나무잎 나직하니
群生生氣午天遠 군생들의 생기 한낮에 희미하구나
村尨不吠檐隅喘 촌 삽살개 짖지 않고 처마 모퉁이에 헐덕이고
山鳥無飛澗谷啼 산새는 날지 않고 시냇물 골자기에 우는구나
食力野人憂旱嗇 힘을 먹는 들사람 가문 논 걱정하고
洗塵遊客樂清溪 티끌 씻어 노니는 객 맑은 시내 즐기도다
儒嫌文退成詩社 선비는 학문 쇠퇴 혐의하여 시사 결성하고
折簡相招四律題 편지 접어 서로 불러 사율시 쓰네라

百松堂 姜大淑

三虛吳治湟

又

六月江山暑不低 유월 강산 더위 나직하지 않네
炎天蒸熱老魂迷 염천에 찌는 열에 늙은 혼 희미하도다
槐林飮露蟬啁咽 회화숲엔 이슬 마신 매미 목메어 울고
山谷催農布穀啼 뻐꾸기는 농사 재촉하여 산골자기에서 운고야
採草兒童停翠谷 풀 캐는 아이는 푸른 골자기에 머물고
投竿老叟向淸溪 낚시대 던진 늙은이 맑은 시내 향한누나
脫巾掛壁松陰坐 건을 벗어 벽에 걸고 솔 그늘에 앉으니
夏節風光不易題 하절 풍광 쉽게 쓸 수 없네

愚東吳秉權

又

往來石徑路高低 돌길 왕래하니 높낮이 있고
長夏江村霧裡迷 긴 여름 강촌이 안개속에 희미하네
難忍熏蒸廚婦苦 훈증 더위 참기 어려우니 부엌 여자 괴롭고
可憐暑熱睡兒啼 뜨거운 더위에 잠든 아이 울음 가련하도다
許多宴席尋陰樹 허다한 잔치자리 나무 그늘 찾고
間作閒遊向澗溪 간간이 만든 맑은 놀이 시내물가 향한누나
開會相逢非易事 개회하여 만남이 쉬운일 아니니
何如吾輩出詩題 우리들 시의 제목 내는 것이 어떠하리

栗堂 崔鍾植

又

隨柳行行路轉迷　버들따라 가고가니 길 구비쳐 희미한데
不勝洪炎坐石溪　큰 불꽃 이기지 못하여 돌시내에 앉았느라
吾徒煮伏忘娛遊日　우리들 복다름 하고 즐기는 날에
山鳥忘機向客啼　산새도 기회 잊고 객을 향하여 우네

梅香亭雅會

梅香亭榭奐然開 매향정가 환연히
左右靑松又石坮 좌우에 청송이요 또한 석대로다
詩展隨時多咏去 나막신따라 시많이 읊어 갔으니
玩笻曾歲幾尋來 구경지팡이 이른 해에 몇번이나 찾었던가
砌邊流水奏琴曲 뜰가에 흘는 물 거문고 곡조 타고
簾下淸風吹世埃 발 아래 청풍은 세상 티끌 불어 버리니
盡日吾遊肴酒足 날을 다한 우리 놀이 안주와 술 넉넉하니
碧溪會友定期哉 벽계에 모인 벗 기약을 징하는구려

湖隱 金鏞敏

又

梅香亭上喜筵開 매향정위에 기쁜 자리 여니
多士彬彬會此臺 빈빈한 선비 이대에 모이는구리
石徑登攀携酒上 돌길 등반에 술갖이고 오르고
淸溪風浴抱琴來 청계에 풍욕할 제 거문고 안고 오네
村深兼得三分水 마을 깊은데 겸하여 삼분수 얻었고
谷邃渾無一點埃 골자기 깊숙하니 혼연히 한점 티끌 없도다
今日勝遊難再遇 오늘의 승한 놀이 두번 만나기 어려워
醉臨歸路步迷哉 돌아갈 길 취하여 다다르니 발걸음 망실어지네

農隱 金義植

又

梅香亭上會筵開 매향정위에 모임자리 여니
詩客聯襟上此坮 시객이 옷깃 연하여 이대에 오르니
石澗清清魚泳樂 석간수 맑고 맑아 고기 헤임이 즐겁고
山林欝欝鳥尋來 산숲 울창하이 새 찾아 오누나
錦江走水流源潔 금강 달려간 물 유원이 깨끗하고
德裕吹風不染埃 덕유산 부는 바람 티끌 물들지 않도다
如是娛遊將幾度 이같이 즐기운 놀이 장차 몇번이나 될고
携笻歸路更期哉 지팡이 이끌고 돌아간 길에 다시 기약하시구요

德菴 梁 困喆

又

梅香亭上盛筵開 매향정위에 성한 자리 열리니
雲裡仙風護古坮 구름속의 신선바람 옛 대를 보호하니
錦水流源翻白去 금강수 흐르는 근원 흰빛 번득여 가고
裕山排闥送青來 덕유산 가리개 헤쳐 푸른빛 보내옵구려
賢孫肯構追先德 현손들 정자 지어 선덕을 추모하고
鄉老登臨滌世埃 향노들 등림하여 세상 티끌 씻는고야
詩酒優遊今日樂 시주로 우유한 오늘인지 즐기움은
能令吾輩夢悠哉 능히 우리들로 하여금 꿈 길게 하는구나

東谷 安鍾默

晩翠 梁炳朝

又

翼然亭榭燦此坮 날아갈듯한 정자 찬연히 여니
聚散煙雲護此坮 모이고 흐터진 연기구름 이대를 보호하네
德崙慤懃當檻屹 덕유산 뫼뿌리 은근히 난간에 당하여 늘고
錦源活潑近簾來 금강 수원 활발하여 주렴 가까이 오누나
佳肴盤上生鮮味 소반위의 가효는 생선맛이요
美酒杯中遠世埃 잔 가운데 미주는 세상 터끌 멀도다
詩展到斯多有感 시 나막신 이에 이르러 느낌 많이 있으니
梅溪渡口滿香哉 매계 건넌 머리 향기 가득참도 하여라

裕堂 韓甲洙

又

山佳水麗一區開 산 좋고 물 고운 한 구역을 여니
上下層層石作坮 위 아래 층층한 돌 대를 지었네
詩客隨時多咏去 시객이 때에 따라 많이 읊고 가노니
玩節何日盡看來 구경한 지창이 어느날 다 보고 오려는가
德峰淑氣臨亭閣 덕봉의 맑은 기운 정각에 다다르고
羅峙清風掃巷埃 라치의 청풍은 골목의 티끌을 쓰는구려
過此衝師曾有說 여기 지난든 술사 일직 말이 있었으니
梅花落地果斯哉 매화 낙지인가 과연 여기가

四嶽峰高勝地開　사악의 봉우리 높아 승지를 여니
奇巖怪石自成坮　기암 괴석이 저절로 대이루었네
遠舍德裕精靈屹　멀리 덕유산 정기 먹음고
近繞錦江波浪來　사싸이 금강 물결 둘러오는구려
林鳥惟知山水潔　숲새는 오직 산수 정결함을 알고
農民不管世塵埃　농민은 세상 티끌 불관하도다
酒茶共勸人情厚　술과 차 갈이 권하는 인정 두터우니
賓客登亭永讀哉　정자 오른 빈객 길이 연속할진저

春坡 梁炳夏

翼然亭上瑞雲開　나는듯한 정자위에 상서로운 구름 여니
天作層層玉鏡臺　하늘이 층층의 옥경대를 지었도다
萬壑靈峰環拱立　만학 영봉이 둘러서 공읍하고
四時咏客共登來　사시 읊는 객이 같이 올라 오는구려
池魚自躍侵紅蘚　연못 고기 스스로 뛰니 붉은 이끼 잠기고
山鳥爭飛拂翠埃　산새 다투어 나르니 푸른 티끌 떨친누나
世說桃源何處是　세상이 말한 도원이 어느곳이던가
梅村香臭永生哉　매화마을 향취 길이 나는고야

元山 陸鍾塡

又

梅香亭上盛筵開 매향정위에 성한 자리 여니
多士登臨此勝坮 다사들 이 승한 대에 등림하는구려
偶得清閒仙境坐 우연이 청한을 얻어 선경에 앉고
晩尋雅會碧溪來 늦게 맑은 모임 찾아 벽계에 오도다
四時鳥語添佳景 사시의 새말은 가경을 첨가하고
三夏蟬吟拂午穢埃 삼하의 매미 읊음 더러운 티끌 털어버리네
對酌談詩誠不盡 술잔 대하고 시의 정담 진실로 다 하지 못하니
相分此處又逢哉 서로 헤어진 이곳에서 또 만나세

守軒 姜龍鳳

又

探訪名區雅會開 명구를 탐방하여 아회를 여니
軒軒笻屐共登臺 헌헌한 공극과 같이 대에 오르도다
沙明十里白鷗下 명사십리에 백구 내리고
松老百年黃鶴來 백년 노송에 황학이 오누나
泉石無關城市鬧 천석은 성시의 시끄러움 무관하고
雲林自遠世塵埃 운림은 저절로 세상티끌 멀어지네
梅香亭景如斯好 매향정 경치 이같이 좋으니
不識間中日暮哉 한가한 가운데 날 저문 줄 알지 못했구려

小泉 金昌泳

又

靜寂林間宴席開　정적한 숲사이 잔치자리 여니
聯襟滿座碧巖坮　옷깃을 연하여 푸른 암대에 만좌하도다
佳人有約携琴到　가인은 언약있어 거문고 이끌고 이르고
詩士無違作句來　시사는 어김없이 글귀 지어 오는구려
入檻雲霞眞勝景　난간에 드는 구름 노을 참으로 승한 경치요
透簾風月絶纖埃　주렴에 삼무친 풍월은 가는 티끌도 끊어진두나
棟樑板刻今如是　기둥 들보 판각이 이제 이와 같으니
後裔常看不忘哉　후손들은 항상보아 잊지 않으리로다

春坡 李起都

又

妍弱婦人慈善開　연약한 부인도 자선을 여는데
丈夫何不起靈臺　장부로서 어찌 영대를 일으키지 않으리
奐輪高彩祥雲起　우람한 높은 광채 상서구름 일고
供獻深誠瑞日來　공헌한 깊은 정성 상서로운날 오는나
灑落胸衿如別界　흡금이 쇄락하니 별유천지 같고
清閑趣味滌塵埃　청한한 취미는 시끄러운 티끌 씻었도다
竹苞松茂堅棟樑　대나무 성찬고 솔 무성하여 동량이 견고하니
記念千秋遠保哉　천추의 기념을 영원히 보전할진저

龍山 朴在雨

又

趙昌洙

天作靈山一境開 하늘이 영산을 지어 한지경 여니
有亭輪奐屹墩臺 우람한 정자 있어 돈대에 우뚝하니
慤懃虎踞龍能翔動 은근히 범 걸터앉고 용날개 동하고
彷彿翬飛鳥革來 꿩 날고 새 날아옴이 방불한누나
情合液膠無變態 정은 갑풀 합친듯 변태 없고
交如淡水滌塵埃 사귐은 담수 갈아 티끌 씻는고야
丈夫氣慨猶難事 장부의 기개로도 오히려 어려운 일인데
而況婦人供獻哉 하물며 부인이 공헌함이리오

又

青湖朴相洙

梅香亭上樂遊開 매향정의 즐거운 놀이 여너
氣味奚先銅雀台 기미가 어찌 동작대가 먼저이리오
半畝園蔬秋色至 반묘들에 가을빛 이름을 기쁘게 보고
千章古木夕陽來 천그루 고목 석양이 오는것 보기 무섭구려
殷勤談笑從千古 은근한 담소 천고를 따르고
邂逅心情滌久埃 우연히 만난 심정 오랜 티끌 씻노매라
坐閱清暉忘庶事 앉아서 맑은 빛 넘기어 여러일 잊으니
交觴題軸興悠哉 술잔 들고 풍속 읊는 흥 길도다

又

清遊勝地喜顏開 승지의 맑은 놀이 기쁜 얼굴 열리니
石徑攀登此古坮 돌길을 걸어서 이 옛터에 오르도다
滿眼風光佳句出 눈에 가득한 풍광은 아름다운 글귀 나오고
登郊禾穀大豐來 들에 오른 화곡은 대풍이 오누나
德山煙月呈新態 덕산의 연월은 새로운 자태 바치는데
溪北林泉脫舊埃 계북의 임천은 옛 티끌 벗었구려
竟日逍遙多興樂 날이 맏도록 소요함에 흥락이 많으니
賢門盛勢永傳哉 현문의 성세 길이 전하리로다

三南 梁錫鎬

又

水抱山圍一局開 물이 안고 산 둘러 한국을 여니
地靈毓氣降斯臺 지령의 쌓인 기운 이 대에 내리로다
庭花夭艷迎人笑 오영한 뜰꽃 사람 맞아 웃고
詩鉢多情遠客來 다정한 시발 원방객이 오네
簷樹交蓊常蔽日 차마나무 울창하여 항상 해를 가리고
酒筵灑落正無埃 술자리 쇄락하여 정히 티끌 없구려
勝區雅會猶餘興 승한 구역 맑은 모임 흥 오히려 남았으니
更待何時快叙哉 다시 어느 때 기다려 쾌하게 펼칠는지

魯史 梁麟洙

又

石徑崢嶇一面開 높고 험한 돌길 일면이 열리니
梅香亭榭聳巖臺 매향정자 바위대 위에 솟앗구려
林間茅屋青旀吠 숲사이 띠집에 청삽살개 짖고
岸上蒼松白鶴來 언덕위 푸른솔 백학이 오누나
雨灑川溪流漲水 비뿌린 시내물 창일하게 흘고
風生山谷掃塵埃 산골에 바람이나 티끌 씻어버리네
吟詩酌酒香滿口 시을고 술마시니 향기 입에 가득한데
山鳥知音近院哉 산새도 지음하는지 후원 가까이 하는구려

草堂 鄭炳尹

又

山明水麗好顔開 산밝고 물고와 좋은 얼굴 여니
天作靈區護此垓 하늘이 영구를 지어 이대를 호위하네
大野每催禾黍熟 큰들엔 벼와 기장 익음 매양 재촉하고
長天才送露霜來 장천에는 바야흐로 잊을서리 보내온누나
風凉田野藏炎夏 바람 서늘한 전야에 불꽃 여름 갈무리고
雨冷汀洲洗穢埃 비 흡족한 물가 더러운 티끌 씻는구려
勝地秋光成活畫 승지의 가을빛 산그림을 이루니
却忘歸路夕陽哉 문득 돌아갈 길 석양임을 잊었도다

梅山 金鎭泳

又

古作斯亭此會開　옛날 지은 이정자에 이모임 여니
梅香揭額鎭高坮　매향이라는 호액을 걸어 높은대 진압하네
乃成詩社朋同樂　이에 시사를 결성하여 벗과 같이 즐기니
幸賴諸兄我亦來　다행이 제형의 힘 입어 나도 또한 왔도다
閒酌酒杯忘世事　한가이 술잔 딸아 세상일 잊고
更吟風月掃愁埃　다시 풍월 읊어 근심 티끌 쓴는구려
津津餘興猶無盡　진진한 여흥 오히려 다함 없는데
晷刻何催歲色哉　날빛 시각은 어찌 헛빛을 재촉하는지

錦峰 吳龍根

又 翌松 金鎭泓

梅香亭上瑞雲開 매향정위에 상서구름 열리니
遠近詩朋總登臺 원근의 시붕 모두 대에 올르니
綠水洋洋環抱野 양양한 녹수 들을 안고 도네
蒼松落落鶴飛來 낙낙창송에 학 날아 오는구려

又 素心 韓秉斗

白虎靑龍勝地開 백호 청룡 감싸 승지를 여니
翼然亭榭兀高臺 나든듯찬 정자 높은 대에 우뚝하네
幸逢益友歡談席 다행히 익우들과 환담할 자리 만나니
豈不情盃數擧哉 어찌 정배를 자주 들지 않으리

碧溪雪景

農隱 金 義 植

折簡相招會講聞　편지 집에 서로 불러 회강을 듣고
携笻踏雪訪諸君　지팡이 짚고 눈 밟아 제군들 심방하도다
千家映彩升山月　일천집 비친 채책 산달이 오르고
萬壑晴風捲塞雲　만학의 개인 바람 변새 구름 거친듯구려
不夜乾坤如晝白　밤 아닌 건곤 낮같이 희고
非春草木似花紋　봄 아닌 초목 꽃무늬 같도다
人稀鳥絶溪南路　사람 드물고 새 끊어진 계남길에
各帶斜陽左右分　각각 사양 띠고 좌우로 나누네

又

慎菴 韓 龍 福

雪風號怒似雷聞　설풍이 성난듯 부르짖니 우뢰같이 들리고
可畏北方玄武君　북방의 현무군이 가히 무섭도다
鷺立長洲難辨鷺　백로가 긴물가에 섰는데 분변하기 어렵고
雲歸遠岫不看雲　구름이 먼 뫼뿌리 돌아가니 보이지 않네
老枝擎重如龍像　늙은 가지 고임 무거워 용의 형상 같고
大野連晴作帛紋　큰들이 연히여 개이니 비단 무늬 짙은구려
萬逕險危人踵少　만경이 험하고 위태로워 인종이 적은니
惟嫌吾友凍程分　오직 우리친구 언길에서 나눔이 혐의로세

柳斗烈

又

萬音俱寂正無聞 모든 소리가 고요하여 정히 들음이 없어
曳杖行看我與君 지팡이 이끌고 다녀 봄은 나와 그대로세
樹着朶花粧洞壑 나무에 꽃떨기 열리니 마을을 단장하고
風驅化蝶共山雲 바람이 화한 나비 몰아가니 산운과 같이 하네
銀精積地家家富 은정기 땅에 쌓이니 집집이 부자요
玉屑飄窓片片紋 옥가루 창에 나부끼니 조각 조각이 무늬로구나
詩社方開吟雪字 시사를 방금 열어 설자를 읊는데
爐邊題軸酒盃分 화로가에 풍죽쓰며 술잔 나누도다

梅山 金鎭泳

又

竹林宿鳥寂無聞 대숲에 자는 새 고요하여 들림 없는데
雪夜探書我與君 눈오는 밤 책 보는 이는 나와 그대일세
雹霰滿山添露月 눈 싸라기 가득한 산에 개인달을 더하고
松澌流谷起形雲 솔섬에 흐르는 골자기에 붉은 구름 이누나
一夜門庭堆玉屑 하루밤 문과 뜰에 옥가루 쌓이고
大冬林木總花紋 한겨울 숲나무 모두가 꽃무늬구려
今歲若呈三次白 만일 올해에 세차례 흰눈이 오면
麥豐稼稔確充分 보리 풍년 벼 풍작 확실히 충분하네

又

雪降前宵睡不聞　눈 내린 어제밤 잠들어 듣지 못하고
曉看積厚隔隣君　새벽에 보니 두텁게 쌓여 이웃 그대와 막혔도다
繞嶽惟如夏靉雲　공중에 나부끼니 봄나비 날으것과 흡사하고
茅屋豐堆銀玉屑　띠집에 은과 옥가루 풍족하게 쌓이고
原林同作草花紋　뫼뿌리를 두르니 오직 열음 굴름 피어 오른 것 같구려
四面皚皚無露地　언덕숲에 조화의 문채 같이 지었네
淺深高下自難分　사면이 희고 희여 드러난 땅 없으니

진심 고하를 스스로 분간키 어려워

錦峰 吳龍根

春坡 梁炳夏

又

千山飛鳥寂無聞　천산에 나는 새 고요하여 들림 없는데
氷凍雪程難送君　어름 언 눈길 그대 보내기 어렵구려
好作碧溪吟席　벽계에 마시고 읊는 자리
相看談笑酒相分　서로 보며 담소하고 술 서로 나누세나

雪松 李周鎬

又

慄烈寒風自北聞　율렬한 찬바람 북으로부터 들리는데
千山絶壁起彤雲　천산의 깊은 벽에 붉은 구름 이누나
忽然一夜梨花白　홀연이 한 밤에 배꽃이 희니
臘雪春光摠不分　섣달 눈인지 봄빛인지 모두 분별 못하네

立春

湖隱 金鍾敏

玄武收裝出北原 현무가 천장을 거두어 북쪽 언덕으로 나가니
一天和氣自東園 한 줄기 화기 동원으로부터 오네
柳條吐絮風前岸 바람일 언덕엔 버들가지 개아지 토하고
梅蕚開腮雨後村 비온 뒤 마을엔 매화꽃술 뱀을 어느나
初到心情如對月 처음 이르는 심정 달을 대함 같고
老來事業只依軒 늙어 옴에 사업은 다만 마루에 의지함일세
應知春草年年綠 응당 알기니와 춘초는 년년 푸르러
惟恨王孫不返言 오직 왕손이 돌아오리 못한 한을 말하느라

又

農隱 金義植

立春瑞雪滿郊原 입춘의 상서로운 눈 들에 가득하니
和氣微登種菜園 화기 가늘게 나물 심은 후원에 오르는구려
洞僻松林棲鸛鶴 동네 궁벽한 송림에 황새가 깃 들고
山深梅樹繞田村 산 깊은 매화나무 농촌을 둘렀도다
人增一壽添星髮 사람은 나이 한살 더하니 성성한 백발 더 하고
天啓三陽自暖軒 하늘은 삼양을 여니 마루 저절로 따뜻하네
君我慇懃同祝願 그대와 나 은근히 축원 같이 하니
豊登四野有何言 사방에 풍년 들면 무슨 말이 있겠는

又

春風初動海東原 봄바람이 처음
聊得詩情會故園 해동 언덕에 움직이니
柳眼將舒經臘岸 애오라지 시정 얻어
梅脣欲發向陽村 고원에 모였네
新禧自到千家户 버들눈 장차 설 지낸
舊厄皆消萬姓軒 언덕에 펴고
南北分疆加一歲 매화입술 양촌을
平和方策與誰言 향하여 피고자 하네

晩翠 梁炳朝

又

青帝弘恩布四原 새봄은 스스로
暗香浮動玉梅園 천가호에 이르고
和氣融融遠害村 묵은 액은 다 만성의
災厄遠驅蒼海外 마루에 놀은구나
瑞光先到吉人軒 평화방책을
新春萬像皆生色 누구와 더부러 말하리
莫道紛紜世事言 남북분단이
한해를 더 했으니

慎菴 韓龍福

청제의 큰 은혜
사방 언덕에 베푸니
가만한 향기 옥매화
동산에 부동하누나
동풍은 탐욕없는 집에
슬슬 불고
화기는 상헤 멀리한는
마을에 융융하도다
재액은 멀리
창헤밖으로 몰아내고
서광은 먼저 길인의
마루에 이르는구려
새봄 일만형상이
다 생색하니
어지러운 세상사
일러 말하지 마소

又

守軒 姜龍鳳

陟彼高樓望四原 저 높은 다락에 올라 사방언덕 바라보니
迎春物色漸生園 봄을 맞은 물색 후원에 점점 나는구나
氷消大地施床幕 얼음 녹은 대지에 온상막 시설하고
雪盡江山播種村 눈 다한 강산 촬종하는 마을이로다
天上三光初到屋 천상의 삼광 처음 집에 이르고
人間五福始來軒 인간의 오복 처음 오도다
吾生正値有爲日 우리인생 정히 할수 있는 날 만났으니
萬事順成如意言 만사 뜻과 같이 순성을 말하노라

又

小泉 金昌泳

習習東風解凍原 슬슬 부는 동풍에 얼던이 해동하니
氤氳和氣動芳園 인온한 화기 꽃다운 동산에 동하네
雁賓夢亂歸邊塞 기러기손 꿈 어지러워 변새로 돌아가고
燕客情深返故村 제비손 정 깊어 옛마을 돌아오는구려
溪柳生心黃漾水 시내 버들 싹 돋아 누른빛 물에 일렁이고
庭梅吐玉白侵軒 뜰매화 옥을 토하니 흰빛 말루에 침노하는구나
一春花事從今始 한봄의 꽃일이 이제부터 시작하니
寒苦嚴冬且莫言 차고 괴로운 엄동 또한 말하지 마오

又

春光先到碧溪原 봄빛이 먼저 벽계의 언덕에 이르니
草木蘇生長後園 초목이 소생하여 후원에 자라는구려
風逐災殃千里域 바람은 재앙을 천리지역으로 쫓아내고
天增壽福萬家村 하늘은 수복을 만가촌에 더 하도다
牧童取笛吹牛背 목동은 피리 잡고 소등에서 불고
滿月揚光映竹軒 만월은 빛을 들쳐 대마루에 비치누나
君我深情猶未盡 그대와 나 깊은 정 오히려 못다하여
傾樽醉興放歌言 동이 기우려 취한 흥 노래 놓아 말하네

翠松 金鎭泓

又

四海迎春解凍原 사해가 봄을 맞아 얼음 풀려
題詩新帖益暉軒 새 첩지에 시를 쓰니 동산이 더욱 빛나네
韶光自到賢人宅 봄빛은 현인의 집에 스스로 이르고
瑞氣承來吉士村 서기는 길사의 마을에 이어 오누나
鴻雁高飛還北地 기러기는 높이 날아 북녘땅에 돌아가고
梅唇方綻向南軒 매화입술 바야흐로 터져 남쪽마루 향하는고야
虛送平生豈有白 흘러간 세월 사람의 모발 희니
三虛吳治滉 허송한 평생 어찌 말이 있으리오

又

春候暗催全野原 봄 기후 사만이 온들을 재촉하니
彼梅斯柳動幽園 저 매화 이 버들 동산에 동하누나 그윽한
凍氷方解高低處 얼어 붙은 얼음 바야흐로 녹고 낮은 곳에 녹고
殘雪將消遠近村 잔설이 장차 원근촌에 녹는구려
祈福祝詩塗柱壁 복을 빌는 축시 기둥벽에 바르고
逐邪禳帖付欄軒 사악 쫓고 물리치는 첩지 난간 벽에 부치네
星移物換於今日 별 옮기고 물태 바뀐 오늘날에
天度公公孰敢言 천도의 공공함을 누가 감히 말하리

錦峰 吳龍根

又

立春暖氣雪消園 입춘의 따뜻한 기운 얻덕 눈 녹이너
未久花開植物園 미구에 꽃은 식물원에 피리로다
綠色先登楊柳岸 푸른빛은 먼저 양류의 언덕에 오르고
紅光近入杏桃村 붉은 빛 행도촌에 가까이 들으리
塞鴻欲去尋湘岸 변방 기러기는 소상강 얻덕 찾아 가고자 하고
江燕將來訪舊軒 강남제비 장차 옛말루 찾아 올것이로다
人望登豐甘夢裡 사람은 단꿈속에 풍년을 소망하고
付詩棟壁祝無言 시를 기둥벽에 부치며 축원의 말은 없구려

草堂 鄭炳尹

又

和風先動碧溪原　화풍이 벽계언덕에
修竹寒梅接故園　먼저 동하니
額字穰災榮滿户　긴대 찬매화
柱文慶祝瑞生村　고원에 접하였네
雪消幽澗聲如瑟　재앙 물리친 액자
天霽浮雲影入軒　문호에 영화 가득하고
分外功名非我事　경사 축원한 기둥글
詩書禮樂是佳言　상서로운 마을에 들도다
　　눈 녹은 깊숙한 시내
　　소리 비파 같고
　　개인 하늘 뜬 구름
　　그림자 마루에 드누나
　　분수 밖의 공명은
　　나의 일 아니니
　　시서예악 이것이
　　아름다운 말이로세

百松堂 姜大淑

又

四時代序理之原　사시의 순서 가름함이
新態丁寧動後園　이치의 근원이라
幾恨近年當旱歲　새로운 물태 정영코
願成今日稔登村　후원에 동하네
殘餘山雪冷侵户　근년에 가뭄해 만남을
歡戲野禽飛入軒　얼마나 한탄했던가
質薄才頑詩也拙　오늘 등풍한 마을
雖然興味盡難言　되길을 기원하도다
　　남어지 산설의 냉기
　　문에 침노하고
　　환희하는 들새
　　말루에 날아 드누나
　　질박하고 재주 둔하여
　　시에 졸한데
　　비록 그러나 흥미는
　　다 말하기 어렵구려

愚東 吳秉權

又

道山 朴喜穆

旭日玲瓏瞰野原　빛난 해 영롱하여 들언덕 비치니
東風吹送萬家園　동풍이 일만집 후원에 불어 보내니
韶光九十青君政　봄빛 구십일은 청군의 정치라
德被山河遠近村　덕이 산하의 원근촌에 입히는구려

梅柳爭春

臘天不畏雪中寒 섯달 하늘 눈가운데 추워도 두려워 하지 않고
幸得陽春蓓蕾安 다행이 양춘을 얻어 꽃봉우리 편안구려
根托漢濱高士到 뿌리를 한수가에 박았으니 높은 선비 다다르고
香凝東閣美人看 향기 동각에 어렸으니 미인을 보도다
細營軍伍權威肅 세류진영 군대행오 권위 엄숙하고
客舍陽關送別難 객사 양관에 송별이 어렵구나
五柳逋梅登古史 도연명 포매 옛 사기에 오르니
至今誦讀得心歡 지금 외우고 읽어 마음 즐거움 얻는고야

湖隱 金鍾敏

又

春早江山日尚寒 이른봄 강산이 날이 오히려 차거운데
庭梅岸柳自矜安 뜰 매화 언덕 버들 스스로 편안을 자랑한구나
垂枝葉綠歌鶯聽 느러진 가지 잎 푸르니 꾀꼬리 노래 듣고
玉砌花明舞蝶看 옥뜰에 꽃이 밝으니 나비춤 보리로다
妍態并持評不易 곤운태도 아울러 갖이니 평하기 쉽지 않고
美容共有畫猶難 아름다운 용모 같이 있으니 그림도 오히려 어려우리
此時享樂宜當事 이때의 향락이 의당한 일이라
今次探光亦可歡 금차의 탐광이 또한 가히 즐겁도다

慎菴 韓龍福

又

晩翠 梁炳朝

梅柳爭春已退寒 매화 버들 봄 다투어 이미 찬 기운 물러났으니
探光節屐得平安 풍광을 탐한 나막신 지팡이 평안을 얻었도다
垂絲帶翠風前動 느러진 실 푸름 띠어 바람앞에 움직이고
香朶開腮雨後看 향기로운 꽃송이 볼여니 비뒤에 보도다
未久蜂歌應好聽 미구에 벌 노래 응당 좋게 듣고
不遐蝶舞亦非難 머지 않어 나비춤 또한 어렵지 않으리
最先物物方和暢 가장 먼저 물물이 바야흐로 화창하니
天度循環孰不歡 천도의 순환을 누가 기뻐하지 않으리오

又

小泉 金昌洙

東風浩蕩漸消寒 동풍이 호탕하여 찬 기운 점점 사라지니
萬像熙熙自有安 일만 형상이 밝고 화하여 스스로 편함이 있도다
煙織垂絲詩思動 연기 드리운 실 짜니 시의 생각 동하고
花開綠樹畫圖看 꽃이 녹수에 피니 그림폭을 봄이로세
時觀雁陣瀟湘返 때로 기러기 떼 소상으로 돌아감을 보고
頻聽鶯聲蜀道難 자주 두견이 소리 촉도난을 듣는구려
春氣氤氳方暢好 봄기운 화하고 성하여 방창이 좋으니
群芳爭艷摠爲歡 모든 꽃다움 고움 다투어 모두 즐겁도다

龍山 朴在雨

又

解凍江山已退寒 해동한 강산 이미 차거움 물러가니
乘時蓓蕾十分安 때를 탄 꽃봉우리 십분 편안하도다
一天造化成形始 한 하늘 조화 형상 이룬 처음이오
三日工夫括目看 삼일공부 눈을 부비고 보는구나
喚友鶯聲知不遠 벗 부르는 꾀꼬리 소리 알거니 멀지 않고
探香蝶舞豈爲難 향기 탐한 나비춤 어찌 어려우리
比肩色色相交暎 어깨 견주는 색색이 서로 비치니
梅柳爭春訪隨歡 매화 버들 봄 다툼 찾고 따라 즐기세

德菴 金東業

又

梅柳爭春解凍寒 매류가 봄을 다투니 찬 얼음 풀리고
東風入袖萬家安 동풍이 소매에 드니 일만 집이 편안하네
蘇仙架上吟詩聽 소동파 시렁 위에 시 읊는 소리 듣고
太白門前酌酒看 이태백 문전에 술잔 따름 보는구나
玉蕊孤山探賞好 옥 꽃술 고산에 구경 탐하기 좋고
驛頭客舍別離難 역두의 객사에 이별하기 어렵구려
碧溪雅會放斯樂 벽계의 아회 이에 즐거우니
此日清遊第一歡 이날의 맑은 놀이 제일 즐겁도다

又

草堂 鄭炳尹

渡頭望北風寒　건널목에 북을 바라보니 북녘바람 차거워
莫使和春共不安　화한 봄에 서로 불안하게 하지 마오
驛路垂枝離客折　역마길 드리운 가지 떠난 손님에게 꺾어 주고
閣欄拆蕾美人看　동각 난간 꽃봉우리 터지니 미인을 봄이로세
亂飛絮雪詩成好　어지러이 나는 개아지눈 시 이루기 좋고
含笑花林畫亦難　웃음 먹음은 꽃숲은 그림 또한 어렵구려
方暢春光相愛賞　방창한 춘광 서로 사랑하여 구경하니
逍遙韻士酒盃歡　소요한 시선비 술잔 즐기누나

又

顧巖 李成熙

細柳江風夕氣寒　세류 강바람 저녁기운 차거운데
新梅欲綻向陽安　신매화 피고자 양지 향하여 펼하도다
繁陰可愛黃鶯唱　번성한 그늘에 꾀꼬리 노래 가애롭고
飛絮尤疑白雪看　나는 개아지 백설인가 더욱의심하여 본구나
欲畫佳光元不易　아름다운 광경 그리고자 하나 원체 쉽지 않고
更圖高格亦爲難　다시 높은 품격 그리려니 또한 어렵네
床前相對頻傾酒　책상앞에 맘주 대하여 술 잘주 기우리니
氣像如仙自得歡　기상이 신선살아 숫로 즐거움 얻는구려

三南 梁錫鎬

又

回春大地漸消寒 봄 돌아온 대지에 찬기운 점점 사라지니
梅柳爭春得意安 매화 버들 봄 달둠 뜻얻어 편안토다
細枝垂絲黃鳥至 가는 가지 드리운 실에 황조 이르고
玉腮含笑亂蜂看 옥볼에 웃음 먹음으니 어지러운 벌 보리라
東君滿載和風到 동군이 화한 바람 가득 싣고 이른 데
人世空添白髮難 인세에 부질없이 백발만 더함이 어렵고야
桃李花辰知不遠 도리의 꽃때가 알선데 머지 않으니
我將玩物亦詩歡 내 장차 물색 구경하고 또 시로 즐기리

百松堂 姜大淑

又

序屬初春已送寒 시서가 초춘에 속하니 한기 이미 보냈으니
群生萬物共平安 군생 만물이 살이 평안하도다
和風時動齊衿濶 화풍이 때로 동하니 흉금이 활달하고
甘雨長沾造化看 단비가 길이 적시니 조화를 보도다
鶯織金絲梭擲亂 꾀꼬리 금실을 짜 북채 어지러이 던지고
蜂探香朶取無難 벌은 향기로운 꽃송이 탐하여 취하기 무난하네
詩筵着味曾何日 시자리 맛 붙침이 일직 어느날이던가
白首相逢擧酒歡 백수가 상봉하여 술들며 즐기는구려

又

殷春處處暖無寒 성한 봄 곳곳이 따뜻하여
梅柳共得安 찬 기운 없으니
使我携笻聊自翫 나로 하여금 지팡이 짚고
又君作伴好相看 또 그대와 작반하여
霏霏暮雨能堪樂 부슬 부슬 봄비
旭旭朝陽豈有難 빛나고 빛나는 아침 해
恨未於今風趣滿 이제 풍취 원만하지
何時南北去來歡 어느때 남북이 오가며

愚東吳秉權

又

千峰消雪澗流寒 천봉에 눈 녹으니 시냇물
梅柳爭春樂自安 매화와 버들 봄 다투어
隱隱暗香風後動 가만히 나는 향기
絲絲漲綠雨中看 실실이 넘치는 초록빛
佳花水石詩情起 아름다운 꽃 수석은
芳草雲林畫像難 방초와 운림 형상
不變循環天理在 변치 않고 순환하는
萬和方暢抱成歡 만화방창 이 모두

遠波 朴洙燮

又

耕山 韓圭容

東風吹退舊陰寒　동풍이 옛날 음산한 한기 불어 물리치니
萬物爭榮好眼看　만물이 번영 다투어 좋게 눈으로 본구나
岸柳含煙添翠樂　언덕버들 연기 머금어 푸름 더하여 즐겁고
庭梅吐玉播香歡　뜰매화 옥을 토하니 향기 풍겨 즐겁도다

又

青坡 尹祖來

遠山殘雪尚餘寒　먼산의 잔설이 오히려 찬 기운 남았는데
梅柳爭春共得安　매화 버들 봄 다투어 같이 편함 얻었네
日暖風和今好節　일난 풍화한 좋은 시절에
群生物物亦相歡　군생 물물이 또한 서로 즐긴는구려

又

道山 朴喜穆

梅柳爭春氣不寒　매화 버들 봄 다투어 날씨 차지 않으니
咸熙萬像日新看　다 화락한 만상이 날로 새로움 보누나
從今不遠花滿發　이로부터 머지 않아 꽃이 만발 하리니
葉葉枝枝總得歡　잎잎 가지 가지 모두 즐거움 얻으리로다

遊忠州湖

小泉 金昌泳

冒雨初過月嶽山　비 무릅쓰고 처음 월악산 지나니
下流湖水白雲間　하류의 호수는 백운간이로다
紛紛此世逍遙客　분분한 이세상 소요객이
十日今偷一日閑　열흘에 하루 한가를 이제 두둑했도다

又

晩翠 梁炳朝

幾踏忠州月岳山　몇번이나 충주 월악산을 밟었든가
丹陽八景在斯間　단양팔경이 이사이에 있도다
峰峰水水眞仙境　산과산 물과물 참으로 선경이라
吾輩携笻步步閒　우리들 지팡이 짚고 걸음 걸음 한가하구려

又

三虛 吳治滉

探勝湖西月嶽山　호서의 월악산 승지를 탐상하니
丹陽八景在斯間　단양팔경이 이사이 있노매라
巡行二日三南地　일틀동안 삼남을 순행하니
今次淸遊意自閒　이번의 맑은 놀이 뜻 스스로 한가하구나

又

春坡 梁炳夏

湖水濛回月嶽山　호수가 월악산을 돌아드니
春風秋雨百年間　봄바람 가을비 백년간이로세
同鄕同老同行路　같은 고을 같은 늙은이 같이 가는 길
八景探來步不閒　팔경을 탐하여 오는 걸음 한가하지 않구려

又

農隱 金義植

作伴遊覽萬疊山　작반하여 만첩산
長湖舟泛翠松間　긴 호수 푸른솔 사이
三三五五三春日　삼삼 오오 삼춘 봄날에
幽懷暢叙客心閒　그윽한 회포 화창하게 펴니
객의 마음 한가하구나

又

龍山 朴在雨

四境賓登萬疊山　사경의 손이
五湖烟月別人間　오호의 연월이
仙翁仙女應園号　선옹 선녀 응당
願看丁丁落子閑　낙자 정정한 한가함

又

曾聞丹陽水與山　일찍 단양의
優遊月嶽鏡湖間　월악산 거울호수 사이
塵愁洗滌三盃後　티끌 근심 세척한
勝景探來眼不閒　승한 경치 탐하여 오니
눈이 한가하지 않구려

又

三南 梁錫鎬

一帶忠湖束藏山　한띠로 충주호와
又雲深處有人間　또 구름 깊은 곳에
三三五五娛遊客　삼삼 오오로
携酒相尋談笑閑　술을 들고 서로 찾어
한가히 담소하도다

又

權興玉

又

優遊二日步河山　우유한 이틀간 물과 산을 거닐제
招友負樽湖水間　벗 불러 호수사이에 술동이 질어졌도다
酌酒醉醒探景去　술 딸어 취하고 깨이며 경개 탐하여
春風滿眼咏歌閒　눈에 가득한 봄바람에 읊고 노래하고 한가하네

又　顧巖 李成熙

優遊湖上又遊山　호수위에 우유하고 또 산에 노니
八景佳光入眼間　팔경의 아름다운 경치 눈 사이에 드는구나
十九親朋同樂裡　열아홉 친한 벗 동락하는 속에
使吾得此一時閑　나로 하여금 이 일시 한가함 얻게 했구려

又　錦峰 吳龍根

又　遠波 朴洙燮

誰移楓岳作名山　누가 풍악산 옮겨 이 명산 지었는가
妙妙奇奇指點間　기기 묘묘 지점한 사이로다
其下泛舟行百里　그 아래 배를 띄워 백리를 가니
浮生半日學偷閒　부생이 반나절 투한 배웠도다

暮春

湖隱 金鍾敏

李白桃紅落後先　흰 오얏 붉은 복숭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떨어지니
三春暮今年　삼춘의 꽃일은 절루러 간 금년이네
燕尋樓閣成巢裡　제비는 누각찾아 집 짓는 솜씨요
鶯止邱隅出谷前　꾀꼬리는 언덕모퉁이에 그쳐 골자기앞에 나왔도다
萬嶂山光雲合霧　일만 뫼뿌리 산빛은 구름에 안개 합치고
千村野色靄含煙　일천마을 들빛은 놀을이 연기 먹음었네
吟風咏月誰耽樂　음풍 영월을 누가 탐하여 즐기는가
題軸巡盃意快然　시를 쓰고 술잔 돌리니 뜻 괘연하구려

又

農隱 金義植

可憐青帝遽離先　가련한 청제 멀리 떠나는 앞이니
九十韶光此暮年　구십일 봄빛 이저문 해일세
花老園林稀蝶舞　꽃이 늙은 동산숲에 나비춤 드물고
柳垂江岸織鶯前　버들 느러진 강언덕 꾀꼬리 짜는 앞이로세
行尋芳草題華軸　다니며 찾은 방초 화축에 쓰고
會坐清陰帶翠煙　모아 앉은 맑은 그늘 푸른 연기 띠었도다
君酒我琴挑興席　그대의 술 나의 거문고 흥 돋운 자리에
一盃一曲倍欣然　한잔 술 한 곡조 배나 즐겁구려

又

東風暖日萬和先 동풍 따뜻한 날 만화의 앞에
梅柳爭榮似昨年 매화 버들 영화 다툼이 작년 같도다
玄鳥已巢茅棟上 제비는 이미 띠집 들보위에 집 짓고
黃鶯喚友綠楊前 꾀꼬리 녹양앞에 벗 부르누나
帶雲樵徑三分雨 구름 띤 나무길 삼분은 비오
臨水漁村數點烟 물에 다다른 어촌 두어점 연기로다
春去夏來秋又到 봄 가고 여름 오고 상달이 또 이를것이니
四時代序理公然 사시의 차서 대신함은 공정한 이치 그러함이라

德菴 梁 因喆

又

群生物物各爭先 군생 물물이 각각 우선을 다투니
九十韶光似去年 구십 소광이 지난해 같도다
堤柳千絲翻舞裡 언덕버들 일천실 춤을 번득인 속잉오
庭梅萬朶播香前 뜰매화 일만송이 향기 뿌린 앞이구려
漁舟逐水尋桃岸 고기배 물을 쫓아 도원 언덕 찾고
牧笛歸程帶夕煙 목동의 피리 돌아온 길 저녁연기 띠었도다
美酒佳肴誰載送 아름다운 술과 안주 누가 실어 보냈는가
連盃快飮意豪然 술잔 연하여 쾌하게마시니 의기 호연스럽구나

晩翠 梁 炳朝

又

布穀鳴催種播先　뻐꾸기 소리는 씨 뿌리는 것 먼저 재촉하고
夏來春去幾多年　여름 오고 봄 감이 얼마나 해가 많았던가
梨花散落晴窓外　배꽃은 개인 창밖에 흐터져 떨어지고
柳絮漂流綠水前　버들 강아지 녹수 앞에 표류하누나
雲散淸宵松掛月　구름 거친 맑은 밤 달이 소나무에 걸리고
斜陽動露竹籠煙　사양에 움직인 놀을 연기 대숲에 가두었네
東君遠別心懷亂　동군을 멀리 이별하니 심회 어지러우니
杜宇聲中一悵然　두견이 소리 가운데 한결 창연하구려

春坡 梁炳夏

又

東皇欲駕夏天先　동황이 먼저 여름하늘 떠나고자 하니
勝日晴郊日抵年　승한 날 개인 들에 날길어 해에 다다르는구려
燕舞時看芳草上　제비춤 때로 방초위에 보고
鵑聲忍聽落花前　두견이 소리 낙화 앞에 차마 듣는구나
杏園雲釀紅成雨　행원에 구름이 붉은 꽃비 비져 이루고
柳岸鶯催細織煙　버들 언덕에 꾀꼬리 간는 버들 연기 짬을 재촉하네
休道人間三月暮　인간의 삼월 저문다고 말하지 마오
烹魚灑酒亦欣然　고기 삼고 술 걸으니 또한 흔연하고나

小泉 金昌洙

又

一春花謝慕春先　한봄의 꽃이 모춘앞에 사례하니
紅樹換青誇盛年　붉은 나무 푸르게 바뀌어 성년을 자랑하네
鶯織垂楊芳草外　꾀꼬리는 방초밖의 수양버들 짜고
燕飛晴野落花前　제비는 개인 들판의 낙화앞에 나는구려
農夫種役無閑日　농부는 씨뿌리느라 한가한 날 없고
遊客豪情掃刻煙　유객의 호탕한 정은 겁연을 쓸어버리는구나
甘雨將催初夏氣　단비 장차 첫여름 기운 재촉하고
綠陰漸濃亦欣然　녹음이 점점 성하니 또한 흔연하도다

錦峰 吳龍根

又

化育群生日欲先　화육한 군생들이 날로 먼저 하고자 하니
鶯歌蝶舞太平年　꾀꼬리 노래 나비 춤 태평한 해로세
花間曳屐紅隨後　꽃사이에 나막신 이끄니 붉음이 뒤 따르고
柳下開箋碧滿前　버들 아래 자리 펴니 푸름이 앞에 가득하도다
地氣氤氳成雨露　지기는 화합하고 따뜻하여 비 이슬 이루고
天時醞釀動風煙　천시가 따뜻하게 비쳐내니 바람 연기 동하누나
相逢知己兼詩酒　지기를 상봉하고 시와 술 겸하니
觴咏移時興自然　때 지나도록 마시고 읊으니 흥이 자연 나는구려

龍山 朴在雨

翠松 金鎭泓

又

春光將暮感慷先　봄빛이 저물고자 하여 감회가 앞서니
男女娛遊却忘年　남녀가 즐겁게 놀다 묻득 해를 잊었어라
樵子笛聲千樹外　나무꾼의 피리소리 일천나무 밖이오
騷人琴韻百花前　시인의 거문고 운치 온갖 꽃 앞이로세
玉梅暖日籠嵐靄　옥매화 날 따뜻하니 안개 노을 감두고
翠柳薰風織霧煙　푸른버들 훈풍에 안개 연기 짜누나
槿域江山多勝景　무궁화 강산 승경이 많으니
繁榮草木亦欣然　번성한 초목 또한 흐뭇하구려

又

物物爭春欲得先　물물이 봄을 다투어 선두를 얻고자 하니
佳辰迎送幾多年　아름다운 때 보내고 맞음이 얼마나 해가 많았든가
桃花亂散山窓外　도화는 어지럽게 산창밖에 흐터지고
柳絮漂流水閣前　버들꽃 수각앞에 떠내려 가는구나
嶺上白雲疑釀雨　고개위의 흰구름 비를 빚는가 의심이오
岸頭青麥似含烟　언덕머리 물든 보리 연기 먹음음 같도다
韶光九十何虛送　봄빛 구십일을 어찌 허송하리
今日詩筵意快然　오늘 글자리 뜻 괘락하구려

又

小山 尹昌赫

春光已暮夏光先　봄빛이 이미 여름빛 먼저 저무니
甲戌年光似去年　갑술년 풍광이 지난 해와 같도다
千里故人隨日定　천리의 고인 정한 날자 따르고
一旬新榻落花前　한 열흘 새평상은 낙화 앞이로구려
鎖雲樵逕連甘雨　나무길 구름 잠기니 단비 연하고
臨水漁家起午烟　물에 다다른 어부집 낮 연기 이누나
燈下展書成往事　등불아래 글펴든것 지나간 일 되었으니
老來酒政摠欣然　노래에 술정사 모두 흔연하도다

又

愚東 吳秉權

東君欲駕感慷先　동군이 떠나고자 하니 감회가 앞서고
無可奈何又一年　어찌 할수 없는 또 한해로세
花影已疎春暮後　꽃 그림자 봄 저문뒤 이미 성기고
樹陰方盛夏來前　나무 그늘 바야흐로 여름 옴은 앞에 성하도다
德均率土和風節　온땅에 덕이 고른 화풍시절이오
惠養群生瑞日烟　군생들을 혜양한 서일의 연기로다
這裡居人從古俗　이속에 사는 사람 옛 풍속 따르니
會吟興味意歡然　모아 읊는 흥미 뜻 기쁘도다

新綠

壯元

綠陰如海蔽炎陽　바다같은 녹음 불꽃별 가리고
枝葉爭靑較短長　가지와 잎이 푸름 다투어 짧고 길고야
雨露均沾先得勢　비 이슬 고루 적시니 먼저 세를 얻고
風煙深鎖倍生光　바람 연기 깊이 잠겨 배로 빛이 나누나
天成佳麗疑仙境　하늘이 이룬 가려 선경인가 의심하고
地動淸凉勝草堂　땅에 동한 청량 초당보다 낫구나
携酒聽鶯眞別界　술 이끌고 꾀꼬리 들으니 참으로 별세계라
何論春節百花香　어제 봄철 백화향기 논하리오

江原道 寧越邑 永興里

樵山 宋淳哲

又次上

節惟初夏漸蒸陽　시절은 오직 첫여름 점점 별이 찌는데
軟綠淸陰日影長　연한 푸름 맑은 그늘 날 그림자 길도다
出谷黃鶯梭柳幕　골자기를 나온 꾀꼬리 버들막에 북질하고
平郊大麥作秋光　평평한 들에 보리가 가을빛 짓는고야
農夫暫息風吹岸　농부는 잠간 바람 부는 언덕에 쉬고
詩客閑登樹繞堂　시객은 한가히 나무 둘른 당에 오르는구려
甘雨適時沾四野　단비 때 마추어 사야를 적시니
石榴紅拆發幽香　석류꽃 붉게 피어 그윽한 향기 발하누나

錦峰 吳龍根

晚翠 梁炳朝

次下

方濃新綠布山陽　바야흐로 무구속은 신록이 산양지 펼치니
雲淡風輕日又長　구름 맑고 바람 가벼워 날 또한 길도다
鷺下沙汀翻玉色　백로 모래 물가에 내리니 옥빛 번득이고
鶯梭柳幕擲金光　꾀꼬리 버들막에 북질하니 금빛 던진누나
携筐採女尋桑圃　광주리 든 여인 뽕나무 밭 찾고
採景騷人詠草堂　경치 탐하는 소객 초당에서 읊는구려
莫道春光今已盡　봄빛이 이미 다 하였다 이르지 말오
滿盤蔬菜尚留香　소반에 가득한 채소 오히려 향기 머물렀어라

又

金鍾敏

耽景逍遥近午陽　경치 탐한 소요가 오양에 가까우니
百花殘盡綠陰長　백화 잔진하고 녹음이 길도다
秧針出水初生色　모싹 침이 물에서 나와 처음 빛을 내고
樹葉連林漸放光　나무잎은 숲을 연하여 점점 빛을 방출하누나
拾翠佳人頻佩酒　푸름 줍는 가인 자주 술병 차고
踏青游子或升堂　풀밟고 노는 아이 혹 당에 오르네
相逢好友挑詩興　좋은 친구 서로 만나 시흥을 돋우니
白日科場筆墨香　백일장 과거장 글묵이 향기롭도다

湖隱

又 佳作

新綠成陰四月陽 신록이 군을 이룬 사월의 양에
無邊清景入眸長 가이 없는 맑은 경치 눈에 들어 길도다
萋萋芳草含珠露 처처한 방초 구슬 이슬 먹음고
歷歷晴川帶翠光 역역한 개인 시내물 푸른빛 띠었구려
出水青針秧出野 물위에 나온 푸른 침 모싹이 들에 나오고
垂門碧幕柳垂堂 문에 늘어진 푸른 장막은 버들이 당에 드리웠네
盤登蓼菜兼佳膾 소반에 순채 오르고 겸하여 좋은 회 겸하니
雙箸移來口頰香 두짓가락으로 옮겨 오니 입과 볼이 향기롭도다

小泉 金昌洙

又 佳作

萬像多情四月陽 일만 형상이 다정한 사월 볕에
風輕雲淡日偏長 바람 가볍고 구름 맑으니 날 편벽되게 길도다
移秧郊野兼芳草 모낸 들판에 방초를 겸했고
漲綠江山好景光 푸름이 창일한 강산 좋은 경광 일세
岸柳成陰鶯出谷 언덕 버들 그늘 이루니 꾀꼬리 골자기 나오고
塞霖晴夜月輝堂 별새에 장마 개인 밤 달빛 당에 빛나는구려
僻村到處多新趣 벽촌 도처에 새로운 취미 많으니
墻下榴花亦吐香 담 아래 석류꽃이 또한 향기 토하누나

翠松 金鎭泓

又

佳作

薰風新綠勝春陽 훈풍과 신록이 춘양보다 승하니
萬樹千山夏日長 일만 나무 천산에 여름날이 길도다
峰遍藤蘿如活畫 봉우리에 등라 피지니 산 그림 같고
柳含烟霧倍生光 버들은 연기 안개 머금으니 배로 생광일세
東皇命駕離金殿 동황은 수레 명하여 금전을 떠나고
赤帝宣威上玉堂 적제는 위엄 베풀어 옥당에 오르는구려
天地渾然仙境美 천지가 혼연이 선경의 아름다움이니
爭妍濃翠絶清香 고움 다투어 풀름무르익어 맑은 향기 절대로다

松溪 車甲峰

又

佳作

萬千新綠染朝陽 만천의 신록이 아침 볕을 물드리니
衆鳥聲中晝漸長 뭇새 소리 가운데 낮이 점점 길구려
岸柳青青青溪有勢 언덕 버들 청청하니 시내 성세 있고
庭蘭郁郁郁户尤光 뜰난초 욱욱하니 문호 더욱 빛나누나
槐陰爽氣傳書榻 회화나무 그늘 시원한 기운 글탑에 전하고
榴圃薰風入草堂 석류꽃 훈풍이 초당에 드누나
錦繡江山初夏景 금수강산의 첫 여름 경치
便乘詩句頰生香 문득 시글귀를 타 뺨에 향기 나노메라

水原市 長安區 新豐洞二

周浦 沈日準

佳作

又

瀛隱 李智煥

三春已過夏初陽　삼춘이 이미 지나고 첫 여름 벌인데
門柳垂垂綠日長　문버들 드리우고 드리워 푸름이 날로 길어지누나
芳草有情誇盛色　방초 뜻있어 성한 빛 자랑하고
落花無語送殘光　낙화 말없이 쇠잔한 빛 보내는구려
將成翠浪如深海　장차 푸른 물결 이루어 깊은 바다 같고
更作清陰覆古堂　다시 맑은 그늘 지어 옛당을 덮으리
乘暇隔林聽鳥處　겨를을 타 숲에 격하여 새소리를 듣고
芰荷出沼動幽香　연꽃 연못에 나와 그윽한 향기 동하네

又

扶安郡 下西面 晴日里

碧隱 李寅器

柳城朝雨過山陽　버들성 아침 비 산 양지 지나니
新綠成陰夏日長　신록이 숲을 이루어 여름날 길구려
花謝春歸芳草色　꽃 시 사례하니 봄이 방초빛으로 도라가고
葉肥樹作好風光　잎이 살찌니 나무가 좋은 풍광 짓누나
如炎暑熱蒸郊野　불꽃같은 뜨거운 더위 들판을 찌는데
似水清凉潇砌堂　물같이 서늘함 뜰과 당에 가득하도다
休憩移時醒午睡　때가 옮기도록 쉬어 낮 졸음 깨여
呼朋對酌酒盃香　벗 불러 대작하니 술잔 향기롭네

又

春坡 梁炳夏

千絲細柳拂山陽 일천실 가는 버들 산 양지에 떨치니
新綠新陰與夏日長 새 푸름 새 그늘 여름날 길구려
布穀啼聲過節息 뻐꾸기 우는 소리 철 지나 쉬고
黃鶯歌曲遇時光 꾀꼬리 노래는 때를 만나 빛나누나
鵑獨多怨鳴宵月 두견은 무슨 원한있어 밤달에 울고
燕獨多情舞客堂 제비는 홀로 다정하여 객당에 춤추도다
葉葉枝枝過細雨 잎마다 가지마다 가는비 지나가니
萋萋芳草動幽香 무성한 방초 그윽한 향기 동하누나

又

農隱 金義植

四月清和露日陽 사월 맑고 화한 개인 날 양지에
妍妍新綠與時長 곱고 고운 신록이 때로 더부러 길도다
殘花隨處餘春色 쇠잔한 꽃 곳에 따라 봄빛이 남어 있고
細柳垂絲拂夏光 실류 실 드리워 여름빛 떨치누나
醒醉生涯尋野店 취하고 깨인 생애 들 주막 찾고
頓忘世事睡山堂 세상사 문득 잊고 산당에 조는구려
年年此節相逢地 해마다 이시절 상봉한 땅에
藉草開筵勸酒香 풀 깔고 자리 열어 권하는 술 향기롭네

又

滿園新綠漸遮陽　동산에 가득한 신록이 점점 태양을 가리니
萬樹成陰與日長　일만 나무 그늘 이루어 날과 더부러 길도다
細柳含煙濃水色　실류는 연기 먹음어 물빛 농후하고
芳林過雨帶山光　꽃다운 숲 비 지나니 산빛 띠었도다
願豐田老勤耕野　풍년을 원하는 농부 들을 가는데 부지런하고
探句騷人務講堂　글귀 탐하는 시인 강당에서 힘쓴구나
三五踏青閒步去　삼삼 오오 푸른 풀 밟아 한가히 걸어가니
東南禾稼碧生香　동남에 심은 벼 파랗게 향기롭구려

守軒 姜龍鳳

又

風和雲淡碧溪陽　바람 화하고 구름 맑은 벽계 양지에
萬樹成陰翠色長　일만 나무 그늘 이루어 푸른 빛 길구려
雄雉振翎誇五彩　장끼는 날개 떨치니 다섯가지 채색 자랑하고
黃鶯喚友擲金光　꾀꼬리 벗 불으니 금빛 던지누나
漁夫荷笠尋廣沼　어부는 낙씨 메고 넓은 못 찾아가고
老儒作伴會文堂　늙은 선비 작반하여 글집에 모이도다
細雨時過芳草岸　가는 비 때로 방초언덕 지나가니
芝荷珠露滿池香　연잎의 구슬 이슬 연못 가득 향기롭고야

德菴 梁因喆

又

和風細雨碧山陽 화한 바람 가는 비 벽산 양지에
新綠成陰夏日長 신록이 그늘 이루어 여름날 길구려
雲外千山翻翠暴 구름밖의 일천산 푸른 경치 번득이고
江邊萬樹帶清光 강변의 일만나무 맑은 빛을 띠었도다
垂絲蛛網三松徑 실 드리운 거미 삼송길에 그물치고
織綿鶯梭五柳堂 베 짜는 꾀꼬리 오류당에 북질하누나
漁老投竿江上釣 어부 낚시대 던져 강의에 낚아
穿魚換酒浮香 꼬기 꿰어 술 바꾸니 술에 향기 뜬누나

草堂 鄭炳尹

又

相逢知己到斜陽 지기의 벗 상봉이 사양에 이르니
覽物逍遥夏日長 물색 구경하는 소요 여름날 길구려
莫歎東君俄退跡 동군이 아까 물러감을 탄식하지 마오
繼看赤帝始宣光 계속하여 적제가 빛로소 빛을 펴는것 보는구려
分青四野忙秧手 푸른싹 나누는 사야에 모달우는 손 바쁘고
弄笛樵童返草堂 피리 희롱하는 초동 초당에 돌아오누나
物換星移炎暑節 물건 바뀌어 별 옮겨 불꽃 더위철에
綠陰如海勝春香 녹음이 바다 같으니 봄향기 보다 좋도다

德菴 金東業

三虛吳治湟

又

溫和四月氣薰陽　溫和한 사월 기후 훈풍한 볕에
萬樹淸陰夏日長　일만나무 맑은 그늘 여름날 길구려
荷葉滿池淸露彩　연잎이 연못에 가득 맑은 이슬 채색이오
竹竿繞院翠煙光　대남무 후원 둘러 푸른연기 빛이로세
林深飛鳥鳴山谷　숲 깊으니 나는 새 산골자기 울리고
枝密遮炎冷草堂　백백한 가지 불꽃 끼리니 초당이 서늘하구려
江店味兼山野菜　강주점에 산야채 맛을 겸하니
肇看酌酒口生香　안주 들고 술 따르니 입에 향기 나누나

遠波 朴洙燮

又

新綠成陰敲夏陽　신록이 그늘 이루어 여름볕을 가리고
炎天白日已舒長　염천에 흰날이 이미 길어 길도다
風吹枝送淸凉氣　바람 부니 가지 선들한 기운 보내고
月上樹迎遍照光　달 오르니 나무는 둘러 비친 빛을 맞는구려
柳下秋遷飛去燕　버들 아래 추천은 날아가는 제비요
簷前蹴毬落來堂　처마앞에 축구공 당에 떨어져 오누나
吟餘揮筆題華軸　읊은 나머지 붓 휘둘러 화축에 쓰니
豪健詩書滿紙香　호건한 시서 종이에 향기 가득하고나

又

綠林處處蔽炎陽 푸른숲 곳곳에 불꽃볕 가리어
開此詩筵起興長 이 시연을 여니 흥 일어남이 길도다
花事已歸春絶景 꽃일은 이미 돌아가니 봄경치 끊어지고
樹陰今到夏生光 나무그늘 지금에 이르러 여름빛이 나누나
歌鶯自谷遷喬木 노래 꾀꼬리 골자기로부터 교목에 오르고
詩友携笻出草堂 시우와 지팡이 이끌고 초당을 나오는구려
幸也甘霖時適降 다행히 단 장마 적당한 시기에 내리니
霽餘物色倍生香 개인 뒤 물색의 향기 배로 나는고야

愚東吳秉權

夏日即事

垂柳陰濃水上橋　수양버들 물의 다리에 그늘 무르녹으니
招朋沽酒適逍遙　벗 불러 술 사니 소요하기 알맞도다
夕天送雨涼連夜　저녁한울 비를 보내어 선들함이 밤까지 열하고
午日蒸雲暑作朝　한낮에 찌는 구름 아침부터 더위 시작하누나
明月多情相照曉　명월은 다정하게 서로 비추고
淸風無價自來邀　청풍은 값없이 절로 와 맞이하는구려
放笻閑坐芳林下　지팡이 놓고 꽃다운 숲아래 한가히 앉으니
退熱如今爽氣昭　더위 물러난 지금에 시원한 기운 발도다

湖隱金鍾敎

又

避暑人多向石橋　피서 인파 돌다리 향하는 이 많으니
濯纓濯足更逍遙　갓끈 씻고 발 씻고 다시 소요하는구려
柳靑兩岸鶯啼午　버들 푸른 두 언덕에 꾀꼬리 낮에 울고
水碧前川鷺下朝　물 푸른 앞시내 백로 아침에 내리누나
綠樹淸陰連席坐　녹수의 맑은 그늘 자리 연하여 앉고
良宵明月擧杯邀　좋은 밤 밝은 달 술잔 들어 맞이하네
八旬回顧都如夢　팔십을 회고하니 모두 꿈 같은데
望見東天旭日昭　동쪽하늘 바라보니 빛나는 해 밝도다

雪松李周鎬

又

龍山 朴在雨

長空謾掛蝀橋
如火庚炎廣且遙
爽籟何遲山月夕
清陰每待竹風朝
不惟雲霧蒼空蔽
是柰田村旱魃邀
若使高宗今復出
作成霖雨德思昭

장공에 부질없이 무지개 다리만 걸리니
불같은 경염이 넓고 또 멀도다
시원한 소리 산달 저녁에 어찌 더딘가
맑은 그늘 매양 대바람 아침 기다리누나
오직 구름 안개 창공을 가릴 뿐 아니라
그농촌에 가뭄 맞음을 어찌하리
만일 고종임금으로 하여금 이제 다시 나온다면
장마비 만들어 은덕이 밝을리로다

又

錦峰 吳龍根

細雨虹蜺映作橋
風生炎息適消遙
樹間黃鳥啼斜日
槐下玄禽報早朝
兒出澗溪身共浴
客登亭榭月相邀
漸長禾黍占豐稔
四野青青一色昭

가는 비 무지개 비쳐 다리 지으니
바람나고 더위 식어 소요하기 알맞구려
나무사이의 꾀꼬리 비낀날에 울고
들보아래 제비는 이른 아침 알리누나
아이는 시냇물에 나가 몸 같이 목욕하고
객은 정자에 올라 달 서로 맞이하네
점점 자란 벼와 기장 풍년을 점치니
사야가 청청하여 한빛으로 밝도다

又

滌暑尋凉碧水橋 더위 씻을 선늘한 푸른 수교 찾으니
閑雲淡影自逍遥 한가한 구름 맑은 그림자 스스로 소요하도다
樓臺脫俗明泉石 누대가 탈속하니 천석이 밝고
猿鶴棲林遠市朝 원학이 숲에 깃드리니 저자조정 멀구려
蒸日釀時甘雨降 찐는 날이 비를 때 단비 내리고
香煙起處故人邀 향기로운 연기 이는 곳에 고인을 맞이하는도다
榴花滿發燃紅裡 석류꽃 만발하여 붉음 태우는 속에
惜別相留後約昭 석별에 서로 머문 뒷약속 밝구려

德菴 金東業

又

避暑尋凉渡石橋 더위 피하여 선늘함 찾아 석교를 건느니
碧溪勝地我逍遥 벽계의 승지를 내가 소요하네
無風近午薰蒸日 바람없이 한낮 가까우니 훈증한 날이오
積雨新晴快爽朝 쌓인 비 새로 개이니 상쾌한 아침이로세
屠狗烹鷄因煮伏 개 잡고 닭 삶아서 복 달음하고
訪陰隨柳又酒邀 그늘 찾고 버들 따라 또 술을 맞이하는구려
後約慇懃相送罷 은근이 뒷날 약속하고 서로 보내어 파하니
黃昏歸路月光昭 황혼에 돌아가는 길 달빛이 밝도다

顧巖 李成熙

又

翠松 金鎭泓

六月長霖濺石橋　유월 긴 장마에 돌다리 넘치니
風生落照始逍遥　바람 나는 낙조에 빌로소 소요하누나
浣紗漂母歸斜日　비단 빨래하는 아낙네 비낀날에 돌아가고
荷鍤農夫出早朝　삽을 멘 농부 이른아침 나선는구나
游泳河童庚炎洗　헤엄치며 노는 아이 복더위 씻고
坐眠院老月光邀　앉아 조는 후원 노인 달빛 맞이하는구려
炎天鋤耨都辛苦　염천에 김매기 모두 괴로운 일이니
力穡無窮理自昭　힘들여 농사지면 공참이 없는 이치 자연 밝도다

又

遠坡 朴洙燮

雙虹百尺作佳橋　쌍무지개 백척이 좋은 다리 이루고
雨後晴天萬里遥　비 뒤에 개인 하늘 오원함이 만리로다
鵝聚叢林知日暮　까마귀 숲에 모이니 해 저뭄을 알고
鵲啼喬木報晨朝　까치 교목에 울어 새벽임을 알리누나
詩情倍出名區到　시정이 배로 일어 명구에 이르고
酒味尤新好月邀　술맛이 더욱 새로우니 달맞이하기 좋도다
長夏山川如火熱　긴 여름 산천이 불같이 뜨지우니
成長群物理孔昭　군물이 성장하는 이치 심히 밝도다

又

晚翠 梁炳朝

農老荷鋤出早朝　농오는 호미 메고 일은 아침에 나와
綠陰深處暫逍遙　녹음 깊은 곳에 잠시 소요하누나
蔓底布地能成實　오이 덩쿨 땅에 퍼지니 능히 열매 맺고
稱子尋涼走石橋　어린 아이 신을 참 찾아 돌다리를 달려가는구려

又

小泉 金昌泳

欲洗庚炎步水橋　복 더위를 씻고자 물다리를 설으니
爽風止汗故逍遙　시원한 바람에 땀 그쳐 짐짓 소요하도다
今年旱魃湖南甚　금년 가뭄이 호남이 심하니
灌溉村翁出早朝　물 대는 신골 늙은이 일은 아침 나선는구나

夏雲多奇峰

半空浮動往來多　반공에 떠서 움직여 왕래 많으니
如火如峰又似波　불 같고 봉우리 같고 또 물결 같도다
忽自消晴明日月　문득 스스로 사라져 개이니 일월이 밝고
能將聚黑鎖城坡　능히 검게 모여 성과 언덕 봉쇄한누나
風恬樓閣簷端宿　바람 고요한 누각 처마 끝에 자고
熱極山川嶺上過　열이 극한 산천 고개위 지난는구려
非霧非烟長旱際　안개도 아니요 연기도 아닌 긴 가뭄 지음에
時成好雨不雲何　때로 좋은 비 이루니 구름 아니면 어찌하리

湖隱 金鍾敏

又

白雲淡泊夏天多　담박한 흰 구름 여름하늘에 많아
或作奇峰或作波　혹 기봉을 짓고 혹 물결을 짓는구나
時伴彩虹橫遠岫　때로 채색무지개 동반 먼 뫼뿌리에 비치고
間驅驟雨灑長坡　간간이 소낙비 몰아 긴 언덕에 뿌리는구나
去來影裡江山美　오고 가는 그림자 속에 강산 아름답고
聚散陰中歲月過　모이고 흩어진 그늘 가운데 세월 지나가네
日盛日消無定態　날로 성하고 날로 사라져 일정한 태도 없으니
浮生榮辱問如何　부생의 영화와 곤욕 묻노니 어떠한가

愼菴 韓龍福

又

浮遊像態夏天多　떠도는 모양새 여름하늘에 많으니
如獸如峰又似波　짐승 같고 봉우리 같고 또 물결 같도다
忽作綿花延碧落　홀연히 면화꽃 지어 푸른하늘에 뻗치르니
因成驟雨灑青坡　인하여 소낙비 이루어 푸른 언덕 뿌리는구려
騰空有意長霖致　공중에 올음이 뜻있어 긴 장마 이르고
出岫無端盡日過　끝없이 뫼뿌리에 나와 날이 다하도록 지나누나
或聚或消復聚　혹 모이고 혹 사라지고 사라졌다 다시 모이니
人心數變譬雲何　인심 자주 변함을 구름에 비유하면 어떠리

小泉 金昌泳

又

奇妙峰巒變化多　기묘한 봉만이 변화 많으니
形形色色似翻波　형형색색이 물결 번득임 같도다
油然興鎖江山面　유연이 일어나 강산 멀모 봉쇄하고
頃刻連橫遠近坡　경각에 원근의 언덕을 가로 연하는구려
作雨氣同天地轉　비를 짓는 기후는 천지와 같이 회전하고
從龍勢共晝宵過　용을 따른 성세는 밤낮을 같이 지나누나
滋生萬物雲功大　만물을 자생한 구름의 공이 크니
洽足人間與若何　흡족한 인간의 흥취 어떠하오

龍山 朴在雨

又

雲作千峰壑多
間間施雨大流波
如烟暗鎖高低苗
似霧蒼連遠近坡
霽後青天無跡散
颱前暑日押炎過
自然浮上東南北
若不雲霓旱魃何

구름이 천봉만학을
지음이 많으니
간간이 비를 베푸러
큰 물결 흐르네
연기같이 어둡게
높고 낮은 밀뿌리 잡고
안개같이 푸르게
원근 언덕 연하는구려
개인 뒤 푸른하늘
자취없이 사라지고
태풍앞에 더운 날
불꽃 눌러 지나누나
자연이 동남북에
떠오르니
만일 구름무지개 아니면
한발을 어찌하리

錦峰 吳龍根

又 春坡 李起郁

浮雲處處幻形多 뜬 구름 곳곳에 형롱 변환 많으니
如火如棉又似波 불 같고 솜 같고 또 물결 같도다
聚雨散晴長萬物 모으면 비 흩터지면 개이어 만물이 성장하니
旱天解渴莫斯過 가믄 날 해갈은 이에서 지남 없도다

又 德菴 金東業

如綿如火夏雲多 솜 같고 불 같으니 여름 구름 많아
時作奇峰萬丈波 때로 기봉을 짓고 만장의 물결도 됨이라
若使潛龍能致雨 만일 잠용으로 하여금 능히 비를 이루게 한다면
人人共喜解憂何 사람마다 같이 기뻐 근심 푼것이 어떠리

梅香亭雅會

梅香亭棚接人家　매향정 정자가
社友登臨午影斜　시사의 벗이 등림하니
朝望斗文瞰白日　아침에 두문산 흰날
暮看德裕拂紅霞　저물이 덕유산의 붉은
西風忽至蟲鳴壁　서풍이 문득 이르니
大雨初晴鱉上沙　큰비 처음 개이니 자라가
夏盡秋來新稻熟　여름 다하고 가을 오니
蓬窓相說稔年加　봉창에서 서로 풍년

湖隱金鍾敏

又

天增歲月富農家　하늘이 세월을
情話未伸西日斜　정담을 펴지 못하고
三伏已過長夏日　삼복은 이미
四郊發穗滿秋霞　사방들 이삭피어
斗文峰挹梅溪岸　두문봉은 매계 언덕을
錦水流清白鷺晩　금강물 흐름은
半醉半醒歸路晩　반은 취하고 반은 깨어
二三親友幾盃加　두세넷 친구들

德菴梁囷喆

晚翠 梁炳朝

又

梅亭欲訪出山家　매향정을 심방고자
僊屐遲遲午影斜　산자를 나서니
德裕山前明水石　제으른 나막신 더디어
낮 그림자 비꼈네
斗文峰下鎖煙霞　덕유산 앞에
수석이 밝고
寒蟬嘒嘒依蒼樹　두문봉 아래
연기 노을 잠겼구려
閒鷺飛飛下白沙　찬 매미는 울고 울어
푸른 나무 의지하고
五穀豐登黃四野　한가한 백로 날고 날아
흰 모래에 내리누나
詩吟到此興尤加　오곡이 등풍하여
사야가 누렇고
시 읊음 이에 이르러
흥 더욱 더하도다

春坡 梁炳夏

又

金風蕭瑟滿山家　소슬한 금풍
산가에 가득하니
節到梅亭日已斜　지팡이가 매정에 이르니
해 이미 비끼도다
雲散斗峰明水石　구름 흩어진 두문봉에
수석이 밝고
雨晴德麓鎖烟霞　비 개인 덕유산 기슭에
연기 노을 잠겼구려
雁飛遠浦葭蒼岸　먼 갯가 풀은 갈대 언덕에
기러기 날고
客到高樓月白沙　높은 다락 달 흰 모래에
객이 이른도다
或酌或吟多感想　혹 술 따르고 혹 읊어
감상이 많으니
清遊高榻酒詩加　맑은 놀이의 높은 자리
술과 시를 더 하는고야

又

一亭屹立傍山家 한정자 산가 곁에
步步登臨千日斜 우뚝하게 섰으니
洞壑依稀籠水月 걸음 걸음 등림하니
樓臺縹渺鎖煙霞 한낮 해가 기우렸구려
暮蟬爭噪千林樹 어렴풋한 동학은
白鷺閒眠十里沙 물과 달 가두었고
今歲風光如昨歲 멀리 희미한 누대엔
重來感興倍前加 연기 노을 잠겼도다
저문 매미는 다투어
일천 숲 나무에 울고
백로는 한가이
십리 사장에 존누나
올해의 풍광이
작년과 같으니
거듭 느껴 오는 흥
전보다 배나 더하노라

小泉 金昌泳

又

梅香亭畔有農家 매향정자가에
箫瑟金風午日斜 농가 있는데
園果紅黃垂柿栗 소슬한 금풍에
山雲淡白宿烟霞 한낮 해가 비꼈구려
鷄登砌上三層石 후원 과일 붉고 노랗니
鷺立溪邊兩岸沙 감과 밤 드리웠고
佳節吾遊臨告別 산 구름 담백한데
陽關酒勸友情加 연기 그을 자누나
닭은 뜰위
삼층석이 오르고
백로는 시냇가
두연덕
모래에 섰도다
아름다운 시절 우리 놀이
고별에 다다르니
양관주 권하니
우정 더하누나

錦峰 吳龍根

又

四里之中一村斜　네 마을 가운데 한 여인집 있으니
女家仁德滿村居　여인집 인덕이 마을 가득 비꼈네
工師箚合繩墨直　목공수 멀통 줄줄이 부합하고
畫彩榱翻色霞舒　들보의 그림 채색 색색의 놀을 번득이네
待客案前豐酒肉　손님 대접한 상앞에 주육이 풍성하고
祭先碣底備蒲茅沙　선영 제사하는 상석 밑에 포사 갖추었구려
纖纖玉手何其壯　섬섬옥수 어찌 그리 장한지
美俗良風莫此加　미풍양속이 이보다 더함 없도다

龍山 朴在雨

又

梅香亭畔列村家　매향정가에 촌가가 늘어서니
德裕名峰更繞斜　덕유산 유명한 봉우리 다시 둘러 비꼈도다
東谷浮雲成玉界　동쪽 골자기에 뜬 구름 백옥 세계 이루고
西山掛日吐紅霞　서산에 걸친 해 붉은 노을 토하네
秋風白露侵苔徑　가을 바람 흰 이슬 이끼길 침노하고
夜月金波弄水沙　밤달 금물결 물 모래 희롱하누나
羊畜少童吹笛返　양 치는 아이 피리 불며 돌아오니
蛩聲哀絶感情加　귀뚜라미소리 애절하여 감정을 더 하는구려

草堂 鄭炳尹

又

畫樓左右數三家　그림 다락 좌우에 두서너 집인데
梅谷清風落照斜　매곡의 청풍 낙조 비꼈네
騷客席中凝墨色　술손님 가운데 먹빛이 엉기고
邀仙筆上繞青霞　신선을 맞은 대의에 푸른 노을 둘렀도다
棟樑短簷巢玄鳥　동량 짧은 처마에 제비는 집을 짓고
溪渚蒼葭屐白沙　시냇가 푸른 갈대 흰 모래 찔렸도다
節序循環天地理　시절의 차례 순환이 천지의 이치라
霜毛歲歲恨增加　서리털 해마다 증가함이 한이로세

又

雞鳴狗吠力農家　닭 울고 개 짖는 농사 힘쓴 집이니
大野登豐照斜　등풍한 큰들에 저녁 날빛 비끼누나
上下天通明日月　위 아래 하늘 통하니 일월이 밝고
東南地僻積烟霞　동남의 땅이 궁벽하니 연하가 쌓이는구려
閒看山峽三秋景　한가이 산 긷의 삼추 경치 보고
遙望江湖十里沙　멀리 강호 십리의 모래사장 바라보누나
設會梅香亭主婦　모임 차린 매향정의 주부는
待賓禮節莫斯加　손님 대접하는 예절 이에서 더 할수 없구려

三虛吳治滉
道山朴喜穆

松山 梁炳文

又

瞻彼婦人慈善家 저 부인 자선가를
翼然亭子瑞暉斜 바라보니 나는 듯한 정자
漁舟逐水閒仙景 상서 날빛 비꼈네
遊屐探光愛紫霞 고기배 물을 쫓으니
梅砌清風吹暗香 선경이 한가롭고
文峰皓月照明沙 노닌는 나막신 풍광 탐하여
名聲到處誰無頌 붉은 노을 사랑하누나
德裕山川擅勝加 매화 뜰 청풍은
사만히 향기 불고
명성 이른 곳에
누가 송덕 않으리
두문봉 흰 달은
밝은 모래 비치는구려
덕유산 산천의 승지
천양 더 하도다

梅山 金鎭泳

又

翼然亭榭近人家 나는 듯한 정자
幸得斯筵拙句斜 인가에 가까워
故友逢時情遂海 다행이 이자리 얻어
新詩相詠筆生霞 졸한 글귀 비꼈네
花朝菊畔翻寒露 엣 친구 만날 때
月夕漁村座白沙 심정 바다같이 깊고
年矢每催君我老 새로운 시 서로 읊으니
更何望也酒盃加 붓글씨에 놀을 나누나
꽃 아침 국화가에
찬 이슬 번득이고
달 저녁 어촌엔
흰 모래에 자리하네
해의 화살이 매양 재촉하여
그대와 나 늙었으니
다시 무엇을 바라리
술이나 더 하자구요

又

有齋 河載禹

蕭瑟風生白帝家　소슬한 바람 백제의 집에서 나니
丹青活畫眼前斜　단청의 산 그림 눈앞에 비끼네
知時籬菊開黃朶　때를 아는 울국화 노란 송이 열고
報節山楓染紫霞　철을 알리는 산 단풍 붉은 노을 물들었도다
唧唧啣寒蛩吟夕砌　찍찍 우는 귀뚜라미 저녁 뜰에 울고
嗈嗈歸雁下平沙　우지지며 돌아온 기러기 평사에 내리누나
雖憐物色均成熟　비록 물색이 골루 성숙함이 가련하도다
恨我霜毛一一加　나의 서리털 하나 하나 더함이 한이로세

又

朴洙燮

屹立梅亭近野家　우뚝 선 매향정 들집 가까우니
天清如洗日光斜　씻은듯 맑은 하늘 날빛 비끼도다
風微大野晴雲雨　바람 가는 큰들에 구름 비 개이고
樹密孤村拂紫霞　나무 빽빽한 고촌에 붉은 노을 떨치누나
知候燕群歸越塞　철을 아는 제비무리 월남 변새로 돌아가고
驚寒雁陣下平沙　차거움에 놀란 기러기떼 평사에 내리는구려
歲華荏苒先楓菊　해빛이 덧없이 단풍 국화에 먼저하니
玉露金風感興加　옥이슬 금풍에 느낀 흥이 더하노라

遠波

又

翠松 金鎭泓

梅香亭畔數三家　매향정 가에 두서너 집이니
一谷名區石徑斜　한 골자기 이름난 구역 돌길에 비꼈네
又有邀仙堪勝景　또 요선대 승한 경치 있으니
騷人滿席繞靑霞　글 하는 사람 가득한 자리 푸른 놀을 둘렀구려

賞菊

節屆涼秋九月陽　시절이 서늘한 구월양에 이르니
寒叢金朶與相長　차서운 떨기 금 송이 더부러 서로 길도다
霽天萬嶂楓同麗　개인 하늘 일만 뫼뿌리 단풍과 같이 곱고
昌雨千庭爾獨芳　비를 무릅쓴 천뜰에 너 홀로 꽃다웁구려
籬落五更無畏雪　울타리 오경밤 눈 두려움 없고
罄香三逕不嫌霜　향기는 삼경길 서리를 혐의치 않누나
最憐酷愛陶翁意　심하게 도옹의 사랑 받음이 가장 어여쁘니
可笑園林病紫裳　동산숲 병들어 붉은 치마 가소롭도다

湖隱 金鍾敏

又

許炙歲月獨秋陽　허다한 세월에 홀로 가을 볕이라
發育寒天一色長　찬 하늘에 발육하여 한빛으로 길도다
陶老籬邊孤守節　도연명 울타리가에 외로이 절개 지키고
杜翁庭畔晩含芬　두자미 뜰가에 늦게 꽃다움 먹음었구려
春三桃李同添露　춘삼월 복숭아 오얏 함께 이슬에 젖고
重九松篁共傲霜　중양 구월 솔과 대같이 서리를 업신여기누나
逸趣古今多愛賞　은일의 취향 고금이 많이 사랑하고 구경하니
畫屛列置作佳裝　병풍에 그려 벌려두니 아름다운 치마 짓노라

農隱 金義植

又

惟此良辰九月陽 오직 이 좋은 때 구월 양에
出門賞菊意深長 문을 나와 국화 구경하니 뜻이 심장하누나
花能滿地黃金艷 꽃송이 땅에 가득하니 황금이 곱고
叢葉聯籬翠露芳 떨기 잎이 울타리에 연데니 비취이슬 꽃다웁구려
木落寒天能傲雪 낙목 한천에 능이 눈을 업신여기고
草枯廣野獨凌霜 풀 마른 광야에 홀로 서리 능멸하노라
可憐不變持貞操 변치 않고 정조 가짐이 가련하니
何羨晚楓誇赤裳 어찌 늦은 단풍 붉은 치나 자랑을 부러워 하랴

愼菴 韓龍福

又

今重陽是古重陽 지금의 중양이 옛 중양이라
詩展採來興味長 시의 나막신 탐하여 오니 흥미 길도다
疎葉烟霞長夏日 성긴 잎 연기노을 여름날에 자랐고
播香籬落勝春芳 울타리에 향기 퍼지니 봄꽃보다 승하구려
不同桃李嫌蜂蝶 복숭아 오얏과 같이 아니함은 호접을 혐의함이요
直與松篁傲雪霜 곳곳이 솔과 대와 더부러 눈 서리에 오만하누나
一去淵明誰送酒 도연명 한번 가니 누가 술을 보낼고
無人復送白衣裳 다시는 흰 의상 보낼 사람 없도다

晩翠 梁炳朝

又

雪松 李周鎬

風微日煖適重陽
獨愛幽園興味長
嬌態如誇生彩色
美唇快笑吐清芬
白衣盃上浮香趣
處士庭邊傲肅霜
落木蕭蕭寒雪裡
短叢疎葉保青裝

바람 적고 날 따뜻함이
마침 중양이라
홀로 그윽한 동산
사랑하는 흥미 길도다
어여쁜 태도 채색남을
자랑하는듯 하고
아름다운 입술 맑은 꽃다운
토함을 쾌히 웃는구려
백의의 잔위에
향취 뜨고
처사의 뜰가에 엄숙한
서리 없이여긴누나
낙목이 소소한
찬 눈속에
짧은 떨기 섬긴 잎이
푸른치마 보전하는구려

又

小泉 金昌泳

燦然獨秀節重陽
那與凡花較短長
守勁曉霑三逕露
凌寒晚發九秋芳
屈翁忠義餘千歲
陶老清風問幾霜
菊酒自來家釀好
香凝少婦採枝裳

찬연히 홀로 빼어나니
중양의 시절이라
어찌 범상한 꽃과 더부러
장단을 비교하리
굳셈을 지켜 새벽에 젖은
삼경길이 이슬이요
찬서움을 능멸하여 늦게
피니 구추에 꽃다움일세
굴원의 충의는
천년에 남있고
도연명 청풍 묻노니
몇서리 이던가
국화주는 자래로
가양이 좋으니
젊은 부인 채취한 치마에
향기 이렸구려

龍山 朴在雨

又

愛爾逍遙帶夕陽　너를 사랑하여 석양 띠고 소요하니
幽香飄拂襲人長　그윽한 향기 나부끼고 떨쳐 사람에게 엄습함이 길도다
未曾春日同誇艷　일찍이 봄날에 같이 고움을 자랑하지 않고
爲惜年光晩養芳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꽃다움 늦게 길렀구려
屈子餐英牧墜露　굴원이 꽃다운 밥 짓으니 떨어진 이슬 서두고
淵明三逕獨凌霜　도연명 삼경길에 홀로 서리 능멸하누나
後生欲效龍山飮　후생이 용산의 마심을 본받고자 하여
醉飽薰中自褰裳　취하고 배불리 훈훈한 가운데 스스로 치마 걷어 올리누나

草堂 鄭炳尹

又

滿開歲歲幾重陽　해마다 난개한 중양이 몇번이던가
籬下叢叢獨秀長　울밑에 떨기 떨기 홀로 빼어나 길도다
綠葉蒼蒼常夏色　창창한 푸른 잎은 항상 여름빛이었
黃花粲粲勝春芳　찬찬한 노란꽃은 봄꽃보다 승하고나
翠枝嫋嫋三秋露　비취 줄기는 삼추 이슬에 간들거리고
金朶斑斑九月霜　금송이는 구월 서리에 아롱거리는구려
採取年年因釀酒　해마다 채취하여 술 빚으니
可憐雪雪濕羅裳　삽삽한 비소리 비단치마 젖음이 가련하도다

又

東籬愛植待重陽　동쪽 울에 사랑하여 심고 중양을 기다렸으니
雨雨風風歲月長　비와 비 바람과 바람 세월 길었도다
寫史淵明全用露　사기쓴 도연명 온전이 이슬을 쓰고
餐英屈子永遺芳　영기로 밥 짓는 굴원은 길이 방명 지쳤구려
百花都是榮春日　일백꽃은 모두 이봄날에 번영했는데
獨汝孤高傲晩霜　홀로 너는 외로이 높아 늦은 서리를 오만하누나
歸去來詩千載尚　귀거래의 시 천년에 숭상하니
何論變染赤楓裳　어찌 변하고 물들어 붉은 단풍치마 논하리오

遠波 朴洙燮

參拜莊陵有感

參拜王陵感想明　왕릉을 참배하니 감상이 밝은데
英靈猶在萬年名　영령이 오히려 만년 이름 있도다
寧山不語當時事　영월산은 당시 일을 말하지 않는데
泠水惟傳故國情　청령포물은 오직 고국의 정을 전하누나
赫赫忠臣登竹帛　혁혁한 충신은 죽백에 오르고
堂堂史筆直丹青　당당한 사관의 붓은 언성이 정직하도다
回思昔日誰無恨　옛날을 회상하니 누가 한이 없으리오
億兆咸稱復位成　억조창생이 다 복위 일을 칭송하네

農隱 金義植

又

越城景色正鮮明　영월성 경색이 점이 선명한데
況有莊陵闡令名　황차 장릉이 있어 어진 영성 들처남이요
追想昔年悲慘事　옛날의 비참한 일을 회상하니
不勝此日痛傷情　오늘날 쓰라리고 슬은 정 이길 수 없구려
青山聳聳星嘲狀　청산은 울창하여 찡그린 형상 들어내고
流水滔滔送咽聲　유수는 도도이 흘러 오열하는 소리 보내도다
幸賴嚴公忠義舉　다행히 엄공의 충의거사 힘 입어
千秋遺恨慰安成　천추에 끼친 한 위안을 이루었네

愼菴 韓龍福

又

慟嘆春秋大義明　春추의 대의 밝음을
千秋志士不汚名　천추의 지사들 이름
蒼松長翠忠臣態　무른솔 장장 푸르니
綠竹常青烈女情　충신의 태도오
青浦江波流嗚咽　푸른 대 항상 푸르니
杜鵑夜月送怨聲　열녀의 심정이로세
嚴翁壯節能收葬　청령포 강물결 목매여
一片丹心竟有成　오열하며 흐르고
　　두견새 밤달에
　　원한의 소리 보내누나
　　엄흥도옹의 장한 충절
　　능히 거두어 장사하니
　　일편단심 마침내
　　이룸이 있었구려

晩翠梁炳朝

又

麟史春秋大義明　기린의 사기 춘추
千秋昭昭六臣名　대의 밝으니
孤樓月夜聞鵑訴　육신의 이름
周聖王朝負姪情　천추에 소소 하도다
陵寢幽愁沈寂寞　외로운 다락 달밤에
江流嗚咽帶寃聲　두견새의 호소 들으니
追思推讓唐虞事　주공의 성인왕조에
骨肉相殘語不成　조카 업은 공이로세
　　능침의 그윽한 근심
　　정막에 잠기고
　　오열하는 강 흐름
　　원통한 소리 띠었도다
　　자리 밀우어 사양한 당우의
　　일 밀우어 생각하니
　　골육이 상잔함은
　　어불성설이구려

碧隱 李寅器

湛軒 權 熙 文

又

昭昭春秋大義明　천추의 대의
難逃寧越謫居名　소소하게 밝으니
縱然逆取君王位　영원에 귀양살이 한
豈可終忘骨肉情　이름 도망키 어렵도다
休說當年悽慘狀　비록 군왕의 자리는
如聞伊日泣嘆聲　역취하였거와
陵前拜退孤燈下　어찌 가히 마침내
百感交生夢不成　골육의 정까지 잊으리오

당년의 처참한 형상
말하지 마오

능앞에 참배하고 물러나
외로운 등불 아래

그날의 눈물 짓고 탄식한
소리 들리는듯 하구려

백감이 얽히어 나와
꿈 이루지 못하누나

小泉 金昌洙

又

抱恨端宗遺蹟明　단종의 품은 한
事終歸正雪汚名　유적이 밝으니
肅然陵下斑衣淚　일은 마침내 바른일로
帛感牕前訴怨情　돌아가 오명을 씻는구려
劍角無言當歲狀　숙연한 능아래
青江不變昔年聲　슬픈 눈물 아롱지고
幸同社友來寧越　황홀한 사당앞에
叙久心懷此日成　원한의 정 하소하도다

검각산은 당세의
형상 말이 없는데

청령강은 옛날의
소리 불변하도다

다행히 사우들과
같이 영월에 와

오랜 심회 펴는것을
이날에 이루었도다.

又

叅拜莊陵感想明
東方不滅六臣名
無窮歲月含哀色
有恨乾坤起怨情
寧越山佳安體魄
青泠水淨送風聲
表揚高節千年史
香火春秋萬歲成

장릉을 참배하니
감상이 밝아
동방에 사육신 이름
없어지지 않으리
무궁한 세월이
슬픈 빛 먹음고
한 있는 건곤에
원통한 정 이네
영월산 아름다우니
체백 안녕하시고
청령포 물 깨끗하여
풍성을 보내누나
높은 절개 천년
사기에 표양하니
춘추의 향화
만세까지 이루리

守軒 姜龍鳳

又

官民一體紀綱明
不畏天欺有秩名
生死六臣尤發憤
恐惶萬姓莫舒情
忍看怪漢浮沈事
何忘前王戒勅聲
今我來思千載後
悽涼景色尙形成

관민일체의 기강이
밝은데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시혜의 이름 있음이여
생사육신이 더욱
발분하였는데
두려워 떠는 백성은
심정 헤아릴 수 없음이라
차마 괴한들의
부침한 일 보니
어찌 전왕의 계칙의
소리를 잊으리오
이제 내가 여기온
천년후에 생각해도
처량한 경색을
오히려 형성하도다

龍山 朴在雨

又

幼承王座正分明 어려서 계승한 왕좌 정히 분명한데
叔奪其尊奈累名 숙부가 그 높은 자리 탈취하니 누명을 어찌하리
世祖聽奸終極恨 세조가 간신말 들은것이 마침내 지극한 한이오
直臣加害發念情 직신을 가해하니 발분한 심정일세
韓邦自古修忠地 우리나라 자고로 충성을 닦은 땅이니
魁黨如今痛歎聲 괴당들 지금에 통탄한 소리구려
天理循環皆有情 천리의 순환이 다 정함이 있으니
公論復位禮中成 복위를 공론하여 예가운데 이루었도다

錦峰 吳龍根

又

參拜莊陵一路明 參拜莊陵一路明 장릉 참배에
焉忘夢寐越鄉名 焉忘夢寐越鄉名 한길이 넓으니
人人物物皆懷恨 人人物物皆懷恨 어찌 꿈속인들
水水山山亦感情 水水山山亦感情 영월고을 이름 잊으리
忍看空樓殘月色 忍看空樓殘月色 사람마다 물건마다
如聞此地杜鵑聲 如聞此地杜鵑聲 다 한을 품고
清泠浦水波濤冷 清泠浦水波濤冷 물마다 산마다
轉輾羈窓夢不成 轉輾羈窓夢不成 또한 정을 느끼도다
차마 빈 다락
쇠잔한 달빛 보니
이 땅에 두견새 소리
들은듯 하구려
청령포 물
파도가 차니
나그네 창에 전전하여
꿈 이루지 못하누나

顧巖 李成熙

又

世祖當年道不明 세조 당년에 도가 밝지 못하였으니
端宗廢位魯山名 단종을 폐위하여 노산으로 이름하도다
禁宮幽閉忘親恨 금궁에 유폐시키니 친족 잊은 한인데
寧越流刑隔世情 영월에 유배되어 세정을 막는구려
靑浦流波含哽咽 청령포 흐른 물결 목메인 오열 먹음고
槐棲哀訴摠寃聲 자규 다락 슲은 하소 모두 원한의 소리로다
嚴公忠義何其壯 엄공의 충의 어찌 그리 장한가
十七昇遐蜀魄成 십칠세에 승하하여 촉백을 이루었도다

三虛吳治滉

又

叅拜莊陵感想明 장릉을 참배하니 감상이 밝으니
表忠生死六臣名 생사육신의 이름을 표충하였도다
靈魂地下無窮恨 영혼 지하에 무궁한 한이오
骨肉人間不忘情 골육은 인간의 잊지 못할 정일세
劒角蒼松千古色 검각산 푸른솔은 천고의 빛이오
鵑樓曉月一寃聲 두견새 다락 새벽달은 한결 원한 소리일세
雖云寶榻君王位 비록 보탑을 군왕의 자리라 이르지만
胡柰同根爭奪成 어찌하여 같은 뿌리 쟁탈을 이루었는가

三南 梁錫鎬

又

翠松 金鎭泓

莊陵叅拜感慽明　장릉을 참배하여 감회 밝으니
年少端宗被陋名　나이 어린 단종 누명을 입으셨구려
忍奪龍床尊位座　차마 용상 존위 자리를 탈취하고
又何寧越謫居情　또 어찌 영월의 귀양살이 정이리오
雲中漏月傷心色　구름 가운데 새어난 달 상심한 빛이요
樓下陰風痛恨聲　다락 아래 음풍은 통한의 소리일세
忠義嚴公無畏死　충의의 엄공 죽음을 두려워함이 없어
千秋稱頌莽王成　왕의 장례 일컬음을 천추에 칭송하노라

又

遠波 朴洙燮

萬疊山中雪月明　만첩 산중 밝은 눈달에
幾呼叔父彙臣名　몇번이나 숙부와 충신의 이름 불렀소이까
蒼松常帶堅貞節　창송은 항상 굳은 정절 띠었고
靑浦猶傳不忍情　청령포는 오히려 불인한 정 전하누나
彰節千年藏碧血　창절 천년에 푸른 벽혈 갈무었고
鵑樓百世吐寃聲　자규의 다락 백세에 원한의 소리 토하는구려
誰忘罔極當時事　누가 망극한 당시사를 잊으리오
灑淚寒江宿望成　찬강에 눈물 뿌려 묵은 소망 이루었소이다

又

落木寒天白日明　낙목한천에 백일이 밝은데
陵前叅拜幾千名　능앞에 참배 몇천명 이던가
誕生王室是天命　왕실에 태어남은 천명인데
謫居青冷非世情　청령포로 귀양감은 세정이 아니로세
萬古忠臣辉竹史　만고의 충신은 죽백의 사기에 빛나고
千秋篡逆不容聲　천추에 찬역 성토를 용납 못하리
周公行事如何也　주공의 행사 어떠하였든가
負姪延朝大業成　조카 업고 조정에 나가 대업을 이루었구려

朴大植

又

寧越莊陵自古成　영월의 장릉은 옛부터 이루어졌는데
靑凉浦水裊哀聲　청량포의 흐르는 물 슬픈소리 타누나
江山不語前朝恨　강과 산은 전조의 한 말하지 않는데
來此人人痛感情　이곳에 온 사람마다 아픈 마음 느껴지네

又

道山朴喜穆

越山渡水訪寧越　산 넘고 물 건너 영월을 찾아
拜謁陵前感自明　능앞에 배알하니 느낌 스스로 밝구려
惟有子規啼夜月　오직 자규 있어 밤달에 우니
湖南客子夢難成　호남의 객자 꿈 이루기 어렵구려

自叙

素志隱居湖水陽　근본 뜻이 호수의 양에 은거함이었는데
如流歲月感慷長　흐름 같은 세월에 감회 길도다
難尋學海今時恨　학해를 찾기 어려움이 금시의 한이요
虛老寒窓昔日光　한창에 헛되이 늙어 옛날 빛이로다
百事無成羞屋漏　백사를 이룸이 없으니 집 새는것이 부끄럽고
一毫不報負庭闈　일호라도 양 친당에 보답하지 못했도다
面皮體髮全衰變　면피와 체발이 온전이 쇠하고 변했는데
孰謂斯人壽考芬　누가 이사람을 오래 수함이 꽃다웁다 이르리오

湖隱 金鍾敏

賀金丈老益壯

湖隱平生善建陽　호은 평생이 양건을 잘 차여
自求多福壽眉長　스스로 구한 많은 복 수미가 길도다
西亭新月凝金氣　서정의 신월은 금기운 엉기고
東閣寒梅吐玉光　동각의 한매는 옥빛을 토하는구려
翰墨名高傳世業　이름 높은 한묵은 전세의 사업이오
漁樵志在愛山堂　뜻이 어초에 있어 산당을 사랑하노매라
爲先誠切人皆仰　위선의 성의 간절하여 사람이 다 앙시하니
餘慶應知百歲芬　알건데 남은 경사 응당 백세에 꽃다우리

農隱 金義植

又

地靈出傑碧溪陽 지령이 빼제안에
湖隱高朋壽命長 호걸을 내니
春滿乾坤宅滿光 호은 고상한 빗
棨局爛柯高士院 명도사 길도다
祥禽翔下吉人堂 봄이 건곤에 가득하니
過恭非禮良由以 집에 빛이 가득하도다
礼執其中百世芳 놀은 신비 후원에
바둑판 도끼잘루 썩고
길인의 당에 상서로운 새
날아 내리두나
과공이 예가 아님은
진실한 연유로써라
진실로 그중을 잡어야
백세에 꽃다움이로다

德菴 梁 因喆

又

仙人峰下碧溪陽 선인봉 아래
任意逍遙歲月長 벽계양에
或訪仁山觀靜態 임의로 소요한
又尋智水飮淸光 세월 길도다
乘閑坐榻明經典 혹 인산을 찾아
自遠來朋滿草堂 고요한 태도 관찰하고
種藥後園心氣養 또 지수를 찾아
紅顔白髮老尤芳 맑은 빛 마시는구리
한가함을 타 탄자리
앉아 경전을 밝히고
멀리에서 온 친구
초당에 가득하구나
후원에 약초 심어
심기를 양성하니
홍안백발이 늙을수록
더욱 꽃다웁구려

晩翠 梁 炳 朝

又

得仁養性碧溪陽　인을 얻고 성정 길은 벽계의 양에
湖隱修齊德潤長　호은의 수신제가 덕이 윤택하고 길도다
歌咏以詩登瑞氣　시로써 노래 읊으니 서기 오르고
健康兼壽滿祥光　건강하고 수를 겸하니 상서빛 가득하구려
傳家孝友明來世　효우를 전가하니 오는 세상 밝고
警俗良風出此堂　풍속을 깨우치는 양풍은 이당에서 나옴이라
溫故知新求道樂　온고지신의 도 구한 낙은
紅顏白髮又芬芳　홍안백발이 또 향기롭도다

春坡 梁炳夏

又

曾學程朱慕紫陽　일찍 정주를 배워 자양을 사모하니
得仁又復壽眉長　인을 얻어 또 다시 수한 눈섭 길도다
紅顏不變依前樣　홍안이 불변하여 그전 모양 의지하였고
白髮雖垂德潤光　비록 백발은 드리웠으나 덕의 빛 윤택하도다
風月多吟模落社　풍월을 많이 읊어 낙사를 모방하고
青雲無意守簪堂　청운에 뜻이 없이 서당집 지켰구려
應知積善今餘慶　응당 알거니 선을 쌓은 이제 경사 넘어
寶樹芝蘭自繼芳　보수와 지란의 자손 스스로 꽃다움 계승하누나

小泉 金昌泳

又

心身善養建春陽　심신을 잘 양성하여 춘양을 세우니
得壽由仁氣亦長　인으로 연유하여 수를 얻고 기운 또한 길도다
社友祝詩瓊滿軸　사우의 축하시 구슬이 풍축에 가득하고
鄕隣賀禮益生光　향인의 하례 더욱 빛이 나는구려
夫和婦順相承德　부화 부순하여 서로 덕을 이으고
子孝孫恭更潤堂　자효 손공하여 다시 당이 윤택하도다
耕讀多年無暇日　다년 경독에 겨를 날이 없으니
老當益壯共稱芳　노당익장하니 다같이 꽃다움 칭찬이로다

錦峰 吳龍根

又

身猶康健意陽陽　몸은 오히려 건강하고 뜻은 양양한데
精讀詩書理遠長　시서를 정독하니 이치 밀고 길도다
行樂人間俱五福　인간의 행락은 오복을 갖추고
瑞輝天上應三光　천상의 상서빛은 삼광을 응했구려
三千甲子傳方朔　삼천갑자는 동방삭에서 전하고
近百年翁在此堂　근백년 늙은이 이당에 있도다
願得來來無恙世　원컨데 내내 무양한 세상 얻어
考終之訖一如芳　고종으로 마침이 한결같이 꽃다우소서

龍山 朴在雨

又

閱歲風霜碧水陽
自天稟壽百年長
昔時嗜酒今單酌
近日瓊章漸露光
白髮短笻猶越嶺
青春孝道不離堂
隱居一世青松谷
謹賀康寧老益芳

열세 풍상 겪어온
백수의 양에
하늘로부터 받은 수
긴 백년이로다
옛날엔 술을 즐겼는데
지금은 단작이오
근일에는 구슬같은 글이
점점 빛이 들어나니
백발에 단공으로
오히려 고개를 넘고
청춘에 효도는
친당을 떠나지 않았도다
한세상 청송골에
은거하니
삼가 강령하여 늙어
더욱 꽃다움을 하례합니다

草堂 鄭炳尹

又

湖翁壽福正正陽
況復延年百歲長
卓上書聲猶少壯
顔中和色發春光
鍛身日課增康力
詩律時吟進學堂
恭祝餘生無限樂
龜姿鶴髮永相芳

호은 노인 수복이
정히 양양한데
하물며 다시 연장한 해
백세에 길음이로다
탁자위의 글 읽는 소리
오히려 젊고 웅장하고
얼굴 가운데 화색은
봄빛이 발생하는구려
몸 단련을 일과로 하니
건강한 힘 더하고
시율을 때로 읊어
진학하는 당이로세
공손히 남은 여생
무한의 낙을 비오니
거북 자태 학의 털
길이 서로 꽃다우소서

三南 梁錫鎬

又

春秋閱歲九三陽 봄 가을 헤지남이 구십삼년 별이라
天賦康寧景福長 하늘이 준 강녕 경복이 길구려
不杖步行隨月色 지팡이 안짚고 보형으로 달빛 따르고
細書能讀照燈光 세서를 능히 등불빛 비친데 읽는구려
間携美酒青山谷 간간이 좋은 술 청산골에 이끌고
或作瓊章白玉堂 혹 구슬같은 글 백옥당에서 지어요
湖隱叅情清秀像 다정한 호은 청수한 형상에
寬柔好德是遺芳 너그럽고 부드러워 덕을 좋아함이 꽃다움 끼침이로다

翠松 金鎭泓

又

九三年送白華陽 구십삼년을 백화양에서 보내니
仁德由來壽命長 인덕을 말미아마 오니 수명이 길도다
登路猶無依杖力 길에 오름에 오히려 지팡이의 힘 의지함 없고
讀書或不用燈光 독서에 혹 등잔불 쓰지 않도다
時供霞酒招良友 때로 자하주 작만하여 어진벗 불으고
日賦瓊章會草堂 날로 구슬글 지어 초당에 모이누나
風彩宛然仙鶴像 풍채는 와연히 선학의 형상이오
清閒稟性一生荃 청한한 품성이 일평생 꽃다웁도다

梅山 金鎭泳

又

遠波 朴洙燮

滄然氣養法華陽　초연지기를 법화산 양에 기르니
近百年來德業長　근백년 오는 동안 덕업이 길도다
公道髮邊雖白色　공도로 귀밑가에 비록 흰빛이로되
仙緣顔上帶清光　신선한 인연은 얼굴위에 맑은 빛 띠었도다
吟同良友詩多軸　좋은 벗과 함께 읊으니 풍죽에 시 많고
愛甚稱孫笑滿堂　어린손자 심하게 사랑하니 당에 웃음 가득하구려
五福兼全何所望　오복이 겸전하니 무엇을 소망하리오
南州復見善遺芳　남쪽 고을에 다시 좋게 유방함을 보누나

又

稀貴安過百歲陽 희귀하게 백세의 양을 안과하니
長鄕一邑最年長 장수고을 일읍에서 가장 년장이로다
東方朔老三千甲 동방삭은 삼천갑을 늙었으니
南極星光照此堂 남극의 별빛이 이당에 비쳤구려

歲暮

莊蕤光陰不息流　덧없는 세월 쉬지 않고 흐르비
徒添白髮日相遊　부질없이 백발만 더하여 날마다 서로 노니네
衝寒岸柳垂玉溪畔　한기를 부디친 언덕버들 시냇가에 드리웠고
經雪盆梅吐畫樓節退　눈을 겪은 분매화꽃 그림 다락에 토하누나
玄帝將離知時節　현제 장차 떠나니 시절 알아 물러감이오
靑皇來到待春牧　청황이 내도하니 봄을 기다려 걷우리
鄕隣尙友曾爲約　고향 이웃 고상한 벗 일직 언약하니
歲暮詩題韻亦愁　세모 시제 운자 또한 근심이로세

湖隱 金鍾敏

又

光陰如水渺然流　세월은 물같이 묘연이 흐르니
歲暮長卅做雅遊　해저문 장수고을 맑은 놀이 하누나
迎新瑞雪覆蠶樓　새해 맞을 상서눈 서당 다락 덮는구려
送舊寒風搖講樹　옛해 보낼 찬바람 강당나무 흔들고
白駒過隙人誰禦　흰 망아지 틈새 지남을 사람 누가 막으리
黑帝行裝勢莫收　흑제의 행장 떠난 형세 거둘수 없도다
國土雨分年又去　양분된 국토에 한해 또 가니
失鄕民族不勝愁　실향의 민족들 근심 이기지 못하는구려

愼菴 韓龍福

晩翠 梁炳朝

又

天時人事轉交流　천시와 인사가 돌고 돌아 교류하니
回憶前年汗漫遊　전년을 도리켜 생각하니 한만하게 놀았구려
雪朶如翻千片蝶　눈꽃송이 번득임이 일천마리 나비 같고
星光散照一高樓　별빛 흐터져 하나의 높은 다락 비치누나
偷閒題軸幽懷叙　한가함 틈 내어 풍축에 쓰니 그윽한 회포펴고
乘暇看書放意收　겨를을 타 책을 보니 방만한 뜻 거두네
虛送青燈令已老　청등을 허송하여 이제 이미 늙었는데
妻供旨酒忘吾愁　아내가 좋은술 바치니 나의 근심 잊게하누나

又

雪杜 李周鎬

歲色如紗似水流　비단같이 얇은 햇빛 물같이 흐르니
孤燈客館莫堪遊　외로운 등 객관에 견디어 놀수 없구려
嫌寒野老重遮牖　차거움을 혐의한 들노린 창문 거듭 가리고
勤讀書生不下樓　부지런히 읽는 서생 다락 내려오지 않는구려
氷塞長河渾陸變　긴 강이 얼음으로 막히니 혼연이 육지로 변하고
風驅萬里蔽雲收　만리의 바람 모니 가린 구름 거치는구려
世間榮辱惟天在　세간의 영욕이 오직 하늘에 있으니
莫使人間半夜愁　인간으로 하여금 반야의 근심 말게 하오

又

甲戌年光似水流　갑술년 연광이 물같이 흐르니
忘年詩友酒中遊　나이를 잊은 시우들 술 가운데 노누나
萬難克服來今世　만난을 극복하여 이세상에 왔고
千弊維新會古樓　천가지 폐단을 유신하여 옛 다락에 모이도다
梅信傳時情不厭　매화 소식 전할 때 정 싫지 않고
雪花滿處興難收　눈꽃 가득한 곳에 흥 거두기 어렵구려
山川風景隨時變　산천풍경이 때를 따라 변함이라
步出城門可滌愁　성문을 걸어나오니 근심을 가히 씻는구려

春坡 梁炳夏

又

荏苒光陰似水流　덧없는 광음이 물같이 흐르니
悠悠往事夢中遊　유유한 왕사 꿈가운데 놀았도다
旅窓尤切歸鄉院　객창에 고향 후원 돌아갈 생각 더욱 간절하고
征婦時望遠戍樓　출정한 아내 때로 먼 수자리 다락 망견하누나
東閣雪中梅欲吐　동각의 설중매 토하고자 하누나
南原陌上柳將收　남원 인덕의 버들 장차 기운 거두리
吾邦統一今無進　우리나라 통일 이제 진척 없으니
半壁參商不盡愁　반백에 삼성상성이라 근심 다하지 않는구려

小泉 金昌泳

又

光陰荏苒逝如流 광음은 덧없이 유수같이 가니
終夜無端憶昔遊 밤 새도록 무단이 옛놀이 생각키누나
點點雪花粧墜樹 점점한 눈꽃들 나무 장식하고
瞳瞳月燭映山樓 밝고 밝은 달 촛불 산다락을 비치누나
人情冷煖稀同化 차고 더운 인정 동화되기 드물고
世事滄桑苦未收 상전벽해의 세상사 거두지 못함이 괴롭도다
假使江風能任意 가사 강바람을 능히 임의로 한다고 보면
天涯吹送萬千愁 만천의 근심을 하늘갈로 불어 보내리

澹軒 權 熙 文

又

歲月無情不息流 세월이 무정하여 쉬지 않고 흐르는데
回思一歲悔多遊 한해를 도리켜 생각하니 놀이 많았음을 후회로세
閱來聖傳難爲體 성인의 글 열람하여 오니 몸 받기 어렵고
老去詩情自詠樓 늙어가는 시정은 스스로 다락에 읊는구려
除夜鍾聲災退遠 제야의 종소리 재앙 멀리 물리가고
新年賀語福來收 새해 하례의 말 복을 거두어 온다나
平生所事耕而讀 평생에 일한 바는 갈고 읽음이라
有酒人間那有愁 술 있는 인간 무슨 근심 있으리오

守軒 姜 龍 鳳

又

玉漏聲中此歲流　옥루수 소리 가운데 이해가 흘러든데
嚴冬長夜愧虛遊　엄동의 긴밤 헛되이 글앉음이 부끄럽도다
春光近到梅香院　춘광은 매화향기 동산 가끼이 이르고
月色偏明雪盖樓　월색은 편벽되이 눈덮인 다락에 밝구려
時逢寒酷休諸務　때는 혹한을 만나니 모든 일은 쉬고
自嘆高齡又一牧　고령에 또 한살 걷둠을 자탄하누나
幸保身安當臘暮　다행히 몸 편함을 안보하여 섯달 그믐 당하니
更迎新正願無愁　다시 신정 맞이하여 근심 없기를 원하누나

錦峰 吳龍根

又

八十年光似水流　팔십년 세월이 물같이 흘르니
烹魚暖酒忘年遊　고기 삶고 술 데워 해를 잊고 노닐누나
朔風不襲溫袍宅　북풍도 옷 따뜻한 집엔 엄습하지 못하는데
臘雪何多孤梧樓　설눈은 어찌 외로운 버게 다락에 많은가
誰惜寸陰功進就　누가 촌음을 아껴 공부 진취하였든가
從加一齒嘆難收　따라서 한살 더 하니 거두기 어려움 탄식일세
青春歲月如夢過　청춘세월이 꿈 같이 지나가니
其奈窮廬暮日愁　그 궁한 집에 저문날 근심을 어찌하리

龍山 朴在雨

又

如何歲月似川流　어찌하여 세월이 냇물같이 흐르는가
可笑無緣日取遊　가소로이 연유없이 날마다 놀이만 취하네
念祖豈忘先祖國　조상을 생각하니 어찌 조국을 잊으며
愛鄉應夢故鄉樓　고향을 사랑하니 응당 고향다락 꿈꾸누나
雪晴白屋寒風動　눈 개인 백옥에 찬 바람 동하고
日照青山淡靄收　해 비친 청산에 맑은 그을 걷치는구려
從此年光新換舊　이로 좇아 연광이 옛해가 새해로 바꾸니
願言消盡古今愁　말하노니 고금의 근심 소진함을 원하노라

春坡 李起郁

又

兩鬢星星歲月流　양빈 星星 세월이 흘렀으니
一生回想夢中遊　일생을 회상하니 꿈속에 놀았구려
少時放浪江山客　젊어서 강산으로 방랑한 손이
老去閒登石澗樓　늙어감에 간간이 석간의 다락 오르네
兒起看書銀燭下　아이는 일어나 은촛불아래 책을 보고
妻嘗釀酒玉甁收　아내는 빚은 술 맛보아 옥병에 담는구려
循環天道無窮裏　순환하는 천도 무궁한 속에
齒上加齡是可愁　나이에 나이를 더하니 이것이 가히 근심일세

草堂 鄭炳尹

又

顧巖 李成熙

乾坤造化歲華流　건곤의 조화에 햇빛이 흘러니
送舊迎新卜日遊　송구영신에 날 택하여 놀도다
詩酒琴書勞北舍　시주와 금서는 북녘집의 수고요
竹枝歌唱任青樓　대나무 가지의 노래는 청루에 맡김이로다
淡粧梅蘂微香放　맑게 단장한 매화꽃술 가는 향기 머치고
蒼翠松檜律呂收　푸르고 푸른 솔과 회는 율려를 거두누나
此世文物時益變　이세상 문물이 때로 더욱 변하니
晩年白髮漸多愁　만년의 백발 점점 많아짐이 근심이로다

又

梅山 金鎭泳

一線陽回瑞氣流　한줄기 양이 돌아와 서기 흐르니
不遐南北共相遊　머지 않어 남북이 같이 서로 놀으리
稱童整脚馳冰板　어린아이 다리 세워 빙판을 달리고
旅客思鄉上戍樓　나그네 고향생각에 수루에 오르네
梅發東園幽馥動　동쪽 동산에 매화 피니 그윽한 향기 동하고
雪晴萬壑黑雲收　눈 개인 만학에 먹구름 걷치누나
光陰不待吾人老　광음이 기다리지 않아 우리들 늙어있으니
會設吟觴解積愁　읊고 마시는 자리 마련하여 쌓인 근심 푸세나

又

朴大植

日月無常一歲流　일월이 무상하여 한해가 흐르니
別無所得等閒遊　별로 소득없이 등한이 놀았구려
有時入浴靑龍沼　때 있어 청룡소에 들어가 목욕하고
夢或飛登白鶴樓　꿈에 혹 백학루에 날아 오르니
虛送幼年雖失祿　어려서 허송하니 녹을 비록 잃었으나
晩從西疇幸有牧　늦게 서쪽 밭으로부터 다행히 거둠 있도다
元來富貴非我事　원래 부귀는 나의 일 아니라
吹送寒風萬端愁　찬 바람에 만단의 근심 불어 보내리

又

愚東 吳秉權

歲色於焉似水流　햇빛은 어언간 물같이 흐르니
悔多頻作酒盃遊　자주 술잔 들어 놀든것이 후회 많도다
人傳萬里鄕音簡　사람은 만리고향에 서신 전하는데
鷄報三更曉月樓　닭은 삼경을 새벽달 다락에 알리누나
善行嘉言當固守　선행과 가언은 마땅히 고수하고
虛榮妄想棄無收　허영과 망상은 버리고 거두지 마오
若過幾日明春到　만약 몇일을 지내면 명춘에 이르니
所願驅除萬斛愁　소원은 만곡의 근심을 몰아 제함이로세

新春

農隱 金義植

新春雅會友情深　신춘의 아회 우정이 깊으니
相勸巡盃舊誼尋　서로 권하여 잔 돌리니 옛정을 찾는도다
梅笑光陽香暖日　매화는 광양에 피어 날 따뜻하니 향기나고
柳含和氣好生心　버들은 화기 머금어 좋게 맘이 생긴구려
漁夫荷竹回江岸　어부는 낚시대 메고 강언덕을 돌고
樵笛斜陽下苗林　초동 피리 사양에 산골 숲에 내리누나
老去最難分手事　늙어가며 가장 어려움이 분수하는 일이라
何嫌歸路夕陽侵　어찌 돌아간 길 석양 침노를 혐의하리오

又

慎菴 韓龍福

奄當新歲友情深　문득 새해 당하니 우정이 깊이
渡水踰山此會尋　물 건너 산 넘어서 이모임 찾었도다
對鏡應知增老態　거울을 대하니 응당 노태 더함을 알고
添齡尤切愛鄉心　나이를 더하니 더욱 애향심이 간절하구려
福鵑鳴在杏壇樹　복부엉이 행단 나무에 앉아 울고
吉鵲報來蟹舍林　길한 까치 서당집 숲에 와 아뢰누나
惟是良辰希望事　오직 이좋은 때 바라는 일은
同和南北莫相侵　남북이 같이 화합하여 서로 침노 하지마으

又

陰衰陽盛化機深　음은 쇠하고 양이 성한 조화의 기미 깊으니
萬態千形自樂尋　만태 천형이 스스로 즐거움 찾는구려
田老每占農事夢　늙은 농부는 매양 농사꿈 점치고
村童爭起學文心　마을아이 다투어 글 배울 마음이는구려
東風浩蕩吹山野　동풍이 호탕하여 산과 들에 부니
花信叮嚀動苑林　꽃소식 정영 뒷동산 숲에 동하누나
飛必舍蘆歸北雁　날을 때 반드시 갈대 먹음은 북으로 돌아가는 기러기
長長空路少無侵　길고 긴 공중길 조금도 침노 없으니

春坡 梁炳夏

又

解凍東風煖日深　얼음 녹은 동풍은 따뜻함이 날로 깊으니
離南雁陣北天尋　남을 떠나는 기러기떼 북쪽하늘 찾는구려
穴中冬蟄才驚醒　굴속의 동면한 동물 바야흐로 꿈 깨고
溪畔垂楊已拆心　시냇가 수양버들 이미 마음이 터졌도다
綠色倍生修竹院　녹색은 수죽원에 배로 생하고
淡容益潤玉梅林　맑은 용모 더욱 옥매화숲에 윤택하누나
循環四節從公道　사철의 순환은 공도를 따름이니
回泰乾坤冷不侵　태화에 돌아온 건곤 냉기 침노하지 않도다

裕堂 韓甲洙

又

小泉 金昌泳

新春景色漸佳深　신춘의 경색이 점점 아름답고 깊으니
群物熙熙浩氣尋　모든 생물이 화락하여 활기를 찾는구려
北雁欲歸千里夢　북녘 기러기 돌아 가고자 천리의 꿈이요
東君布德萬機心　동군이 덕을 베푼 만기의 마음일세
草香微動輕風岸　풀향기 가벼운 바람언덕에 감돌게 동하고
萌意紛忙過雨林　움트고자 비 지나간 숲에 분망하구나
惟願今年叢水足　오직 원하노니 금년 농사 물 넉넉하여
全無四野旱災侵　사방에 온전히 한재 침노 없응조서

又

錦峰 吳龍根

習習東風暖日深　슬슬 부는 동풍에 따뜻할 날 길으니
經冬草木各生尋　겨울 지낸 초목 각각 삶을 찾는고야
庭梅欲吐清香朶　뜰매화 맑은 향기 송이 토하고자 하는데
岸柳方開碧眼心　언덕버들 바야흐로 벽안의 마음 열었도다
雁陣含蘆歸北海　갈대 먹음은 기러기 떼 북해로 돌아가고
禽聲得意出東林　뜻 얻은 새 소리 동쪽 숲에 나누나
遠山凝帶青嵐色　먼산에 골은 노을빛 엉키어 띠었으니
漸盛物華無外侵　점점 성한 물화에 외침이 없도다

又

四山草木發芽深　사방산 초목은 움 틈이 깊으니
於是人間化氣尋　이에 인간이 조화의 기운 찾는고야
園節竹枝凌雪氣　절개 굳은 대나무 눈을 능멸하는 기운이오
向陽梅樹欲花心　별을 향한 매화꽃 피고자 하는 마음일세
南田美菜皆香味　남쪽 밭에 아름다운 나물 다 향기로운 맛이오
北苗長松獨秀林　북쪽 묘뿌리의 장송 홀로 숲에 빼어났도다
日暖風和雲影散　날 따뜻하고 바람 화하니 구름 그림자 흩터지고
吾儕觴詠月華侵　우리들의 마시고 읊음에 밝은 달빛 침노하누나

守軒 姜龍鳳

又

送舊迎新萬慮深　옛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에 일만 생각이 깊으니
書叅未熟更何尋　글에 미숙함이 많으나 다시 어찌 찾으리오
由來事業皆虛夢　유래의 사업은 모두 허망한 꿈이오
衰去窮廬覺誤心　쇠하여 가는 궁한 집에 그른 마음 깨닫는구려
梅早抽檀香吐砌　매화는 일찍 등걸에 나와 섬뜰에 향기 토하고
雪猶飄院白成林　눈은 오히려 후원에 나부껴 흰 숲 이루었도다
東風獨坐惟絃誦　동풍에 홀로 앉아 오직 현송하니
其奈身邊物慾侵　그 신변에 물욕이 침노함을 어찌하리

龍山 朴在雨

又

雪消山谷白雲深 눈 녹은 산골자기 흰 구름 깊으니
遊子探芳勝地尋 노닌 객 꽃다움 탐하여 승지 찾는구려
綠色最先楊柳岸 녹색은 양류의 언덕에 가장 먼저 나고
紅光將促杏花心 붉은 빛 장차 살구꽃 심을 재촉하누나
暖風吹到蓬萬岸 따뜻한 바람 쑥머발에 이르고
細雨沾來草木林 가는비 초목의 숲 적셔 온누구려
節屆春和多詠日 시절이 봄 화한 때 이으니 읊을 날 많은데
願無吾會世囂侵 우리모임 세상 시끄럼 침노없길 원하노라

草堂 鄭炳尹

又

歡迎東君德化深 동군의 덕화 길음을 환영하니
循環公道定期尋 순환한 공도 정한 기약 찾았도다
池邊細柳生金眼 못가의 간는 버들 황금눈 뜨고
窓下芳梅吐玉心 창 아래 꽃다운 매화 옥같은 마음 토하누나
園竹清風來寒榻 후원의 대나무 맑은 바람 책상 탑에 으고
良宵明月照泉林 좋은 밤 밝은 달 임천에 비치누나
新年祥瑞祈豐稔 새해의 상서 풍년을 비노니
國泰民安禍不侵 국태민안하고 재앙 침노하지 마오

翠松 金鎭泓

又

送舊迎新化日深
得權東帝正期尋
韶光先着柳絲眼
花信因看梅萼心
山鳥知時營巢作樹
崩芽不遠綠粧林
雖云節氣溫和好
雨雪紛紛冷或侵

엣을 보내고 새해를
맞어 조화 날로 깊으니
권리 얻은 동군
정기에 찾엿구려
봄빛은 민저
벌널눈에 이르고
꽃소식은 인하여
매화꽃심에 보두나
산새도 때를 알어
나무에 둥지 짓고
새싹은 머지 않어 풀게
숲을 단장하리로다
비록 절기가 온화하여
좋다 이르나
우설이 분분하여
혹 넹기 침노하는구려

松山 梁炳文

又

十分春景一分深
忽覺天時不變尋
浩蕩東風生潤物
回陽青帝布仁心
淡香早動寒梅岸
金色先粧老柳林
齊祝今年多雨水
莫將大地旱災侵

십분 봄경치
일분 깊으니
문득 천시 변치 않고
찾음 깨닫도다
호탕한 동풍은
생물을 윤택하게 하고
양을 돌린 청제는
인심을 베푸는구려
맑은 향기 이짝이
찬매화 언덕에 동하고
금빛은 먼저 늙은 버들
숲을 단장하누나
일제이 금년엔
우수 많기를 축원하오니
대지에 장차 한재
침노 말게 하소서

三南 梁錫鎬

三虛吳治湟

又

日暖風和氣化深　일난풍화의 기운 조화의 기운 깊으니
賞春遊客好相尋　봄 구경하여 노니는 객 좋게 서로 찾는구려
構巢晨鵲鳴南樹　집을 짓는 새벽 까치 남쪽 나무에 울고
成陣歸鴻向北心　떼를 지어 돌아가는 기러기 북을 향한 마음일세
雪盡山光濃透窓　눈 다한 산빛은 물속아 구렁에 사무치고
雨餘韶色始生林　비뒤 봄빛은 비로소 숲에 나는구려
柳梅爭先春真佳節　버들매화 선두 다투어 참으로 가절인데
天道循環孰敢侵　천도순환을 누가 감히 침노하리오

遠波

又

春採登盤味轉深　봄나물 깨어 소반에 오르니 맛이 굴러 깊도다
農家食力不他尋　농간은 힘을 먹고 달리 찾지 않네
從看北海歸鴻跡　따라서 북해에 돌아간 기러기 자취 보고
更起南川臥柳心　다시 남쪽 시내 누은 버들 마음 일으킨누나
凍解男耕千頃土　어름 풀리니 남자들 일천이랑을 갈고
雲開僧出萬松林　구름 열리니 중이 일만송림을 나온누나
萬殊一理誰能識　일만 다른 조응기 한 이치임을 누가 능히 알까
公道循環焉敢侵　공도 순환을 어찌 감히 침노하리

朴洙燮

天下同春

時惟三月暮春天 때는 오직 삼월 저문 봄 하늘인데
爲訪名區到此邊 명구를 찾기 위하여 이 갓에 이르도다
飛鳥高低尋遠樹 높고 낮게 날으는 새 먼 나무를 찾고
浮雲斷續合炊煙 끊겼다 이어진 뜬구름 밤짓는 연기와 합친두나
候鴻歸塞宜當事 철기러기 변새로 돌아가니 의당한 일이요
江燕歸巢是好緣 강남제비 둥지에 돌아오니 이것 좋은 인연이로세
無語殘花餘馥在 말없는 쇠잔한 꽃 향기 남어 있으니
綠陰消息有黃鶯傳 녹음 소식 꾀꼬리 있어 전하는구려

慎菴 韓龍福

又

青皇宣德暮春天 청황이 덕을 베푸는 모춘의 하늘에
物物繁榮四海邊 물물이 사해변에 번영하도다
萬點桃花飄白雪 만점의 도화 흰눈이 나부낀데
千絲楊柳拂蒼煙 일천실 양류 푸른연기 떨치누나
林間布穀催農業 숲사이의 뻐꾸기는 농사일 재촉하고
堂上玄禽守舊緣 당위의 제비 옛인연 지킨고야
聞道東西聯合國 이른말 들으니 동서 연합국이
尖端科學好相傳 첨단과학을 좋게 서로 전하는구려

晩翠 梁炳朝

又

雲散千峰近
萬千景色無邊
詩心取靜籌留月
春意才深柳帶煙
燕舞頡頏芳草岸
鶯歌斷續綠楊緣
不寒不熱春將暮
君我舍盃抵夜傳

일천 봉우리 구름
흐터진 곤 오천에
만천의 경색이
호광하여 갓이 없구려
시심은 고요함 취하니
처마에 달 머물고
봄뜻은 바야흐로 깊으니
버들이 연기 띠었네
제비 춤 오르내리는
방초 언덕이요
꾀꼬리 노래 끊겼다
이어지는 녹양 인연이로세
차지도 않고 덥지 않은
봄 장차 지므니
그대와 나 먹음은 술잔
밤새도록 진하세

春坡 梁炳夏

又

宇宙無私共一天
均霑雨露有形邊
萬邦日暖消寒雪
四海風和起瑞煙
善政國家增活氣
通商世界結眞緣
欣欣草木方暢節
柳綠花紅彩畫傳

우주는 무사하여
한 하늘에 같이하고
비 이슬 고루 적시니
형용이 있도다
만방이 날 따뜻하니
찬눈이 녹고
사해에 바람 화하니
상서 연기 이는구려
선정한 국가에
활기 더하고
세계와 통상으로
맺었도다
기뻐하는 초목
바야흐로 화창한 시절
버들 푸르고 꽃 붉어
채색 그림 진하구나

小泉 金昌泳

又

物物乘時共樂天　물물이 때를 타 같이 즐긴는 한울에
蜂歌蝶舞興無邊　벌 노래 나비 춤 흥이 갓이 없노매라
花間曳屐紅粘袍　꽃사이에 나막신끄니 붉음이 도로에 묻고
柳下開場翠帶煙　버들아래 장소를 여니 푸른 연기 띠었구려
何處好風來作化　어느곳에 좋은 바람이 와서 변화 짓는가
高筵偎友會遵緣　노표은 자리 친한 벗 인연따라 모이도다
四隣恍惚春如市　사린이 황홀하여 봄이 저자 같으니
畫幅移形願遠傳　화폭에 형용 옮겨 멀리 전함을 원하네

龍山 朴在雨

又

嚴冬如昨百花天　엄동이 어제같은데 백화의 한울이라
景倍他辰逸興邊　경치 다른 때 일흥이 배로 더한는 갓이로다
草木群生歡歲月　초목의 군생들 즐거운 세월이오
江山活畫好風煙　강산의 산 그림에 좋은 풍연 이로세
私情反覆波瀾裡　사사로운 정은 파란속에 반복되고
公理循環代謝緣　대신함고 사례하는 인연의 순환은 공정한 이치
於是萬和方暢日　이에 만화방창의 날인데
聲聲啼鳥又春傳　소리 소리 우는 새 또 봄을 전하네

愚東 吳秉權

又

德菴 梁 因喆

春色方濃近午天　봄빛이 바야흐로 무르익은 근오천에
少年行樂興無邊　소년 행락 흥이 갓이 없도다
桃花灼灼含朝露　도화꽃 곱고 고와 아침 이슬 먹음고
楊柳靑靑鎖暮煙　양류는 푸르고 푸르러 저문 연기 잠겼구려

又

三虛 吳 治滉

萬和方暢海東天　만화방창의 해동 하늘에
白白紅紅布四邊　희고 붉은빛 사방갓에 퍼졌도다
日暖梅園香自動　날 따뜻한 매화동산 향기 스스로 동하는데
雨晴堤柳拂蒼煙　비 개인 언덕버들 푸른연기 떨치누나

祝襄氏始祖祠堂落成韻

翼然祠宇到今成 나는듯한 사우 이제에 이르러 낙성하니
崇慕精神自此生 숭모의 정신 이로부터 나는고야
開國元勳遺蔭德 개국 원훈은 음덕을 끼쳤고
浦堂令裔振名聲 당에 가득한 어진 후손 명성을 떨친는구려
兄山皓月千秋鑑 형산의 밝은 달 천추의 거울이오
鰲峀清風百世情 오수의 맑은 바람 백세의 정일세
冠儒畢至獻心誠 제신듯 한 영령 오르내릴속에
如在英靈升降裡 의관선비 모두 일러 심성을 드리도다

愼菴 韓龍福

又

巍然祠宇告功成 외연이 굳은 사우 낙성을 고하니
旭日登窓瑞氣生 욱일이 창에 오르니 서기나는구나
明德多年皆有頌 많은 해 덕을 밝히니 모두 칭송이 있고
施仁大歲豈無聲 오랜 세월 인을 베푸니 어찌 소리 없으리오
兄江月白千秋色 형강의 달 희니 천추의 빛이요
鰲峀風清太古情 오수의 바람 맑으니 태고의 정일세
香燭床頭籩豆潔 향촉 상머리에는 변두 정결하고
衣冠濟濟盡其誠 제제한 의관 그 정성 다하는구려

晩翠 梁炳朝

又

祠宇經營告落成 경영한 사우 낙성을 고하니
先賢遺跡更昭生 선현의 끼친 자취 다시 밝게 소생하누나
忠君事業千秋史 임금에게 충성한 사업 천추의 사기오
開國功臣萬歲聲 개국공신 만세의 명성이로다
一卓靈魂長妥享 한 탁자의 영혼 길이 편안이 흠향할것이오
六和花樹共根情 육화의 화수는 같은 뿌리의 정이로세
彬彬多士同參賀 빈빈한 다사 동참하여 축하하니
赫赫雲仍盡慤誠 혁혁한 자손 정성을 다하는구려

春坡 梁炳夏

又

祠宇巍然告落成 우뚝한 사당이 낙성을 고하니
先賢遺躅感懷生 선현의 끼친 자취 감회가 생긴누나
長於加里施仁德 가리촌에 생장하여 어진 덕 베풀고
佐命鷄林善政聲 계림의 명을 도운 선정의 명성이로세
名祖殊勳千載赫 명조의 수훈 천재에 혁혁하고
肖孫營事積年情 어진 후손 경영한 일 적년의 정이로다
雲仍諸士齊行祀 많은 후손 고을 선비 줄 지어 향사하니
紳笏靑袍盡禮成 도포에 띠와 홀 갖추어 예와 정성 다 하는구려

小泉 金昌泳

又

高門祠宇祀完成
歷代功臣繼繼生
積善蔭歸賢後裔
盡忠名赫頌家聲
貽謨百世惟仁敬
奉祀千秋致慤情
萬事人間難遂意
每思俯仰獻微誠

높은 가문 사우의 완성을 축하하니
역대에 공신이 계속해서 나오는구려
적선한 음덕 어진 후손에게 돌아가고
충성 다한 빛난 이름 가성을 송축하네
백세에 끼친 꾀 오직 인경인데
천추의 봉사 정성의 정 다 바치누나
일만사 인간에 뜻 이루기 어려우니
매양 자리글에 가는 정성 드림을 생각하도다

雪松 李周鎬

又

經營多歲廟堂成
一夕襄門瑞氣生
明活峰頭明月色
兄山江口碧波聲
先賢固守三綱義
後學無違六禮情
太古清風吹景德
後孫今日奉香誠

여러해 경영한 사당 낙성하니
배씨 가문에 일석에 서기 나누나
명활봉두에 명월색이오
형산강구에 벽파성이로세
선현은 삼강의 의리 굳게 지켰고
후학은 육례의 정 어김이 없도다
태고의 청풍 경덕사에 부니
후손들 오늘날 정성으로 향화 받드누나

草堂 鄭炳尹

又

景祠屹立告功成
棟宇玲瓏瑞氣生
赫赫簪纓傳世譽
綿綿華閥繼家聲
入齋每感遺芬蔭德
瞻額豈忘追慕情
崇祖惇宗明道理
千秋不絶裔孫誠

높이 솟은 경덕사
낙성을 고하니
사당집 영롱하여
상서기운 생기누나
혁혁한 벼슬
대대로 이은 명예인데
면면이 빛난 물벌
가업을 이어오도다
재실에 들면 머양
음덕이 끼침을 느끼니
액호를 바라보면 어찌
추모의 정 잊으리오
조상 숭배하고 종족이
돈목하여 도리를 밝히니
천추에 후손의 정성
끊이지 않으리라

翌松 金鎭泓

又

景德祠營告落成
六和門屹瑞光生
鷄林華閥鳴今世
槿域簪纓繼古聲
入齋每想遺思情
瞻額豈忘追慕志
崇祖惇宗後裔誠

경영한 경덕사
낙성을 고하여
육화의 문 높으니
서광이 생기는구려
계림의 빛난 문벌
금세에 울리니
근역의 높은 벼슬
옛소리로 이어지누나
액호를 첨망하면
어찌 추모의 뜻 잊으리
재실에 들면 머양
은정 끼침을 생각하리
천추에 정한 제사 드림
끊이지 않으니
조상숭배 종족돈목함이
후손의 정성이로다

三虛 吳治滉

又

十載經營此宇成 십년 경영하여 이사당 이루니
告功是日彩光生 낙성을 고한 이날 채색빛이 나누나
門惟六派同和力 가문은 오직 육파 자손 동화한 힘이오
業則三韓大振聲 사업은 삼한에 크게 떨친 소리일세
赫赫照來今耳目 혁혁하게 비쳐 온 오늘의 이목이오
兢兢承待後人情 조심 조심 계승하여 기다린 후인의 심정일세
若言貴族崇先意 만약 귀족 선조숭배 하는 뜻을 말한다면
恨未當年記盡誠 당년 정성 다함을 기록 하지 못함이 한이로다

愚東 吳秉權

又

新羅故土景祠成 신라의 옛 땅에 경덕사 이루니
告落今朝瑞彩生 낙성을 고한 오늘 아침 상서 채색 나는구려
佐命千年開國業 명을 도운 천년 개국의 업적이오
施仁百世愛民聲 어짐을 베푼 백세에 백성 사랑하는 소리일세
儒林益切崇賢意 유림은 더욱 간절하고 숭배의 뜻 간절하고
雲裔尤深慕祖情 후손은 더욱 조상을 사모하는 정 깊도다
六派門中敦睦下 육파 문중이 돈목한 아래
物心兩面合同誠 물심양면으로 합동한 정성이로다

遠波 朴洙燮

夏至即事

慎菴 韓龍福

苦熱燻風入畫簾　고열의 더운바람 그림발에 드니
無端汗出老身露　무단이 땀이 나 늙은 몸 적시네
旱餘草色三分減　가뭄 나머지 풀빛이 삼분 감하였고
雨後溪聲十倍添　비 뒤에 시냇물소리 십배로 더하누나
宅近丘隅黃鳥聽　집이 구우에 가까우니 꾀꼬리 소리 들리고
樓傍滄海白鷗瞻　다락이 창해가에 있으니 백구들 보누나
走駒過隙誰能禦　달리는 망아지 틈 지남을 누가 능히 막으리
節序於焉五月炎　절서가 어언 오월 염천이구려

又

德菴 梁困喆

欲視夏景捲窓簾　여름경치 보고파 창주렴 걷으니
雨灑江山草木露　비 뿌린 강산 초목이 젖은고야
煙織垂楊黃鳥囀　연기 수양버들 짜니 꾀꼬리 노래하고
魚游碧浪白蘋添　고기 헤엄쳐 노는 벽랑에 흰 말름 더하누나
休奔越犬清陰睡　달림을 쉰 월견 맑은 그늘에 쉬고
喘息吳牛皓月瞻　헐덕이는 오우 흰달을 봄일으구려
或酌或吟終日樂　혹 마시고 혹 읊이 종일 즐기니
不知亭外起蒸炎　정자밖에 찌는 불꽃 이는줄 알지 못하노라

又

晚翠 梁炳朝

脫笠高堂捲畫簾　높은 당에 삿갓 벗고 그림발 걷었는데
太陽近午汗流霑　태양이 낮에 가까우니 땀 흘러 젖는고나
風鳴綠竹琴聲起　바람우는 녹죽 거문고소리 일고
雨歇長堤草色添　비그친 긴 언덕에 풀빛 더하는구려
十里明沙閒鷺睡　십리 명사에 한가한 백로 졸고
千絲垂柳織鶯瞻　천실 늘어진 버들 짠 꾀꼬리 보누나
每當此節人多苦　매양 이철을 당하면 사람의 괴로움 많으니
揮扇難堪五月炎　부채 부치나 오월의 불꽃 난감이로세

又

湖雲 權興玉

午日書窓捲箔簾　글 창문 한낮에 주렴발 걷으니
農夫鋤草汗衣霑　풀 매는 농부 옷에 땀 젖누나
山光暗暗煙霞鎖　암암한 산빛 연기 노을 잠겼고
野色青青雨露添　푸르고 푸른 들빛 비 이슬 첨가하는구려
雲起四方佳景出　구름 일어난 사방 아름다운 경치 나네
陰濃千里錦屛瞻　그늘 무르녹은 천리 금수 병풍 봄이로다
鄕村到處移秧訖　향촌 도처에 이앙은 끝나고
諸老松亭共避炎　여러 늙은이 솔정자에 같이 더위 피하누나

又

春坡 梁炳夏

閒居高閣半垂簾　한가이 있는 높은 누각 반쯤 발을 드리우니
出水芳蓮玉露霑　물위에 나온 꽃다운 연 옥이슬 젖두나
大麥登豐黃色滿　보리가 풍년 들어 노란빛이 가득하고
榴花滿發艷光添　석류꽃 만발하여 고운빛 더하는고야
風清細柳驚歌滑　바람 맑은 세류에 꾀꼬리 노래 매끄럽고
雨霽斜陽燕舞瞻　비 개인 사양에 제비춤 보누나
避暑林泉攜酒去　피서하는 임천에 술 갖이고 가니
樹陰如海不侵炎　나무그늘 바다 같으니 불꽃 침노 못하누나

又

小泉 金昌泳

垂柳遮門柳似簾　늘러진 버들 문을 개리니 버들이 주렴 같아
凉風滿屋汗無霑　선들한 바람 집에 가득하니 땀 젖음 없구나
簷前燕語詩心助　처마 앞에 제비말 시심을 돕고
窓外鳩歌酒興添　창밖의 꾀꼬리 노래 주흥을 더하는구려
白鷺窺魚江岸下　백로는 고기 엿보아 강언덕에 내리고
野翁望雨嶺雲瞻　들노인 비를 바라며 재마루 구름 보누나
去年旱魃此年續　지난 해 가뭄이 올해도 계속하니
仲夏熱如三伏炎　중하의 열이 삼복 불꽃 같구려

又

龍山 朴在雨

爲看煙光捲竹簾 연광을 보기 위해 대발을 걷으니
適來好友汗相霑 마침 오신 좋은 벗 땀 서로 젖었구려
宛然禹貢山川潤 우임금의 공헌이 완연한 산천 윤택하고
彷彿堯天雨露添 오임금 하늘 방불하여 비 이슬 더하누나
大麥登豐牧穫近 보리가 등풍하니 수확이 가까웁고
稚禾分植就將瞻 어린 모 분식하니 장차 자라남을 보리라
扇風機具身邊備 선풍기구를 신변에 갖추어
欲斥無端火熱炎 무단한 불꽃 더위 물리치고자 함이라

又

錦峰 吳龍根

夏日山窓捲畫簾 여름날 산창에 그림발 걷으니
力農男女汗流霑 농사에 힘쓴 남녀 땀 흘러 젖었구나
榴花發砌圍光活 석류꽃 뜰에 피니 동산빛이 살아나고
甘雨晴田黍色添 단비 개인 밭에 기장빛 더하는구려
綠樹陰濃群鳥息 푸른나무 그늘 무르익으니 뭇새들 쉬고
浮雲景作列峰瞻 뜬구름 경치 지어 늘어선 봉우리 보는구나
循環節序誰能挽 절서의 순환을 누가 능히 만류하리
晝夜催增大氣炎 주야로 대기의 불꽃 재촉하여 더하누나

又

草堂 鄭炳尹

愛看山川捲竹簾　산천 봄을 사랑하여 대발을 걷었는데
夕陽細雨草原露　석양의 가는비 초원을 적시누나
池塘闕闕青蛙亂　연못에 개굴개굴 우는 청개구리 어지럽고
檐樑喃喃黑燕添　처마 들보에 제잘거리는 제비 더하는도다
浣女臨波清水濯　빨래하는 여인 물결에 다달아 맑은 물에 씻고
野翁望霓白雲瞻　들노인 무지개 바라며 흰구름 보는구려
樵童弄笛歸遲路　초동이 퍼리 불고 돌아오는 길에
石澗清風不感炎　돌시내 맑은 바람 불꽃더위 느끼지 않누나

又

翠松 金鎭泓

五月軒窓掛竹簾　오월의 헌창에 대발을 걷었는데
榴花開砌雨新霑　설류꽃 뜰에 피니 비 새로 적시는구려
竹園東閣風聲靜　대나무 동각을 애워싸니 바람소리 조용하고
水滿西湖月影添　물이 서호에 가득하니 달그림자 더하누나
柳蔭太陽燻不入　버들이 태양을 가리니 더움이 들지 못하고
葉藏宿鳥正難瞻　나무잎은 잠든 새 갈무니 정히 보기 어렵구려
槐陰深處連環坐　회화나무 그늘 깊은 곳에 연하여 둘러 앉아
酌酒吟詩避暴炎　술 따르고 시읊어 폭염을 피하도다

三虛 吳治湟

又

五月南窓始掛簾　오월의 남창에 비로소 주렴 걸었는데
東山過雨草原露　동산에 지나는 비 초원을 적시누나
竹林繞院淸風起　대숲이 후원을 둘러 청풍이 일고
荷葉承珠白露添　연잎이 구슬 이으니 흰이슬 더 함이로다
玄鳥喃喃橫線集　제비는 비낀 빨래줄 모여 지저귀고
靑蛙閣閣碧空瞻　청개구리 창공을 쳐다보며 개굴 개굴 울고
納凉溪谷雲屯客　납량의 계곡 구름같이 모인 객이
終日娛遊不感炎　종일 오유하되 더위 느끼지 않도다

小山 尹昌赫

又

金波月色入疎簾　금물결의 달빛이 성긴 발에 들어 오는데
華發榴花曉露霑　설류꽃 환하게 피니 새벽 이슬 젖었도다
門柳過春絲色綠　문 버들 봄을 지나니 실낱이 푸르고
庭梧浥雨葉光添　뜰 오동 비에 젖으니 잎에 빛을 더하누나
壺觴北海孔文擧　병과 술잔은 북해의 공문거요
詩句西湖蘇子瞻　시구는 서호의 소자첨이로다
山霧久藏玄豹潤　산안개 오래 갈무니 검은 표범 윤택하고
松間閑臥不知炎　솔사이 한가이 누었으니 더위 알지 못하도다

又

誰捲祝融簾　누가 여름 신의 발을 걷을것인가
曛風雨數霑　훈풍에 비 자주 젖는고야
移秧千頃了　일천이랑 모내기를 마쳤고
打麥一秋添　타맥하니 가을 하나 더 한구려
才子詩樓訪　재자는 시 다락 찾는데
行人酒肆瞻　행인은 술집을 보누나
吾家山上在　내집이 산의에 있어
不感避庚炎　복더위 피함을 느끼지 않도다

遠波朴洙燮

東海岸觀光

東海觀光早向南　동해관광에 일직 남을로 행하니
溪流廻處總澄潭　시내 흘러 돈곳 모두 맑은 못이로다
大洋日暖翻紅靄　대양에 날 따뜻하니 붉은 노을 번득이고
孤島風和帶翠嵐　외로운 섬에 바람 화하니 푸른 안개 떠있도다
奉審賢祠追慕事　현인 사당 봉심은 추모하는 일이요
同行士友感悰談　동행한 사우는 감회의 담화로세
周遊勝地雲屯客　승지를 주유한 굴름갈이 모인 객이
歸路相分月色含　돌아갈길 서로 나누니 달빛 먹음었구려

農隱 金義植

又

觀光節屐出溪南　관광의 지팡이와 나막신 계곡을 출발하니
山水中間大小潭　산수 중간에 대소의 못이로세
谷口春深方解凍　골자기 어구에 봄 깊으니 바야흐로 해동하고
原頭日暖自生嵐　언덕머리 날 따뜻하니 절로 놀을 나누나
道東院上明真理　도동서원위에 진리가 밝고
鏡浦臺前聽古談　경포대앞에 고담을 듣도다
回首竹樓天欲晚　죽루에 머리 돌리니 하늘이 늦고자 하고
可憐江樹送情含　가련한 강나무 보내는 정 먹음었도다

晩翠 梁炳朝

又

東海探看自嶺南　동해 탐간을 영남으로부터 하여
到來鏡浦水清潭　경포수 맑은 물에 도래하는구려
白波萬頃翻霜雪　흰 물결 일만이랑 눈 서리 번득이고
綠樹千山帶靄嵐　푸른나무 일천산 놀을 안개 띠었도다
搖棹佳人琴瑟樂　돛대 젓는 가인은 금슬을 즐기고
作詩韻士賦興談　시 짓는 운사 부야 흥야 담론이로다
優遊勝地連三日　승지를 우유함이 연삼일이라
處處風光不忘舍　처처 풍광 이지 않고 머음으리로다

湖雲 權輿玉

又

東海觀光早出南　동해를 관광하러 일직 남으로 출발하여
泛船鏡浦水澄潭　경포수 맑은 물에 배 띄우도다
蒼波萬里遮濃霧　창파 만리에 무르녹은 안개 가리고
錦繡千山動翠嵐　금수의 일천산 푸른놀을 봉하두나
千潮不變古人意　간조가 불변함은 고인의 말이로다
探來遺蹟雲林様態　찌천 자취 탐하여온 굴곡같이 모인 객이
勝地逍遥萬感舍　승지를 소요함에 만감을 머음없으리

春坡 梁炳夏

又

爲觀東海出湖南 동해 보기 위하여 호남을 출발하니
處處奇巖處處潭 처처에 기암이요 처처에 못이로세
烏竹軒深凝瑞氣 오대산은 깊숙이 상서기운 엉키고
五臺山靜鎖淸嵐 오대산은 고요히 맑은 안개 잠겼도다
詩當勝景難禁興 시는 승한 경치 당하면 흥을 금하기 어렵고
人到名區不絶談 사람은 명구에 이르러 담론이 끊이지 않누나
遍覽先賢遺跡地 선현의 유적지를 편람하였으니
那無儒士遠情含 어찌 선비로서 멀리 정 먹음이 없으리오

小泉 金昌泳

又

爲看東海出湖南 동해 보기 위하여 호남을 출발하여
千里尋來鏡浦潭 천리의 경포대 못 찾아 왔구려
三陟樓臺明日月 삼척의 누대에 일월이 밝고
武陵溪谷鎖霞嵐 무릉계곡은 노을 안개 잠겼도다
佳人弄棹歌謠樂 가인은 돗대 놀리며 가요 즐기고
遊子吟詩善拙談 노는 사람 시 읊으니 선과 졸 말하는구려
信宿親朋今作別 이틀밤을 잔 친한 친구 이제 작별하니
歸鄕步步惜情含 귀향하는 걸음 걸음 석별의 정 먹음었도다

守軒 姜龍鳳

又

勝地觀光到嶺南　승지관광하러 영남에 도착했는데
春城雨過水盈潭　봄성에 비 지나니 물이 못에 가득하구나
雙雙飛鷺皚如雪　쌍쌍이 나는 백로 희어서 눈같고
漠漠翻波碧似嵐　막막히 출렁인는 물결 푸르러서 그을 같구려
登閣休時相問答　정각 올라 쉴때 서로 문답하고
乘車馳路共情談　차를 타고 달리는 길에 같이 정담하오라
風和日暖花催發　풍화 일난하여 꽃피기를 재촉하는데
可愛山河淑景含　산하가 맑은 경치 먹음이 가애롭고나

錦峰 吳龍根

又

怒轉東濤忽打南　성내어 구른 동의 물결 문득 남을 때리니
自然溢合億千潭　자연이 넘쳐 합친 억천의 못이로세
待宵若木疑何處　밤을 기다리는 약목이 어느곳인지 의심이오
欲畫扶桑拂紫嵐　낮이 되고자한 부상에 붉은 노을 떨치누나
萬里行船飄遠棹　만리 간는 배 멀리 돗대 나부끼니
三山求藥似虛談　삼신산 약을 구하였다 함은 빈말 같구려
際天包地閒多嶼　한울에 닿고 땅을 싸는 사이 섬이 많으니
或有無兮迟復含　혹 있다 없는것은 조수 물러갔다 다시 먹음는것이로다

龍山 朴在雨

又

早朝出發自湖南 이른 아침 호남으로부터 출발하여
千里行來鏡浦潭 천리의 길음 경포담에 왔도다
海上波濤如白雪 해상의 파도는 백설 같고
山中煙霧繞青嵐 산중의 연기 안개 푸른 놀을 휘난하누나
娥娘泛棹歌謠樂 아랑들 돗대 띄워 가요를 즐긴는데
士友傾杯趣味談 사우들과 잔 기우려 취미를 담론하는구려
三月春光探勝地 삼월의 춘광 탐승하는 땅에.
與朋信宿厚情含 벗과 더부러 서듭 자니 두터운 정 포함일세

草堂 鄭炳尹

又

東海爲看早出南 동해를 보려고 일직 남을 출발하니
月明鏡浦水成潭 달 밝은 경포수 못을 이루었구려
雪嶽山林繞煙霧 무릉계곡 연기 안개 자욱하고
兒女乘舟鐘鼓樂 아녀자 배를 타고 북 치며 즐기고
老儒作句細評談 늙은 선비 글귀 지어 세세평론 말하누나
周遊勝地連三日 승지 주유 연 삼일이라
相別慇懃勸酒含 서로 이별할제 은근이 권한 술 먹음은구려

翠松 金鎭泓

又

欲看東海出湖南　동헤를 보고자 호남을 출발하여
千里行來鏡浦潭　천리 설음 경포담에 왔도다
水暖江鳧浮白浪　물 따뜻한 강에 오리 흰물결에 뜨고
草香山麝臥青嵐　풀 향기로운 산 사향노루 푸른 안개에 누었도다
佳人處處歌謠樂　가인은 처처에 가을을 즐기고
遊子兢兢世情談　노는 이 조심 조심 세정을 담론하누나
勝地周遊連二泊　승지의 주유 연하여 이틀을 잤는데
相分歸路惜情含　서로 나누어 돌아간 길 석별의 정 먹음었구려

三虛吳治滉

又

為觀東海發湖南　동헤를 보기 위하여 호남을 출발하니
處處名山曲曲潭　곳곳에 명산이요 굽이 굽이 못이로다
高閣天晴來好月　높은 각에 하늘 개이니 좋은 달 오고
幽村日暖起青嵐　그윽한 마을 날 따뜻하니 푸른 놀을 이누나
泛舟興覺蘇仙賦　배 띄운 흥은 소동파 적벽부 깨닫고
作句思生世俗談　글귀 지을제 세상 속담 생각 나누나
已醉煙霞歸路晚　이미 연하에 취하여 돌아갈 길 늦으니
停車相勸一杯含　차를 멈추고 서로 권한 한잔 술 먹음은구려

遠波 朴洙燮

又

欲看東海出湖南　동해를 보고자 호남을 출발하니
鏡浦蓬萊兼綠水潭　경포대는 푸른물의 못을 겸했도다
雪嶽風光粧煙霧　설악산의 풍광은 연기 안개로 단장하고
武陵山色發霜嵐　무릉 산빛은 노을 안개 이누나
佳人帶笑歌謠樂　가인들 웃음 띠고 가요로 즐긴듯데
老叟親交飮酒談　늙은이 친구와 술마시며 담화하는구려
巡禮已終連二泊　순례를 이미 마치니 연이틀 숙박이라
歸鄕途上惜情舍　고향 돌아온 길위에 석별의 정 억음없도다

愚東 吳秉權

訪龍巖書院

湖隱 金鍾敏

院宇超然一境東　서원집 한지경의
焚香追慕萬年同　추모의 분향
松灘水活回灣裡　송탄물 구비쳐 도는
聖壽山高正面中　성수산 정면중에
後學精神如素月　후원의 정신
先賢氣像似春風　선현의 기상은
儒林未齋修其德　유림과 후손
畫棟丹靑瑞色通　그림기둥 단청에

又

慎菴 韓龍福

龍巖祠屹碧溪東　용암사 벽계의 동에
多士彬彬景慕同　빈빈한 다사
一線微陽存在裡　일선의 가는 양
昔年德業講磨中　석년의 덕업
仁山磅礴呈靈氣　인산이 방박하여
智水縈洄送古風　지수 굽이처 돌아와
回想五賢經歷史　오현이 경력한 사기
卓然道學萬年通　탁연한 도학

又

晩翠 梁炳朝

龍巖祠屹碧溪東　용암사 벽계의 동에 우뚝하니
五位精靈陟降同　오위의 정령 오르내림 같구려
簠簋斐彬彬士習　빈빈한 변두 방장의 속이오
衣冠濟濟敬度中　제제한 의관 경건한 가운데일세
松灘常照千秋月　송탄에는 항상 천추의 달 비치고
鳥峙長含太古風　새재는 길이 태고풍을 먹음었도다
洙泗眞源於此活　수사의 참 근원 여기에 살아나니
從知吾道永年通　따라서 우리의 도 긴 해에 통하리로다

又

湖雲 權輿玉

名山圖繞碧溪東　명산이 벽계의 동을 둘렀으니
曾建一祠勢若同　일직이 한 사우 건립에 노고를 같이 하도다
鄕士講修追慕裡　향사의 강수는 추모의 속이오
齋孫祭典至誠中　후손의 제전은 지성 가운데로세
奉賢行禮隨良俗　선현 받듦은 행례는 양속을 따름이오
追歲焚香樹美風　해 따라 분향하니 미풍을 세우도다
遺蹟長傳書院誌　유적은 길이 서원지에 전하니
由來吾道遠亨通　유래의 우리 도 멀리 형통하리

又

龍巖祠宇遶回東 용암사의 운이 동으로 돌아오니
五位壇前祭祀同 오위의 제단 앞에 제사 같이 하는구려
衆士講磨來遠外 다사의 강마는 원방 밖에서 오고
先賢儀範在斯中 선현의 의범이 이 가운데 있도다
晴天瑞日千年地 정천 서일의 천년의 땅이오
智水仁山百世風 지수와 인산은 백세의 기풍이로세
圍繞青松高節裡 주위를 두른 청송 높은 절개속에
清宵月影洗心通 맑은 밤 달그림자 맘을 씻어 통하누나

春坡 梁炳夏

又

龍巖祠屹碧溪東 용암사 벽계의 동에 흘립하니
濟濟衣冠敬仰同 제제한 의관 공경하여 앙시함 같도다
聖壽山霞浮散際 성수산 안개 떴다 흐터진 지음에
松灘水鷺往來中 송탄물 백로 왕래한 가운데일세
籬邊香播桃源菊 울가에 향기 뿌리니 도원의 국화오
院內塵清栗里風 원내에 티끌 맑으니 율리의 풍도로다
追慕五賢多士會 오현을 추모하여 다시 모여서
靈前拜禮一誠通 영전에 배례하니 한 정성 통하도다

小泉 金昌泳

又

君自西臨我自東
妥靈高卓五賢同
孝心常聽無聲外
忠意從看有事中
松水當窓迎霽月
聖山近户動光風
各門崇祖誠如一
想必來來萬福通

龍山 朴在雨

又

盡誠院建聖山東
繼往開來萬歲同
諸裔焚香千載裡
五賢獻酌一祠中
綱倫共守今時務
禮義長傳故國風
天度循環吾道復
真心到處事皆通

錦峰 吳龍根

그대는 서로부터 다다르고
나는 동으로부터 오니
영혼을 편안이 한
높은 탁자 오현 같이 하도다
흉심은 항상 소리없는
밖에서 듣고
충성뜻 일 있는 가운데
따라 보이는고야
송탄물 창에 담하니
개인 달 밝이하고
성수산이 문호에 가까워
빛난 바람 동하는구려
각문에서 조상숭배의
정성 여일하니
생각건데 반드시 내내
반복이 통하리로다

정성 다 하여 성수산
동쪽에 서원 세우니
왕사를 이어 오고 오는
일 연년 만세에 같도다
여러자손 분향은
천년을 지내온 속에
오현에 잔 드림은
한 사당 가운데라
상류을 같이 지킴은
지금의 의우요
예의를 길이 전하니
고국의 바람이로다
천도가 순환하여
우리 도 회복하니
진심이 이르는 곳에
일이 다 통하는고야

又

龍巖書院碧溪東　　용암서원 벽계의 동에
遠近儒林敬慕同　　원근의 유림 경모함이 같구려
華榻講論傳道裡　　빛난 자리 강론은 도리를 전한 속이요
禮筵飮福盡誠中　　예의 자리 음복은 정성 다한 가운데로다
宣揚德義千秋俗　　덕과 의리를 선양하니 천추의 풍속이오
扶植綱倫萬歲風　　삼강오륜을 부식하니 만세의 바람이로세
祭典焚香雲集客　　제전과 분향에 빈객이 운집하니
五賢遺蹟自亨通　　오현의 끼친 사적 스스로 형통하소서

顧巖 李成熙

又

龍巖祠屹碧溪東　　용암사 벽계의 동에 흘립하니
追慕先賢百世同　　선현의 추모는 백세에 같도다
聖壽靑山環揖裡　　성수 청산 둘러 읍한 속에
松灘白水靜流中　　송탄의 흰물 고요히 흐르는 중에로세
綱倫篤行千秋俗　　강륜과 독행은 천추의 풍속이오
弘益精神萬古風　　홍익정신은 만고풍이로구려
天道順從儒士職　　천도를 순종함이 유사의 직분이니
焚香祭典永年通　　분향과 제전이 긴 해에 통하도다

翠松 金鎭泓

又

龍巖書院屹溪東 용암서원 시내동쪽에
配享諸賢德行同 배향한 여러 현인
址是天川川汪裡 터는 천천 벗물
名傳長水水明中 이름은 장수의 맑은
訓遺近洞諄諄在 근동에 교훈 끼쳐
敎授儒林振古風 유림을 교수하여
追慕堂軒詩會展 추모의 집 말루에
先人道義古今通 선인의 도의
三虛吳治滉 고금에 통하는구려

又

龍巖祠宇建溪東 용암사를 시내의 동에 세우니
五位先生配享同 오위 선생 배향 같이 하도다
洙泗眞源無此外 수사의 참 근원 이밖에 없고
程朱餘蹟在其中 정주의 남은 사적 그 가운데 있구려
誦聲不絶惟今日 강송소리 오직 오늘에 끊이지 않고
祭禮嚴行守古風 제례를 엄숙히 행하여 고풍을 지키누나
曾卜名區傳百世 일찍 명구를 점쳐 백세에 전하니
先賢德業後生通 선현의 덕업은 후생에 통하도다
道山 朴喜穆

又

肅然祠宇碧溪東　肅然한 사우 벽계의 동에
追慕精神老少同　추모의 정신 노소가 같도다
魂降聖山山影外　영혼은 성수산 산그림자 밖에 내리고
運回松水水聲中　운수는 송란의 물소리 가운데 돌아오는구려
先賢布德千秋月　선현의 포덕은 천추의 달이오
後裔崇倫萬古風　후예들의 숭륜은 만고풍이로다
天道順從終不悔　천도를 순종하여 마침내 후회 않으니
焚香祭典永年通　분향 제전 긴 세에 통하도다

松山 梁炳文

又

龍巖祠宇在溪東　용암사가 벽계 동에 있으니
五位先生志德同　오의 선생의 뜻과 덕이 같도다
絃歌迴出四時中　함화는 길이 천재아래 전하고
三南境域生良俗　삼남지역에 양속이 생기고
七邑沿邊起美風　칠읍의 연변에 미풍이 일도다
吾道伊今猶不絶　우리 도 이제 오히려 끊이지 않으니
前人去後後人通　앞사람 간 뒤에 뒷사람이 통하누나

遠波 朴洙燮

初秋

入户新凉夏氣空　문호에 든든 신량에
循環天度到金風　어름기운 비었으니
蒼江鷗泳浮沈白　순환하는 천도
暮日蟬歌落照紅　금풍이 이르도다
流火催成林下果　창강의 갈매기 헤엄
嘉禾已熟歲登功　떳다 잠김이 희고
年中好節難虛送　저문 날 매미노래
題軸傾杯興不窮　낙조가 붉도다

湖隱 金鍾敏

又

疎林蟬噪入秋空　성긴 숲에 매미소리
燕子南飛菁瑟風　가을 들어 비니
皓月三更蘆絮白　제비는 소슬한 바람에
淡雲十里蓼花紅　남으로 나누나
果園結實陽和德　흰달 삼경에
禾野登豐雨露功　갈대꽃 희고
萬壑楓林將染赤　맑은 구름 십리
應知餘日興無窮　여뀌꽃 붉도다

春坡 梁炳夏

문호에 든든 신량에
어름기운 비었으니
순환하는 천도
금풍이 이르도다
창강의 갈매기 헤엄
떳다 잠김이 희고
저문 날 매미노래
낙조가 붉도다

호르는 벗개불 숲아래
과일 성공을 재촉하고
아름다운 벼 이미 익으니
해등풍한 공이로세
년중 좋은 철을
허송하기 어려워
풍축에 쓰고 술잔
기우리니 흥 다하지 않도다

과수원의 결실은
태양 화한 덕이었
벼 익은 들에 등풍하니
비와 이슬의 공이로다
만학의 풍림 장차
붉게 물들것이니
응당 알거니 남은 날
흥 무궁하리

又

微涼轉處患炎空　가늘게 선늘한 기운 돈는 곳에 불꽃 근심 없으니
好是金消暑熱風　좋게 더운 열풍이 온전이 사라지누나
長夏單衫雙臂白　긴 여름 홑 적삼에 두 팔이 흰데
深園百果半腮紅　깊은 동산의 백과 반 볼이 붉었고야
高原蕎麥登時熟　고원의 메밀은 때에 익어 등등하고
廣野禾粱得歲功　넓은 들의 벼와 기장 세공을 얻었구려
遠裡吾朋從古俗　이속에 우리 벗 옛 풍속 따라
吟詩酌酒樂無窮　시 읊고 술 마시는 즐거움 무궁하도다

龍山 朴在雨

又

序屬初秋七月空　시선는 첫가을 칠월 하늘에 속하니
暑炎漸退動金風　더위 불꽃 점점 물러나고 금풍이 동하누나
井前昨夜梧三落　우물앞에 어제밤 오동잎 셋 떨어지고
墻後今朝棗一紅　담장뒤 오늘 아침 대추 하나 붉었도다
遠地弟兄頻送信　먼 지방의 형제 자주 소식 보내는데
僻鄉子女願成功　벽향의 자녀 성공 하길을 원하노라
稻黃果熟時期好　벼 누렇고 과일 익은 시기 좋은데
宋玉何由恨不窮　송옥은 무슨 이유로 슬픔 다 하지 않는가

遠波 朴洙燮

又

梧桐一葉落秋空　오동잎 하나 가을 하늘에 떨어지니
七月江山退熱風　칠월의 강산 더운 바람 물치누나
海上浪花飛沫白　바다위의 물결꽃 날리는 물방울 희고
山頭昇日吐霞紅　산머리에 오르는 해 토하는 놀을 붉도다
群生覆育乾坤德　군생을 덮어 길음은 건곤의 덕이오
大野登豐雨露功　큰들의 등풍은 우로의 공이로세
米久霜楓粧邃谷　미구에 서리단풍 깊은 골자기 단장하니
魚肥稻熟興無窮　고기 살찌고 벼 익어 흥이 무궁하리로다

愚東 吳秉權

謹次松下堂韻

湖隱 金鍾敏

背山臨水得明基　산을 등지고 물에 다달어 밝은 터 얻으니
修道精神日就怡　도를 닦는 정신 날로 즐거움에 나아가는구려
黃菊盛開三徑路　황국이 성하씨 삼경길에 피고
丹楓紅染九秋期　단풍이 붉게 구추시기에 물드누나
閒餘試墨無塵態　한가한 나머지 글씨 쓰니 티끌 모양 없는데
靜裏看書養秉彝　고요한 속에 글 보아 병이를 길러는구려
物換星移凉氣動　물래 바뀌고 별 옮겨 신선한 기운 동하니
天涯雁陣向南時　하늘가 기러기떼 남으로 향할 때로다

又

慎菴 韓龍福

松下堂占絶勝基　송하당을 점 쳤으니 터에 점 쳤으니
雲仍繼述克怡怡　자손은 계승하여 일함이 능히 즐겁고 즐겁도다
道心不替千秋續　도심은 천추에 바꾸지 않고 계속하며
韻致長傳百世期　운치는 길이 백세에 전함을 기약하누나
經始何須貪興趣　처음 경영이 어찌 흥취만 탐하리 모름지기
登臨每作講倫彝　등림에 매양 인륜 병이 강론하는구려
令名藉藉如雷聽　어진명성 자자하여 우뢰같이 들리니
願我同叅拜問時　나도 배문할 때 동참을 원하네

又

晚翠 梁炳朝

松翁曾卜月南基　송하당 노인 일직이 월남터를 택하고
迎客升堂對酌怡　손을 맞아 당에 올라 술잔 대하여 즐기는구려
馴鹿簷前閒砌睡　길드린 사슴은 처마 앝 한가한 뜰에 졸고
活泉枕外遠洋期　활천은 벼개밖의 먼 해양을 기대하는고야
友朋會坐論經史　벗과 모여 앉아 경사를 논하고
兒侄招來講秉彝　아들 조카 불러와 병이를 강론하누나
擧世咸稱眞處士　온세상이 다 진실한 처사라 칭하니
心安耕讀送年時　갈고 읽음에 마음이 편안하여 해와 때를 보내누나

又

湖雲 權興玉

擇地康津萬世基　강진에 땅을 택하니 만세의 터라
月山水石運回怡　월출산 수석의 운이 돌아와 즐겁도다
安身茅屋心常穩　띠집에 몸이 편안하니 마음 항상 편안하고
立石先阡福可期　선산에 돌을 세우니 복을 가히 기약하도다
每敎兒孫行孝悌　매양 자손을 가르쳐 효도와 공순을 행하여
又迎士友講倫彝　또 사우를 맞아 윤리 병이를 강론하는구려
自成華閥相和睦　스스로 화벌을 이루어 서로 화목하니
一李春光達四時　하나의 오얏 봄빛이 사시에 달통하도다

又

月出山陽卜宅基　월출산 양지에 집자리 택하니
柴門蓬戶自心怡　사립문 쑥대창에 마음 스스로 즐겁도다
池頭白石觀魚坐　연못 머리 백석에 고기 보며 앉고
院外蒼松伴鶴期　후원 밖의 창송 학과 짝함을 기약하누나
德業多年終得慶　덕업 많은 해에 마침내 경사 얻고
仁風百歲不忘彝　어진 풍도 백세에 변이 잊지 않는구려
賢孫令子名傳世　어진 손자 아들 세상에 이름 전하니
繼繼承承發展時　계계승승 빌전할 때로다

雪松 李周鎬

又

曾卜城田定世基　일직이 성전을 택하여 세거의 터 정하니
瓊林瑤草互相怡　구슬같은 숲과 풀은 서로 서로 즐겁구려
康津綠水魚游濶　강진의 푸른 물은 물고기 헤엄침이 활발하고
月出蒼松鶴舞期　월출산 창송은 학의 춤 기약하누나
侍慈不忘殫誠孝　자친을 모심에 정성과 효도 다 할것을 잊지 않으며
教人恒務秉天彝　사람 가르침에 항상 하늘의 성 잡음에 힘쓰네
龍孫筆力如龍動　용의 손자 필력이 용이 꿈틀거림 같고
積德李門蒙蔭時　적덕한 이씨가문 음덕 물음을 때로다

小泉 金昌泳

又

松下高堂擇吉基　솔아래 높은 당 길한 터를 택하니
名區瑞氣運回怡　명구의 서기 운 돌아옴 즐겁도다
康津水色千秋綠　강진의 물빛은 천추에 푸르고
月出山光萬世期　월출산광은 만세를 기약하네
先祖施仁崇禮樂　선조는 인을 베풀어 예악을 숭상하고
後孫修德學倫彝　후손은 덕을 닦아 인륜과 병이 배우는구려
自來養善從天道　스스로 선을 길러 옴에 천도를 따르고
不朽名聲永久時　불후의 명성의 떠 영구하리로다

守軒 姜龍鳳

又

先代移來定此基　선대에 옮겨와 이 터를 정하니
漸昌後裔勢怡怡　점점 창성하는 후손 성세 즐겁고 즐겁도다
謙恭行事身無辱　겸손과 공경한 행사는 몸에 욕됨이 없고
儉素生涯福可期　검소한 생활은 복을 가히 기약하리로다
弓冶家聲修世業　궁야의 가성 세업을 닦고
青氈儒雅守天彝　청전의 선비 맑음 하늘의 병이 지키누나
子承母德孫承祖　아들은 어머니 덕 계승하고 손자는 조부를 이으니
三世光榮不盡時　삼세의 광영 다하지 않은 때로다

錦峰 吳龍根

又

草堂 鄭炳尹

康津移住世居基　강진에 이주하여
松下堂中事事怡　송하당 가운데
父祖傳來仁義篤　부조의 전해 온
子孫修去孝廉期　자손이 닦어 간 효도와
文章不絶千秋赫　문장이 끊이지 않으니
禮義相承萬代聲　예의를 서로 계승하니
月出山莊名勝地　월출산장
明湖의 땅에
如雲賞客到無時　구름 같은 관광객
때없이 이르네

又

顧巖 李成熙

種李花開萬世基　오얏 심어 꽃이 피니
繁昌枝葉共怡怡　만세의 터라
諸宗和睦殃何及　번창한 가지와 잎이
百事從公慶可期　같이 즐거워 하누나
善養兒孫修孝道　여러 종친이 화목하니
深思少壯導綱彝　재앙이 어찌 미치며
門中自樂成華閥　백사가 공정에 따르니
後裔生涯順四時　경사 가히 기약하도다
문중이 스스로
화별 이름을 즐기니
후손의 생애
사시를 순종하네

又

月出山南擇此基 월출산 남쪽 이터를 택하니
原州華閥自居怡 원주의 빛난 물설 스스로 삶이 즐겁도다
心心已在貽孫策 마음은 이미 자손에게 줄 모책에 있고
念念常存奉母期 생각은 항상 어머니 받들 기약에 있도다
道義順從千世赫 도의를 순종함은 천세에 빛나고
綱倫篤行萬年彝 삼강오륜 돈독히 행함은 만년의 병이로세
裔賢族盛鄕儒羨 자손 어질고 종족 성하여 고을 선비 부러워하니
遺德宜揚禮壞時 끼친 덕을 예의 무너진 때에 선양하도다

翠松 金鎭泓

又

月南居住卜斯基 월출산 남쪽에 살아 이 터를 택하니
伴鶴逍遙意自怡 학을 짝하여 소요하니 뜻이 스스로 즐겁도다
儉約治家終歲逸 검약으로 치가하니 해가 다하도록 편안하고
安貧樂道一生期 안빈낙도는 일생의 기약이구려
先人遺德千秋赫 선인의 끼친 덕은 천추에 빛나고
後裔修身萬世彝 후손의 수신은 만대에 떳떳함이로세
華閥松翁誰不賀 화벌의 송하당 노인 누가 하례 않으리
名聲載路不休時 명성이 길에 실어 때에 쉬지 않누나

梅軒 朴洙炘

三虛 吳治湟

又

康津移住拓新基　강진에 옮겨 살아 새 터를 개척하니
佳此原州華閥怡　여기에 원주의 화벌 사는 것이 즐겁도다
松下構堂思母極　솔아래 당을 지어 어머니 생각 지극하고
月南設苑教孫期　월남에 동산 설치하여 자손 공육 기대하네
丹楓浥露誇詩姿態　단풍에 이슬 젖으니 자태를 자랑하고
黃菊凌霜守節彝　황국은 서리를 능멸하여 절개와 떳떳함 지키누나
望海名山佳勝地　망해와 명산 아름답고 승한 땅에
先公遺德顯揚時　선공의 끼친 덕 현양할 때로다

又

不老蒼松護此基　늙지 않은 창송 이 터를 보호하니
裔孫誠孝擧家怡　후손의 정성과 효도 온 집안이 기쁘구려
門前沃野勤耕活　문전의 옥야는 근농의 생활이오
屋後書樓勉學期　집뒤 글 다락은 면학을 기약하도다
後世繁昌由蔭德　후세의 번창은 음덕을 연유함이오
賢人遺蹟講倫彝　현인의 유적은 인륜 병이 강론하누나
春秋風景如仙境　춘추의 풍경 선경 같으니
賞客雲屯不計時　구름같이 모인 관광객 때를 헤아리지 않누나

朴龍得

又

月出名山定一基 월출명산에 한 터를 점하였는데
運回此地自怡怡 운이 이땅에 돌아오니 스스로 즐겁도다
奉親誠孝千秋赫 어버이 받드는 정성과 효도 천추에 빛나고
友弟湛和萬世期 아우와 우애 담락과 화평은 만세를 기약하누나
每喜抱孫傳世業 매양 손자 보듬기 즐겨 세업을 전하고
又宜訓子講倫彝 또한 마땅이 아들을 훈계하여 인륜병이 강론하네
松翁敦睦稱華閥 송하당 노인의 돈목 화벌이라 칭하니
聞說人多訪四時 소문 들은 사람 많아 사시로 찾는구려

遠波 朴洙燮

碧南亭煮伏

三伏蒸炎四海咸　삼복의 찌는 불꽃 사해가 다 그러한데
南亭煮伏受信緘　벽남정 복다름 봉함 서신 받었도다
松山絶境回淸水　송산의 끊어진 지경 맑은 물 돌고
竹谷奇觀聳白巖　죽곡의 기관은 흰 바위 솟음이구려
傾酌賓朋搖錦扇　잔 기우리는 손님과 벗 비단부채 흔들고
設床兒女拂羅衫　상 차리는 아녀자 나삼을 떨치누나
娛遊勝地時將晩　승지의 즐김은 놀이 때 장차 늦으니
盡日吟觴興不凡　날이 다하도록 읊고 마심 흥 불범이로다

農隱 金義植

又

碧南亭榭客登咸　벽남정자에 색이 함께 클라
安否相傳口不緘　안부를 서로 진하니 입을 다물지 못하누나
長水洋洋翻碧浪　장수 양양하여 푸른 물결 번득이고
德山嵂嵂聳奇巖　덕산이 뇌뇌한데 기암이 솟았도다
灑風松下因肱枕　솔 아래 바람 쏘이니 인하여 팔 벼개하고
搖扇藤邊拂手衫　등나무 가에 부채 부치니 손적삼 떨치는구려
煮伏庚炎詩酒席　삼복 경염에 복다름 시와 술자리에
娛遊盡日興非凡　날이 다하도록 오유하는 흥이 비범하도다

德菴 梁因喆

又

遠近儒林到此咸
원근의 유림 여기에 함께 이르니
欲看契史共開緘
세의 역사 보고자 같이 봉함 여는구려
水流百里錦江口
물은 백리를 금강 어구에 흐르고
樓立千秋陶壯巖
다락은 천추에 도장암에 섰도다
甘雨適來禾秀野
단비는 마침 벼 빼어난 들에 오고
酷炎侵至汗添衫
모진 불꽃 침노하여 이르니 땀 적삼을 적신누나
每年六月初庚日
매년 유월 첫 경의 날에
煮伏優遊樂不凡
복다름 우유한 즐기움 비범하구려

慎菴 韓龍福

又

碧南亭會適遐咸
벽남정 모임 멀고 가까움이 함께 하니
煮伏清遊受信緘
복다름 맑은 놀이 봉함 서신 받았구려
斜日蟬聲喧草樹
비낀 날 매미와 귀뚜라미 풀과 나무에 지저귀고
遍山蔓葛繞苔巖
산에 뒬친 칡넝쿨 이끼 바위 둘렀도다
詩朋對硯題華軸
시붕은 벼루 대하여 빛난 풍축에 쓰고
稚子臨川脫汗衫
어린 아이 냇물에 이르러 땀 젖은 적삼 벗누나
第一江山名勝地
제일강산 명승의 땅에
吟觴賓主亦非凡
읊고 마시는 손과 주인 또한 비범하구려

晩翠 梁炳朝

湖雲 權興玉

又

碧南亭上會來咸　벽남정 위 모임 함께 오니
煮伏吟觴口不緘　복달름 읊고 마시는데 입 다물지 못하누나
後麓綠陰松竹栢　뒷 산기슭 녹음은 솔 대 잣나무오
前溪清景石沙巖　앞 시내 맑은 경치 돌 모래 바위로구려
登盤嗜味供鷄肉　소반에 오른 맛 있는 맛 닭고기 작만하고
耐暑輕衣着苧衫　더위 견디는데 가벼운 옷 또 모시적삼일세
美酒佳肴如是樂　미주와 좋은 안주 이같이 즐기니
吾儕酣醉興非凡　우리들 얼근이 취한 흥 비범하도다

春坡 梁炳夏

又

翼然高閣納凉咸　나는듯 높은 누각에 납량 다 갖이 하니
握手論情豈口緘　악수하고 정을 논하니 어찌 입을 봉하리오
全境透明連白石　전경이 투명하니 백석이 연하였고
一樓屹立壓奇巖　한 다락 높이 솟아 기암을 눌렀도다
閒吟題景詩爲畵　한가이 읊은 경치 쓰니 시가 그림 되는데
釀酒烹羊汗濕衫　술 빚고 염소 삶으니 땀이 적삼에 젖는구려
漸漸斜陽歸路晩　사양이 점점 돌아 갈 길 늦으니
碧南煮伏興非凡　벽남정 복다름의 흥 비범하누나

又

煮伏南亭社友咸 벽남정 복다름 사우들 함께 하니
相逢笑語口何緘 서로 만나 웃고 말하니 입을 어찌 봉하리오
琴聲清雅千山水 거문고소리 청아하니 일천산 물이오
眼映奇觀百丈巖 눈에 비친 기관은 백장의 바위이구려
石澗寒流凉入枕 석간수 차게 흐르니 서늘함이 벼개에 들고
園松蒼翠生衫 후원의 솔 울창하니 푸른 빛 적삼에 나누나
烹鷄宰狗困酬酌 닭 삶고 개 끓여 인하여 수작하니
今日清遊樂不凡 오늘의 맑은 놀이 흥락이 불범이로세

小泉 金昌泳

又

碧南煮伏會來咸 벽남정 복다름에 다 같이 와 모이니
談笑吟觴口豈緘 담소하며 읊고 마신들 입을 어찌 봉하리오
走狗尋陰眠石砌 달리든 개 그늘 찾아 돌들에 졸고
役夫揮汗浴川巖 일하는 인부 땀 뿌려 냇물 바위에 목욕하네
山雲釀作桑麻雨 산구름은 뽕과 삼비 비저내고
夏日裁成苧葛衫 여름날 모시와 갈포적삼 재단하여 이루누나
自古林亭多避暑 자고로 임정에 피서 많으니
酒肴常備興非凡 술과 안주 상상 갖추니 흥 비범하네

守軒 姜龍鳳

又

節到南亭煮伏咸
會期先受信書緘
舍杯始覺消愁藥
濯足殊尋距坐巖
暑日相依陰密席
炎天可着苧輕衫
營農長夏多辛苦
暫得清遊脫俗凡

지황이로 벽남정에 이르러
복다름 함께 하니
모이는 기약 붕함서신
먼저 받았도다
술잔 먹음으니 비로소
근심 소멸한는 약임을 깨닫고
발을 씻음에 모름지기
걸터앉을 바위 찾은구려
더운날 긴긴 길은 자리
서로 의지하고
염천에는 가벼운 모시
적삼임음이 가하구나
긴 여름 영농에
신고 많았는데
잠시 빌린 놀이 일이
시속의 범상을 벗어났도다

錦峰 吳龍根

又

碧南亭會客咸來
煮伏床頭口不緘
槐樹蟬歌聲出谷
蓮塘魚躍泳回巖
衰翁傾酌紅顔面
少女供盤拂手衫
詩罷歸程西日暮
蜻蜓頡頏興非凡

벽남정에 모이는 손님
다 같이 오니
복다름 상머리에
입 다물지 못하는구려
회화나무에 매미노래소리
골자기를 나오고
연당의 뛰는 고기
헤엄쳐 바위 도는고야
쇠한 늙은이 잔 기우려
안면이 붉고
젊은 여자 소반 차리는라
손적삼 떨치는구나
시를 파하고 돌아갈 길
해 서산에 저므니
오르 내리는 잠자리
흥 비범하구려

草堂 鄭炳尹

又

搖扇登亭煮伏咸 부채 흔들며 정자 올라 복다름 갈이 하니
村醪方熟始開絨 시골 막걸리 방금 익어 비로소 봉함 열도다
煙遞萬里流溪水 연기는 만리 흐르는 시냇물 게리고
瀑落千尋打谷巖 천길 떨어진 폭포 골자기 바위 때리는구려
詩席賓朋傾綠酒 시의 자리 손과 벗 푸른 술 기우리고
炊場兒女拂青衫 취사장 아녀자 푸른적삼 떨치누나
蟬歌亂出松風動 매미노래 어지럽게 나고 솔바람 동하니
醉氣難堪與不凡 난감한 취기 흥 불범하구려

又

烹羊炮肉遠來咸 염소 삶고 고기 구어 원방에서 함께 오니
請座諸朋受信絨 자리를 청한 여러벗 봉함 서신 받았도다
清靜樓垥豐厚謖 맑고 고요한 누대에 풍후한 잔치요
勝區勝景巧奇巖 승한 구역 승한 경치 교묘하고 기이한 바위로세
盤遊鼓瑟兼吹笛 반락 놀이 피화 뜻고 섬하여 피리 부니
炎熱麻裾又短衫 불꽃 더위 삼베옷에 또 짧은 적삼일세
庖酒閒中詩與樂 잔술 한가한 가운데 시 흥락 있으니
與君此日會非凡 이날 그대와 더부러 모임 비범하네

愚東 吳秉權

晚秋訪先賢遺跡

晩翠 梁炳朝

序屬三秋日色微　시서가 삼추에 속하니 날빛이 가는데
先賢遺跡眼前暉　선현의 유적 눈앞에 빛나도다
紫雲院裡香煙起　자운원속에 향화 열기 일고
鮑石亭邊逸話飛　포석정가에 일화가 나는구려
拜謁英陵明祀閣　영릉을 배알하니 제각이 밝고
行尋勤寺叩柴扉　근사를 찾아가 시비를 두드리누나
臨津江畔探光後　임진강 가를 탐광한 뒤에
扺拾行裝詠以歸　행장을 수습하여 읊으면서 돌아오도다

又

春坡 梁炳夏

先賢懿蹟久非微　선현의 아름다운 자취 오래토록 희미하지 않으니
天借名區待主暉　하늘이 빌린 명구 주인 기다려 빛나는구려
聖地山川祥日轉　성지의 산천 상서 헤 궁글고
王陵丁閣瑞雲飛　왕릉의 정자각 상서구름 나는구나
伴鷗亭畔游魚躍　반구정가에 노는 물고기 뛰고
龍寺門前設獸扉　응문사 문전은 짐승 사립 설치했도다
當年文物誰知否　당년의 문물을 누가 아는가 모르는가
恨無問處惘然歸　물어볼곳 없는 것이 한이라 망연이 돌아오도다

又

小泉 金昌泳

草樹荒蕪路轉微　풀과 나무 황무한 길 궁그러 희미한데
先賢遺宅帶晴暉　선현의 유택에는 개인 날빛 띠었도다
客尋遺趾黃花發　객이 찾은 유지에는 노랑꽃이 피고
雁到寒天落葉飛　기러기 이르는 찬 하늘 낙엽이 날리는고야
霜露淒凉來往地　서리 이슬 내왕한 땅에 처량한데
秋風漸瀝開開扉　가을바람 절력하여 사립문 닫었다 열었다 하네
此行非但優遊樂　이 걸음이 다만 우유의 즐거움만이 아니건만
人謂觀光消日歸　사람들은 관광으로 소일하고 돌아온다 이르는구려

又

錦峰 吳龍根

晩登此路愧誠微　늦게 이길에 오르니 정성 가는것이 부끄러우니
爲謁先賢古蹟暉　선현의 고적 빛남을 배알하기 위함이로다
萬壑霜楓紅似火　만학의 서리단풍 불은 빛 불같은데
長程鐵馬走如飛　긴 길에 버스로 달림이 나는 것 같구려
午過列邑探名所　낮에 열읍을 지나면서 명소를 탐방하고
暮到驪州叩館扉　저물제 여주에 이르러 객관문을 두드리도다
前約分明三日了　전의 약속은 분명히 사흘로 마침이라
如期相別各家歸　기약과 같이 상별하여 각각 집으로 돌아가네

又

草堂 鄭炳尹

走馬看山遠景微　달리는 차로 산을 보니 먼 경치 희미하고
江湖千里晩秋暉　강호 천리 늦가을 빛이로다
光陵境外藤蔓索　광릉의 경외에 담쟁이 칡 얼키고
龍寺庭前杏葉飛　용문사 뜰 앞에 은행잎 날리누나
化石丹亭雲抱岸　화석 붉은 정자 구름이 언덕을 안고
伴鷗碧樹月籠扉　반구정 푸른 나무 달이 사립에 가치누나
今行多受親朋助　이번 걸음 친구들 도움 많이 받어
白髮無難信宿歸　백발 무난히 이틀 밤 자고 돌아왔도다

又

三虛吳治滉

京畿探訪路稀微　경기를 탐방하는 길 희미한데
遺蹟輝煌日月暉　유적이 휘황하여 일월이 빛나도다
圃隱忠痕苔石塔　포은의 충성 흔적 석탑에 이끼 씌고
龍門巨樹暮鴉飛　용문의 큰 나무 저물러 갈가마귀 나는고야
紫雲祀院多誠客　자운사원 정성의 객이 많고
壯麗王陵鎖鐵扉　장려한 왕릉 쇠문이 잠겼도다
黃相伴鷗今再見　황정승 반구정 이제 두번 보는데
幸州惜別望鄕歸　행주를 석별하고 고향 바라보고 돌아오도다

又

鞋鞠昔年春雨微　옛날 찾은 말길 봄비 가늘었는데
再尋此日晩秋暉　다시 찾은 이날 늦은 가을 빛이로세
紫雲院夜惟明月　자운원 밤에 오직 밝은 달이으
鮑石亭林但鳥飛　포석정 숲에는 다만 새가 나는고나
王寢英陵占大地　왕이 잠든 영릉 대지를 택하였고
龍興華島鎖金扉　용이 일어난 강화도는 쇠사립 잠겼도다
先賢遺跡人皆外　선현의 유적을 사람이 다 외면하는데
幸矣書生拜審歸　다행이 서생이 배례하고 살피고 돌아오도다

遠波 朴洙燮

挽吳三虛治湟

言忠行敬七旬天　충실한 말 공경한 행실 칠십평생인데
惜矣吾鄉失此賢　애닯도다 우리고을 이어진이 잃었구려
超俗雅容千頃水　범속을 뛰어난 맑은 용모 일천이랑 물결이요
安貧樂道數畝田　안빈낙도는 두어 두렁 밭이로세
肯莢學院誠心極　학원의 육영은 성심이 지극하고
友愛棣園和氣宣　형제간 우애 화기를 베풀도다
草露人生春一夢　초로같은 인생 일장춘몽이라
想應君作玉樓仙　상상컨데 응당 그대 옥경루 신선되었으리

湖隱 金鍾敏

又

惟君擇地栗坪天　오직 그대 율평 하늘 아래 택지하여
自養逍遙七十年　스스로 길러면서 소요함이 칠십년이구려
昨夜文星南極落　어제밤 문성이 남극에 떨어지니
今朝踈雨北邙泉　오늘 아침 성긴 비는 북망구천이로세
治家敦睦誠心極　치가의 돈목은 성심에서 발하고
教子文章理學連　아들 가르치는 문장 이치의 학문 연하도다
聲聲觀化悵無遽　부은 명정 펄력이며 고향마을 멀어지니
相和 소리 소리 창연함이 가이 없구려

晩翠 梁炳朝

又

文星昨夜落南天 어제밤 문성이 남천에 떨어지니
豈意三虛永別年 어찌 삼허를 영영 이별하는 해를 뜻하리오
丹旌空山飛白雪 붉은 명정 공산에 백설만 날리고
長宵幽宅寂黃泉 긴밤 유택 적막한 황천이구려
白華峰屹留殘月 백화산 봉 높은데 쇠잔한 달 머물고
栗里村深夕霧連 율평마을 깊숙이 저녁 안개 연했도다
遠遠今行無返日 멀고먼 오늘길 돌아올 날 없으니
溪南松色一墳邊 계남 솔빛 한무덤의 갓이로다

春坡 梁炳夏

又

拔群才質受於天 무리에 빼어난 재질은 하늘에서 받았으니
出入京鄉數十年 경향을 출입한지 수십년이로다
四勿亭前垂訓席 사물정 앞에는 훈계를 드리운 자리오
三虛堂下洗心泉 삼허의 당하에는 마음 씻는 샘이로세
書聲豈止參商隔 글소리는 어찌 삼상이 막힌듯이 그치고
世誼惟餘麗澤連 세의는 오직 여택의 연함으로 남았도다
痛痒相關知己友 앓고 가려움이 서로 관계된 지기의 벗이
永歸萬里暮雲邊 영영 만리 저문 구름가에 돌아가는가

元山 陸鍾禎

又

小泉 金昌泳

伴仙昨夜忽昇天　어제밤 신선과 짝하여 문득 하늘로 오르니
可惜名聲六九年　육십구년의 명성 가석하구나
生于中方長栗里　중방에서 출생하여 율평에서 성장하니
老於畎畝樂林泉　밭 두덕에서 늙고 임천을 즐겼구려
餘陰蔭陣陣子孫及　남은 음덕 진진하여 자손에게 미치고
遺澤彬彬鄕黨連　끼친 혜택 빈빈하여 향당을 연하도다
回想卅坊去事　도와 군 떠 오가든일 회상하니
丹旌飄拂漸流邊　붉은 명정 눈물 흘리는 가에 펄럭이누나

又

澹軒 權熙文

氣宇堂堂六尺身　기품이 당당한 육척의 몸은
咸稱一代丈夫人　일대의 장부라고 모두 칭하는구려
傾心結社隣鄕友　마음 기우려 향린의 벗과 시사 결성하니
雅趣風流逈脫塵　아취와 풍류 멀리 티끌을 벗었도다
惘然佇立望東天　망연히 우두커니 서서 동천을 바라보니
悵別歡逢問幾年　창연이 이별하고 즐겁게 만남이 몇해던가
空將哀誄弔靈前　공연히 슬픈 만사 갖어와 영전에 조문하누나

又

康寧壽福碧溪天 강녕하고 수복한는
羽化登仙在此年 우화하여 등선함이
研究詩文扶世道 시문을 연구하여
優遊風月樂林泉 풍월에 우유하여
觀光全國常先引 진국 관광에 항상
忽一明春孰有連 하나 모자란 명춘
美酒江山難共醉 아름다운 술 강산에
憮然心事恨無邊 허망한 심사 한이

벽계의 한들에
이해에 있구려
세도를 붓들고
임천을 즐겼도다
앞서 인도하였는데
누가 있어 연속할까
같이 취하기 어려우니
가이 없구려

又

錦峰 吳龍根

文星一夜落冬天 문성이 하루밤
惜別寃深乙亥年 석별의 원한이 깊은
居處方拋其古址 거처는 바라흐로
歸程何向彼黃泉 돌아사는 길은 어찌하여
對人和德言常直 사람 머하는 화덕은
與我交情誼故連 나와 더부러 사귄 정은
離後終無來日約 떠난 뒤 마침내
催唱難露恨無邊 재촉하여 부르는 상여

동천에 떨어지니
을해년이로다
그엣터를 버리고
황천을 향한는고
말이 항상 곧고
의이가 집짓 연하누나
오는날의 기약 없으니
노래 한이 다함 없도다

又

三虛忽逝雪寒天 삼허가 문득 설한천에 가버리니
哀惜親交六十年 육십년의 친교 애석하구려
昨日娛遊吟碧榭 어제 벽남정에서 읊으며 오유했는데
今朝那意訪黃泉 오늘 아침 어찌 황천 찾을 줄 뜻했으리오
多情弔客歎聲發 다정한 조문객 탄성을 발하고
灑淚家人痛哭連 눈물 뿌린 집사람 통곡소리 연하누나
定命終生無可奈 정한 운명 생을 마침은 어찌 할수 없나니
流霞長醉白雲邊 유하주에 길이 백운가에 취하는구려

草堂 鄭炳尹

又

豈意令朝永訣天 어찌 오늘 아침 영결의 날일줄 뜻하리
同修詩社十餘年 시회를 동수한지 십여년이네
千呼不答離斯榻 천번불러도 대답 않고 이자리를 떠나고
百計難留向九泉 백번 꾀하여도 구천 가는길 머물수 없구려
清白良心滄海邃 청백한 양심은 창해처럼 깊었고
固貞隱節竹松連 고정한 절개는 죽송으로 연해졌네
於何復見如公士 어디서 공같은 선비를 보겠는가
巷若無人恨不邊 거리에 사람이 없는것 같아 한이 가이 없네

翠松 金鎭泓

三南梁錫鎬

又

六九奚終受命天 육십구세로 어찌 명받은 한을을 마치는가
難言康健壽長年 강건하면 장수한다 말하기 어렵도다
出遊昨歲聯車馬 나가 놀던 작년 서말을 연하였는데
相見無期向九泉 서로 볼 기약없이 구천으로 향하는구려
親友伊今乘鶴去 친한 벗 이제 학을 타고 떠나가니
仙鄉他日伴雲連 신선고을 다른날에 구름 짝하여 연하리
騷壇誰復周旋士 글단에 누가 다시 주선하는 선비일련지
洋淚潸然靈几邊 체루가 영체가에 산연하구나

又

栗里人物多 율리 동네에 인물이 많기도 하여
行人指點過 행인이 지나가며 가르킨다네
高才出衆群 높은 재주는 군중에 뛰어났었고
博識通百家 넓은 학식은 백가를 통하였다오
掌上鄉言動 손바닥에 고을 말 움직여 왔고
唇邊國政波 입가에 나라 정치 물결 쳤다오
遠然泉下去 거연히 젓길을 가시었으니
山積事如何 산처럼 쌓인 일을 어찌 하려오

遠波朴洙燮

又

離合浮生總是天 떠나고 합친 인생사 모두 이 하늘이라
與公分手又經年 공과 더부러 분수한지 또 일년 지났구려
丹旌飄飄形如月 붉은 명정 나부끼어 형상 달 같고
薤露聲聲淚似泉 상여 노래 소리소리에 눈물 샘 솟듯 하누나
神彩靈豪何處去 정신 풍채 영호함이 어느곳으로 가는가
義精仁熟世家連 의리 정함과 인 익달아 세가 연했도다
光陰倏忽催人命 광음이 허득 빨라 인명 재촉하니
流水青山借一邊 흘르는 물 푸른 산 한쪽 가 빌었도다

百松 姜大淑

又

聞公逝去雪中天 공이 눈가운데 하늘로 떠나갔다 들으니
詠客傷心挽是年 을묘은 손 상심하여 이해를 만사하누나
夫婦各別淚生泉 부부 각각 이별하니 흘르는 눈물 샘이로세
雲嘯煙鎖丹旌拂 구름 찡그리고 연기 잠겨 붉은 명정 떨치니
水咽山凄白日連 물 목메이고 산 처량하여 백일을 연하도다
芳名永編史書邊 문성이 상위에 떨어졌다 한탄을 마라
松山 梁炳文 꽃다운 이름 길게 사기글에 들어있네

又

德菴 梁 因喆

雲黑風寒欲雨天 구름 검고 찬비 오고자 하는 하늘에
聞公逝去亦衰年 공의 서거 들으니 나또한 쇠한 나이로세
循環公道誰能挽 순환하는 공도 누가 능히 만류하리
痛哭聲中向九泉 통곡소리 가운데 구천을 향하누나

又

農隱 金 義植

偉幹厖眉稟賦天 위대한 체신 삽살이 눈섭 한눌의 품부로
淸閒享福七旬年 맑고 한가하게 칠십년 행복했구려
靑春初志三蘇熟 청춘의 처음 뜻은 세 소씨 글 익혔는데
晩節餘輝四子連 만절의 남은 빛은 네 아들에 연하도다

又

裕堂 韓 甲洙

栗里安過七十年 율정리에서 편안히 칠십년을 보내고
更期仙約忽昇天 다시 신선 약속 기약하여 문득 하늘로 오르누나
可憐世事如春夢 가련한 세상사 봄꿈 같으니
富貴功名總謝邊 부귀공명 모두 하직하는 가이로구려

又

守軒 姜 龍鳳

星沈昨夜雪中天 별이 어제밤 눈가운데 하늘에 잠기니
不意凶音乙亥年 뜻하지 않은 흉음을 해년이로세
綠竹淸陰依古宅 녹죽의 맑은 그늘 옛집에 의지했는데
蘭亭雅會寂無連 난정의 맑은 모임 고요하여 연함 없네

又

翠軒 梁炳仁

生居一里誼爲先 한마을에 살아 친의를 먼저 하였으니
正義躬行幾十年 정의를 몸소 행함이 몇십년 이던가
何處更逢同笑語 어느곳에서 다시 만나 같이 웃고 말하리
出門心痛淚雙連 문을 나서니 마음 슬퍼 눈물 쌍으로 흐르네

又

耕山 韓圭容

雪白風寒臘沍天 눈 희고 바람 찬 섣달 하늘에
君何遽作玉京仙 그대 어찌 문득 옥경루 신선 짓는가
輀歌悽悵青山路 상여소리 처창한 청산 길에
一幅哀詞淚自連 한폭의 슲은 만사 눈물 스스로 흐르네

又

尹龍燮

三虛昨夜忽昇天 삼허가 어제밤 문득 하늘로 오르니
一幅哀詞友送年 한폭의 슲은 만사 벗을 보낸 해로세
從此永無相面地 이로부터 상면할 땅이 영영 없는데
溪南衆里水猶連 계남의 윤형리 물은 오히려 연하는구려

又

梁基洪

雲黑風寒雪白天 구름 검고 바람 찬 백설의 하늘에
數聲鈴笛向黃泉 두어소리 방울 젓대 황천으로 가누나
生平宿契今何處 평생의 오랜 계 이제 어느곳이냐
氣數方知有子賢 기수는 바야흐로 어진 아들 두었음을 알리로다

又

道山 朴喜穆

雪花滿發碧溪天 눈꽃이 만발한 벽계의 하늘에
君伴仙緣永訣年 그대 신선 짝한 인연 영결의 해로다
哭送靈輀分手路 상여를 곡하며 보낸 분수의 길에
泉坮萬里杳無邊 황천대 만리 아득하여 가이 없구려

又

維石 梁國喆

康寧壽福碧溪天 강녕수복의 벽계하늘에
羽化登仙乙亥年 우화하여 신선에 오른 을해년일세
四勿亭前多吊客 사물정 앞에 많은 조문객들
靈輀哭送淚連連 상여를 곡하여 보내니 눈물 연하네

又

崔鍾植

登去吾公白雪天 우리공이 백설한 울라가니
此行應知玉京仙 이 걸음 응당 옥경루 신선임을 알리로다
掛燈山下新幽宅 괘등산 아래 새로운 무덤
吊客今辰淚連連 조문객 이제 눈물 연하누나

又

栗堂

聞訃吾公忽化仙 부음 드르니 우리 공이 문득 신선 되었다니
嗟兮世事海桑田 슬프다 세상사 벽해 상전이구려
七旬莫恨功名薄 칠십에 공명 엷다 하지 마오
一家無非孝悌全 한 집안이 효도와 공손 온전하지 못함 없도다

又

清江 朴龍德

仲春

丙子年

鵑花二月滿山初　두견화 산에 가득한 이월 초에
萬物蘇生活發居　만물이 소생하여 활발하게 사누나
閣裡梅魂將結朶　각속에 매화혼 장차 꽃송이 맺는데
川邊楊絮已飛餘　냇가 버들강아지 이미 날아 나머지구려
牧童牽羊向林岸　목동은 염소 이끌고 숲 언덕으로 향하고
漂女浣紗留澗墟　빨래하는 여인 비단 빨아 산수터에 머물도다
出耕四野三農作　사야로 나아가 갈아 삼농을 시작하니
大本經營孰事如　대본을 경영하는데 어떤일이 같을까

湖隱 金鍾敏

又

好是東風二月初　좋을시고 동풍 이월 초에
江亭氷解鏡中居　강정 얼음 풀리니 거울 가운데 섰도다
浦湘江上鴻聲亂　소상강위에 기러기 소리 요란하고
泰嶽山頭雪影餘　태악산 머리 눈그림자 남았구려
嫩柳方舒流水岸　여린 버들 바야흐로 흐르는 물 언덕에 펴고
妍梅已發向陽墟　고운 매화 이미 양을 향한 터에 피었도다
循環節序孰能禦　순환하는 절서를 누가 능히 막을건가
速去速來弓矢如　빨리 가고 빨리 옴이 화살 같구려

愼菴 韓龍福

晩翠 梁炳朝

又

布德東君二月初 덕을 베푼 동군 이월 초기에
詩笻自遠訪幽居 시의 지팡이 멀리로부터 유거를 찾는구려
雨晴後院梅先發 비 개인 후원에 매화 먼저 피고
雲散高峰雪尙餘 구름 흩어진 높은 봉우리 눈 오히려 남았도다
細柳含煙閒拂岸 가는 버들 연기 머금어 한가히 언덕에 떨치고
夭桃浥露好粧墟 고운 도화 이슬에 젖으니 터를 좋게 단장하누나
鳥啼窓外驚春夢 창밖의 우는 새 봄꿈을 놀라게 하네
檻外風光一畵如 난간 밖의 풍광 한 폭 그림 같도다

晩翠 梁炳朝

又

青帝來臨二月初 청제 와서 다달은 이월 초에
瑞光到處吉人居 서광 비친 곳에 길인이 사누나
菜花白蝶園中舞 장다리 꽃 흰 나비 동산 가운데 춤추고
臘雪蒼巖谷裡餘 섯달 눈 푸른바위 골자기속에 남았도다
氷水添流鳴後院 얼음물 흐름 더하여 후원에 소리치고
庭梅放笑綉前墟 뜰 매화 활작 피어 앞터를 수 놓은구려
三陽九十今分半 구십 삼춘 벌이 이제 절반으로 나누니
春意無私四野如 봄뜻이 사사로움 없어 사야에 같도다

春坡 梁炳夏

又

和風二月解氷初 화한 바람 이월 얼음 풀린 처음에
萬象熙熙摠樂居 일만 형상 화하고 빛나 모두 즐겁게 살도다
花信頻聽鵲鳥訴 꽃 소식은 자주 두견새 호소에 듣고
冬痕猶見六花餘 겨울 흔적 오히려 눈꽃 나머지 보노매라
草芽先茁向陽岸 풀 싹은 먼저 양을 향한 언덕에 성하고
柳眼早開經雨墟 버들눈 비 지나간 터에 일찍 피누나
自去自來春似客 절로 가고 절로 가니 봄은 손과 같은데
人生白髮夢中如 인생의 백발이 꿈속 같도다

小泉 金昌泳

又

節屆解氷初 시절이 처음에 이르니 계빙의
群生自樂居 모든 생물 스스로 낙에 사누나
山晴朝霧後 산 개이니 아침 안개 뒤요
窓暖午陽餘 창문 따뜻하니 한낮 볕의 나머지로다
花藍報新候 꽃봉오리 새철 기후 알리고
草芽粧古墟 풀 싹이 옛터를 단장하는고야
從知無幾日 따라서 알건데 날이 얼마 없어
爛熳昨春如 백화난만이 작년봄 같으리

澹軒 權熙文

又

德菴 梁 因喆

天晴日暖立春初　하늘 개이고 날 따뜻한 입춘의 처음에
雲淡風輕陽氣餘　구름 맑고 바람 가벼워 양기의 나머지라
囀囀黃鶯尋柳幕　울고 우는 꾀꼬리 버들 막 찾고
雙雙玄鳥訪誰墟　쌍쌍의 제비 누구의 터를 찾는가

又

草堂 鄭炳尹

風和日暖仲春初　바람 화하고 날 따스한 중춘의 처음에
樹樹開花畫裡如　나무마다 꽃 피어 그림 속 같도다
知是邊方解凍早　알거니 이 변방에 바야흐로 해동했는데
泰山高嶽雪痕餘　태산 고악에 눈 흔적 남았구려

又

翠松 金鎭泓

孟春已過季春餘　맹춘 이미 지났고 계춘이 남았는데
得意群芳日活居　뜻 얻은 여러 꽃다움 날로 활기 있도다
愛惜韶光虛送老　봄빛을 허송하여 늙는 것이 애석하니
一盃一詠更何如　한번 마시고 한번 읊음이 또한 어떠하리

又

清江 朴龍德

風和日暖仲春初　바람 화하고 날 따스한 중춘의 처음에
到處難看雪氣餘　도처에 눈기운 나머지 보기 어렵도다
錦繡江山花灼灼　금수강산에 꽃이 작작하니
金剛風景問何如　금강산 풍경 물으니 어떠하든가

自詠

小泉 金昌泳

臨分握手各西東　이별에 다달아 악수하고 각각 서와 동으로 가니
白首難爲送別同　백수로 송별 같이 하기 어렵구려
桑梓碧溪長歲裡　상자 고향 벽계 긴 세월 속이오
金蘭詩友百年中　금란같은 시우 백년 지운데 일세
聊知豐沛柳將綠　애오라지 풍패의 버들 장차 푸를줄 알거니와
惟望鄕園花欲紅　오직 고향동산 꽃 붉고자 함을 바라보리
嘖吼車聲催我發　고동을 부는 차소리 나의 출발 재촉하니
山山水水路無窮　산과 산 물과 물 길이 다함 없도다

送金小泉昌泳住東

湖隱 金鍾敏

君去西區我住東　그대는 서쪽구역으로 가고 나는 동에 머므니
慇懃情愫與誰同　은근한 정 느낌 누구와 더불러 같이 하리
詩書勤業修身裡　시서에 부지런한 학업 수신하는 속이오
邱巷閒情守分中　언덕마을 한가한 정은 수분한 가운데이로세
恒計連襟餘歲送　항상 옷깃 연하여 남은 해 보낼것을 꾀하였는데
堪憐惜別夕陽紅　참상 석양이 붉구려
相逢月例歡談席　서로 만난 월례회 흔담한 자리에
少一數深感不窮　하나 적은 탄식 깊은 감정 다함 없도다

又

晩翠 梁炳朝

共君棲息碧溪東　그대와 같이 벽계의
逐日相逢每會同　숙일 상봉에 매양 회동하도다
曾補枝宮尊聖裡　일직이 교궁을 수리하여 성인을 존숭하는 속이었고
緇承仁術活人中　계승한 인술은 사람을 살리는 중일세
探光洞壑烟霞翠　탐광한 동학에 안기 노을 푸른데
臨別樓臺落照紅　이별에 다달은 누대에 낙조가 붉도다
回想沛城千里遠　도리켜 생각하니 풍패성이 천리나 멀지만
應知訪故念無窮　응당 알리니 고향방문 생각 무궁하리

又

裕堂 韓甲洙

君吾分手各西東　그대와 내가 분수하여 각각 서와 동으로 가니
送別斯筵惜感同　송별한 이자리에 애석한 느낌 같도다
長邑飛鳳招帳裡　장수읍은 초창한 속에 봉이 날으고
沛城得友喜歡中　풍패성은 벗을 얻으니 즐거운 중이로세
去冬雪霽千山白　지난 겨울 눈 개이니 일천산 희더니
今日花開萬壑紅　오늘은 꽃피어 만학이 붉도다
鐵馬何時鄉里返　철마가 어느때 고향으로 돌아 올런지
康寧永保壽無窮　길이 강녕 보진하여 수 누궁하소서

又

突然分手各西東　뜻연이 등서로 작각 손목 나누네
白首他鄉與孰同　흰머리 타향에 누구와 더부러 같이 희려나
物色幾經寒暑裡　물색은 몇번이나 차고 더운속을 지냈는가
人生共老別離中　인생 이별하는 가운데 같이 늙는구려
路邊垂柳絲絲綠　길가에 느러진 버들 실실이 푸르고
岸上飛花點點紅　언덕위 나르는 꽃 점점이 붉도다
鐵馬無情催去路　천마가 무정하여 갈길 재촉하여
願言相訪誼無窮　말하노니 서로 심방하여 우의 무궁함을 원하노라

春坡 梁炳夏

又

生來不遠碧山同　살아 음이 머지 않은 벽산 동록에
詩社相尋每會同　시사를 서로 찾어 매양 회동하도다
守分安貧身旺裡　분수지켜 안빈하니 몸이 왕성한 속이오
樂天知命道求中　천성이 즐겁고 운명을 알어 도를 구하는 중일세
和春能化新芽綠　화한 봄 능히 화육하니 새움이 푸르고
餞酒還酣老臉紅　전송하는 술이 도로 취하니 늙은 뺨이 붉도다
爭艷群芳時正好　모든 꽃다움이 곱운 다툼 정히 좋은 때에
君吾惜別感無窮　그대와 나 석별의 느낌 무궁하구려

小心 韓秉斗

又

我居君住嶺西東 재마루 서와 동에
一席從遊早未同 나와 그대 살었는데
對話懷深相面後 한자리 종유 일직
結交誼重許心中 같이 못하였구려
離亭綠樹含情遠 대화의 회포 상면한
餞單殘花照影紅 뒤에 길었고
安得年年康且壽 결교한 정의 마음
共歡觴詠永無窮 허락한 가운데 중하도다

澹軒 權 熙 文

떠나는 정자 푸른나무
멀리 정 먹음고
전송하는 술잔 쇠잔한
꽃그림자 비쳐 붉구려
어찌하면 해마다
강산과 또 수를 얻어
같이 마시고 읊음
길이 무궁하길를

又

與公結社碧溪東 공과 함께 벽계의 동에
依勢移居惜別同 시사를 결성하였는데
舊業長傳華嶽下 형세에 의지하여 이거하니
新基更擇沛城中 석별의 정 같도다
一生鄉里離懷悵 옛 사업 길이
百里煙霞瑞氣紅 화산 아래 전하고
一遇一分皆有運 새터전 패성가운데
共期後約緖無窮 다시 택하였구려
한번 만나고 한번 나눔이
다 운명이 있으니
같이 뒷날을 약속하여 다함
없이 계속할 것을 기약하네

錦峰 吳龍根

又

守軒 姜龍鳳

聯衿相接幾回東 옷깃을 서로 연하여 몇번이나 동으로 돌아왔는가
累歲詩筵筆硯同 여러해 시의 자리 붓과 벼루 같이 했도다
豐沛營來三月裡 풍패를 삼월속에 경영하여 오더니
長溪離去百花中 장계를 백화 가운데 떠나가누나
常思冬雪千山白 항상 겨울눈 일천산 흰것을 생각할 것이요
難忘春風萬樹紅 봄바람에 일만나무 붉음을 잊기 어려우니
百里長程猶不遠 백리 긴 길이 오히려 멀지 않으니
登車揺手望無窮 차에 올라 손 흔들며 바라봄이 무궁하누나

又

草堂 鄭炳尹

歲久詩朋逑別同 오랜 세월 시붕을 멀리 동쪽에 이별하니
隣居七十洞名同 칠십년 이웃에 살고 동네 이름도 같구나
羨君移住華街裡 부러웁도다 그대는 번화한 거리속에 옮겨 살고
憐我長留僻谷中 가련한 나는 길이 궁벽한 산골 가운데 머문구려
一世共爲成鬢白 한 세상 같이 귀밑머리 희여지고
百年無事減顔紅 백년을 일없이 늙은 낯빛 감하누나
勿忘故里多情月 고향 마을 다정한 달 잊지 말고
隨處頻逢續不窮 곳에 따라 자주 만남 다하지 않도록 계속하세

又

忽然相別碧溪東 홀연히 상별한 벽계의 동에
詩社親朋失意同 시사의 친한 벗 실망한 뜻 같도다
移去完州繁市內 완주의 번화한 시내로 옮겨 살지만
無忘鄕里僻山中 벽산 가운데 고향마을 잊지 못하리
曾遊川獵三庚暑 일직이 놀던 천렵 삼복 더위요
回顧風流二月紅 돌아보선데 이월 꽃이 붉은 풍류로세
共老人生成髮鬢白 같이 늙은 인생 귀밑이 희었으니
間逢情話永無窮 간간이 만나 정담을 길이 다 함 없도록 하세나

翠松 金鎭泓

又

泉翁送別碧溪東 샘옹이 송별한 벽계의 동에
遠近儒林失意同 원근 유림 실망의 뜻 같도다
寓樂詩書塵世外 시서의 낙을 진세밖에 부치고
厭聞時事啞聾中 시국일 듣기 싫어 벙어리 귀머거리중일세
歡歌一曲群心悅 즐거운 노래 한곡조 모든이 마음 즐십고
餞酒三杯我面紅 전송 술 석잔 내얼굴 붉도다
和氣春風佳節下 화한 기운 봄바람 가절 아래
越山渡水感無窮 산 넘고 물 건너 느낌이 무궁하리

道山 朴喜穆

又

清江 朴龍德

握手論情碧水東　악수 논정한 벽계의 동에
莫辭餞別酒盃同　전별하는 술잔 같이 함을 사양치 마오
完山詩友歡迎裡　완산의 시우는 환영하는 속이오
長水儒林失意中　장수 유림은 뜻을 잃은 가운데일세
回顧梅亭千首軸　매정의 일천수의 시축 회고하고
優遊楓谷萬花紅　풍곡의 일만꽃 붉을 제 우유했구려
惟仁惟善兼清白　오직 어질고 오직 선하여 겸하여 청백하니
但願泉翁壽不窮　다만 소천옹의 수 무궁함을 원하도다

又

遠波 朴洙燮

翁家在水東同　옹의 집이 물 동편에 있으니
出入日相醫療千　출입을 날로 서로 같이 하도다
名高百草上中白　일천사람의 의원으로 칭찬하고
傾罇餘酒白紅　백초 가운데 이름 높구려
離路落花紅後　동이 기우리니 남은 술 희고
鄉愁世不窮　떠난 길 낙화 붉도다
一去完山後　완산에 한번 간 뒤에
다시 고향 군심 다 하지 못하리

又 栗堂崔鍾植

泉翁送別碧溪東 소천옹을 벽계동에서 송별할 제
餞酒相酬衆面紅 이별주 서로 나누니 여러사람 얼굴 붉어졌네
高士論經誰不仰 높은 선비의 경서 논함 누가 흠앙치 않으리
諸生習禮感無窮 예를 익히는 유생들 느낌 다함 없네

又 維石梁國詰

公去西方我在東 공은 서방으로 가고 나는 동에 있으니
慇懃情話與誰同 은근한 정담을 누구와 더부러 같이 하리
風和日暖佳辰際 풍화일난의 아름다운 지음에
憶昔相酬感不窮 옛날 설로 수작한 일 생각하면 느낌 다함 없도다

餞春

丙子年

湖隱 金鍾敏

蜂歌蝶舞任高低　벌 노래 나비 춤 임의로 높았다 낮었다 하고
自適東南又北西　스스로 동남에 갔다가 또 북서로 오누나
芳草和煙成綠岸　방초는 연기에 섞여 푸른언덕 이루고
殘花落雨作紅溪　쇠잔한 꽃 비에 떨어져 붉은 시내 짓는구려
循環天序誰能禦　돌고 도는 하늘의 순서 누가 능히 막으리
喜悲人間總不齊　희비 인간이 모두 가즈런하지 않도다
百濟山河依舊在　백제 산하는 옛날 그대로 있는데
歐潮漲溢世情携　서구풍조 창일하여 세정이 이끌리누나

又

柳斗烈

送別東君興自低　동군을 송별하니 흥이 저절로 나직하니
殘香步拾日移西　쇠잔한 향기 걸으며 줍는데 날은 서산에 옮기네
杜鵑吐血啼空谷　두견새 피를 토하며 빈 골자기에 울고
布穀催農傍小溪　뻐꾸기 농사 재촉하여 작은 시내 곁에 있네
紅瘦幽園花已老　깊숙한 후원 붉은 것이 시드니 꽃이 이미 늙고
綠深窮壑草尤齊　길은 골자기 푸름 깊으니 풀 더욱 가즈런하도다
山川玩賞逍遙客　산천을 구경하는 소요객이
佩酒兼肴竹杖携　술과 안주 챙겨 대지팡이 이끄누나

又

湖雲 權輿玉

萬樹經春翠色低 일만나무 봄을 지내니 푸른빛이 나직한데
南風漸動野東西 남풍이 점점 들판 동서에 동하는구려
黃鶯始出山深谷 꾀꼬리는 비로소 깊은 산골자기에 나오고
白鷺閒飛水漲溪 백로는 한가히 창일한 시내에 나는고야
古洞花殘紅紫瘦 옛 동네에 꽃 시든 붉음이 수척하고
平城草茂綠青齊 평성에 풀 성하니 푸름이 가지런하도다
雨晴農慕多耕事 비 개인 농막에 갈 일이 많으니
健僕驅牛未耜携 건장한 일꾼 소몰고 따비 이끄누나

又

春坡 梁炳夏

山深地僻白雲低 산 깊고 땅 궁벽하여 흰 구름 나직하니
惜別韶光日又西 봄빛을 석별하는데 날이 또한 서쪽일세
芳草布原成翠席 방초 들에 펼치니 푸른 자리 이루고
落花流水作紅溪 꽃 떨어져 흐르는 물 붉은 시내 짓누나
黃鶯一曲歌聲滑 꾀꼬리 한 곡조 노래소리 매끄럽고
細柳千絲綠色齊 가는 버들 일천실 녹색이 갖즈런하도다
莫道餞春遊興少 봄을 전송하니 유흥이 적다 이르지 마오
踏青佩酒更節携 푸른빛 밟고 술 챙겨 다시 지팡이 이끄네

栗堂 崔鍾植

又

餞春心事氣分低　봄을 보낸 심사 기분 낮으니
況復難堪日欲西　하물며 다시 날이 저물고자 함이 난감하도다
芳草生原成綠岸　방초 들에 생장 푸른 언덕 이루고
落花浮水作紅溪　떨어진 꽃 물에 떠 붉은 시내 짓누나
天公時序青林換　천공의 시절 순서 푸른 숲으로 바뀌는데
人老斯間白髮齊　사람은 이사이 늙어 백발이 가즈런하고나
九十韶光眞是夢　구십 소광이 참으로 이 꿈이로다
更觀殘景知佳節携　다시 쇠잔한 경치 보려고 단풍을 이끄누나

又

送別韶華氣自低　봄빛을 송별하여 기분이 절로 낮으니
殘花尋訪日斜西　쇠잔한 꽃 심방하는데 날 서쪽으로 비끼도다
閑翁曳杖林間路　한가한 늙은이 숲사이 길 지팡이 이끌고
漁父垂竿柳下溪　어부 낚시대를 버들아래 시내에 드리우니
詩咏盃傾多士恨　시 읊고 술 마신 다사의 한이오
君琴我笛兩人齊　그대 거문고 나의 피리 양인이 가즈런하구나
光陰若是無情去　광음이 이같이 무정하게 가니
最惡頭邊白髮携　가장 미운것이 머리갓 백발 이끔이로세

守軒 姜龍鳳

又

春盡江山午影低
草光漸綠野東西
風和砌上花殘日
雨霽城中水漲溪
杜宇啼聲歸蜀切
黃鶯囀舌喚朋齊
農家處處多繁務
供饁田頭又酒携

봄 다한 강산
낮 그림자 나즉한데
풀빛이 점점 들
동과 서에 푸르네
바람 화한 뜰위
꽃 쇠잔한 날이요
비 개인 성중
창일한 시내로세
두견새 운는 소리
귀촉도 간절하고
꾀꼬리 우는 혀끝
벗 부름 고르네
농가 처처에 번거로운
일 많으니
점심밥 제공하는
발머리 또 술 이끄네

錦峰 吳龍根

又

餞春白髮嘆聲低
哀惜金烏不駐西
柳絮飄風疑雪岸
桃花流水半紅溪
燕飛廣野秧苗綠
魚躍清江麥穗齊
虛送光陰空自悔
傷心歸客一笻携

봄을 보내는 백발
탄식성이 나즉하니
애석로다 해를 서쪽에
매어 놓지 못함이어
버들강아지 바람에 날부씨니
눈 언덕인가 의심하고
복숭아꽃 흘르는 물
반이 붉은 시내로세
넓은 들에 제비 나는데
모싹 푸르고
맑은 강 고기 뛰는데
보리이삭 가즈런하고나
허송한 광음 공여이
스스로 뉘우치니
상심하여 돌아가는 손
한 지팡이 이끄네

草堂 鄭炳尹

又

三春已暮氣尤低　삼춘이 이미 저므니 기분 더욱 낮아
送別江山日欲西　송별하는 강산 날이 저물고자 하누나
柳絮飄飛粧碧岸　버들강아지 너부껴 나르니 푸른 언덕 단장하고
桃花散落半紅溪　복숭아꽃 흐터져 떨어지니 절반 붉은 시내로세
曇天雨霽蛙聲亂　흐린 하늘 비 개이니 개구리 소리 어지럽고
廣野煙消草色齊　넓은 들 연기 사라지니 풀빛 가즈런하구려
過盡東風男女客　동풍을 지나 다한 남여의 객이
傷心處處酒肴攜　마음 상한 처처에 술 안주 이끄네

清江 朴龍德

端陽

丙子年

節屆端陽此會佳　시절이 단양으로 이윽이 모임 다름답고
蘭湯沐浴滿城街　난초탕 목욕이 성과 거리에 가득하구나
爭勝脚戲沙場上　승부를 겨루는 씨름은 백사장위오
競技鞦韆綠柳涯　기량을 다투는 그네는 푸른 버들 가이로다
風景誘人因酒政　풍경이 사람을 유인하니 인하여 술 벌리고
觴吟助興感詩懷　마시고 읊음이 흥을 도우니 시생각 느끼도다
盤臨高閣同三益　세명의 유익한 벗과 높은 각에 등림하니
靈地煙霞醉飽皆　신령한 땅 연하에 다 취하고 배부르도다

農隱 金義植

又

節屆端陽物態佳　시절이 단양에 이으니 물태 아름다워
山光水色勝春街　산빛 물빛이 봄서러보다 승하구려
稱鶯喚友飛楊岸　어린 꾀꼬리 벗 부르며 버들연덕 나르고
倦鷺窺魚下磯涯　게으른 백로 고기 엿보아 물기슭에 내리누나
採艾衰翁思病快　쑥을 캐는 쇠한 노인 병 쾌유하길 생각하고
乘韆少婦忘閨懷　그네 타는 젊은 여자 규중 생각 잊었도다
如流歲月身空老　유수같은 세월 몸 속절없이 늙으니
可歎吾生白髮皆　우리 인생 백발 다 됨 한탄스럽도다

晩翠 梁炳朝

又

端陽物色來云佳　단양 물색이 또한 아름답다 이르니
萬樹繁陰滿巷街　일만나무 번성한 그늘 마을거리 창일하도다
燕舞頡頏芳草岸　제비춤 방초 언덕에 오르 내리고
鶯歌斷續綠楊涯　꾀꼬리 노래 푸른버들 가에 끊겼다 이어지누나
天中節序常無變　천중 절서 항상 변함 없구려
世上風潮起百懷　세상 풍조는 온갖 생각 이누나
依舊鞦韆遶娟樂興　예날 의지하여 그네 뛰는 오락의 흥은
四方婦女會來皆　사방 부녀자 다 모여 오는구려

春坡 梁炳夏

又

天中佳節勝春佳　천중가절이 봄 아름다움보다 승하여
艾虎垂門似楚街　쑥호랑이 문에 드리우니 초나라 거리 같도다
少女鞦韆遶青柳岸　어린 소녀 녹양언덕에 그네 뛰고
健男脚戲白沙涯　건장한 남자 백사장가에 다리 씨름하누나
蘭湯沐浴謀身健　난초탕에 목욕하여 몸 건강 꾀하고
蒲酒相酬忘世懷　창포술 서로 수작하여 세상 생각 잊는구려
收拾景光詩軸載　경개빛 주어 걷우어 시축에 실으니
忙中不覺日西皆　바쁜 가운데 해 서쪽에 다함 깨닫지 못하네

小泉 金昌洙

又

天中佳節正佳佳 천중의 가절 정히 아름다우니
古代遺風滿四街 고대의 유풍 네거리에 가득하도다
詩酒作朋多歲月 시주로 벗을 삼아 많은 세월 지냈고
桑麻爲業足生涯 뽕과 삼으로 생업 삼아 생애 족하구려
早朝鬪草宜男得 이른 아침 풀 싸움 마땅히 득남하고
後院紅桃結子憓 후원의 홍도 열매 맺어 품도다
時把漁竿同逸樂 때로 낚시대 잡고 일락을 같이 하고
蘭湯浴罷向巢皆 난초탕 목욕한 후 집으로 모두 향하누나

守軒 姜龍鳳

又

天中佳節綠陰佳 천중가절에 녹음 아름다우니
古代遺風滿巷街 고대의 유풍이 마을 거리에 가득하도다
美女鞦韆青柳岸 미녀는 푸른 버들 언덕에 그네 뛰고
丁男脚戲白沙涯 장정 남자 백사장 가에 씨름 하는구려
蘭湯一浴生新趣 난초탕 한번 목욕 새로운 정취 생기고
蒲酒三盃感舊懷 창포술 석잔에 옛날 회포 느끼누나
符籍附楹邪鬼辟 부적을 기둥에 붙여 사귈을 물리치고
門前艾虎逐魔皆 문전의 쑥호랑이 마귀를 다 쫓누나

草堂 鄭炳尹

又

綠陰芳草勝花佳　녹음방초가 꽃 아름다움보다 승하니
雲淡風輕客滿街　구름 맑고 바람 가벼워 객이 거리에 가득하도다
脚戲爭勝沙白上　씨름으로 백사장 위에 승부를 다투고
鞦韆競出柳靑涯　그네는 푸른 버들 가에 다투어 나오는고야
蘭湯沐浴生新意　난초탕에 목욕하니 새로운 뜻 생기고
蒲酒傾來感舊懷　창포술 기우려 오니 옛날 회포 느끼는구려
忙裡不知天賜節　바쁜 속에 하늘이 준 시절을 알지 못하였으니
願豐大野萬民皆　큰들에 풍년 듦은 온 백성이 다 원함이로다

松山 梁炳文

聽蟬

湖隱 金鍾敏

堤林處處好陰開　언덕숲 곳곳에 좋은 그늘 열어
爾遇其時五月來　너는 그때를 만나니 오월이 왔구나
亂噪聲清如奏樂　어지러이 우는 소리 선율하여 음악 연주 같고
納凉氣爽幾傾盃　납량의 기운 상쾌하여 술잔 몇번 기우렸는지
抱枝慣習留空殼　가지를 안는것이 습관이라 빈 껍질을 머무르고
吸露資生出土埃　이슬을 흡수하여 생활하니 흙 먼지에서 나오는구려
堪喜詩朋相訪至　즐디어 시붕의 흥취 돋음이 즐거워
渾忘歸路夕陽催　혼연이 돌아갈 길 석양 재촉 잊었도다

又

農隱 金義植

恒時枝上好聲開　항시 가지위에 좋은 소리 여너
槐柳成陰愛爾來　회화와 버들 그늘 이루어 너 옴을 사랑하누나
長夏清音因寫軸　긴 여름 맑은 음성 인하여 시축에 쓰고
斜陽爽曲又添盃　사양의 서늘한 곡조 또 술잔 더 하는구려
堪憐鮮羽如朱綉　견디어 고운 깃이 붉은 비단 수 같음이 어여쁘고
可愛瞳球結綠埃　안구가 푸른 구슬 티끌 맺음이 가애롭도다
盡日聽遊歸路晚　날이 다 하도록 듣는 놀이 돌아갈 길 늦으니
且吟且醉夕陽催　또 읊고 또 취하는데 석양이 재촉하네

晩翠 梁炳朝

又

綠陰處處勝區開　녹음 곳곳에 승한 구역 여니
亂噪斜陽自去來　어리러이 우는 사양 스스로 오가는고나
農老除耘忙唱曲　농로 기심 맨는데 바쁘게 노래 부르고
詩人採景數傾盃　시인이 경개 탐하여 자주 술잔 기우리누나
戴冠雅態超凡虫　대관한 맑은 태도 범충에 뛰어나고
振羽清音遠世埃　깃을 떨친 맑은 소리 세상 티끌 멀구려
枝上如仙何所慾　가지위의 신선같아 욕심한 바 무엇이리오
生涯飮露少無催　이슬 마시는 생애 조금도 재촉이 없네그려

湖堂 權輿玉

又

槐林處處綠陰開　회화나무숲 곳곳에 녹음이 열리니
脫殼成蜩自去來　허물 벗어 매미 이루니 스스로 화하여 오도다
感興吟詩因寫軸　흥을 느껴 읊은 시 인하여 풍축에 쓰고
避炎覺爽數傾盃　더위 피함에 서늘함 깨달아 자주 술잔 기우리네
抱柯長噪能成笛　가지 안은 긴 울음 능히 퍼져 이루고
飮露生涯不染埃　이슬 마신 생애 티끌 물들지 않는고야
時序正當三伏節　시서가 정히 삼복철 당하여
晴天斜日亂歌催　개인 하늘 비낀 날 어지러이 노래 재촉하누나

栗堂 崔鍾植

又

萬樹陰濃別境開
雨晴斜日因題軸
農老聽休更擧盃
枝上留棲淸飮露
樹邊脫殼潔無埃
胡然鳴也胡然止
如管如絃歲月催

일만나무 그늘 무르익어
별경을 여니
비 개인 비친 날
어지럽게 울어 오네
시인은 이를 듣고
인하여 풍축에 쓰고
농사 짓는 늙은이 쉬면서
듣고 다시 잔 드누나
나무가지위에 깃들어
머물러 맑게 이슬 마시고
나무가에 허물 벗으니
깨끗하고 티끌 없구려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그치는지
괴리같고 거문고 같아
세월을 재촉하네

小泉 金昌泳

又

碧樹陰濃別境開
蟬音淸爽隔林來
騷人感興因題軸
酒客緣情數擧盃
非怨非愁傾耳聽
似絃似管却心埃
爭鳴節候年年報
不識聽中歲月催

푸른나무 그늘 무르익어
별경을 여니
선선하고 시원한 매미소리
숲에 격하여 오누나
글하는 사람 흥을 느껴
인하여 시축에 쓰고
주객은 정을 인연하여
자주 잔을 드는구려
원망도 아니요 근심도 아니라
귀를 밝게 기우리고
거문고 같고 피리 같아
마음 티끌 물리치누나
다투어 우는 철을
해마다 알리니
듣는 가운데 세월 재촉
알지 못하는고야

又

薄羽輕身鼓角閒　얇은 깃 가벼운 몸으로 북 피리 여니
以蟲變化世間來　곤충으로 변하여 세간에 오는고야
詩朋起興因題軸　시의 벗 흥이 나니 인하여 풍축에 쓰고
農老閒聞共擧盃　농사꾼인 한가이 들으며 같이 잔 드는구려
樹裡鳴聲成爽管　나무속에 우는 소리 시원한 피리 이루고
地中脫殼遠荒埃　땅속에서 허물 벗어 거친 티끌 멀리 하누나
寄生飮露如仙態　잎을 마심에 샘을 부러 신선 태도 같아
自叫其名夕日催　스스로 그 이름을 부르는데 석양이 재촉하네

錦峰 吳龍根

又

碧槐垂柳綠陰開　푸른 회화 드리운 버들 녹음이 열리니
葉裡藏身任去來　잎속에 몸을 갈무어 임의로 오가누나
憐爾風流頻叩扉　너의 풍류 어여뻐 자주 사립문 두드리고
助余情趣可傾盃　나의 정취를 도우니 잔 기우림이 가하도다
抱枝競唱宜淸爽　가지 안고 다투어 창하여 서늘함이 마땅하고
吸露資生不染埃　이슬 마셔 생활하니 티끌에 물들지 않도다
長夏鳴之聲未歇　긴 여름 울음 울어도 소리 그치지 않으니
想應愛惜夕陽催　상상하니 응당 석양 재촉을 애석하는고야

澹軒 權熙文

又

聽蟬忽覺已秋開
壽老牽情沽酒來
奏曲槐林頻叩扉
吟歌柳閣却停盃
斑衣鮮羽眞奇物
翻眼明瞳不障埃
飮露生涯仙化像
可憐歲月日相催

매미소리 들으니 문득
가을이 열림을 깨달아
수하는 노인 정 끌려
술을 사오도다
곡조 타는 회화나무 숲
자주 사립문 두드리는데
읊은 노래 버들 정각
문득 잔 멈추누나
아롱진 옷 고운 깃 참으로
기특한 물건이라
번득이는 눈 밝은 눈동자
티끌이 개리지 못하는고야
이슬 마신 생애
선화의 형상인데
세월이 날로 서로
재촉함이 가련구나

草堂 鄭炳尹

又

聽蟬始覺伏炎開
蟋蟀蜻蛉共合來
絶曲善鳴人使樂
堅持五德潔無埃
岸林庭樹綠陰開
傾耳江亭問幾來
如管清音誰不樂
風流盡日豈停盃

매미소리 들으니 비로소
복더위 시작됨을 깨닫으니
귀뚜라미 잠자리
같이 합쳐 오누나
좋은 곡조 착하게 우니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
오덕을 굳게 지니니
깨끗하여 티끌 없네
언덕 숲 뜰 나무
녹음을 여니
강정가에 귀 기우리니
몇번 왔는지 묻노라
피리같은 맑은 소리
누가 즐겁지 않으리오
날이 다한 풍류
술잔 어찌 멈추리

翠松 金鎭泓

道山 朴喜穆

初秋

丙子年

梧葉先知落井辰　오동잎이 먼저 알어
初秋爽氣似初春　우물에 떨어진 때에
金風颯颯吹田野　초추의 서늘한 기운
流火熒熒照塞隣　초춘과 같다
入户新凉宜讀册　가을바람 삽삽차게
墻窓溫突可治身　밭과 들에 불고
勤農三夏功成際　흐르는 화성 번득 번득
五穀登豐粒粒珍　벌벙 이웃 비치누나
　　집에 드는 신량은
　　독서하기 마땅하고
　　창문 봉한 온돌
　　몸 다스림이 가하도다
　　삼하에 근농한 공
　　이룰 즈음에
　　오곡이 등등카니
　　일알이 보배로세

農隱 金義植

又

金風蕩暑辰　가을 바람이
爽氣勝花春　더위를 씻는 때라
嘉稻連千頃　선들한 기운
噪蟬亂四隣　꽃친는 봄보다 승하구나
草間吟露虫　아름다운 벼
窓下讀書身　일천이랑 열하고
益友相逢處　우는 메미
盃盤菜果珍　사방 이웃 어지럽구려
　　풀 사이
　　이슬 읊는 벌레오
　　창 아래
　　독시하는 몸이로다
　　유익한 벗
　　상봉한 곳
　　술상의 나물 과일
　　진미로세

柳斗烈

又

涼生炎老露寒辰
歲月如流過夏春
玉宇澄清三逕夜
林蟬亂噪四通隣
殘燈草屋宜親卷
錦枕暖房可養身
蕭瑟金風催稔熟
黃雲滿野秀穗珍

서늘함이 생기고 불꽃은
늙어 이슬 찬 때이니
세월이 흐름 같아
여름 봄 지났도다
옥우가 삼경밤에
증험하고
숲의 매미 사통한 이웃에
어지러이 우누나
쇠잔한 등 초목에
책을 침함이 마땅하고
비단벼개 따뜻한 방
몸 보양이 가하구려
소슬한 금풍이
풍년 익기를 재촉하니
들에 가득한 황운
빼어난 이삭 보배로세

維石 梁國喆

又

井梧葉落報秋辰
野稻黃登過夏春
林鳥倦飛楊柳岸
水禽時下荻蘆隣
涼風入戶宜親火
寒雷侵房可護身
暑退江亭傾美酒
味羞盛饌滿床珍

우물 오동잎 떨어져
가을 때를 알리는데
들벼가 누렇게 등용하니
여름 봄 지냄이라
숲의 새 양류 언덕에
게을리 날고
물새는 떼로
갈대 이웃에 내리누나
선들한 바람 집에 드니
등불 친함이 가하고
찬 이슬이 방에 침노하니
몸 보호함이 가하구나
서퇴한 강 정자에서
아름다운 술 기우리니
맛있고 성한 반찬
상에 가득 보배로세

守軒 姜龍鳳

又

時逢丙子百中辰 때는 병자년 백중 때를 만나
暑退凉生似孟春 서퇴하여 서늘함 나니 첫봄과 같구려
菜色惟青霜冷圃 나물빛은 오직 서리 찬 포전에 푸르고
虫聲尚亂月明隣 벌레소리 오히려 달 밝은 이웃에 어지럽도다
蟬逢霽日長鳴樹 매미는 개인 날 만나 나무에서 길게 울고
蜂備嚴冬不怠身 벌은 엄동 준비에 몸 게으리지 않네
百果雜雜方欲熟 백과가 주렁주렁 바야흐로 익어가는데
登豐五穀盡成珍 등글한 오곡 다 보배 이루었도다

錦峰 吳龍根

又

蕭瑟金風漸瀝辰 소슬한 가을바람 석연한 때에
江山清景勝於春 강산의 맑은 풍경 봄보다 승하구려
藤林蝶舞探千徑 등숲의 나비춤 일천길 덮고
槐木蟬歌動四隣 회화나무 매미노래 사방 이웃을 움직이누나
刈草牧童忙豢犢 풀을 베는 목동은 송아지 먹이는데 바쁘고
投竿漁老逸閒身 낚시대 던진 어부 한가한 몸이로다
一生虛送長嘆悔 일평생 허송을 길이 탄식하고 후회하니
修養何時席上珍 어느때 수양하여 자리의 보배일고

翠松 金鎭泓

又

節序於焉七月辰　절서가 어느듯 칠월 때라
秋天景色勝於春　가을하늘 경색이 봄보다 승하도다
田野蕎花蝶舞隊　전야의 메밀꽃 집과 이웃을 수풀은고야
沙洲葭岸絮飄江渚　모래 물가 갈대꽃 강가에 나부끼고
玉露霑來愁冷蟋　옥이슬 젖어 오니 넝기 근심하는 귀뚜라미요
金風吹到感寒身　금풍이 불어오니 몸이 차거움 느끼는고야
年年豐作人皆願　해마다 풍작을 사람이 다 원함이라
招友相談酒味珍　벗을 불러 상담하니 술맛 진미로세

顧巖 李成熙

又

蕭瑟金風滌暑辰　소슬한 금풍 더위를 씻는때라
江山秋景勝華春　강산의 가을 경색 화한 봄보다 승하도다
汀洲葭岸絮蜂歌遠　물가의 갈대꽃은 벌노래 멀어졌는데
田野蕎花蝶舞隣　전야의 메밀꽃은 나비춤 이웃이로다
院外翠篁凌雪氣　후원밖의 푸른 대는 눈을 능멸한는 기운이요
墻頭黃菊傲霜身　담장머리 황국은 서리를 오만하는 몸이로다
豚豚百果方紅熟　주렁주렁 백과 바야흐로 붉게 익으니
五穀登豐酒味珍　오곡이 등풍하여 술맛 진미로세

梅山 金鎭泳

又

炎老凉生節換辰　더위 식고 서늘함이 나는 환절의 때에
爽然一氣接心身　시원한 기운이 심신에 접하누나
詩壇月例如今續　시단의 월례회 이제 같이 계속하니
自遠朋來共四隣　멀리서 오는 벗 사방 이웃과 같이 하는구려

又

清江 朴龍德

夏去春來濟盡辰　여름 가고 가을 오니 장마도 다 될때에
爽然一氣接心身　시원한 기운이 마음과 몸에 다가오네
白蕃田野蜂歌近　메밀꽃 핀 들밭가엔 벌노래 가까웁고
紅蓼汀洲蝶舞隣　붉은 여뀌 물가에는 나비춤 한창일세

丙子年

仲秋

湖隱 金鍾敏

序屬三秋一過先　절이 삼추에 속한는데 하나 지낸 앞이라
溪魚林鳥總成群　시내물고기 숲새 모두 떼를 지어 이른누나
蟋鳴夕砌催砧杵　귀뚜라미 저녁 뜰에 울어 다듬이질 재촉하고
雁向南洲穿碧雲　기러기 남쪽 물가 향하여 푸른 구름 뚫는구려
爽氣連天千户寂　서늘한 기운 하늘에 연하니 일천호가 조용하고
楓光滿壑四山紋　단풍빛 구렁에 가득하니 사산이 무늬일세
蒼煙古木疎陰際　푸른연기 고목 성긴 그늘 즈음에
蟬送凄凉竟日聞　매미가 보내는 처량한 소리 날이 맞도록 듣누나

又

晩翠 梁炳朝

嘉俳名節最佳先　한가위 명절 아름다움 가장 앞이라
燕去鴻來各自群　제비 가고 기러기 오는데 각각 무리 짓는구려
蘆絮迎風飄白雪　갈대꽃 바람 만나니 흰눈이 나부끼고
野禾映日起黃雲　들의 벼 해에 비치니 노란 구름 이누나
一天皎潔河傾顯　한 하늘이 희고 깨끗하니 은하 기우러 나타나고
百果青紅樹帶紋　백과 풀고 붉어 나무는 무늬를 띠었도다
從古民生何所望　예로부터 민생이 무엇을 소망하는가
年豐國泰壤歌聞　해 풍년들고 나라 태평하여 격양가 들음이로세

又

雪松 李周鎬

每逢此節奉茶先　매양 이시절 만나면 선조에 차례를 받들고
酒友棋朋每作群　술벗 바둑친구 매양 무리 짓누나
潦盡千峰流白水　장마물 다한 일천봉에 하얀 물이 흐르고
野登五穀動黃雲　들에는 오곡이 익어 노란 구름 움직이누나
閒中情話心清雅　한가한 가운데 정담은 마음이 맑고 고운데
詩上忘機眼縝紋　시위에 기미를 잊으니 눈에 무늬가 현난하누나
歲月悠悠如一夢　아득한 세월 하나의 꿈 같으니
紛紜時事總無聞　분분한 시속일 모두 들음 없어라

又

春坡 梁炳夏

仲秋時節最佳先　중추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처음이라
處處人多觀賞群　곳곳에 사람 많으니 관상하는 군중일세
廣野千畦黃有浪　넓은 들 일천두덕 노란 물결이오
長天萬里碧無雲　장천만리에 구름없이 푸르도다
倍明倍白三更月　배나 밝고 배로 흰 삼경달이요
惟赤惟黃五色紋　오직 붉고 오직 누른 오색 무늬일세
轉輾不眠遊遠客　전전반측 잠 못이루는 멀리 노닌 객이
挑燈獨醉蟋聲聞　등불 돋우며 홀로 취하여 귀뚜라미 소리 듣누나

又

夏去秋來爽氣先　여름 가고 가을 오니 서늘한 기운이 먼저라
北天頻見雁行群　북쪽하늘에 기러기떼 자주 보이는고야
凄凉玉露染紅樹　처량한 옥 이슬 붉게 나무 물드리고
淅瀝金風散白雲　쓸쓸한 가을바람 흰구름 흐터지는구려
菊笑疎籬成彩畵　성긴 울타리에 국화 되니 채색 그림 이루고
蛩吟綠底作黃紋　벌레소리 무슨 연유로 밤새도록 찍찍거리나
催老人間不願聞　인간 늙음을 재촉이라 듣기원하지 않노라

小泉 金昌洙

又

東山明月感傷先　동산의 밝은 달 슬픈 느낌 먼저나니
痛恨生涯散別群　동한의 생애 이별한 무리로세
南霞融合北方雲　남쪽 노을 북방 구름 융합하는구나
夢遊故院愁心色　꿈속에 고향동산에 노니니 수심의 빛이오
醉步他關淚袖紋　취하여 타관을 걸으니 소매에 눈물 얼룩지네
三八分疆何日統　삼팔선 분단된 강토 언제 통일 될는지
兩親消息正難聞　양친 소식 정히 듣기 어렵도다

草堂 鄭炳尹

又

百松 姜大淑

追慕祖宗茶禮先　조상을 추모하여 차례 먼저 드리니
歸鄉旅客路成群　고향에 돌아온 나그네 손길에 무리 우루네
山容淡泊微過雨　산 용모 담박하니 가는 비 지났고
天氣蒼凉不見雲　하늘 기운 창량하여 구름 보이지 않누나
時屬佳辰新果熟　시절이 아름다운 때에 속하니 새과일 익고
夜親燈火古書紋　밤에 등불을 친하니 옛글의 무늬로세
團團皓月千家燭　두렷한 흰 달이 일천집의 촛불이라
疑是廣寒仙笛聞　의심컨데 광한전 신선의 피리소리 들는듯 하구려

又

吳秉權

仲秋月夕共爲先　팔월 추석 다같이 성영 위하나니
滿砌蠭斯振振群　뜰에 가득한 자즌 짚진한 무리구려
耕者力田皆謂稔　농사꾼 전답 노력 다 풍년이라 이르고
學徒開講集如雲　학생들 개강하니 구름같이 모이누나
巢禽穴獸肥惟飽　둥지새 굴짐승 살찌고 또 배불려
野稻江楓艷又紋　들벼와 강단풍 곱고 또 무늬로세
蚤聲不絶耳傾聞　바람 가늘고 하늘 높은 그대와 나 한자리에
愚東　귀뚜라미 소리 끊이지 않아 귀를 기우려 듣노라

丙子年

晚秋

農隱 金義植

落木寒天野色蕭　낙목한천에 들빛이 쓸쓸하니
江山寂寞夜遙遙　강산은 적막하고 밤은 오묘이 길도다
蟲音濕露凄凉切　벌레소리 이슬에 젖어 처량함 간절하고
雁陣穿雲伴侶招　기러기떼 구름 뚫으며 반려를 부르는구려
當節黃花宜促發　철을 만난 황화는 마땅이 피기를 재촉하고
衰年白髮自然消　쇠년의 백발 자연 사라지니
九秋感想何須說　구추의 감상을 모름지기 어찌 말하리
時序循環理有昭　시절의 차서 순환 이치 소연하게 있도다

又

慎菴 韓龍福

浦湘江上雨蕭蕭　소상강의 비 소소히 내리니
候雁嗈嗈萬里遙　옹옹하는 철 기러기 만리 멀도다
賞楓客子以文招　단풍 구경하는 손 글로서 부른구려
琴書聲裡千愁滅　서문고 글소리속에 일천 근심 없어지고
菊酒盃中百惱消　국화주 잔 가운데 온갖 번뇌 사라지누나
當此良辰詩友集　이 좋은 때를 당하여 시우들 모이니
蠻堂窓外日光昭　서당집 창밖에 날빛이 밝도다

又

秋晚江山冷又蕭 가을 늦은 강산 차고 또 쓸쓸한데
感時士女自逍遥 때에 느낀 사녀 스스로 소요하누나
燕群隨節江南去 제비 무리 철 따라 강남에 가고
雁陣驚寒塞北招 기러기 떼 참에 놀라 새북에 부르는구려
楓樹燃紅千景起 단풍이 붉게 불타니 일천 경치 일고
黃花酒醉萬愁消 국화주에 취하니 일만 근심 사라지누나
汀霞飄絮紛紛雪 물가 갈대꽃 나부치니 분분한 눈인데
日落山村夕月昭 해진 산촌에 저녁달 밝구려

小泉 金昌泳

又

長夜山窓落未蕭 긴밤 산창에 낙목이 소소한데
鴻來燕去兩相遥 기러기 오고 제비 가니 둘이 서로 멀도다
時惟重九黃花笑 때는 오직 중양이라 노란꽃 피고
序屬楓辰赤葉招 철이 단풍철에 속하니 붉은 잎을 부르누나
蟋蟀露凝聲有亂 귀뚜라미 이슬 엉키니 소리 어지럽게 나고
蟬蜩霜降跡無消 매미 서리 내리니 자취없이 사라지누나
以文會士吟觴樂 글로써 모인 선비 읊고 마시며 즐기니
古廟庭前白日昭 옛 사당 뜰앞에 흰날 밝도다

龍山 朴在雨

百松 姜大淑

又

寒天落木正蕭蕭 한천의 낙목이 정히 소소한데
煙鎖江村千里遙 연기 잠긴 강촌 십리에 멀도다
序屬重陽黃菊笑 절이 중양에 속하니 황국이 피고
時維霜降晩楓招 때는 오직 상강이라 늦은 단풍이 부르는고야
山容淡泊金風動 산 모습이 담박하니 금풍이 불고
日氣蒼涼暮靄消 일기 창량하니 저문 놀을 사라지는구려
歲月無情催白髮 무정한 세월 백발 재촉하니
循環不息化功昭 쉬지않고 순환하는 조화 공이 밝도다

翠松 金鎭泓

又

晩秋景色蕭 늦은 가을 경색 소소한데
處處客逍遙 처처에 소요하는 객이로세
黃菊詩情活 황국은 시의 정이 활발한데
丹楓逸興招 단풍이 일흥을 부르는구려
時遷人易老 때가 옮기니 사람 쉽게 늙고
物換歲將消 물태 바뀌니 해가 장차 사라지누나
日暮歸何去 날이 저므니 장차 어디로 돌아 갈까
山頭落照昭 산머리에 낙조가 밝도다

又

晚秋景色正蕭蕭 늦은 가을 경색이 정히 쓸쓸하니
霜冷風高夜漸遙 서리차고 바람 높아 밤이 점점 길도다
滿砌黃花因客住 뜰에 가득한 국화 인하여 객을 머므르고
染山紅葉更人招 산 물들인 붉은 잎 다시 사람 부르는구려
燈邊搗練砧聲亂 등불가 다듬에 마전하는 다듬이 소리 어지럽고
林下飛鴈傷世味消 숲 아래 잔 날리니 세상 맛 사라지는구려
月例詩朋多會席 월례로 시붕 많이 모인 자리에
論情忘覺月星昭 정을 논함에 달과 별빛 밝음을 망각하도다

道山 朴喜穆

又

序屬三秋氣正蕭 시서가 삼추에 속하니 기후 정히 쓸쓸한데
吟詩出洞自逍遙 시 읊으며 동구에 나와 스스로 소요하는고야
淡雲月下霜風起 맑은 구름 달 아래 서리바람 일고
孤雁聲中夜色招 외로운 기러기 소리 가운데 밤빛을 부르는고야
耽讀經書君意靜 경서를 탐독한 그대 뜻 조용하고
賞來楓菊我煩消 단풍 국화 구경하여오니 나의 번뇌 사라지도다
重陽此節君吾樂 중양 이 시절에 그대와 나 즐기니
白酒相傾舊情昭 흰술 서로 기우리니 옛정이 밝구려

栗堂 崔鍾植

春坡 梁炳夏

又

晚秋百感正蕭蕭　늦은 가을 온갖 느낌 정히 쓸쓸한데
漠漠蒼空雁陣遙　막막한 창공 기러기 떼 멀구려
霜打東籬黃菊笑　서리가 동쪽 울타리 치니 노란 국화 피고
登豐槿域泰平昭　무궁화 강산에 등등하니 태평이 밝도다

又

守軒 姜龍鳳

霜風一夜葉蕭蕭　서리바람 하루밤에 낙엽이 소소하니
萬壑千山景色遙　만학 천산 경색이 멀도다
黃菊丹楓時正好　황국 단풍 때가 정히 좋으니
香醪方熟友朋招　향기 난 막걸리 바야흐로 익어 벗을 부르는구려

初雪

丙子年

湖隱 金鍾敏

雪飛大陸北風高　눈 흩날리는 대륙에 북풍이 불아
積白江山路塞皐　백설이 강산에 쌓여 길 막힌 언덕일세
冷氣來沈凝凍樹　냉기가 와 침노하여 나무에 엉키어 얼고
苦寒奮襲結氷濤　괴로운 한기 엄습하여 물결이 얼음을 이루도다
鷄成竹葉行庭啄　닭은 대잎을 이루면서 마당에 거닐며 쪼으고
狗作梅花走野豪　개는 매화를 지음하여 힘차게 들로 달리누나
世上誰爲真孝子　세상에 누가 참으로 효자가 되었는가
奉親多日願天桃　봉친하는 많은 날 천도를 원하였으리

又

農隱 金義植

形雲密布朔風高　형운 밀포하고 삭풍 높은데 동운이 빽빽히 퍼지고 북풍이 불아
白雪紛紛覆九皐　백설 분분하여 구고를 덮는구려
後院花開林滿朶　후원에 꽃 피니 숲에 송이 가득하고
前溪氷合水無濤　앞 시내 얼음 합쳐 물이 물결 없도다
騎驢灞上過橋興　나귀 탄 패수 위 다리 지난 시흥이요
憶友山陰發棹豪　친구 생각 산음 밤 돛대 출발하는 호기심일로다
縞素乾坤如上世　희고 깨끗한 건곤 상고 세상 같으니
人間何處武陵桃　인간 어느곳이 무릉도원인가

又

慎菴 韓龍福

塞北寒波急上高
紛紛玉屑積如皐
結氷路面如明鏡
忽地風聲似怒濤
掩户篤工惟學士
孤舟獨釣是眞豪
千峰萬壑皆花界
猶勝陽春李與桃

새북의 한파 고도로 급상하니
분분한 옥가루 얼댁같이 쌓이누나
얼음 언 로면은 맑은 거울 같고
문득 땅에 바람소리 성난 황도 같구려
문을 닫고 독공하니 오직 학사오
외로운 배 홀로 낚시하니 참으로 호걸이로다
천봉 만학이 다 꽃세계라
양춘의 이화와 도화보다 오히려 승하고녀

又

晩翠 梁炳朝

山窓雪樸朔風高
池池紛紛積似皐
後院作花粧樹木
前溪凍結靜波濤
乾坤縞素詩心潔
晝夜酣眠酒力豪
會坐爐邊來歲夢
解氷他日種仙桃

산창에 눈 때리는데 북풍이 높아
설설하고 분분하여 어덕같이 쌓이누나
후원에 꽃 지으니 수목이 단장하고
알 시내 동결하니 화도가 고요하구려
건곤이 호소하니 시의 마음 조촐하고
주야로 달게 자는 것은 술의 힘이 호대함이로다
화로 가에 모여 앉아 오는 해의 꿈은
해동하는 그날 신선 복숭아 심는것일세

又

小泉 金昌泳

形雲一夜滿天高　붉은 구름 하루밤에 온통 하늘 가득하여
雪積無分遠近巢　눈이 원근 언덕 분간없이 쌓이는고야
着地繽紛如玉屑　빈분하게 착지하니 옥가루 같고
飄風搖亂似波濤　바람에 요란하게 나부끼니 파도 같구려
平鋪山野封塵穢　산야에 평평하게 펼쳐 더러운 티끌 덮고
倍白書窓養士豪　배로 흰 서창 호걸 선비 양성토다
像似春花粧萬樹　형상이 봄꽃 일만나무 단장함 같으니
東園復見李兼桃　동쪽 동산에 다시 이화 도화 보누나

又

龍山 朴在雨

釀雪乾坤冷氣高　눈을 빚는 건곤에 냉기 높으니
紛紛散落通遐巢　분분이 흩터지 멀고 가까운 연덕에 쌓이는구려
枝枝花發粧園樹　가지 가지 꽃이 피니 동산 나무 장식하니
谷谷風過起窒濤　골골이 바람 지나가니 구렁 물결 이누나
訪友灞橋驢盡力健　패교에 벗을 심방하니 나귀 힘 건강하고
詠詩竹榻酒情豪　죽탑에 시 읊으니 술정이 호매하도다
太平聖代無斯外　태평성대 이밖에 없으니
安宅何關辟鬼桃　편안한 집에 잡귀 물리친 도화 무슨 상관이리오

又

六花散落自天高 눈꽃이 노표은 하늘로부터
一夜江山換白皐 하루밤 강산이 흰언덕으로 바꾸었구려
針葉松杉粧玉樾 침엽수 솔과 삼나무 옥빗 장식하고
垂絲楊柳作銀濤 실 드리운 양류 은물결 짓도다
雲歸萬壑風聲壯 구름 돌아간 만학에 바람소리 웅장하고
日暮千林冷氣豪 날 저문 일천숲 벙기 호대하구나
無數兒童氷上樂 수없는 아이들 얼음위에 즐기니
夭夭顔色似紅桃 곱고고운 안색 홍도화 같구려

翠松 金鎭泓

又

紛紛雪下自天高 분분한 백설 높은 하늘로부터 내리니
一夜江山不辨皐 하루밤 강산 언덕 분별 못하는고야
檐澤三更光地月影 처마 고드름 삼경에 달 그림자 빛나고
霧凇萬壑動風濤 일만 구렁 안개송에 바람물결 동하누나
庭前粧飾梨花爛 뜰앞에 배꽃 난만하게 장식하고
院裡春開百樹豪 동산속 봄이 열려 온갖 나무 호화롭도다
縞素乾坤眞勝境 호조한 건곤 참으로 승경이라
恰如別界武陵桃 별천지 무릉도원 흡사하네

草堂 鄭炳尹

又

形雲釀雪朔風高　붉은 구름 눈을 빚는데 삭풍이 높아
一夜連成盡看户砌　하루밤 연속 흰 구슬 얻덕 이루누나
野老占豐柴戶坐　들노인 집 뜰을 보아 풍년 점치고
柳翁獨釣客波濤　류종원 늙은이 홀로 파도에 앉아 낚는구려
氷垂北岳詩心壯　북악에 얼음 드리우니 시심이 웅장하고
月出東山酒興豪　동산에 달 뜨니 술 흥 호대하도다
誰道冬天無景色　누가 겨울 하늘 경색 없다 일렀는가
勝於白李與紅桃　흰 오얏 붉은 복숭아보다 승하구려

清江 朴龍德

又

點點飄飄亂下高　점점이 나부껴 어지러이 높은데서 내리어
俄來北野復南皐　아잣는 북쪽 들에 오드니 다시 남쪽 언덕이로다
雲收草屋垂簷澤　구름 거친 초옥에 처마 고드름 드리우고
月照風窓起影清　달 비친 바람창에 물결 그림자 일도다
樹樹開花何少興　낱낱마다 꽃 피니 어찌 흥이 적으며
家家堆玉不貪豪　집집마다 옥이 쌓여 가난치 않은 호부로세
冬天雪朶粧枯樹　겨울하늘 눈송이 말은나무 단장하고
如睹春三李杏桃　춘삼월 오얏꼬ᄎ 살구꽃 복숭아꽃 본듯 하구려

遠波 朴洙燮

又 春坡 梁炳夏

紛紛玉屑尺餘高 분분한 옥설이 한자 남짓 높으니
散積山川遠近皐 산천 원근에 흐터져 쌓이는구려
東閣寒梅香欲吐 동각의 찬 매화 향기 토하고자 하는데
賞來雪景勝紅桃 설경을 구경하여 오니 붉은 봉숭아보다 승하네

又 守軒 姜龍鳳

霏霏初雪下空高 펑펑한 첫눈 높은 공중에 내리니
一夜江山玉屑皐 하루밤 강산이 옥가루 얻덕일세
氷上兒童相競走 얼음위 아이들 서로 경주하는데
蟄居蜂蝶夢春桃 칩서한 봉접 봄 복숭아꽃 꿈꾸리

歲暮

湖隱 金鍾敏

絃笙處處太平歌　설문고와 피리 처처에 태평가라
歲暮當前老悔多　세모가 앞에 당하니 늙은 뉘우침 많도다
驛吏待街交替馬　역리는 거리에 교체할 말 대기하고
漁夫向岸艤歸河　어부는 언덕 향하여 하수 건널 배 대었네
征娥計日望尤切　군인간 아낙네 날자 계산에 바램이 더욱 간절하고
旅客思鄕夢不和　나그네 고향생각에 꿈 화하지 못하리
送舊迎新無幾日　송구영신이 몇날 없으니
兒孫相聚感如何　자손들 서로 모이믿 느낌이 어떠할고

又

慎菴 韓龍福

望鄕處處動鄕歌　고향 바라보는 곳곳에 고향노래 동하니
此歲將終悔悟多　이해 장차 마치니 뉘우치고 깨달음 많도다
添齒無端增白髮　나이를 더 하니 무단이 백발 더하고
送年尤切待黃河　헤를 보내며 더욱 황하 맑음 기다려지네
屠蘇酒釀芬發　도소주 빚어 분방의 향기 발하고
新服針房妯娌和　새옷 바느질 방에 동서간 화목하누나
歲月無情今欲暮　무정한 세월 이제 저물고자 하니
越南民恨復如何　월남민의 한을 다시 어찌하리

晩翠 梁炳朝

又

旅窓長夜唱鄉歌　나그네 창 긴밤에 고향노래 부르는데
虛度年光感想多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생각하니 감상이 많도다
椒酒頻傾忘世事　후추술 자주 기우려 세상 일 망각하고
雪花滿發繡山河　눈꽃이 만발하여 산하를 수 놓은듯
南韓政策行仁德　남한의 정책은 인덕을 행하는데
北傀兇獰背峯和　북괴는 흉녕하여 평화를 배반하누나
陰極陽生氷漸解　음이 극하면 양이 생하여 점점 하나니
玉梅消息問如何　옥매화 소식 묻노니 어떠한가

湖雲 權興玉

又

又當歲暮動筆歌　또 세모를 당하니 필리 노래 동하니
回憶今年悔事多　금년을 회상하니 뉘우친 일 많았구려
月魄無痕迷宇宙　달 넋이 흔적없어 우주가 혼미하고
雪風有氣凍山河　눈바람 기운 있어 산하가 얼었도다
南行仁政民安堵　남한은 인정을 행하니 백성이 안도하는데
北事兵戈世不和　북한은 전쟁을 일 삼으니 세상이 불화로구려
流水光陰如石火　유수 광음이 석화 같으니
一無行績老衰何　헝적 하나도 없이 노쇠함을 어찌하리

又

臘宵誰唱送年歌　설밤에 누가 송년가를 부르는가
多事多難又喜多　다사다난하고 또 기쁨도 많었구려
夜久高樓翻玉露　밤이 오래니 높은 다락 옥이슬 번득이고
天寒廣野結氷河　하늘 찬 넓은 들 냉한을 맺었도다
維南行樂由仁政　오직 남은 행락하니 인정에 연유함인데
以北非情不統和　이북은 인정이 아니어서 통화되지 못한는구려
四序方終來歲近　사시절이 바야흐로 마치고 오는 해 가장우니
歸鴻消息問如何　돌아온 기러기 소식 묻노니 어떠한가

春坡 梁炳夏

又

歲情難忘詠而歌　세정을 잊기 어려워 읊고 또 노래하는데
萬感交生悔慨多　만감이 섞여 나니 회개심 많도다
流水光陰如過客　유수 광음은 과객 같고
紅塵世事似黃河　붉은 티끌 세상사 황하 물 같도다
凌寒翠竹誇貞節　찬것을 능멸한는 푸른대 정절 자랑하고
放馥新梅待氣和　향기 방출하는 신매화 기후 화평을 기다리누나
童子不知人老去　어린아이는 사람 늙어감을 모르고
指端計日問餘何　손가락끝으로 날자 세며 얼마 남었나 묻는구려

小泉 金昌洙

又

題爲歲暮韻呼歌 글제를 세모라 하고 운을 가자 불렀는데
頭上添齡去多 두상에 나이를 더하니 해 감이 많구려
簟茨臘天餘數葉 책력 설하늘에 두어잎 남어 있고
朔風雪夜凍千河 삭풍은 설야에 일천하수 얼구누나
送迎處處談懷想 보내고 맞은 곳곳에 회상을 말하고
歸省家家有豢和 귀성한 집집에 평화 있도다
一事無成身已老 한가지 일도 성사 없이 몸은 이미 늙었으니
與人對面愧心何 남과 더부러 대면할 제 부끄러운 마음 어찌할고

錦峰 吳龍根

又

臘宵獨酌咏而歌 섣밤 홀로 마시며 읊고 노래하는데
醉作紅顏感想多 취하여 홍안을 지으니 감상이 많도다
子女歸鄉穿雪路 자녀가 귀향함에 눈길을 뚫고
夫妻携手渡氷河 부부가 손잡고 빙하를 건너는구려
祖孫對面心安樂 조손이 대면하니 마음 안락하고
姑婦相逢氣自和 고부가 서로 만나니 기분 절로 화하누나
去日不來來日去 가는 날은 오지 않고 오는 날은 가니
催人白髮勢無何 사람의 백발 재촉하는 형세 어찌 할수 없네

草堂 鄭炳尹

又

送年白髮獨吟歌　해를 보낸 백발 홀로 읊고 느려하니
除夜當前感想多　제야가 앞에 당하여 감상이 많도다
臘雪紛飛粧枯樹　섣눈이 어지러이 날아 마른나무 장식하고
朔風凍結作氷河　삭풍이 동결하여 빙하를 지었구려
子孫携手歸鄉樂　자손들 손 잡고 고향 돌아와 즐기고
父母開顔滿室和　부모 낯빛을 열어 온집안 화목하도다
七十人生餘幾許　칠십 인생이 얼마나 남었는가
無情歲月不停何　무정세월 멈추지 않음을 이찌하리

翠松 金鎭泓

又

曆書將盡動鄉歌　책력 장차 다하여 고향노래 동하니
東海寒波歲幾多　동해의 찬파 몇가 얼마나 남었는가
玉兎迎新明萬里　옥토 해 새로 맞아 만리에 밝은데
金蟾當晦隱千河　금섬 달 그믐 당하여 일천하수 숨는구려
咏詩叙景招吾輩　시 읊어 경치 펼치는데 나를 불러 즐겁고
對酌清遊與子家　대작하는 맑은 놀이 그대와 더부러 화평토다
住杖城頭山日暮　지팡이로 성머리에 멈추니 산 날지문데
望中仙境碧溪斜　망경중의 신경 벽계는 어머한고

松山 梁炳文

又

年豐國泰動絃歌　년풍하고 국태하니 줄고래 등한는데
歲暮還鄕客子多　한해가 저므니 환향한 객자 많구려
瑞雪滿山開玉開　서설이 만산하니 옥세계를 열고
寒氷結野作銀河　찬 얼음이 들에 멎어 은하를 짓누나
壎篪堂上弟兄樂　우애하는 당상에 형제 담락하고
春杵琴中夫婦和　방아 찧는 거문고 소리 부부가 화하도다
送舊迎新交萬感　송구영신에 만감이 교차하니
不成素志嘆如何　평소 뜻을 이루지 못함을 탄식한들 무엇하리

遠波 朴洙燮

跋

우리가 어릴 적에는 村村書堂이요 家家文章이였다。 淸談이였다。 더구나 이 地域은 山紫水明하고 樓臺水石이 많아 보고 듣는 것이 詩가 되고 노래가 되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事情이 달라졌다。 兒童은 入試地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靑壯年은 앞다퉈 都市로 떠나 沙漠아닌 沙漠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眞正 사람사는 世上이라 할 수 있겠는가?

弊詩會는 이래서 創社된 것이다。 祖上의 얼을 이어 情緖를 淳化하고 이를 後代에 물려줄 責任을 痛感하고 하나 둘 自然스레 모여진 것이다。

그동안 年輪이 쌓이면서 客地에 나가신 分도 合流하고 或은 隣邑有志도 同參해주셔서 盛會를 이루게도 遺失되었고 여기에 모아진 것은 再會 以後에 不過하지만 言志의 根本精神은 잃지 않으려 作品中에서 간추린 것으로 비록 字會에 簡單하게 所感을 쓴다。

一九九七年 丁丑 十月 日

總務 朴 喜 穆

財務 朴 龍 德 謹識

任員錄

第一回庚申三月　日

會長　金　慶
總務　吳　治　滉

第二回庚午三月　日

會長　梁　因　喆
總務　吳　治　滉

己上詩稿逸

第三回甲戌正月　日

會長　梁　炳　朝
總務　朴　喜　穆
財務　朴　龍　德

會員名單

姓名	雅號	本貫	生年	子	住所
金鍾敏	湖隱	金寧	壬寅	大泳	長水郡 長溪面 長溪里 新洞 T 三五一－〇一〇九
陸重基	芝汀	沃川	甲辰	寅洙	全州市 德津區 松川洞 一街 二六 T 三五四－二〇〇九
仙 金會慶	愚堂	咸昌	丁未	在	長水郡 溪南面 好德里
金義植	農隱	錦山	己酉	炳錫	長水郡 山西面 鶴仙里 T 三五一－二九六五
仙 梁因喆	德菴	南原	庚戌	奎丁	長水郡 溪南面 華陽里 T 三五一－一〇三〇
韓東錫	愼菴	清州	癸丑	良洙	全州市 德津區 金岩洞 二街 七一 T 三五一－一八〇一
仙 安鍾默	東谷	廣州	甲寅	正洙	全州市 德津區 鎭北一洞 三四七 T 七四－三〇六五
梁炳朝	晩翠	南原	乙卯	浣喆	長水郡 長溪面 長溪里 二一八 T 三五二－〇九七三

權興玉	李周鎬	吳泳根	梁炳夏	趙寅熙	仙	陸鍾塡	白日寅	仙	權熙文	金昌泳	仙 李奉雨
湖雲	雪松	月洲	春坡	雲波	元山	晩亭	濬軒	小泉	栢軒
安東	寧川	海州	南原	漢陽	沃川	水原	安東	金海	全州
乙卯	乙卯	乙卯	丙辰	丙辰	戊午	戊午	己未	己未	己未
長熙	浚泰	秉權	尙均	庸準	在洙	亨權	正周	東文	哲珩
長水郡 山西面 五山里 T 三五一－四一〇〇									
南原市 鄕校洞 一九〇－六 T 六二五－四四四五									
長水郡 潘岩面 林信里 T 三五三－三三九五									
長水郡 溪南面 華陽里 T 三五二－〇九七七									
長水郡 山西面 白雲里									
長水郡 山西面 馬下里 T 三五一－四〇二六									
長水郡 長水邑 安陽里 T 三五一－二七九一									
長水郡 山西面 五山里 T 三五一－三六四三									
全州市 德津區 松泉洞 漢陽A 八〇六號 T 二五二－三六五六 一〇七棟									
長水郡 山西面 新昌里									

吳龍根	朴在雨	梁麟洙	鄭炳尹	李成熙	金鎭泓	梁錫鎬	吳治湟	朴喜穆	柳斗烈
錦峯	龍山	魯史	草堂	顧岩	翠松	三南	三虛	道山	剛泉
羅州	潘南	南原	瑞山	慶州	慶州	南原	寶城	密陽	文化
庚申	庚申	壬戌	癸亥	乙丑	丙寅	丁卯	丁卯	戊辰	己巳
秉烈	天翼	根榮	錫永	在學	一漢	奇永	봉杓		志盈

南原市 阿英面 九相里
T 六二六-〇二一六
茂朱郡 安城面 斗文里
T 三二三-〇九四八
全州市 牛牙洞 럭키A 七棟 二
T 二五二-八八一〇
長水郡 長溪面 長溪里 南洞
T 三五二-〇二七一
任實郡 任實邑 城佳里
T 四二-二八一九
長水郡 溪北面 梅溪里
T 三五二-一二五七
長水郡 溪南面 薪田里
T 三五二-〇九五五
長水郡 山西面 桐花里
T 三五一-三六三一
長水郡 溪北面 梅溪里
T 三五二-一二二六
長水郡 溪南面 西華陽里
T 三五一-〇二五六

八〇二號

梁炳文	朴龍德	梁國喆	崔鍾植	金鎭泳	朴洙燮
松山	清江	維石	栗堂	悔山	遠波
南原	密陽	南原	全州	慶州	忠州
庚午	庚午	庚午	辛未	癸酉	癸未
京喆	準成	鍾球	在圭	相燁	光根

水原市 勸善區 勸善洞 성지A 一〇五棟
二〇二號 T 三八-三
長水郡 溪北面 林坪里
T 三五二-一三七〇
長水郡 溪南面 華陽里
T 三五二-一二一四
長水郡 溪南面 薪田里
T 三五一-〇八五四
長水郡 長水邑 長水里
T 三五一-二一六三
長水郡 溪南面 西堯田里
T 三五一-〇八七六

碧溪詩稿

印刷 : 一九九七年 十二月 二十日
發行 : 一九九七年 十二月 二十日
著者 : 碧溪詩會
發行處 : 長水文化院
發行者 : 金鎭泳

印刷處 - 仁文出版社
(〇六五二) 八八一三〇〇二
(FAX) 八三一三七五〇

郡費 補助에 依해 이 冊을 發行함